

연구총서 2002-10

•

김정일 연구(Ⅱ):
분야별 사상과 정책

통 일 연 구 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머리말

통일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서 2개년 사업으로서 2001년과 2002년 「김정일 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두가지였다. 첫째, 「김정일 선집」총 13권을 CD 자료화 하는 작업, 둘째, 김정일의 리더쉽에 대한 연구, 「김정일 선집」의 여러 문건에 나타난 각 분야별로 김정일의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1차 연도 사업의 결과로, 「CD-Rom 김정일 선집」(통일연구원, 2001)와 「김정일 연구: 리더쉽과 사상(I)」(통일연구원, 2001)이 출판되었다. 2차 연도인 2002년에는 「김정일 선집」에 나타난 각 분야별 정책 방향 연구를 지속했다. 그 결과가 여기의 「김정일 연구(II): 분야별 사상과 정책」이다.

「김정일 연구(II)」는 「김정일 연구(I)」에서의 편집 및 집필 방향에 기준하여, 그에 대한 보완 및 심화 연구로서 기획되었다. 「김정일 연구(II)」는 「김정일 연구(I)」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여러 주제에 대한 연구가 실려있다. 따라서 「김정일 연구(II)」는 「김정일 연구(I)」과 편집과 내용에서 하나의 기획물로 간주될 수 있다. 「김정일 연구(II)」에 수록될 논문의 기획과 집필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기초했다.

1. 「연구서」는 CD-Rom에 수록될 각 분야의 김정일 문헌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면서 여러 분야에 관한 김정일의 사상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집대성하고자 하므로 각 분야에 대한 김정일의 구체적 인식 사고에 초점을 맞춘.
 - 김정일 인식, 사고를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징을 독자들에게 충실히 소개하고, 그것의 발생배경 및 현실과의 비교 등 분석을 행함.
 - 김정일의 특정 사고가 원전의 어느 곳에 잘 나타나 있는지 적시

함으로써 독자들이 필요할 경우 CD-Rom를 찾게 함.

2. 집필자가 다루어야 하는 내용의 범위는 논문 제목 및 괄호 표시에 나열된 주제를 기준으로 함.

- 집필자는 해당 주제와 관련한 김정일 선집의 관련 문헌 및 북한의 여러 해설 자료를 필히 참고하고, 명시해야함.
- 각 집필자가 분석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김정일 선집의 관련 문헌은 이교덕의 「김정일 선집 분석」(통일연구원, 2001)의 '주제별 문헌 분류'(109~157쪽)를 기준으로 함. (각 집필자는 필요에 따라 다른 여러 문헌을 활용할 수 있음)

3. 집필분량은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되, 논문 형식을 따름.

물론 여기에 수록된 여러 연구 논문은 위와 같은 원칙은 각 주제별 특성, 연구자의 선호도 등의 요인 때문에 집필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해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크게 보아 기획의도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북한에 대한 기초 연구에 기여하면서, 특히 김정일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여기의 수록된 여러 논문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2002. 12.

- 목 차 -

제 1 부 정치 분야

I. 주체사상과 사상사업	서재진
1. 문제제기	1
2. 주체사상의 계승발전	2
3. 유일사상체계의 형성과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통제	6
4. 사업작풍에 대한 통제	11
5. 체제붕괴 위기에서 간부들의 체제이반 통제	17
6. 맺음말	23
II. 수령관	김창근
1. 서론	25
2. 중심·뿌리·핵	26
3. 위대·은혜·영생	33
4. 결론	41
III. 사법관	김창근
1. 서론	43
2. 사법검찰사업	45
3. 사회주의법무생활	49
4. 사회안전사업	52
5. 결론	55

IV. 당과 각급 당조직의 지위와 역할	박형중
1. 서론	57
2. 당의 역사 및 이론	58
3. 당중앙위원회 부서의 지위와 역할	62
4. 중앙기관의 당조직	67
5. 도, 시, 군당	70
6. 결론	77

V. 당운영론	최진욱
1. 서론	79
2. 당조직	80
3. 생활지도	85
4. 간부사업	88
5. 당일군의 자세	95
6. 결론	98

제 2 부 경제 분야

VI. 김정일의 경제건설론	김영운
1. 서론	102
2. 경제건설의 과제	103
3. 경제건설과 재정금융	110
4. 경제건설의 실천적 방법	115
5.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존 문제	118
6. 경제건설상의 문제	122
7. 결론	133

VII. 김정일의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	임강택
1. 서론	134
2. 개혁·개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135
3. 개혁에 대한 주요 부문별 인식	148
4. 최근의 변화 움직임과 개혁·개방의 가능성	156

제 3부 군사외교

VIII. 군사론	158
1. 서론	158
2. 북한군의 기본 성격	160
3.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	162
4. 개인지배의 사회주의체제 수호자	167
5.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위대	171
6. 결론 : 김정일의 군사 인식의 기저	176

제 4부 사회·문화

IX. 근로단체·청년·여성	임순희
1. 서론	181
2. 근로단체	182
3. 청년	190
4. 여성	199
X. 김정일의 교육과 인텔리혁명화에 대한 인식	김수암
1. 서론	206

2. 교육관	207
3. 인테리정책 및 온 사회의 인테리화	220
4. 결론	232
XI. 김정일의 일상생활관	조한범
1. 사회주의체제의 일상생활과 인성	234
2. 북한의 일상생활	238
3. 김정일의 일상생활관	241
4. 결론	260
XII. 김정일의 영화·연극·가극	이우영
1. 머리말	262
2. 김정일 문예정책의 특성과 변화	263
3. 김정일의 영화관	269
4. 김정일의 연극관	277
5. 김정일의 가극관	283
6. 맺음말	290
XIII. 음악·무용·미술·건축	잔영선
1. 서론	292
2. 음악	294
3. 무용	301
4. 미술	307
5. 건축	315
6. 결론	321

제 5 부 통일

XIV. 재일총련과 동포	진희관
1. 서언	324
2. 김정일의 총련관과 총련의 위상	325
3. 맺는말	348

제 6 부 총괄분석

XV. 「김정일선집」문헌의 변화 연구 -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주철
1. 「김정일선집」의 문헌 구성	350
2. 「김정일선집」의 담화·연설 대상 분석	357
3. 「김정일선집」의 부문별 주제 분포와 변화	367
4. 맺음말	382

I. 주체사상과 사상사업

서재진(선임연구위원)

1. 문제제기

김일성에게 있어서 최초 권력의 획득은 소련의 지원 하에 가능했듯이 김정일의 경우도 최초 권력에의 접근은 자기 아버지 김일성의 지원으로 가능했다. 그런데 일단 소련의 지원으로 권력을 잡은 김일성이 자기 권력으로 공고화해간 것은 자신의 몫이요, 자신의 능력으로 일구어낸 것이듯이 김정일도 유리한 고지에서 권력에 접근했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은 자신의 몫이요 자신이 일구어낸 것이다.

김정일이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데 직면한 두가지 주요 문제적 상황 중에서 하나는 정치에 입문한 1960년대 중반 당시의 권력지형으로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에 대한 경쟁세력과 도전세력이었다. 권력의 경쟁세력을 진압하거나 포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다.

또 하나의 과제는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1958년을 기점으로 제도적으로 완성된 이후 급작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한 필연적인 후유증들이었다.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중앙계획명령체제 하에서 작동하는 체제인 만큼 간부와 일반주민들이 시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시키더라도 남의 일 하듯이 대충하고 마는 광범위한 무사안일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이다. 이것을 북한의 지도부는 형식주의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북한의 통치양식과 생산양식이 빚어낸 문제점들이다.

김정일이 이러한 두가지 주요 문제상황들을 극복하고 자신의 권력을 일구어 내는데 사용한 수단의 하나가 주체사상이다. 김정일의 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주체사상이 중요한 까닭은 단순히 주체사상의 해석

권을 계승하였다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체사상을 자신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고, 반대파를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제압하며 동시에 대중들을 자신의 권력구도에 통합하고,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에 주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주체사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데 있다.

권력을 장악하기 이전에는 주로 반대파들을 종파주의로 규정하여 타도하고 유일사상체제를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 권력의 승계를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된 다음에는 무기력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간부와 주민들을 질타하면서 주인의식을 갖는 인간형으로 인간개조를 하고 사상교양을 하는데 박차를 가하였다. 80년대 말 사회주의권에 변혁의 바람이 불면서 체제위기에 직면해서는 간부와 주민들을 자신의 권력과 체제에 통합하도록 강제하기도 하고 무마하는데 주체사상을 활용하였다.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의 최고 무기인 주체사상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주체사상의 계승발전

주체사상의 형성 및 발전을 세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으며 주체사상의 내용도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950년대 김일성 정권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개념으로서의 주체라는 개념이 사용되던 단계, 둘째, 황장엽이 인간중심의 사상을 도입하여 이전의 주체의 개념을 전면 개작한 단계, 셋째, 김정일에 의하여 인간중심주의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체제와 수령절대주의의 사상으로 변화되는 단계이다.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오늘날의 위

치와 성격을 지나게 된 것은 김정일의 역할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주체사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주체라는 개념의 핵심내용은 반사대주의 또는 자주노선이다. 즉, 소련이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숭배 배경과 수정주의와 같은 흐름을 북한에서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사대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에서는 ‘주체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 단계의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북한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되, 큰 나라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대주의를 반대하며 대외적 자주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반사대주의로서의 주체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된 계기는 김일성 정권에 대한 도전이 대내외적으로 동시에 제기되었던 때이다. 대외적으로는 1953년 스탈린 사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에 스탈린 격하 운동과 함께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어 수정주의의 물결이 거센 파고를 일으키고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는 6.25전쟁의 실패의 책임, 개인숭배, 경제발전전략 등을 둘러싸고 김일성에 대한 정적들의 도전이 비등하던 시기였다. 김일성은 ‘주체’를 명분으로 소련과 동구의 수정주의 바람을 배격하고, 소련과와 연안파 등의 정적들을 숙청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1972년을 기점으로 김일성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주체사상은 황장엽의 인간중심론의 철학에 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철학적 원리로 대체되었다. 황장엽의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핵심내용으로 개념화되었다.

첫단계의 주체사상이 기본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이념적 전제로 한 사상이라면 황장엽의 인간중심적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폐기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상이다. 황장엽이 인간중심론이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 내게 된 계기는 김일성대학 총장시절이던 1966년에 필

화사건에 휘말려서 곤욕을 치르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필화사건에서 벗어나 김일성의 신임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을 새롭게 개발하였던 것이다.¹⁾

황장엽은 인간중심론의 이론을 주체사상과 연결시키게 된 아이디어는 1959년 이후 전개된 생산경쟁운동인 천리마운동에서 얻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천리마운동 자체가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의 명령경제체제가 야기한 무사안일의 소극적 작업태도에 대한 북한당국의 노력경쟁 방식이다. 황장엽에 의하면 천리마운동은 단순히 생산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를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고 증언한 만큼,²⁾ 주체사상은 군중노선을 포괄하는 ‘노력동원의 이론’으로 정립된 것이다. 황장엽은 천리마 운동에 이론적 의의를 부여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이것이 주체사상의 이론적 출발점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의 북한간부와 주민들에 대하여 형식주의라는 김일성의 질타와 맥을 같이 하는 입장이다. 황장엽은 이 운동을 통하여 인간교양과 경제발전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내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며 군중노선을 기초로 하여 주체사상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당시 북한노동당의 지도사상은 주체사상과 군중노선이었는데 이 두 가지 지도노선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별개였다고 한다. 그런데 황장엽이 ‘주체는 곧 군중’이라는 관점에서 주체사상과 군중노선을 통합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혁명과 건설의 주체는 군중이라는 식이다. 당시까지 self-reliance라는 개념으로 쓰던 주체라는 말을 subjecthood 또는 lord라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실제로 황장엽이 만든 인간중

1)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1999), p. 155.

2) 황장엽, 위의 글, pp. 134~135.

심의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명제로서 군중노선에 가장 잘 어울리는 논리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self-reliance와 subjecthood라는 상이한 개념들이 주체라는 하나의 우리말 글자로 담겨져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주체사상 발전의 셋째 단계는 주체사상의 개발이 황장엽의 손을 떠나서 김정일의 주도로 넘어가면서 수령절대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전개되고 유일사상으로 승격된 단계이다. 이 단계의 주체사상은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김일성 개인숭배를 강화하고 대를 이은 충성을 유도하는 정치적 배경의 영향을 받았다.

이 단계는 김정일이 권력의 실세로 전면에 부상한 것과 관련이 있다. 김정일은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수령중심의 주체사상으로 바꾸기 위하여 첫째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사회유기체의 개념으로 바꾸었다. 수령-당-대중이라는 사회주체 중에서 수령이 뇌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둘째는 ‘혁명의 주체’의 개념을 변경하였다. 이 논문에 의하면,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그의 지위와 역할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오랫동안 자기의 사회계급적 처지와 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결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이전의 명제를 변경하고 대신에 역사의 주체로서 수령의 역할을 도입하였다.

주체사상이 발전의 탄력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김정일의 등장과 자신의 권력승계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 것과 관련이 있다. 통치이념과 권력간의 상관관계를 잘 알 수 있다.

3. 유일사상체계의 형성과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통제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체제로 승격되어 발전하게 된 것은 김정일의 정치적 부상과 그의 정치적 역할과 관련이 있다. 김정일은 대학을 졸업한 해인 1964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당에 입문하여 정치를 시작하였으며, 1966년 2월부터는 당 선전선동부 지도원으로서 영화사업을 지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김정일은 1967년 갑산파 숙청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권력투쟁의 전면에 부상할 수 있었다.

당시의 권력지형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와 갑산파의 반대파 간의 권력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이념분쟁이 전개되고 월남전에 남한이 파병하는 등의 상황을 이용하여 반대파들을 배제하고 자파세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권력구조 개편을 단행하였다.

소련과 중국이 이념분쟁을 하는 등 사회주의진영이 분열되고 있는 사이 미국과 남한이 월남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의 상황이 전개되자 북한은 1966년 10월 5일 제2차 당대표자회의를 열고 경제-국방 병진 정책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일주일 후인 1966년 10월 12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14차전원회의를 열어 권력구조를 재편하고 만주 빨치산파를 대거 부상시켰다. 만주빨치산파가 권력의 전면에 부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만주빨치산파와 대립하고 있던 갑산파는 권력핵심에서 배제되었다. 권력갈등은 당연히 정책갈등으로 표출되었다. 주류에서 밀리고 있던 갑산파들은 그 동안 소련의 후르시초프의 영향을 받아서 중공업보다는 경공업을 중시하는 등 수정주의적 노선을 강조하

면서 김일성파를 비판하였다. 빨치산파의 경제-국방병진에 대해서 경제우선주의를 주장하는 등 김일성의 정책과 대립되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권력갈등과 정책갈등을 빚고 있던 갑산파를 김일성과 그 지도부는 수정주의자, 종파주의자로 몰아서 숙청하는 사건이 1967년 5월의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이다. 갑산파 숙청을 계기로 북한은 급속하게 김일성의 유일체제로 전환하였다. 지금까지의 집단지도체제를 김일성 개인의 독점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 김정일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1967년 갑산파 숙청에 하나의 불씨를 제공한 것이 이효순 박금철 숙청사건인데 이것을 김정일이 지휘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소위 일편단심 영화사건이다.

갑산파를 숙청한 직후부터 북한은 그 동안의 집단지도체제를 김일성의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김정일의 주도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 가령, 김정일은 1967년 4기 15차 전원회의가 끝나고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³⁾ 북한이 유일사상 체계를 주창한 배경에 대하여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옹립하고, 이 사상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게 된 배경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을 분쇄하기 위한 것임을 아래의 인용문에서 잘 알 수 있다.

얼마전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는 당의 유일사

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김정일동지략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p. 99.

상체계를 세우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회의였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오래동안 우리 당안에 숨어서 책동하던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죄행을 폭로비판하고 주동분자들을 당대렬에서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동분자들을 몇명 제거하였다고 하여 반당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이 끝난것은 아닙니다. 반당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은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 반당반혁명분자들이 뿌려놓은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기본은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⁴⁾

기존의 이색분자 뿐 아니라 이색적인 조류가 새롭게 싹트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일사상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유일사상체제는 곧 수령론으로 발전되었는데 혹자는 북한의 수령론과 유일사상체제가 당시 북한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형성된 체제라는 주장이 있으나, 김정일의 연설을 볼 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조금이라도 늦추게 되면 당과 혁명대오 안에서 이색적인 사상조류가 싹트고 자라나게 되며 종파와 분파가 생겨 당의 강화발전애 엄중한 해독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적경험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 튼튼히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⁵⁾

4)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15일),”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30, 237.

북한이 일단 유일사상체계를 도입한 이후 모든 다른 소수집단이나 사상의식은 모두 배척되었다. 가족주의, 지방주의, 종파주의, 사대주의 등을 철폐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하도록 강요하였다. 유일사상은 당시 주류세력을 추종하지 않는 모든 사상을 반당반혁명분자로 규정하고 ‘오가잡탕’이라고 매도하였다.⁶⁾ 유일사상의 배경이 김일성을 지지하는 세력의 사상을 유일사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만들었듯이 유일사상체계의 의도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의 독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아래의 연설에서 알 수 있다. 김일성 이외의 다른 어떤 간부에 대한 충성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김일성의 연설에서 읽을 수 있다.

군당책임비서들과 공장당책임비서들은 도당책임비서가 내려가든 중앙당 부장이 내려가든 또는 그 보다 높은 사람이 내려가든 절대로 그들에게 아첨해서는 안됩니다. 동문들은 그 누구에게도 맹종맹동하지 말고 당의 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당적 원칙, 당의 조직규율과 질서를 위반하는 온갖 사소한 요소들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⁷⁾

1967년 김정일의 연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한다는 언명을 하면서도 유일사상이 주체사상이라는 언명은 없었다. 이것을 통하여 김

5) 김정일,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당사상사업부문 및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7월 3일),”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75.

6)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15일),” 위의 책 p. 230.

7) 김일성, “당사업을 개선하여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할데 대하여(도, 시, 군 및 공장 당 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67년 3월 17-24일),”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

일성의 노선을 유일사상으로 먼저 설정하고 나중에 그 유일사상의 본질이 주체사상이라고 추가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유일사상이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언급되고 있으나 이 당시 김일성의 연설에서도 유일사상은 곧 주체사상이라는 언명은 발견되지 않는다. 1967년 3월 연설에서 김일성에게만 충성하고 김일성의 지시만 따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966년 당대표자회에서도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없이 대신 맑스-레닌주의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전당적으로 맑스-레닌주의학습과 당정책학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대중속에 맑스-레닌주의원리를 반복하여 해석선전하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침투시켜야 합니다. 누구나 할것없이 자체의 학습과 사상수양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여기고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정신과 그 진수를 체득하며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⁸⁾

그런데 유일사상은 금방 주체사상인 것으로 주장되었다. 1967년 6월의 김일성 연설에서는 유일사상 = 주체사상이라는 언명이 발견된다. 주체사상은 당의 혁명사상에서 핵을 이루며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⁹⁾

북한에서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는 1967년 갑산파 숙청을 계기로

8)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조선로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년 10월 5일),”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9) 김일성, “당대표자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함경남도 및 함흥시 당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67년 6월 20일),”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6.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김정일은 유일사상체계확립의 내용을 김일성의 절대화에 두고 이를 위해 당시에 설치되어 있던 「조선로동당역사연구실」을 「김일성동지혁명역사연구실」로¹⁰⁾ 개편하고¹¹⁾ 여기에 「항일 빨치산들의 회상기」, 「김일성동지혁명역사도록」 등을 비치하고 김일성의 유일사상확립을 위한 교양의 본당으로 삼도록 하였다.

이후 북한은 권력엘리트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 중에서도 지지자와 반대자를 감별하는 작업을 강화하였는데 그것이 전주민에 대한 성분분류 작업이다. 1967년부터 1971년말까지 북한은 전주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성분에 따라 3개 계급 51개 계층으로 분류하고 계급과 계층에 따른 계급노선의 정책을 하였다.

4. 사업작풍에 대한 통제

가.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야기한 북한주민의 인성: ‘형식주의’ 및 ‘요령주의’

60년대에 반대파 간부들의 종파주의를 비판하던 김정일의 관심이 권력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70년대 들어서는 간부들의 일상적인 근무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명령계획경제 체제의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은 북한의 간부나 주민 할 것 없이 모두 공적 부문에서의 행위 양식에서 무사안일, 개인주의, 이기주의, 본위주의, 책임감 없이 시키는 대로만 수동적으로 하는 척만 하는 인성을 형성시켰다. 물질적 사

10)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의 기능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93~104 참조.

11) 이후에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로 개칭됨

회적 인센티브에 의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서 작업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위에서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인성이 만연하였던 것이다. 김정일의 연설에서 그러한 내용이 자세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일꾼들가운데는 맡겨진 혁명과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눈치놀음을 하면서 요령주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행정경제부문의 일부 지도일꾼들은 사업과정에 무슨 결함이 나타나면 그 원인을 주관에서 찾고 결함을 고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이리 밀고 저리 밀면서 발뺌을 하는가 하면 아래일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똑똑한 결론을 주지 않고 질질 끌거나 적당히 해보라는 식으로 대답하면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있습니다.¹²⁾

실제로 70년대에 새롭게 형성된 북한의 주체사상은 이러한 주민들의 무사안일주의, 수동성, 소극성, 개인주의, 이기주의, 본위주의 등의 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성된 것이다. 70년대 주체사상이 형성된 후 주체사상은 즉각 인간개조사업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었었다는데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김정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에 대한 질타는 김일성의 60년대 70년대 연설에서도 무수히 많이 나타났는데 1990년대 중반의 김정일의 연설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야기한 인성은 새로운 물질적 인센티브의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데올로기적 동원과 인간개조사업과 같은 정치적 동원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김정일, “당생활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꾼들과 한 담화 1970년 12월 3일),” 『김정일 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125.

일군들속에서 사업을 눈가림식으로 실속없이 하는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없애야 합니다. 사업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근본적으로 배치될뿐아니라 당과 혁명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의 표현입니다. 사업을 형식적으로, 요령주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겉치레로 발라맞추는데 버릇되고 건달풍에 물젖게 되며 나중에는 당을 속이는것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발뺌을 하는 것과 같은 혁명가답지 못한 현상들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¹³⁾

김정일은 북한의 간부들과 일반주민들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자본주의적 속성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자본주의적 속성이라기 보다는 명령경제 방식의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야기한 필연적 인성구조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생산양식이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었지만 인간의 본성까지는 개조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난 70여 년 동안의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에서 증명된 셈이다. 물질적 인센티브가 없이는 이데올로기적 동원만으로는 인간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0년대 중반의 북한주민들의 인성은 정권초기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사회주의적으로 온전히 개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상분야에서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와의 투쟁입니다. ---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혁명화의 기본장애물이며 기본투쟁대상입니다.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혁명화되지 못한 여러가지 현상들, 온갖 비당적,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은 어느것이나 다 개인주의, 리기주의에 뿌리를 두고있습니다. 사

13) 김정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5월 24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05.

회와 집단은 어떻게 되든 자기 한몸의 안일만을 추구하고 제살공리만 하는것은 사회적인간의 본성과 배치되며 사람다운 품모를 저버리는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14)

김정일이 간부들과 일반주민의 잘못된 행위양식의 하나로 자주 질타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본위주의’이다. 기관이나 소집단 단위의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인 셈이다.

지금 본위주의도 우리의 전진을 크게 저애하고있습니다. 본위주의는 혁명의 리익, 국가의 리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부문, 자기 단위의 협소한 리익만 추구하며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서 통일적지도와 협동을 저애하는 매우 유해로운 경향입니다. 일군들은 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문제를 당적, 국가적 립장에서 혁명의 리익에 맞게 서로 힘과 지혜를 합쳐 풀어나가는 기풍을 가져야 합니다.15)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야기한 인성의 특성 외에도 일당독재 체제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부산물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간부들의 관료주의, 세도주의이다. 간부들의 개인차원의 이기주의가 대민 업무에서 나타난 행위양식이 바로 관료주의와 세도주의이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놓고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적지 않은 일군들은 자기를 특수한 존재처럼 여기면서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할 대신 세도를 쓰고 관

14) 김정일, 위의 글, pp. 408~9.

15) 김정일, 위의 글, p. 409.

료주의를 부리며 자기 개인의 리익과 안락만 추구하면서 특권행세, 귀족행세를 하고있습니다. ---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현상은 그것이 크건작건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우리 당이 이룩해놓은 업적을 손상시키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금이 가게 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해독작용을 합니다.¹⁶⁾

나. ‘주인다운 사람’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 이론으로서의 주체사상

김정일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의 구호를 인민대중에 대한 사상개조운동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주체사상이 만들어진 이후 북한주민들은 ‘주인답지 못하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인간개조운동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주체사상이 형식주의, 요령주의, 이기주의에 빠진 북한주민들의 인성을 개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전반적 사회형편으로 보나 당안의 형편으로 보나 사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결함은 모든 일에서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 주인답게 일하지 않고 되는대로 일하는 현상은 특히 사회주의 경제건설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¹⁷⁾

이러한 개념에서 시작된 인간개조사업은 북한에서 사회개조사업과 함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10권의 『주체사상 총서』 중의 하나가 『인간개조리론』¹⁸⁾이라는 점을 주목

16) 김정일, 위의 글, p. 408.

17) 김일성, “현시기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당사상사업부문 일군회의에서 한 담화 1973년 6월 13일),” 『김일성저작집 28』.

18) 사회과학출판사, 『인간개조리론: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할 만하다. 주체사상은 곧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는 이론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동원의 이념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에의 동원, 노동에의 동원을 위하여 주체사상이 이념적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 담당자인 인민대중을 옹계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온갖 낡고 반동적인 것을 쓸어버리고 새롭고 선진적인 것을 창조하는 혁명투쟁에서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 것은 혁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사상사업을 앞세워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것은 대중령도의 가장 힘있는 사업방법이다.¹⁹⁾

주체사상에 나타난 지배자의 의도는 동원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위한 정치적 동원, 노동에의 동원이다. 그러나 오늘날 주체사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민주주의적 개념이다.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을 평가할 때 사상은 좋은 데 현실과 맞지 않다고 평가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19) 한병희,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당정책관철의 기본,” 『근로자』 1973년 10호, p. 20.

5. 체제붕괴 위기에서 간부들의 체제이반 통제

1978년에 중국에서 덩소평이 집권하면서 개혁개방의 정책을 시작하였을 때 북한은 1953년 스탈린의 사망이후에 불어닥친 수정주의의 바람이 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연 긴장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78년에 「우리식대로 살아가자」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북한은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개혁개방의 바람을 처음부터 매우 우려의 시각으로 보았음을 김정일의 당시 연설에서 잘 알 수 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부형편도 매우 복잡하며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간과할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일부 나라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버리고 수정주의길로 나아가고 있을 뿐아니라 자기의 그릇된 로선을 다른 나라들에까지 내리떡이려 하고있습니다.²⁰⁾

북한은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1956년 당시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인식하였다.²¹⁾ 사회주의 진영에서 수정주의가 전개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반당반혁명분자가 당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1956년은 준엄한 시련의 해였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수정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은 우리

20) 김정일, “우리 식대로 살어나갈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9년 12월 19일),” 『김정일 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354~355.

21) 김정일, 위의 글, p. 362.

나라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해 나섰으며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반공》 캄빠니아와 《북진》 소동을 미친 듯이 벌였습니다. 나라의 경제건설에서도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하여 아직 적지 않은 공장, 기업소들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인민들의 생활은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안에 숨어 있던 반당 반혁명종파분자들은 복잡한 틈을 타서 대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인민생활이 어떻다느니 뭐니하면서 당에 도전해나섰습니다.²²⁾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상황에서 북한의 위기의식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응은 혁명적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체제가 무너지는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상황에서 ‘주체의 혁명적 원칙’을 지키도록 호소하였다. 그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쏘련과 동구라과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화살이 우리 나라에 쏘리고있는 조건에서 혁명적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명심하고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혁명적원칙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해나가자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령도에 충실하는것은 자주성 실현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근본담보입니다.²³⁾

22) 김정일,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9년 12월 19일),” 『김정일 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354~355.

23) 김정일, “혁명적 원칙과 립장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

체제위기의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간부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조는 곧 간부들이 김일성과 김정일로부터 이반하지 말도록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는 1956년의 쓰라린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때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우리 당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고있었지만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은 그에 대하여 모르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적발하고 투쟁의 불을 거신 다음에야 중앙당일군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죄행을 규탄하며 투쟁을 벌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안에서 1956년에 있었던것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벌어진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전혀 있을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²⁴⁾

북한은 전위대 체제이며 북한의 전위대는 간부들임을 감안한다면 김정일 측근의 간부들만 김정일을 지지한다면 북한체제는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체제위기시에 간부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김정일의 연설에서 매우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간부는 우리 당의 골간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입니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수 있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을 높일수 있습니다. 간부대렬을 좋은 사람들로 꾸려야 합니다. 간부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2년 7월 23일),” 『김정일선집 1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120.

24) 김정일,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위의 책, p. 357.

확고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지 못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 당의 간부로 될 수 없습니다. 당조직들은 어디에서 무슨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대중의 앞장에 서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워나갈수 있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로 간부대렬을 꾸려야 합니다.²⁵⁾

북한지도부는 당간부의 이반에 대한 경계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에 대해서도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체제위기 상황에서 주체사상을 ‘우리식 사회주의’ 개념으로 변형하고 사상단속을 강화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 개념의 핵심내용은 “북한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이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김일성이 창시한 새로운 사회주의사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주의를 주체사상으로 재해석한 셈이다. 김일성이 재해석한 사회주의의 본질적 우월성은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데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대중이 체제에 이반하는 현상에 직면하고 인민대중을 체제에 통합하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사상을 새롭게 발전완성시키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사상은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라는 것을 밝히였다. ...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주의사상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완성시키고 그것으로 인민대중을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이 사회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게 하였더라면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성, 부패성을 가려

25) 김정일, 위의 글, p. 356.

보지 못하고 거기에 환상을 가지면서 사상적 동요를 일으켜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가자면 사회주의사상을 완성하고 그것으로 인민대중을 튼튼히 무장시켜 사회주의를 신념화하도록 하여야 한다.²⁶⁾

동유럽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한 직후에 나온 김정일의 연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²⁷⁾는 체제수호를 위한 새로운 구호였다. 인간중심론의 주체사상과 반사대주의를 의미하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절반씩 결합된 개념이지만 중점은 ‘우리식 사회주의’에 있다.

우리 인민이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인민대중중심의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습니다.²⁸⁾

동구가 무너지고, 중국과 소련에서 개혁개방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체제위기를 느낀 북한 지도부가 선택한 가장 강력한 정치구호는 ‘우리식 사회주의’였다. 즉 중국, 동구, 소련에서 개혁을 해도 그것은 북한과는 무관하며 북한은 북한의 길을 간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사조에 대한 배척을 핵심적인 원리의 하나로 하는 주체사상이 이 점에서 매우 설득력 있게 사용되고 있다.

26)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손은 허용될수 없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발표한 담화 1993년 3월 1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351~352.

27)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김정일선집 11』.

28) 김정일, 위의 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은 우리 식대로 살아가기 위한 강력적 지침이다. 우리식의 사상관점과 사고 방식이란 다름아닌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대로 사고하는 것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과 어긋나는 그 어떤 사상도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에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만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²⁹⁾

이러한 논리구조는 1955년 김일성이 처음으로 주체의 개념을 도입 하면서 하던 연설의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중국의 개혁·개방의 영향이 북한내부로 침습하는 것을 우려하고, 다른 나라가 비록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북한은 북한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주체사상 형성 첫째 단계의 차단과 단절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다.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의 첫 단계로 정확히 회귀한 셈이다. 이러한 논지의 담화는 80년대 중반부터 수없이 나왔지만 대동소이하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나라의 구체적 현실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큰 나라나 발전된 나라라고 하여 언제나 옳은 길을 걷는 것도 아니며 또 그러한 나라의 경험이라고 하여 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큰 나라의 역할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주성을 비워버리고 큰 나라들이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해나가야 하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³⁰⁾

29)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며 일해가자,” 『조선중앙방송』, 1991. 9. 2.

30)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당 중앙위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북한은 사회주의를 쪼먹는 가장 위험한 사상조류는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사대주의³¹⁾라고 비판한다.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개혁개방한다고 해서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며, 중국이나 소련이 하는 대로 북한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자들을 교조주의라고 비판하며, 큰 나라가 한다고 해서 북한도 따라서 해야한다고 보는 사람들을 사대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사상의 순결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배격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일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주체사상을 다양한 논리구조로 재해석하고 재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 권력에 입문할 때는 종파주의에 대항하여 유일사상체제를 강조하였다. 세습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김정일의 권력기반에 기틀이 잡히자 이제 북한사회주의체제의 핵심 문제인 주민들의 소극성, 무사안일적 인성을 개조하는데 주체사상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90년대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의 와중에서는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논리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행한 역할은 지도부의 의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형식주의, 요령주의 타파를 위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외쳐대고 조직생활 강화를 통하여 주체사상 사상교양을 강화하였지만 물질적 인센티브 없는 이데올로기의 효과는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주체사상이 북한 지배이념으로서의 역할은 이처럼 주로 사상교양에

31) 김정일,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창건 47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논문,” 『로동신문』, 1992. 10. 10.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체사상이 정책의 방향을 규정하기 보다는 정치권력의 요구대로 형성된 정책의 방향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한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외교에서의 자주노선이나 경제의 자력갱생은 정치권력의 요구 때문에 이미 그렇게 정해진 정책방향이었다. 주체사상은 그것을 주체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기능을 했을 뿐이다. 주체사상의 규정력은 별로 없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북한에서 정권초기부터 체제를 규정하고 체제의 특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맑스-레닌주의에 비해 볼 때 주체사상이 행한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는 북한체제에서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개조, 프롤레타리아 독재, 일당독재, 계급투쟁 등의 국가의 특성을 규정하는데 이념적 구실을 한 것이다. 그에 반하여 주체사상은 정권과 사회화의 관계를 규정하는 레짐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한다면 맑스-레닌주의가 국가(state)의 성격을 규정한 지배이념이라면 주체사상은 정권(regime)의 특성을 규정한 지배이념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주체사상은 김정일 권력의 창출과 유지를 위하여 활용된 측면이 매우 많았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II. 수령관

김창근(책임연구원)

1. 서론

북한의 수령론은 북한을 이해하는 키워드의 하나다. 북한에서 수령은 단순히 최고지도자의 의미 이상이며 기능이자 제도이기도 하다.¹⁾ 선대수령인 김일성은 사망했지만 그 권위와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후대수령인 김정일에게 아버지 수령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해보인다. 그 일단은 자신의 공식출범에 앞서 선대수령을 향한 굳은 결의를 다진 듯한 1998년 개정 헌법 서문에 집약되어 있다.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되기 3일전 1998년 9월 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는 김정일체제를 법적·제도적으로 정비한 자리였다. 이 회의에서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신설된 서문은 북한을 수령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헌법을 김일성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못박았다. 김일성은 북한의 부강번영과 혁명의 계승완성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주었으며 ‘영원한 주석’으로서 향후 북한의 융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로 규정되었다. 선대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가는 것은 후대수령이 따라야 할 순례자의 길 처럼 비장하게 제시되었다. 선대수령은 북한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인 것

1) 예컨대 스키 마사유키는 제도로서의 수령제에 주목하여 북한을 수령제 국가로 파악한다. 스키 마사유키 지음, 유영구 옮김, 『金正日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中央日報社, 1994) 참조.

이다.

최근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개선 조치와 전방위적인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물가와 임금의 현실화, 인센티브제 강화, 배급제의 부분적 폐지, 지배인에게 기업운영 권한의 상당부분 이양 등은 과거 토지개혁과 견줄 만한 획기적 조치로 평가되기도 하며, 북·일 정상회담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메가톤급 변화로 거론된다. 북한의 시도가 우선은 사회주의 재정비를 통한 경제회생과 경제지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시장경제 채택과 실질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가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북한의 대내외적인 행보가 성과를 거둔다면 변화된 정세를 설명하는 이념논리의 조정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김정일은 아버지의 노선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버지 수령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인식의 일단은 헌법 서문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지만, 이 글은 『김정일선집』을 중심으로 김정일의 수령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의 관념은 ‘중심·뿌리·핵’ 그리고 ‘위대·은혜·영생’ 등의 이미지로 구분하여 서술해 볼 수 있다.

2. 중심·뿌리·핵

가. 중심

(1)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

수령은 인민대중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으로서 당과 인민대중의 운명과 동일시된다.²⁾ 그것은 수령·당·인민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

적 생명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다고 전제하고 육체적 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고 한다.³⁾ 그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결합되어서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는 것인 만큼 그것을 서로 분리시키거나 대치시켜서는 안된다고 전제한다. 수령은 당과 인민대중의 생명의 중심인 만큼 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된다.⁴⁾ 수령·당·대중은 하나의 생명을 가진 유기체적 통일체이며 개별적 사람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 것처럼 사회정치적 생명의 중심은 이 통일체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라는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으로서 간주되는 수령이 북한 사회주의의 운명이나 장래와 동일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수령은 “당과 인민의 행복이시며 영광이시며 운명”⁵⁾이다. 그는

-
- 2)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48. 본문에는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서 ‘수령’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인용된다.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831.
- 3)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6.
- 4)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p. 451~452.
- 5)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임무(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0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365.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북한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본요인이라고 간주한다.⁶⁾

(2) 생명의 근원으로서 태양, 아버지, 최고녀수

김정일이 수령의 호칭으로서 언급하는 태양, 아버지, 최고녀수 등은 생명의 근원 혹은 원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이 있어 별이 빛나는것처럼 수령님께서 계시여 우리도 있는것”⁷⁾이라는 전제에서 나타나듯이 태양은 별을 빛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태어난 것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고 육체가 움직이는 것은 녀수가 존재해야 하듯이 수령은 아버지로서, 최고녀수로서 생명의 근원 혹은 원천의 의미를 내포한다.

(3) 혁명적 동지애의 중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자 생명의 근원으로서 수령은 자연히 혁명적 동지애의 중심으로 간주된다. 김정일은 혁명적 동지애의 중심은 수령이며 혁명적 동지애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수령과 전사들 사이에 맺어지는 사랑이라고 전제하고 혁명전사들 사이에 맺어지는 사랑과 우정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때에만 진정한 동지애로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⁸⁾

6) 김정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어나가(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4월 17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6.
7)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임무,” p. 366.
8) 김정일, “혁명적동지애의 전통적미덕을 높이 발양시키자(당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2년 4월 10일),” 『김정일선집 7』 (평양:

김정일이 말하는 혁명적 동지에는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 사이에 맺어지는 사랑으로 육친에 대한 애정이나 친구들 사이의 우정보다 귀중하며, 동지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동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이자 헌신이다. 그는 혁명적 동지에는 당과 혁명대오의 단결의 기초로서 당과 혁명대오의 단결은 반드시 혁명적 동지애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⁹⁾

나. 뿌리

(1)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김정일에 의하면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수령 김일성이며, 조선민족은 곧 김일성민족이라고 한다.¹⁰⁾ 그것은 김일성이 조국과 인민과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평생을 바쳤고, 항일혁명투쟁에서 승리하고 조국광복을 실현했으며,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 침략자를 상대해 조국을 수호하였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한다.¹¹⁾ 따라서 김정일은 “조국은 곧 수령님”이라고 강조한다.¹²⁾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20.

9) 김정일, 위의 글, pp. 217~219, 223.

10)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16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27~428.

11) 김정일,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맞이하기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0월 29일),” 『김정일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364.

12) 김정일,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자(조선로동당 중

(2) 혁명의 시원

김정일은 김일성이 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은 수령이기에 그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혁명승리의 근본담보이며 혁명하는 사람들의 숭고한 도리라고 강조한다.¹³⁾ 여기서 혁명의 시원이란 김일성이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혁명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개척한 것을 말한다.¹⁴⁾ 김정일은 이로 인해 수령이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자주시대의 새 기원을 열어 놓으신 세계정치의 원로”¹⁵⁾가 되었으며 “혁명선배의 최고대표자”¹⁶⁾가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도덕의리”¹⁷⁾로 간주한다.

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5년 8월 15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264.

13) 김정일, “감사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준 전체 인민들에게(1994년 10월 28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55.

14)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 1995년 12월 25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124.

15)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6년 2월 11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146.

16)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p. 114.

17) 김정일, 위의 글, p. 111.

다. 핵

(1) 위대한 인민이 되게 하는 수령

김정일은 수령을 인민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의 주인과 역사의 주체가 되게 하는 일종의 기본핵으로 본다.¹⁸⁾ 그는 인민대중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체이지만 현명한 수령을 모실 때에만 자기 운명의 주인,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옳은 영도가 보장되지 못하면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킬 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영도계급으로서의 노동계급 역시 정치적 수령의 옳은 영도 없이는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본다. 김정일은 인민대중이 오랜 세월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자기의 자주적인 요구와 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속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나라와 민족을 이끌만한 영도자가 없었던 탓으로 식민지노예의 처지에 굴러떨어져 갓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인민의 위대성은 곧 수령의 위대성”에 있게 되며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위대한 인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¹⁹⁾

(2) 인민의 위대성이 대를 이어 계승되게 하는 핵

김정일은 인민의 위대성이 대를 이어 빛나는 것도 수령의 영도가 대

18)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pp. 114~115.

19) 김정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어나가자,” p. 29.

를 이어 계승되는 조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며 수령 영도의 후계를 정당화한다. 그것은 마치 기본핵이 핵분열하여 생명이 계승되는 것과 같다. 그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계속된다고 전제한다. 역사적 경험은 영도의 계승성이 옳게 보장될 때에는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이 지속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혁명이 우여곡절을 겪게 되며 나아가서 이미 쟁취한 사회주의전취물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한다.²⁰⁾

김정일은 김일성의 가장 빛나는 선견지명은 일찍부터 혁명위업계승의 역사적 필연성을 통찰하고 그것을 착실히 준비하였으며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 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와 영도체계를 세우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²¹⁾ 아울러 그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은 곧 수령의 위업의 계승이며 혁명선배들의 사상과 업적의 계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의 계승”이라고 전제하고 수령에게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본분이며 최고의 혁명적 의리라고 강조한다.²²⁾

(3)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도덕의 기본핵

김정일은 수령에게 충실하는 것을 공산주의도덕의 기본핵이라고 한다. 그는 국제공산주의운동 안에서 흐루시초프와 같은 수정주의자들이 나타나 공산주의도덕을 심히 훼손시켰지만 북한 인민들은 수령이 개척한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 나감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

20) 김정일, 위의 글, pp. 29, 50.

21) 김정일, 위의 글, p. 50.

22)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p. 115.

들의 숭고한 공산주의도덕관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²³⁾

3. 위대·은혜·영생

가. 위대

(1) 사상, 영도, 덕성 및 업적의 위대성

김정일은 수령이 사상과 영도, 덕성 및 업적에서 위대하다고 강조한다.²⁴⁾ 그는 김일성을 “인민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이며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 그리고 “당과 국가의 수반으로서 당과 국가, 인민을 이끄시어 것처럼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령도자”이며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군사전략가, 위대한 령도예술가,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등으로 표현한다.²⁵⁾ 그는 수령으로 인해 일본 제국주의를 이겨낼 수 있었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미제의 무력침공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수령은 사회주의조국을 일으켜 세워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만들었으며 조선혁명뿐만 아니라 반제자주,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혁명운동 발전에 공헌함으로써 국제적 권위와 높은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한다.²⁶⁾

23)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pp. 430~431.

24) 김정일,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맞이하기 위하여,” p. 372.

25)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pp. 420~421.

김정일은 수령이 “사상리론적레지와 령도력과 덕성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뛰어난 천품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사상리론은 백과전서적일뿐만아니라 독창성으로 일관되어있”고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의 사상이론활동은 철저히 인민에게 맞추어져 인민을 절대적인 존재로 내세우고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쳤다고 한다. 따라서 김정일은 수령을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있는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라고 강조한다.²⁷⁾

김정일이 수령의 업적으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과 사회주의위업에서의 승리, 그리고 국제공산주의운동 역사에서의 공헌 등이다.²⁸⁾ 그에게 수령은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빛나는 생을 가장 깨끗하게 마무리하신 위인중의 위인이다.²⁹⁾ 김정일은 수령의 위대성을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위훈을 세운 인류역사에서 최고의 위대한 영웅에 비유하기도 한다.³⁰⁾

김정일은 김일성의 탄생 80돐 경축행사 후에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수령의 중요한 업적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³¹⁾ 첫째, 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26) 김정일, “수령님의 위대성을 남조선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4월 27일),”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83~84.

27) 김정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어나가자,” pp. 29~37.

28)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p. 421.

29)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 p. 146.

30) 김정일, “우리 시대의 영웅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참된 인간의 전형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5년 6월 15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236~238.

있게 하는 지도사상으로 주체사상을 창시한 것, 둘째,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독창적인 당건설노선으로 주체형의 정치조직을 마련한 것, 셋째,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위하는 인민군과 주체의 군사사상·전략전술·주체전법 등을 건설한 것, 넷째, 인민을 혁명적 인민으로 키우고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을 통해 사회주의제도의 위력과 불패성의 원천으로 만든 것, 다섯째,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한 것, 여섯째,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완성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한 것 등이다.

(2) 수령의 위대성은 곧 민족의 위대성

김정일은 수령의 위대성과 민족의 위대성을 등치시킨다.³²⁾ 이는 김정일에 의해 ‘주체의 민족관’으로 정식화되면서 ‘민족의 품이 곧 수령의 품’이라는 논리로 발전되고 있다.³³⁾ 유사하게 김정일은 수령이 위대한 영웅이면 당도 영웅의 당으로 되고 나라도 영웅의 나라로 되며 민족도 영웅의 민족으로 되고 인민도 영웅의 인민으로 된다고 강조한다.³⁴⁾

특징적인 것은 수령의 위대성 선전이 남조선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각성하고 결속시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 나가도록 하는 결정적 고리라며 수령의 위대성 선전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연결짓고 있는 점이다. 김정일은 남조선인민들이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해방직

31) 김정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어나가자,” pp. 37~50.

32) 김정일, “수령님의 위대성을 남조선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할때 대하여,” p. 85.

33) 김창근, “민족관,” 『김정일연구: 리더쉽과 사상(I)』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151.

34) 김정일, “우리 시대의 영웅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참된 인간의 정형이다,” p. 238.

후까지만 하더라도 수령을 전설적 영웅과 해방의 구성으로 흠모하였으나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억눌리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수령의 사상과 풍모, 혁명업적 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기의 편찬출판을 통해 그것이 백과사전적인 혁명의 교과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³⁵⁾

나. 은혜

(1) 은혜롭고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지

김정일은 수령을 은혜롭고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지로 강조한다. 그는 “우리 일꾼들은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서 자라났”다며 수령이 “그처럼 준엄하였던 항일대전과 조국해방전쟁의 불길 속에서 그리고 그처럼 어려웠던 해방후 새 민주조선 건설과 조국해방전쟁의 불길 속에서 그리고 그처럼 어려웠던 해방후 새 민주조선 건설과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에 우리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사랑의 한 품에 안아 혁명가로 키워주시”었다고 한다.³⁶⁾ 그는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이 누리고 있는 크나큰 영예와 행복은 모두 수령이 한평생 바쳐온 노고의 결과라며 ‘그 크신’ 은혜를 강조한다.³⁷⁾

수령의 자애로움은 김일성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부각된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혁명적 동지애의 화신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영도해 오면서

35) 김정일, “수령님의 위대성을 남조선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할때 대하여,” pp. 85~90.

36)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임무,” pp. 365~366.

37) 김정일,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맞이하기 위하여,” pp. 364~365.

전사들을 한품에 안고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다 주었다고 한다. 그는 이어 수령은 원수앞에서는 멸적의 기상으로 위엄 떨치는 명장이지만 동지들앞에서는 정도 많고 눈물도 많은 위대한 인간이며 위대한 동지라고 표현한다.³⁸⁾

수령의 자애로움은 김일성 사후 100일이 되는 김정일의 담화에서 최고로 표현되고 있다. 그는 수령이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끝없이 사랑하였으며 고귀한 모든 것을 인민이라는 이름과 결부시켰다고 한다. 예컨대 수령은 국호에도 인민이라는 말을 넣고 군대의 이름에도 인민이라는 말을 넣었으며 대학습당과 문화궁전도 인민대학습당, 인민 문화궁전이라고 부르고 병원들도 인민병원이라고 부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는 김일성이 사망하기 2일 전인 7월 6일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당의 의견을 물었던 일화를 소개한다. 당시 김정일은 수령이 결심하면 당은 그대로 할것이라고 했더니 수령은 그제서야 당에서 승인한 것으로 보고 활동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것이 수령과 자신의 마지막전화였고 수령은 앞날의 일을 미리 예견한 것처럼 모든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생을 마쳤다고 전한다. 또한 김정일은 수령이 심장병을 앓은지 여러해 되었으면서도 인민들이 걱정할까봐 알리지 않았고 신년사를 할 때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눈병을 앓아 눈수술을 하고서도 며칠 되지 않아 여러 일을 시작했다고 회고한다. 김정일은 수령의 죽음이야말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다가 집무실에서 돌아간 순직이라며 김일성을 “고매한 덕성과 뛰어난 인품, 소탈한 품성과 검소한 생활”의 사람으로 표현한다.³⁹⁾

38) 김정일, “혁명적동지애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키자,” p. 220.

39)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pp. 421~424.

(2)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자 의리이며 도덕

수령의 업적을 ‘그 크신’ 은혜로 설정하면 다음으로 그에 대한 보답과 도리가 강조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김정일은 수령이 인민에게 “크나큰 은정과 배려”를 베푼 만큼 수령에게 충실하는 것은 혁명적 의리이자 전사의 양심이고 도덕이라고 본다.⁴⁰⁾

김정일은 혁명가유자녀들은 자기를 한품에 안아 애지중지 키워준 자애로운 어버이인 수령의 은덕을 가슴깊이 새기고 수령께 충성을 다하여 보답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⁴¹⁾ 그에 의하면 인민 모두는 위대한 수령의 전사이고 제자이며 아들딸들로서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났고 수령의 손길아래 삶을 누려온 것이다.⁴²⁾ 따라서 수령에게 충실하는 것은 도덕의리상으로 응당한 일이 된다.⁴³⁾ 나아가 그는 수령이 생존해 있을 때 한 맹세와 서거한 다음에 하는 맹세가 달라서는 안되며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도덕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한다.⁴⁴⁾ 김정일은 수령의 서거 이후 자신이 바로 당과 국가 지도기관을 새로 구성하지 않은 것은 수령의 영구앞에서 인민들이 목놓아올던 비분이 가슴속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선거하고 만세를 부르는 것이 전사의 도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⁴⁵⁾

40) 김정일, “혁명가유자녀들은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 친위전사가 되어야 한다,” p. 315;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잘 받들어 모시는것은 우리의 숭고한 임무,” pp. 365, 368.

41) 김정일, “혁명가유자녀들은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 친위전사가 되어야 한다,” pp. 314~316.

42)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p. 118.

43)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임무,” pp. 365~366.

44)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p. 430.

김정일에 의하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도덕이기 때문에 삶의 가치도 규정된다고 본다. 그는 참된 삶의 가치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다며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살도록 하라고 교양한다. 김정일에 의하면 김구나 김규식은 지난날의 인생행로가 복잡하였지만 수령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인생의 새 출발을 하였으며 애국의 길, 조국통일의 길에서 생을 마쳤다고 한다.⁴⁶⁾

(3) 수령에 대한 충성: 최고의 애국

인민과 민족과 수령의 위대성을 등치시키고 수령의 은혜와 그에 대한 보답을 연결시키고 있는 김정일은 수령에 대한 충성이야말로 ‘주체의 조국과 수령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애국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애국심이며 충성심의 높이는 애국심의 높이로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이 최고의 애국이라고 본다. 아울러 그는 주체사상이야말로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최고의 인도주의이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최고의 애국주의라며 수령에 대한 충성과 사상에의 결속을 강조한다.⁴⁷⁾

45) 김정일, 위의 글, pp. 428~429.

46) 김정일, “사람은 한생을 빛나게 살아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5월 31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25~428.

47) 김정일,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자,” pp. 263, 265.

다. 영생

(1) 인민들 속에 영생하는 수령

김정일은 영생하는 수령을 강조한다. 그는 수령의 심장은 비록 고통을 멈추었으나 수령은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수령은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최고뇌수로서, 민족의 태양으로서 영생하고 있다고 한다.⁴⁸⁾ 그는 이어 수령이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최고뇌수로서, 수령님의 모습을 닮아 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서 영생하고 있다고 강조한다.⁴⁹⁾

(2)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할 수령

김정일은 수령의 영생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수령을 인민들 스스로가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할 분으로 본다. 그는 수령의 유훈의 뜻이 꽃피려는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수령의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다며 그의 사상과 혁명위업을 끝까지 옹호고수하고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⁵⁰⁾ 그는 인민들이 수령의 품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수령의 “영원한 한식술”이라면서 김일성이 사망한 7월 8일을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로 영원히 전통화할 것을 제기한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민들속에 영생하는 김일성을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수령으로, 만민

48)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p. 427.

49)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 pp. 146~147.

50)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p. 427.

의 아버지로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조선인민과 진보적 인류의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이며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못박는다.⁵¹⁾

4. 결 론

아버지 수령에 대한 김정일의 관념은 ‘중심·뿌리·핵, 위대·은혜·영생’의 이미지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자 생명의 근원으로서 태양·아버이·최고뇌수이며 혁명적 동지애의 중심이다. 수령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며 혁명의 시원으로서 사회주의 혁명의 뿌리와 같다. 그에 의하면 조선민족은 김일성민족이며 수령으로 인하여 사회주의혁명의 ‘자주적’ 길이 개척되었다. 그런 수령은 인민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의 주인과 역사의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기본핵과 같다. 인민의 위대성이 대를 이어 빛나는 것도 위대한 수령의 영도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조건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본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바로 공산주의도덕의 기본핵이 된다.

수령은 사상, 영도, 덕성 및 업적에서 위대하며 그 위대성은 곧 민족의 위대성이 된다. 수령은 은혜롭고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지로 강조된다. 수령의 업적을 ‘그 크신’ 은혜로 설정하면 그에 대한 보답과 도리가 강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은혜에 대한 보답은 수령에게 충실하는 것인데, 그것은 혁명적 의리이며 전사의 양심이자 도덕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또한 최고의 애국으로 간주된다. 김일성은 심장의 고통은 몇었지만 인민들에게 영생하는 수령으로 표현된다. 인민에게 수령은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할 존재가 된다.

51)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다,” pp. 147~148.

김정일의 수령관에서 주목해 볼 것은 승계체제 구축, 김일성주의화, 김일성 1인 우상화 등과 발맞추어 수령에 대한 김정일의 호칭이나 표현에도 생명의 중심, 김일성민족, 대를 이어 계승, 영생 등의 의미가 추가되고 있는 점이다. 정치적 필요가 강조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김정일이 수령의 영생을 주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반증일 것이다. 그렇게 볼 때 김정일이 김일성의 노선을 이탈하거나 수령을 비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기존의 수사를 대내외 정세변화에 맞게 변용하여 적용하는데 불과할 것이다.

Ⅲ. 사법관

김창근(책임연구원)

1. 서론

김정일의 사법관을 엿볼 수 있는 그의 문헌은 많지 않다. 김정일의 선집에는 사법검찰, 법무생활, 사회안전문제를 중심으로 몇 편의 글이 있을 뿐이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나 선군정치를 지나오는 동안에도 검찰이나 사회안전, 법무 등에 관한 김정일의 저작은 찾아 보기 어렵다. 단지 혁명과 건설을 위한 군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유사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이다. 따라서 이 글은 김정일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법검찰사업, 사회주의법무생활, 사회안전사업 등을 중심으로 그의 사법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김정일의 사법관을 서술하기에 앞서 북한에서 사법이 갖는 위상과 사회적 사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일영도체제를 표방하는 체제속성과 법을 계급지배의 도구로 간주하는 사회주의 법이론을 감안할 때, 그것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은 사법을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해석적용하고 집행하는 재판기관의 권력활동”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남한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같은 페이지에서 사법권을 “넓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3권(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것과 『정치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개념의 차이가 뚜렷해진다.

1) 『조선말대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628.

계급적독재실현에 복무하는 법을 해석적용하고 집행하는 재판기관들의 권력적활동. 사법의 계급적본질은 주권을 틀어쥔 계급과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주, 자본가 등 극소수의 착취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부르조아독재실현에 복무하는 부르조아사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사회주의사법은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강력한 무기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사법의 중요한 사명은 수령님의 령도밑에 이룩된 혁명의 전취물을 적들의 침해로부터 튼튼히 수호하며 당정책을 법적으로 옹호관철하는 것이다.²⁾

이러한 규정에는 북한 사법이 지니고 있는 위상과 사회적 사명이 동시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사법은 계급지배의 도구이다. 사법은 노동계급의 계급적 독재를 실현하는데 복무해야 한다. 둘째, 사법의 권한은 수령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이익을 위해 역할하도록 배분된 것이다. 수령은 사법이 갖는 권한의 원천이자 중핵이 된다. 셋째, 사법은 수령의 영도성과 당정책을 법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이것이 사법의 사회적 사명이다. 이러한 내용은 한 마디로 수령의 영도성, 계급성, 사상성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 세 원칙은 북한 사법이 붙잡고 나가야 하는 꺾대와 같다. 김정일 사법관의 기조에는 수령의 영도성, 계급성, 사상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2) 「정치사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521.

2. 사법검찰사업

가. 사법검찰기관의 기능과 역할: 당정책 관철을 법적으로 보장

김정일은 사법검찰기관이 무엇보다 먼저 당정책 관철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북한의 검찰이 사실상 사법부를 통치하고 있는 것에 비쳐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검찰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 참여하여 재판소가 당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사법검찰기관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보위대이며 온갖 범죄적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굳건히 보위하는 우리 혁명의 강력한 무기”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사법검찰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은 결국 당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가 된다.³⁾

당정책 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네 가지 역할이 제시된다.⁴⁾

첫째, 사법검찰기관들은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3)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2년 11월 21일),”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312, 311.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사법검찰기관은 “여러가지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법의 집행을 감시하는 국가기관”이며 “당의 정치적보위자로서 당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 집행을 감시하며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헌법적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그밖의 여러가지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법의 집행을 감시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기관”이다. 『사법검찰기관』 『조선말대사전 I』, p. 1628.

4)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pp. 312~319.

해야 한다. 검찰기관들은 담당감시와 집중감시를 잘 배합하여 당의 경제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재기관들은 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검열사업과 중재활동을 잘 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획과 계약규율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법검찰기관들은 공민의 권리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김정일은 이를 사법검찰기관들의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한다. 사법검찰기관들은 국가기관 일꾼들이 관료주의, 전횡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법검찰기관들은 범죄와 위법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사법검찰기관들은 준법교양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자들에게 엄격히 책임을 묻는 법적 투쟁을 잘 해야 한다.

넷째, 사법검찰기관들은 사건취급처리에서 당의 정책적 요구와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여기서 계급적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하여 계급적으로 옳게 갈라보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사회주의제도에 악의를 품고 의식적으로 적대행위를 한 자들에게는 조금도 자비심을 베풀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반면 그는 기본계급출신으로서 낡은 사상에 물젖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게는 일률적으로 반혁명분자로 처리하지 말고 될수록 견져내어 교양개조할 것을 주문한다. 김정일은 법적 통제를 강조하다가 법을 어긴 사람들을 덮어놓고 형벌을 주어서는 혁명에 이로울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나. 범죄와 현지공개재판에 대한 인식

사법검찰사업과 관련하여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범죄와 현지공개재판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이다.⁵⁾ 김정일은 북한에서는 범죄를 낱

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잘 조직하면 범죄적 현상을 얼마든지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사법검찰기관들이 근로자들 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할 것과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범규범과 규정 및 범죄의 형태와 수법을 바로 알고 범죄와 위법 현상을 미리 막기 위하여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김정일에 의하면 범죄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의 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없애자면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는 사상의식을 개조하지 않고 통제만 하여서는 범죄와 위법현상의 뿌리를 없앨 수 없다며 통제와 사상개조의 병행을 강조한다.

김정일은 현지공개재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인식을 갖고 있다. 그는 현지공개재판이야말로 하나를 쳐서 수백 수천의 군중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는 좋은 준법교양 형식의 하나라며 현지공개재판을 잘하면 재판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현지공개재판이나 처형을 목격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보면 북한의 현지공개재판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 사법검찰일군의 의무: 당의 영도 견지

김정일은 사법검찰기관들이 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법검찰일군들이 당의 영도를 잘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사법검찰일군들을 계급투쟁의 전초선에서 당과 혁명을 보위해 나가는 혁명전사라고 호칭한다. 따라서 이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며 당의 영도를 받들어나가는데서 투사가 되어야

5) 김정일, 위의 글, pp. 316~318.

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로 간주된다.⁶⁾

김정일은 사법검찰일군들이 당의 방침을 절대성과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받아들이고 무조건 관철할 것과 일단 결론된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혁명적 규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그는 당의 영도 구현을 위해 사법검찰일군들이 당조직생활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사법검찰일군들은 사법검찰사업의 실태를 늘 당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당조직의 지도에 따라 사업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⁷⁾

라. 사법검찰사업 체계와 방법 개선

김정일은 사법검찰부문의 과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먼저 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는 통일적인 지휘체계 수립을 강조한다.⁸⁾ 그것은 국가의 법이 어디에서나 똑같이 집행되어야 하며 법집행에서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를 위해 김정일은 ① 중앙사법검찰기관들이 장악통제사업을 잘할 것, ② 아래기관이 웃기관에 복종하는 강한 규율을 세울 것, ③ 법기관들 사이에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세울 것 등을 강조한다. 그는 특히 중앙사법검찰기관 일군들이 아래에 자주 내려가 실태를 똑똑히 이해하고 아래 일군들이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맞게 법을 옳게 집행하도록 장악지도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재판기관과 검찰기관, 사회안전기관들은 당과 국가의 안전을 보위하고 나라의 법질서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으로서 법집행에 있어 3위1체가 되어 통일적인 보조를 취해 나갈 것을 강조한다.

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김정일은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에 빠지

6) 김정일, 위의 글, pp. 328, 326~327.

7) 김정일, 위의 글, p. 327.

8) 김정일, 위의 글, pp. 322~324.

지 말 것을 강조한다.⁹⁾ 그는 특히 관료주의와 세도, 전횡, 형식주의, 요령주의, 사법검찰일군들의 물욕과 도덕적 불건전 및 술풍에 빠지는 것 등을 경계한다. 아울러 그는 사법검찰일군들이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는 사법검찰일군들이 김일성의 노작과 당문헌을 꾸준히 학습하여 거기에 담겨진 사상과 내용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모든 사업과 생활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법 이외에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다방면적인 지식의 소유자, 박식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지적되는 것은 강습, 시범상학, 교양자료편집, 재교육사업 등의 강화이다.

3. 사회주의법무생활

가. 사회주의법과 사회주의법무생활

김정일은 착취사회의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이익에 복무하는 강권정치의 도구로서 사회에 강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반면 사회주의 사회의 법규범과 규정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이익에 복무하기 때문에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주의법을 존중하고 성실히 지키는 것은 응당한 일이 된다고 한다.¹⁰⁾

사회주의법에 관한 김정일의 여러 표현에는 사회주의법의 역할이 그려져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의 사회생활, 사회적활동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공동규범이며 준칙,” “국가사회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공고발전시키는 위력한 수단,” “계급투쟁의 무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

9) 김정일, 위의 글, pp. 324~326.

10)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1982년 12월 15일),”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330.

기,”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추동하는 힘있는 수단” 등이 있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사회주의법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동원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¹¹⁾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사회주의법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김정일의 표현을 빌면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국가의 법질서에 따르는 근로인민대중의 자각적인 규률생활이며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공동행동을 실현해나가는 국가적인 조직생활”이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절실한 문제로 강조된다.¹²⁾

나. 혁명적 준법기풍 강화: 사상교양·사상투쟁·법적 통제 견지

김정일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사상교양, 사상투쟁, 법적 통제를 견지할 것을 강조한다. 혁명적 준법기풍이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며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것을 생활화·습성화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혁명적 준법기풍이 서야 모든 사람들이 법질서에 따라 생활하게 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 제도가 바로 서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본다.¹³⁾

사상교양이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준법교양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본

11) 김정일, 위의 글, pp. 331~334.

12) 김정일, 위의 글, pp. 330~334.

13) 김정일, 위의 글, p. 335.

질적인 우월성이 자각성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준법교양이 중요하다고 한다. 준법교양을 위해 그는 근로자들속에 사회주의법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세우는 것과 근로자들에게 법규범과 규정을 똑똑히 알려 주는 것, 근로자들이 사회주의헌법 및 수령의 노작과 법문헌들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 것, 공민들이 알아야 할 법규범과 규정들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위법현상과 그 해독성에 대하여 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정일은 준법교양의 형식과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법규범 원문침투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것, 법해설선전사업을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켜 할 것, 선전선동 사업을 교양사업과 결부시켜 진행할 것, 긍정적 모범을 널리 소개하고 선전할 것, 당이 세워준 준법교양체계를 따를 것, 법무해설원들의 역할을 높일 것 등이다.¹⁴⁾

김정일은 혁명적 준법기풍 강화를 위해 사상투쟁을 강화할 것과 법적 통제를 강조한다. 그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위법현상은 낡은 사상 잔재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상투쟁을 벌려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법적 통제를 위해서는 법집행에 대한 검열감독사업이 선차적 과제로 제시된다. 김정일은 법적 통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반혁명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자비해야 하지만 근로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저지른 위법현상에 대해서는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처리하라고 한다.¹⁵⁾

14) 김정일, 위의 글, pp. 335~339.

15) 김정일, 위의 글, pp. 339~342.

다.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당조직과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 강화

김정일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조직과 인민정권기관들이 그에 대한 지도를 개선할 것을 강조한다.¹⁶⁾ 이를 위해 그는 인민정권기관들이 법을 제정하고 완성하는 사업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업을 잘 할 것, 당적과 노동계급 및 국가적 입장을 철저히 지킬 것 등을 지적한다. 그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의 법무생활을 조직지도하는 집체적 지도기관으로서 당정책에 입각하여 인민정권기관들에 법무활동방향을 정확히 주고 그 집행을 장악지도하도록 지시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북한에서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은 법무생활지도 일군들에게 관료주의, 주관주의적 사업작풍, 본위주의, 요령주의 등을 경계하여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데서 모범이 될 것, 혁명적 군중관점에서 일을 처리할 것, 법집행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할 것, 대중을 설복하고 교양하는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할 것, 그리고 일상적으로 아래에 내려가서 군중과 의논하여 대책을 세울 것 등을 주문하고 있다.

4. 사회안전사업

가. 의미와 본질

김정일에 의하면 사회안전사업은 인민대중의 안전을 보위하는 것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위를 옹호보위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 역할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이러는데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한다.¹⁷⁾

16) 김정일, 위의 글, pp. 343~348.

김정일은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당과 당의 영도적 역할이 중요하며 아울러 사회안전기관과 같은 인민민주주의독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사회주의국가의 독재기능이 마비되고 사회주의를 말아먹게 된 것은 계급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안전기관이 제구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사회안전사업은 인민대중이 동원될 때에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¹⁸⁾

나. 사회안전사업의 기본원칙

김정일은 사회안전사업의 기본원칙으로 세 가지를 지적한다.¹⁹⁾ 그것은 첫째, 당의 영도에 따라 진행할 것, 둘째, 노동계급적 원칙을 지킬 것, 셋째, 범죄와 위법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과 적발하기 위한 사업을 잘 결합할 것 등이다. 이를 위해 그는 사회안전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당중앙에 보고하고 결론을 받아 처리하는 엄격한 질서를 세울 것과 당이 제시한 사회안전사업방침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관철함으로써 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것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모든 문제를 노동계급의 근본 요구와 이익에 맞게 처리할 것과 계급투쟁에서 잠시도 해이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그는 사회안전사업에서 정치적 방법을 잘 지켜나갈 것을 강조한다. 정치적 방법이란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군중 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

17) 김정일,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결히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사회안전일군들을 키워내자(창립45돐을 기념하는 사회안전부정치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11월 20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243.

18) 김정일, 위의 글, pp. 241, 243.

19) 김정일, 위의 글, pp. 244~247.

고 선전선동사업과 사회안전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평가사업을 잘하는 것, 그리고 기술실무적 방법을 옹계 결합하여 진행하는 것 등을 말한다.

다. 사회안전일군의 과업: 온 사회의 일심단결 옹호보위

김정일은 사회안전일군들의 중요한 과업은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튼튼히 옹호보위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사회안전일군은 당의 사회안전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실천가들로서, 이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성은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이라고 강조한다. 사회안전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발휘하여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도록 하여야 하며 인민의 생명재산을 구원하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안전일군들은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저애하는 온갖 부정적 요소나 당정책 관철을 저애하는 위법현상과의 투쟁을 잘해야 하며,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 마비, 돈밖에 모르는 타락분자나 정신적 불구자 등과 같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막아야 한다. 특히 부르쥬아 사상문화적 독소가 사회 내부에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사회안전일군들은 자신의 실천능력을 키우기 위해 경험교육, 현직 일군들의 초빙강의, 정황풀이교육, 실습교육 등을 조직·강화하며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지 말고 경제도덕적으로 청렴결백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은 조직생활을 통해 부단히 사상단련을 해야 한다.²⁰⁾

20) 김정일, 위의 글, pp. 247, 250, 251.

5. 결 론

김정일은 사법검찰기관을 ‘정치적 보위대’로 호칭한다. 그만큼 사법검찰기관은 무엇보다 당정책 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데 충실해야 한다. 사법검찰일꾼들은 당과 혁명을 보위해 나가는 혁명전사로서 당의 영도를 잘 받들어 나가야 한다. 사법검찰기관은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통제장악과 강한 규율 및 협조체제를 중시해야 한다.

김정일은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가 사회주의 혁명·건설과 직결된다고 보고 혁명적 준법기풍 강화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사상교양, 사상투쟁, 법적 통제가 중요한 수단이 된다. 당조직과 인민정권기관들은 법무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김정일은 사회안전사업을 위해서는 당의 영도와 노동계급적 원칙, 범죄와 위법현상에 대한 예방과 적발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안전일꾼들은 당의 사회안전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실천가들로서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징적인 것은 범죄와 현지공개재판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이다. 김정일은 범죄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상을 개조해야 한다고 보며 현지공개재판은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반혁명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하지만 근로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저지른 위법에 대해서는 혁명역량 강화차원에서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김정일이 갖고 있는 사법관념의 요체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령의 영도성, 계급성, 사상성으로 집약된다. 사법은 지배계급의 도구로서 노동계급의 계급적 독재를 실현하는데 복무해야 하며 그 권한은 수령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수령의 영도성과 당정책을 법적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사법검찰이나 법무생활, 사

회안전사업 등에 있어 철칙이 된다.

흔히 북한은 사법이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현하는데 역할하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민을 위한 인민민주주의를 세우는 위업이 된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사법이 견제와 균형, 자율의 개념이 아니라 도구적 역할로서 존재한다는데 있다. 프롤레타리아독재 실현도 인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중국에는 당과 수령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만다. 김정일의 사법관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귀결 역시 철저히 수령의 영도와 당정책의 관철이다. 결국 김정일의 사법관은 수령영도, 계급성, 사상성이라고 하는 또다른 ‘교조’에 묶여 있는 셈이다.

IV. 당과 각급 당조직의 지위와 역할

박형중(선임연구위원)

1. 서론

김정일선집의 당에 관한 문헌들의 주요 주제는 당이론과 당사업에 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당이론에 관한 것이란, 당의 지위와 역할 등에 관한 보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의 문헌들이다. 당사업에 관한 것들은 다시 첫째, 당내부사업과 둘째,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에 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당 내부사업은 다시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에 관한 것들로 분류할 수 있다.

김정일선집은 1964년 2월 2일의 문헌부터 1999년 9월 29일까지의 문헌을 포괄하고 있다. 이중, 보다 추상적이고 이론적 차원에서 당을 다룬 문헌은 그리 많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문헌은 당사업, 다시 말해, 당내부사업인 조직사업과 사상사업, 그리고 행정경제에 대한 당적 지도와 관련된 구체적 정책 조치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당에 대한 문헌의 비중, 또한 당의 각 기구에 대한 언급의 빈도, 그리고 당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시기마다 '수령'과 당의 주요 정책 방향의 변화에 따른 당-정 사이, 그리고 당과 정 의 각급 기구의 정치적 중요성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일선집의 당에 관한 문헌들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될 수 있다. 이 글은 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것이다. 제2장은 김정일 선집의 보다 이론적 문헌에 나타난 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서술한다. 제3장은 당중앙위원회 부서의 지위와 역할, 제4장은 도, 시, 군당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해서 서술한다.

2. 당의 역사 및 이론

당 자체의 지위와 역할을 보다 이론적 차원에서 다룬 글은 많지 않은데, 최초의 것은 조선노동당의 역사를 다루었던 1982년 10월 <조선노동당은 영광스러운 《트.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이었다. 당에 관한 이론적 글들은 사회주의권 다수 국가의 붕괴 충격이 생생하던 1989년 이후부터 1992년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주로 당의 지위와 역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정치체제는 당중앙위 정치국의 소수 정치국원들에 의한 과두적 권위주의 체제였지만, 북한은 개인독재체제를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중앙위 총비서의 위신과 권위가 다른 개별 정치국원에 비해서 높았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들 모두의 총합을 압도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정치체제에서는 보다 일반적 권위체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공산당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내부정치체제의 기본원칙이 서술되었다. 예를 들어 동독의 경우를 보면,¹⁾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은 1) 노동계급의 일부로서, 2) 과학적 이론과 노동운동을 통합시키는 노동계급의 의식화된 전위이며, 3) 노동계급의 최고의 조직형태이자, 4) 구체적 정세에 맞게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며, 5) 국제적 운동이라는 것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당에 관한 이론 자체에서 현존하는 개별 최고 지도자에 관한 언급은 아예 등장하는 등, 당 자체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최고의 정치적 정당성을 표현하는 제도로서 간주되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

1) Wissenschaftlicher Sozialismus. *Lehrbuch für das marxistisch-leninistische Grundlagenstudium* (VEB Deutscher Verlag der Wissenschaften:Berlin, 1988), pp. 67~72.

가 중에서도 북한처럼 개인독재 체제에서는 당과 이데올로기에 대해 개인독재자의 우위가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또한 당과 이데올로기보다는 개인독재자 자신의 위신과 권위가 체제 정당성의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다. 당과 이데올로기는 최고지도자의 지위와 역할을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서 기능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김정일은 1982년 10월 <조선노동당은 영광스러운 《트. 드》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에서 다소간 자랑스럽고 확신에 찬 어조로, 조선노동당의 역사를 결산했다. 그에 의하면,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전환점은 1926년 김일성이 결성했다고 하는 타도제국주의 동맹이며, 1930년 7월초 카툰회의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첫 당조직이 탄생했는데, 이는 조선노동당의 시원이라는 것이었다. 1950년대는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1960년대는 사회주의 체도의 확립, 자립적 민족경제 토대완성, 반당종파분자와의 투쟁 등으로, 당이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것으로 간주되었다. 1970년대는 당 안에 수령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방침이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제때에 침투되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중앙집권적 규율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노선과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 관철하는 정연한 사업체계가 세워짐으로써,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1980년대 당의 발전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었다. 즉, 1980년대 초에 열린 당 제6차 대회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전당에 유일 사상체계 건설 등으로 당 대열과 혁명대오 강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등의 전투적 과업들이 제시되었다고 했다.

김정일의 자부심과 확신에 찬 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리는 1980년대 후반에 오면서 방어적 차원으로 변화한다. 그에 대한 최초

의 언급이 등장하는 것이 1988년 1월의 <전당에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세우자>²⁾에서였다. 그 후, 김정일은 1989년에서 1992년에 이르기까지, '당의 변질'로부터 사회주의 붕괴의 원인을 찾으면서, '당내부사업'과 '당과 당의 영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그와 관련된 문헌들로는, 1989년 6월,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자>³⁾, 1990년 10월의 <조선노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⁴⁾와 <주체의 당건설 이론은 노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⁵⁾, 1991년 5월 <당세포를 강화하자>⁶⁾, 1991년 6월에는 <주체의 당건설 위업을 대를 이어 빛 내어 나갈 참된 당일군을 키워내자>, 1992년 10월 10일의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김정일은 이러한 글들에서,당을 강화하고 영도적 역할을 높이는 것에 대해 강조하면서, 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노동당을 노동계급의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

2) 김정일, "전당에 혁명적당풍을 철저히 세우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8년 1월 10일)," 『김정일 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3) 김정일,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및 도당책임비서들과 한 담화 1989년 6월 9일)," 『김정일 선집 9』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342~392

4)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1990년 10월 3일)," 『김정일 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11~234.

5) 김정일, "주체의 당건설 이론은 노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0월 10일)," 『김정일 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35~270.

6) 김정일, "당세포를 강화하자(전국당 세포비서 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1년 5월 10일)," 『김정일 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81~118.

당으로 간주하면서,⁷⁾ 당의 성격과 특징은 당이 무엇을 위하여 투쟁하며 어떤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가 하는 데 따라 규정된다고 했다. 김정일은 주체의 당건설 이론은 우리 시대 노동계급의 당 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 지침으로 된다고 주장했다.⁸⁾ 또한 그에 따르면, 노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정치적 영도자였다. 인민대중의 의사는 당을 통하여 수령에게 집중되며 수령의 사상과 영도는 당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했다. 또한 당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혁명의 주체의 중추로서, 인민대중을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연결시키고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유력한 혁명 역량으로 만든다는 것이었다.⁹⁾ 그는,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도로서,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당의 강화발전은 본질에 있어서 당대열의 조직사상적 공고화이며 당이 의거하고 있는 대중적 지반의 공고화라고 하면서, 당대열이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고 대중적 지반이 튼튼해야 한다고 말했다.¹⁰⁾ 그런데, 당이 의거하고 있는 대중적지반의 공고성도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이어, 1995년 10월, 즉 김일성 사후 1년여가 지난 후,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¹¹⁾에서는, 조선노동당의 역사는 곧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활동 역사라고 하면서, 조선노동당과 김일성을 동일시했다. 김일성이 이룩한 가장 빛나는 업

7) 김정일, “주체의 당건설 이론은 노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 p. 267.

8) 김정일, 위의 글, p. 278.

9) 김정일,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역할을 높이자,” p. 345; p. 321.

10) 김정일, “당세포를 강화하자,” p. 83.

11)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1995년 10월 2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86~109.

적은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로운 주체형의 혁명적 당을 건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¹²⁾

3. 당중앙위원회 부서의 지위와 역할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에는 여러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김정일에게 가장 중요한 상대는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였다. 두 부서 중에서도 조직지도부는 조직권을 틀어쥔 ‘당의 심장부서’¹³⁾로 더욱 중요시되었다. 당중앙위원회와 그 내부 조직과 관련된 문헌 수는 170편인데, 그중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와 명시적으로 관련된 글은 74편이다. 김정일은 여타 비서국 부서들에 대해서는 67년과 69년 과 학교육부 각 1건, 73년 교육부 1건, 71년 청년사업부 1건, 71년과 83년 경제부서 각 1건 등만 상대했을 뿐이었다. 그 밖의 대부분의 글들은 일반적으로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을 상대했다.

원래,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당중앙위원회 기본부서로서 당내부 사업을 전담하도록 되어있었다.¹⁴⁾ 실제로 김정일이 조직지도부나 선전선동부를 상대로 행했던 연설 제목의 대부분은 당내부사업, 즉 조직사업과 사상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부서는 당중앙위원회를 비롯, 각급 당위원회의 사실상의 최고 부서로서, 당내부사업 뿐아니라, 해당단위의 행정경제사업의 성과에 관한 책임까지도 함께

12)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의 당이다,” p. 87.

13)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전국당조직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 1974년 8월 2일),” 『김정일 선집 4』, p. 215.

14)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4년 2월 28일),” 『김정일 선집 4』, p. 92.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번성기’라고 평가할 수 있는 76년과 78년 사이에는 이 두 부서관련 연설의 제목이 직접적으로 행정경제사업과 관련된 것도 상당수 등장했다.¹⁵⁾

두 부서의 막중한 책임은 김정일에 의해서도 몇 차례에 걸쳐 언급되었다.¹⁶⁾ 전반적으로 볼 때, 당사업에서 결함이 나타나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책임으로 간주되었다. 즉, ‘당대열과 혁명대오가 얼마나 튼튼한가,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성이 얼마나 높은가, 그들이 얼마나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혁명과업 수행에 투신하는가’에 대한 평가는 이 두 부서의 사업 성과로 간주되었다.¹⁷⁾ 유일사

15) 김정일,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6년 2월 6일)” ;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 회의에서 한 연설 1976년 8월 11일).” 이상 『김정일 선집 5』에 수록; “자력갱생의 혁명적 구호를 높이 들고 전당, 전민을 불러일으켜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8년 1월 1일)” ; “로동행정규율을 강화하며 금요 노동에 적극 참가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8년 1월 5일)” ; “당안에 혁명적 규율을 세우며 사회주의경제건설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7월 13일)” ; “군수공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9년 9월 10일).” 이상 『김정일 선집 6』에 수록;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잘하며 행정규율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2년 11월 14일).” 이상 『김정일 선집 7』에 수록.

16) 김정일, “올해에 당조직들이 주선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361.

상체계 확립, 사업 방법과 작풍, 형식주의, 당제도 등 당사업 상의 모든 결함이 나타나면, 당조직일군과 선전일군이 일을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었다.¹⁸⁾

또한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뒷받침하는 조직정치사업 등에서 정력적으로 일을 하면 인민경제의 당적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비롯하여 모든 일에서 못해낼 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¹⁹⁾ 아울러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지방지도과 책임지도원들을 통하여 장악된 아래당 조직들의 실태와 부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다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인 결론에 따라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갖추어야 했다.²⁰⁾

조직지도부는 핵심부서로 간주되었고 많은 권한이 주어진 만큼, 폐단의 위험성도 높게 간직된 부서였다. 김정일은 ‘조직부 일군들의 특세’와 ‘조직부제일주의’를 비판했다. 김정일의 언급을 보면, ‘조직부제일주의’는 중앙당의 타부서, 특히 선전선동부에 대해서뿐만아니라, 지방당 내부에서도 광범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당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은 뗄 수 없는 당 내부사업의 두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조직부와 선전선동부가 사업을 긴밀히 협의하고 공동으로 ‘배합작전’을 잘해야 했다. 그러나, 조직부 일군들이 조직부 제일주의를 부리면서 특세를 쓰면서,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의논하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했으며,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할 사업까지 가로타고 앉아 월권행위를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²¹⁾ 이러한 현상은 특히 도당 조직부 책임지

17) 김정일, 위의 글, p. 370.

18) 김정일, 위의 글, p. 383.

19) 김정일, 위의 글, p. 361.

20)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p. 87.

21) 김정일, “올해에 당조직들이 주선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p. 385.

도원들 속에서 많이 나타났다. 즉, “도당 조직부의 일부 책임지도원들은 시, 군 당위원회에 내려가 당생활 지도를 실속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틀을 차리고 앉아서 권한만 행사하려 하고 있으며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틀어쥐려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일부 책임지도원들은 군에 내려가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면서 자기의 그릇된 주견을 망탕 내리먹이며 아래일군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거나 의견을 제기하면 이러저러한 부당한 조건을 붙여 압력을 가하고 있”²²⁾다는 것이었다.

김정일은 조직지도부 사업보다는 선전선동부 사업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에 대해 더욱 빈번하고 자세하게 언급했다. 조직지도부 자체를 거론하면서, 그 내부 사업방식의 결함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한 경우는 드물지만, 선전선동부에 대해서는 내부 사업뿐 아니라, 외부와의 사업관계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고 자주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김정일은 선전선동부 사업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성격의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 첫째는 본래 사업 영역 내부에서의 문제이며, 둘째는 본래 사업 영역을 넘어서 월권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사업 영역 내부와 관련해서는, 먼저, 사업에서 중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문화예술부문과 출판보도부문 사업을 지도하는 데 치우치며, 당원과 근로자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지 않는 것, 둘째, 사상사업을 매우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 셋째, 아래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것, 넷째, 조직부와 배합작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등이다.²³⁾ 다섯째, 사상교양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군중속에 당정책, 당중앙의 의도가 제때에 잘 침투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²⁴⁾

22) 김정일, 위의 글, p. 386.

23) 김정일, 위의 글, p. 389.

24)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 1974년 2월 19

이중에서도, 선전선동부가 ‘정치사업은 하지 않고 행정대행을 하며’ ‘대상 기관일군을 제쳐놓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폐단’이 심각하게 지적되었다. 김정일은 1973년 ‘당이 행정경제사업을 지도하기 때문에 행정경제기관 간부들을 비판할 수 있지만,’ 선전선동부 과장, 지도원들이 ‘지도기관에 나가 제멋대로 회의를 열고 일군들을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선전선동부 사업의 결합중의 하나는 당선 전일군들이 정치사업은 하지 않고 행정대행을 하는 것이다. 그는 1977년 ‘행정대행’ 현상은 특히 선전선동부 일군 속에서 매우 심한 것으로 지적하면서, “선전선동부안의 일부 일군들은 대상기관 일군들의 사업을 다 직접 걷어 쥐어야 그들의 사업을 장악통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있”²⁵⁾다고 비판했다. 당선전일군들이 지도소조에 나가 경제사업을 도와주려면 정치사업을 하여 당조직과 군중이 발동되게 하고 행정경제일군들속에서 정무원과 위원회, 부의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규율이 서도록 해야 하는 데, 행정경제일군들을 제쳐놓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래서 안된다는 것이다.²⁶⁾ 또한 선전선동부 지방지도과 책임지도원들은 도의 사상사업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경제선동사업을 비롯한 당사상 사업 전반을 요해해야 하는데, 도당위원회 일군들의 요청에 넘어가, 자재문제를 해결하러 다니는 심부름꾼이 된 다거나, 도안의 숙원 문제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²⁷⁾

일), 『김정일 선집 4』, p. 43.

25) 김정일, “현시기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8월 22일),” 『김정일 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141.

26) 김정일, “당선전부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5년 10월 23일),” 『김정일 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268.

27) 김정일,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

이와 관련 김정일은 1985년 당선전부가 과거, 당사업 절반, 행정사업 절반을 하게 되어 있던 것을 고쳐서, 대상기관에 대한 지도를 정책적 지도로 확고히 전환시키라고 지시했다. 또한 선전부는 조직부와의 배합작전, 경제부서 등 다른 부서와의 협동작전을 강화해야 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선전부 책임일군들이 계획적으로 아래에 내려가 3~4일동안 사업하고 올라와 준비를 한 다음 다시 내려가 3~4일동안 사업하고 올라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등, 당중앙위원회 선전부 책임일군들은 사무실에 앉아있지 말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래에 자주 내려가 실태를 요해하도록 조치되었다.²⁸⁾ 당선전 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는 경우에도 행정경제사업에 참견하지 말고, 언제나 본연의 직능대로 사업해야 했다.²⁹⁾

4. 중앙기관의 당조직

김정일은 중앙기관의 당조직 즉 정무원 위원회, 부 당조직에 대해, 1974년과 1984년 두 번에 걸쳐 본격적으로 언급했다. 정무원의 여러 조직은 행정경제사업의 중앙기관으로서, 아래 단위에 대한 지도사업을 행하는 핵심기관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의 여러 문헌에서 드러나듯이, 일반적으로 ‘정’쪽의 기관 및 그와 관련한 일군들의 이데올로기 및 실무적 위상은 당쪽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특히 정무원 쪽의 일군들은 당일군에 비해 대체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 수령과 당의 정책 관철

전선동부 지방지도과책임지도원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3년 11월 8일),” 「김정일 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482.

28) 김정일, “당선전부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5년 10월 23일),” 「김정일 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290.

29) 김정일, 위의 글, p. 290.

의지가 매우 나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교정하는 임무가 해당분야의 당기관에 주어지고 있다.

김정일의 중앙기관에 대한 1974년과 1984년의 논지와 조치는, 첫째, 당조직과 당활동을 강화하여, 행정경제기관의 일군들을 ‘들볶으면’ 수령과 당의 정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당기관의 당일군은 행정경제기관 일군들을 ‘들볶기는 하되, 대신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974년 김정일은 ‘몇 해전’에 신설되었던 당지도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논했다. 정무원 위원회, 부들에 당조직이 존재하지만, 기관 특성상, 이러한 당위원회만으로는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영도의 실현, 그리고 노동계급의 영향력 강화에는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중앙기관 당조직은 사무만 보는 인테리 집단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당생활을 강화한다 해도, ‘노동계급의 참신한 일본새, 혁명적 사업 기풍’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김일성은 행정경제부문의 지도적 단위에 당지도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했다. 이에, 중앙의 책임일군과 함께 생산노동에 직접 참가하는 공장, 기업소의 핵심노동자가 망라되어 있었다.

김정일은 1974년 정무원 위원회, 부안의 당조직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결함으로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지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확고히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지도체제를 세우는 면에서 정무원 위원회, 부 일군들은 오히려 일반군중보다 못하다는 것이었다.³⁰⁾ 김정일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당생활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책임일군들이 당조직 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적 통제 밑에 사업하

30) 김정일, “정무원 위원회, 부 당조직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정무원 위원회, 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4년 6월 10일),” 『김정일선집 4』, p. 173.

고 생활하도록 강하게 장악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³¹⁾

이러한 개편조치로부터 10년이 지난 1984년 김정일은 “지난 10년 동안 정무원과 위원회, 부를 비롯한 중앙기관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당사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³²⁾다고 자평하면서, 일련의 지시를 했다. 김정일은 먼저,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할 것, 둘째,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의 순결성을 고수하도록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울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도 셋째, 간부와 당원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울 것을 지시하면서, 특히 당생활을 혁명과업 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³³⁾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게 되는 바, 아무리 조직사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는 당원이라 하더라도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충실한 당원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조직들은 당원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조직사상생활정형을 평가하여야 한다³⁴⁾는 것이었다.

당생활 강화와 함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강화는 1974년³⁵⁾과 1984년에 공히 주요 주제였다. 1984년 김정일은 중앙기관 당조직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를 토의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간부

31) 김정일, 위의 글, p. 176.

32) 김정일,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중앙기관 당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년 7월 15일),” 『김정일 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81.

33) 김정일, 위의 글, p. 83.

34) 김정일, 위의 글, p. 89.

35) 김정일, 앞의 글, pp. 181~184.

들과 당원들의 활동을 당적으로 지도방조하는 방법”으로 실현된다고 정의하면서, 이와 관련해 일련의 지시를 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것이었다.³⁶⁾ 둘째, 당정책 집행정형에 대한 장악사업과 생산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풀기위한 사업을 잘해나가야 했다. 셋째, 당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현상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는 것이었다. 넷째, 당지도위원회를 바로 운영하여 그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원회, 부 당조직들에서는 당지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편향을 없애고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결정하는 정치적인 회의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5. 도, 시, 군당

북한에서 지방당은 각 지방행정 단위에서 최고의 권력과 최종적 책임을 지닌 조직체로 간주된다. 지방당 조직의 기본 임무도 당내부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방당 조직의 역할은 좁은 의미의 당사업 이외에도, 여러 정치적 실태에 대한 장악과 그 정보의 상부 통보, 행정경제사업의 성과 등, 해당 영역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장악통제할 것 등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김정일은 중앙당의 경우보다 지방당 차원에서 당사업에 관한 여러 폐단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첫째 이유는, 지방당의 강력한 권한과 관련한 것으로서 당

36) 김정일,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p. 94.

세도와 관료주의 등의 폐단이며, 둘째, 중앙당 차원보다는 경험이나 능력에서 처지는 당일군들의 사업 방식 등으로 보고 있었다.

지방당 조직은 중앙당 기구와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당중앙위원회 부서의 경우에는 그 지위와 역할에서 아래 단위에 대한 지도사업이 주를 이루지만, 시, 군당 등의 지방단위는 집행단위로 간주되었으며, 도당은 중앙당과 시, 군당의 중간매개체로서, 지도와 집행의 양면을 가지고 있었다.

도, 시, 군당 등에서도 당조직의 주요 사업은 당내부사업과 행정경제에 대한 당적 지도였다. 그런데, 김정일은 수 차례에 반복하여, 당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결국 경제사업의 결과에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역으로 “경제사업이 잘 안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긴장성이 조성되었다면 그것은 벌써 당사업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당내부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목적은 “결국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자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당사업이 잘되고 있다면, 행정경제사업이 잘 안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즉, 당일군들이 간부대열과 당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을 높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제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면, 즉 당 내부 사업을 잘하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조성된 일시적인 긴장성을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경제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업, 특히 당내부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⁷⁾

그런데, 당내부 사업에 대한 평가는 행정경제사업에서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는 논리는, 당조직들이 당내부 사업을 잘하여 행정경제사업을 일으키는 대신, 당내부 사업을 소홀히하고 행정경제사업 자체에

37) 김정일, “도, 시, 군 당위원회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도당책임비서 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4월 9일),” 『김정일 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402.

주력할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었다. 이는 도, 시, 군당 등 집행단위로서 성격의 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는 당조직일 수록, 보다 심각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명제였다. 즉, “수령님께서 경제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늘 도당책임비서들과 토론”하며, “도의 경제사업이 잘되지 않을 때에도 도인민위원장들보다 도당책임비서들에게 책임을 더 추궁한”다는 현실 등 때문에, 당조직이 행정경제사업에 주력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김정일은 특히 도당 조직부 당생활지도과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그러하면, 도안의 전반적인 실태와 간부들과 당원들, 군중의 동향을 손금보듯이 꿰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도당 조직부 당생활지도과 일군들이 한 달에 20일동안 아래에 내려가 사업하고 10일 동안은 올라와 재무장, 재작전하는 제도와 군당 조직부 담당지도원들이 1주일에 5일동안은 내려가 사업하고 2일 동안은 올라와 재무장, 재작전하는 제도를 철저히 지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실태요해소조 같은 것을 자주 무어 아래에 내려 보내야 했다. 실태조사단을 파견할 때에는 도, 시, 군당 책임일군들이 실태조사단성원들에게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르쳐주어 내보내야 하며, 실태를 요해할 뿐 아니라 제기된 문제를 풀어주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 김정일은 특히 도당 조직부 당생활지도과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지시했다. 그러하면, 도안의 전반적인 실태와 간부들과 당원들, 군중의 동향을 손금보듯이 꿰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도당 조직부 당생활지도과 일군들이 한 달에 20일동안 아래에 내려가 사업하고 10일 동안은 올라와 재무장, 재작전하는 제도와 군당 조직부 담당지도원들이 1주일에 5일동안은 내려가 사업하고 2일 동안은 올라와 재무장, 재작전하는 제도를 철저히 지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실태 요해 소조 같은 것을 자주 무어 아래에 내려 보내야 했다. 특히 도, 시, 군당 일군들은 리

에 내려가 리당사업에서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다.³⁸⁾

지방당 활동에서 가장 중대한 결함 중의 하나는 당기관에 의한 행정대행 문제였다. 이는 당정의 분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최고의 권력을 지닌 지방당 조직이 행정경제조직의 본래 임무인, 해당 지역의 경제사업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행정대행은 당기관의 행정경제 기관에 대한 월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정경제기관 일군의 책임성이 없어지고, 모든 문제가 당기관에 떠넘겨지는 폐단을 초래하며, 또한 당기관이 본래 임무인 당내부 사업에 주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제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것이어서, 김정일은 1991년까지도, “지금과 같이 도당위원회가 경제사업에 맡겨두고 여기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부까지 맡겨둘게 하면 도당위원회는 물론,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까지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나중에는 우리당이 경제주의당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³⁹⁾

지방당 차원에서 이러한 행정대행의 문제를 시정하는 조치 중의 하나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도, 시, 군당 책임비서들이 도, 시, 군 인민위원장을 겸임하고 해당 지역 안의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을 다 틀어쥐고 지도하던 사업체계를 고치고 도, 시, 군 인민위원장들을 따로 분리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977년 2월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 김정일은 이와 관련,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이유는, 도, 시, 군당 책임비서들이 능력이 부족하여 해당 지역의 전반사업을 옹계 장악지도

38) 김정일,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정일 선집 5』, p. 291.

39) 김정일,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1년 1월 5일),” 『김정일 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결코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적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⁴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떠난 순수 당사업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도, 시, 군당 책임비서들은 인민위원장들이 따로 나왔다고 하여 행정경제사업에 대하여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인민위원회사업을 철저히 장악 지도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해야 했다.

이러한 분리 조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다. 먼저, 김정일은 이 문헌 2달후에 발표된 문건에서⁴¹⁾ 벌써, 도, 시, 군당 책임비서들이 행정경제사업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둘째, 이 조치가 내포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인민위원장들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높아졌지, 실질상으로 당책임비서들의 권한은 거의 변함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를 김정일은 인민위원장들의 수준이 낮아, 높아진 권한을 옹기 행사할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즉, 일부 인민위원장들은 아무리 권한이 있어도 당권, 간부권을 가지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당책임비서한테 찾아가 절을 해야지 별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방당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는 명목상으로 각급 당위원회는 집체적 지도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 데, 실제상으로는 각급 당위원회의 책임비서가 이른바 ‘독판’을 치는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는 1978년과 1979년⁴²⁾에 집중적으로 비판되었다. 즉, 당위원회는 집체적 지도기관인

40) 김정일, “도, 시, 군 당위원회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도당책임비서 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4월 9일),” 『김정일 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389.

41) 김정일, “도, 시, 군 당위원회 사업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도당책임비서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6월 30일),” 『김정일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42) 김정일, “현시기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것만큼 개별적 일군이 당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도, 시, 군 당 책임비서가 도, 시, 군 당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으며 공장당비서가 공장당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으며 위원회, 부 당비서가 위원회, 부 당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비서는 당회의를 집행하는 의장에 불과한데, 당시 많은 경우에 당위원회사업이 당비서의 주관과 독단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비서가 독판을 치면서 사람들을 1대1로 대상하여 사업하거나 비판하면 그들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며 당비서가 마치 당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위원회가 당비서의 주관과 독단에 의하여 움직이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모든 사업을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했다. 상급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지도할 때에도 당비서의 말만 듣지 말고 당위원회에 참가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또한 위원들이 당위원회앞에 자기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기풍을 세우야 했다. 공장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장 당비서는 당사업을 하고 지배인은 기업관리사업을 하며 기사장은 참모장사업을 하여야 하며, 군당책임비서와 군인민위원장, 군행정위원장도 군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당시 당책임일군들과 행정책임일군들이 당위원회앞에서 자기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는 기풍이 서있지 않다는 것이었

8월 22일), 『김정일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12월 25일),” 『김정일 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9년 1월 6일) 『김정일 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9년 4월 28일) 『김정일 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다.⁴³⁾

김정일은 1991년 1월의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⁴⁴⁾에서 지방당조직들이 행정대행을 맡고, 당내부사업에 관심을 돌릴 것을 당부했다. 당책임 일군들이 경제사업에만 관심을 돌리기 때문에 도나 군 안의 균중동향과 사람들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아래에서 나쁜 놈이 책동하여도 모를 위험이 있다고 했다.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을 대행하면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다 같이 맡아 먹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경제사업은 도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가 전적으로 맡아하고 도당위원회는 도안의 전반사업을 지도하면서도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⁴⁵⁾ 경제사업의 주인은 경제일군들이며 경제사업은 경제일군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도안의 경제사업을 도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가 맡아하는 조건에서 정무원에서는 그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도사업을 짜고 들어야 했다. 이와 동시에,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자기의 본분과 직능에 맞게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해야 했다.

43) 김정일,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12월 25일),” 『김정일 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216.

44) 김정일,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1년 1월 5일),” 『김정일 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45) 김정일, 위의 글, p. 10.

6. 결론

이데올로기적 위상이나 통치실무 차원에서 조선노동당과 그 산하 각급 조직은 김정일에게 최고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기구 차원 특히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위상과 비중이 정무원(내각), 군 등의 다른 조직체에 대하여 항상 변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김정일 문건의 상대 빈도라는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볼 때, 당중앙위원회의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1976년 1월부터 1983년 1월까지 가장 중요했던 기관이라 볼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시기에는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당과 관련한 문헌 빈도수로 볼 때, 1975-80년 가장 많았고(29편), 80년대(19편)와 90년(11편)대에는 줄어드는 추세였다는 것은 당의 타기관에 대한 정치적 비중의 상대적 감소를 시사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당사업에 관한 김정일 지시의 추이를 보면, 80년대를 지나갈수록, 당조직은 당내부사업에 전념하고, 행정경제사업은 행정경제기관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는 논점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 체제에서 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김정일의 논지와 조치가 변화하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행정경제사업에서의 당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도 연계되어 있었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김정일의 논지를 요약하면, 첫째, 수령과 당의 정책은 절대로 올바르게 때문에 조직정치사업만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달성 가능하다, 둘째, 수령과 당의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당과 정 특히 당일군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다. 따라서 셋째, 당생활 강화를 중심으로 당원들에 대한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이 수령과 당

에 대한 충실성을 제대로 가지게 하면, 당일군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등이었다.

이러한 논지가 강한 시기일수록, 북한(행정경제)체제에서 특히 정무원 등 정에 대한 당의 지위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수록, 당과 정의 분리 및 당은 당사업에 충실하고, 정은 행정경제사업에 전념하도록 하라는 식의 논지와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결론할 수 있다. 김정일의 문건은 당에 대해 점차로 행정경제사업 대신 당사업에 전념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이 무모한 ‘동원성’과 ‘속도’ 정책으로부터 점차로 ‘현실성’과 ‘균형’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과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80년대에 시작되어, 90년대에 가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었다.

V. 당운영론

최진욱(선임연구위원)

1. 서론

북한의 당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당은 권력의 원천이요 중핵이며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의 지도적 핵심이 된다. 당의 위상에 대하여 『철학사전』은 노동계급의 당을 “정치조직 가운데서 최고형태의 조직이며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지도적 및 향도적 역량”으로 규정하고 있다.¹⁾ 즉 북한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참모부로서 수령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수령의 의도대로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사회의 심장, 공산주의건설의 추진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헌법(11조)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적 지도를 명시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당의 위상과 역할에 적합하게 당을 운영하는 것이 당운영의 주요 원칙인 것이다.

당의 영도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업에 있어서 사람과의 사업과 군중노선 등이 중시되고 있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사람과의 사업은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당과 혁명대오를 김일성주의 전투부대로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갈수 있습니다”고 말하

1) 사회과학출판사 편,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146.

였다.²⁾ 또한, 김정일은 당의 강화를 위해 군중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람과의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것”이며, “사람의 속을 모르고서는 사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람을 모르고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하였다. 김정일은 “문건에만 매달려서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 없으며,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사업과 생활정형을 전면적으로 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지 않는다고 하여 억지로 마음의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아채서는 안되며, 마음의 대문은 스스로 열어놓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³⁾

본고는 당의 지위와 역할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강화하기 위한 당의 운영에 관한 김정일의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당 운영의 주요 내용은 당조직, 당생활, 간부사업, 당일군의 자세 등이다.

2. 당조직

김정일은 당을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내부사업에 큰 힘을 넣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⁴⁾ 특히, 당의 말단조직인 세포의 강화를 당의 강화발전의 핵심

2) 김정일,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1977년 8월 16일),” 『김정일 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450.

3) 김정일,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1965년 1월 8일),”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66.

4) 김정일, “당사업과 경제사업에 힘을 넣어 사회주의위력을 더욱 강화하자(1993년 2월 17일),”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16.

적 요소로 간주하였다.⁵⁾

당의 부서중에서는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김정일은 조직부와 선전선동부를 의사와 약사의 관계에 비유하며 두 부서가 긴밀히 협의하고 공동으로 작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조직부가 당생활을 늘 장악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함과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하면 “이에 기초하여 선전선동부가 결함을 고치는데 알맞는 사상교양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

당내부사업을 잘하여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자면 조직부와 선전선동부가 서로 힘을 합쳐 일해 나가야 합니다... 조직부는 의사이고 선전선동부는 약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자면 의사가 진단을 바로 내리고 약제사가 그에 맞는 좋은 약을 주어야 하는 것 처럼 당원들의 당생활을 개선 강화하려면 조직부가 당원들의 당생활을 늘 장악하고 당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과 그 원인을 똑똑히 찾아내야 하며 선전선동부는 거기에 맞는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그래야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나타나는 병집을 제때에 고치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과업수행에 옹계 조직동원할 수 있습니다.⁷⁾

김정일이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그가

5) 김정일, “당세포를 강화하자(1991년 5월 10일),” 『김정일 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83.

6)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년 8월 2일),” 『김정일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265.

7) 김정일, “조직부와 선전선동부사이에배합작전을 잘할데 대하여(1977년 2월 1일),” 『김일성선집 5』, pp. 383~384.

1974년 후계자로 지명된 후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후계자 지명 직후인 1974년 2월 19일 김정일은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선언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1974년 4월 14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중 가장 핵심인 10항은 “김일성동지가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주의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틀속에서 해석하려는 ‘편향’을 비판하고,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강조함으로써 주체사상 해석의 최고권위자가 되었다. 이 모든 사상사업은 김정일이 장악한 선전선동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⁸⁾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후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의 지도를 뒷받침하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었으며,⁹⁾ 이를 위하여 김정일은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 확립문제를 내세웠다. 김정일은 유일적 지도체제, 즉 김정일 지도체제수립의 정당성을 유일사상체계확립에 두었다. 김정일은 “우리 당에 있어서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은 당안에 유일적 지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¹⁰⁾

또한 김정일은 자신의 의사를 김일성의 의사와 동일시하여 당사업과 활동을 자신의 통제하에 집중시킴으로써 중앙집권적 당규율의 확립을 도모하였으며,¹¹⁾ 나아가 유일적 지도체제의 확립을 통하여 후계체제

8) 「김정일 선집」을 보면 1974년부터 특히 사상사업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연설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스킨지 지음, 유영구 옮김,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pp. 108~109.

10)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년 8월 2일),” p. 214.

11) “당중앙의 의사는 곧 수령님의 의사이며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는 곧 수

의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김정일은 유일적 지도체제를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사회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지도체제이며 수령님의 의도대로 우리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로 이끌어어나가기 위한 지도체제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지도체제”라고 정의하였다. 김정일이 후계자 지명 직후 유일적 지도체제를 내세운 것은 김일성의 권위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도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으며, 김일성의 권력과 권위를 강화시키는 것은 곧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대하는 것이었다.¹²⁾

김정일은 유일적 지도체제 확립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를 강화시켰다. 김정일은 우선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중앙당으로부터 지방조직으로 내려가는 모든 지시와 문서가 김정일의 승인하에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당조직을 위에서 아래까지 철저히 장악하려 하였다.¹³⁾ 사전승인의 실무적인 절차는 조직지도부에서 담당하였다. 즉 김정일은 조직지도부로 하여금 “각 부서가 집행위원회와 비서처회의에 제기하는 문건들, 아래당조직에 내려보내는 지시문들을 미리 검토하고 합의를 주며 지도소조를 조직하고 파견”하도록 하였다.¹⁴⁾

령님의 유일적령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 중요한 문제들은 레외없이 당중앙의 유일적결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위의 글, p. 214~215.

12) 스투키 지음,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p. 109.

13) “당중앙위원회에서 아래당조직들에 내려보내는 지도서와 지시는 반드시 위대한 수령님과 나의 비준을 받은 다음에 내려보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수령님과 나의 승인이 없이는 어떠한 문건도 아래에 내려보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74년 2월 28일),” 『김정일 선집 4』, pp. 87~88.

14)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874년 8월 2일),” pp. 266~267.

또한 김정일은 당정책의 해설, 지도위주의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 등을 취급하는 당사업은 그 성격상 성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고 사업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간부들의 월권 가능성이 잠복되어 있다고 보고, 김일성과 자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¹⁵⁾ 예컨대, 김정일은 조직지도부로 하여금 각급 간부의 직무를 규범화하고 상세한 업무 절차를 규정한 「당사업지도서」를 만들도록 지시하여 간부들의 월권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김일성과 자신의 지시를 제외하고는 간부들의 자의적 권한확대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였다.

조직지도부의 기본과제는 지방당조직에 대한 지도사업, 중앙기관 당조직에 대한 지도사업과 간부사업을 강화하는 것이었다.¹⁶⁾ 특히 김정일은 당생활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장악·지도하는 것이 조직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강조하였다.¹⁷⁾

당적 영도와 관련하여,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지도 기능은 사상과 인사, 조직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에서도 요구된다. 예컨대, 석탄 증산 과업에서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선전부문에서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를 들이대

15)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김정일: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서울: 중앙일보사, 1994), p. 139.

16)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1974년 2월 28일),” p. 101.

17)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년 8월 2일),” p. 238.

야 하겠습니다. 당선전일군들은 탄광로동자들 속에 깊이 들어가 석탄 생산을 빨리 늘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잘 해설선전하며 예술단들을 동원하여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방송, 신문들에서도 석탄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선전감 빠니야를 벌리며 텔레비존에서도 저녁마다 탄부들을 위한 방송시간을 따로 내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연제강, 해설담화자료 같은것도 잘 만들어 해당 부문 당조직에 내려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전당, 전국, 전민이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지도소조는 탄광들에 나가 혁명적인 일본새를 보여주어 석탄공업부문 지도일군들이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석탄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¹⁸⁾

3. 생활지도

당적 지도라 함은 생활지도와 정책지도를 말하는데, 김정일은 생산 현장에서는 정책지도와 생활지도 모두 중요하지만, 행정 및 경제기관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도보다는 생활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생활지도 역시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한 1970년대 중반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¹⁹⁾

18) 김정일, “당조직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78년 11월 10일),” 『김정일 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151~152.

19) 김성철,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42~44.

과거에는 행정기관 내의 당조직에 있어서 하급 행정기관에 당원수가 많다하여 상급 행정기관 보다 더 큰 당조직을 두는 경우가 있었으나, 김정일은 이를 시정하여 당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초급당 이상의 당조직에는 행정간부가 당간부를 겸임하는 것을 금하고 중앙당에서 파견하는 전문 당간부가 당사업만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활총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형식과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당생활총화는 당생활의 기본형식의 하나이며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사상적으로 단련하여 당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당원들은 당생활총화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자기 비판도 하고 호상비판도 하며 직접 비판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비판받는 것을 곁에서 보고 자극을 받기도 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게 됩니다. 당생활총화제도를 바로세워야 당원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할수 있고 혁명화과정을 다그칠수 있으며 그들을 당정책 관철에로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습니다.²⁰⁾

과거 한 달에 한 번 세포별로 개최되던 당생활총화를 일주에 한 번 개최하도록 하고,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이틀에 한 번 생활총화를 하도록 하였다.²¹⁾ 김정일은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먼저 문학예술부문 당조직들에서 관철하도록 한 것은 문학예술부문은 다른 부문과 달리 당원대렬이 거의 다 인테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넓은 사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사업상 특성으로 하여 혁명적으로 단련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문학예술부문에

20) 김정일,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울데 대하여(1973년 8월 21일),” 『김정일 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435.

21) 2일 당생활총화 대상자는 총정치국 산하 협주단, 교예단, 예술학원 등에 소속된 연예인들로서 생활이 문란해질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 부르쵸이분자, 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이 많이 남아있어서, 지난날 문학예술부문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성이 부족하고 혁명화되지 못한 표현과 당의 문예정책을 왜곡집행하는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고 말하였다.²²⁾

김정일은 당생활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규율을 어떻게 지키고 학습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 보다 본신희명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즉 “당원들의 당생활이란 당의 위임과 분공을 실행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당에서 맡겨준 기본혁명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것을 떠나서 당생활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고 하였다.²³⁾ 당생활을 강화하는 목적도 그들이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데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정일은 당생활총화는 형식적이 아니라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모든 당일군들은 당생활총화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일은 당생활에 임하는 당간부들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혹독히 비판하고 있다.

지금 일부 간부들, 특히 당책임일군들은 당생활총화와 당학습회에 도 제대로 참가하지 않고있으며 당회의에 참가하여서는 법관행세를 하려 하고있습니다. 당생활에서 직급상관념과 이중규률이 허용되면 간부들속에서는 교만성이 자라나고 평당원들속에서는 그들에 대한 환상과 아부아침, 우상화가 조성되어 결국 당안에 이색적인 요소가 싹트게 됩니다. 당안에서는 모든 당원들이 직위와 공로, 사업년한에 관계없이 하나의 조직규률에 복종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

22) 김정일,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울데 대하여(1973년 8월 21일),” p. 435.

23) 김정일, “당생활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자(1970년 12월 3일),” 『김정일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133.

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이 다 당규약상 요구와 당생활규범의 요구대로 생활하도록 통제를 강화하여 당생활에서 이중규률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²⁴⁾

김정일은 생활총화의 방법에 있어서 비판은 간부들과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수양하기 위한 힘있는 무기이지, 과오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거나 그의 체면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²⁵⁾ 따라서 자기 결함을 솔직하게 비판하지 않거나, 동지들의 비판을 거부하여서는 안되며, 비판을 강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비판을 강하게 하란다고 하여 인신공격을 하거나 내리누르는 식으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도 지적하였다.²⁶⁾

4. 간부사업

북한에서는 간부사업을 북한체제의 유지와 발전의 근본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김정일은 “당의 령도체계를 바로세워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간부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으므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간부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하였다.²⁷⁾

24) 김정일, “전당에 혁명적 당풍을 철저히 세우자(1998년 1월 10일),”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137.

25) 김정일, “당일군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1979년 3월 19일),” 『김정일선집 6』, p. 278.

26) “사람을 규탄하거나 심판하는것은 범죄자를 취급하는 법정에서나 하는 방법이지 사상투쟁회의에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김정일, “당일군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1979년 3월 19일),” p. 280.

27) 김정일,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1979년 4월 28일),”

간부는 혁명의 지휘성원이고 당의 핵심역량이며 대중의 교양자로서 당의 노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 집행대책이 옳게 세워진 다음에 사업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그것을 조직 집행하는 지휘성원인 간부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의 공고성, 질적 수준도 궁극적으로는 그 골간인 간부대열의 질적상태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보고 있다.²⁸⁾

이와 같이 당의 영도체계 확립이라는 대원칙하에서 북한의 간부사업은 파벌배격, 노·장·청배합, 남녀평등, 노동계급 우대라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북한내에서는 김일성·김정일 이외에 누구도 파벌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인사권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철저히 경계하여 왔다. 파벌에 대한 철저한 반대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간부 중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출신과 평양출신들이 많이 등용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외국유학자가 북한에서는 인사상 결코 유리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오랜 기간동안 폐쇄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외국문물에 노출된 간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김정일 자신이 외국유학을 안 간 것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김정일은 외국유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김정일은 “도당책임일군들 가운데는 그 전에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온 동무들도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배워온 것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털어 놓고 말하여 지난날 다른 나라에 가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못합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²⁹⁾

북한이 인사사업의 원칙으로 지켜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세대별

『김정일선집 6』, p. 299.

28)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1974년 8월 2일),” p. 226.

29) 김정일, “현시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5년 6월 13일),” 『김정일 선집 5』, p. 357.

로 노년층, 장년층, 청년층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혁명 1세대들이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지켜가면서 젊은 세대를 충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노·장·청 배합문제가 간부사업의 원칙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후 30년이 지난 70년대 초반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시대상황의 변화 등으로 혁명 1세대들의 정치실무적 능력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김정일의 등장과 연관이 있다. 즉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세대교체의 분위기가 확산되자, 젊은 세대의 등장으로 인한 노간부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정일의 후계구도가 가시화되면서 시작된 3대혁명소조운동은 혁명수행에 있어서 구세대의 한계를 지적하고 신세대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김정일은 도당책임비서와 중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협의회에서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당사업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은 다 지난날 낡은 쑥대밭에서 당사업을 하면서 얻은 것들이라 지적하면서, 급속히 발전하는 새로운 현실에 맞게 당사업을 할줄 모르지만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한다고 비판하였다.³⁰⁾ 그러나 이것이 노간부들을 무시하거나 혁명대열에서 탈락시키는 등 간부들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간부는 경험이 많고 문제처리에서 노숙하며 젊은 간부는 새것에 민감하고 열기왕성하며 진취성이 강하기 때문에 노간부와 젊은 간부를 적절히 배합하여 간부대열을 꾸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³¹⁾ 김일성은 노간부들의 능력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그렇다고 하여 오랜 간부들을 다 사업에서 제외시키거나 떼어버릴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껴야 합니다... 오랜 간부들을 떼어버릴 것이 아니라 잘 도와 주어 그들이 지난 기간 일을 잘한 것 처럼

30) 김정일, 위의 글, p. 357.

31) 김일성,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 경험(1986년 5월 31일),” 『김일성저작집 4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 34~35.

앞으로도 일을 잘하여 꽃을 피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³²⁾ 김정일도 “로간부와 젊은 간부를 잘 배합해야 당을 언제나 세련되고 로숙하면서도 쾌기있고 생기발랄한 혁명적인 전투부대로 되게 할수 있다”고 말하였다.³³⁾

간부사업에서 노·장·청을 배합하는 원칙은 표면적으로 “당건설과 혁명발전의 계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일의 승계과정에서 혁명1세대와 김정일세대의 융합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간부사업에서 고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노동계급의 비율문제이다. 북한은 간부양성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왔다면서, 이들 노동자 계급과 군인 계급이 간부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⁴⁾ 또한 오랜 인테리중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복잡군중출신이 많지만 정의를 따라 혁명의 길을 걸은 사람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조선노동당은 어디까지나 노동계급의 혁명적 정당이고 노동계급은 당간부의 기본표징이기 때문에 간부대열을 꾸리는 데서 노동계급출신 간부의 비중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당이 자기의 계급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노동계급의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⁵⁾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계급을 우선한다

32)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1975년 3월 3일),” 『김일성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105.

33)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 1974년 8월 2일, p. 188.

34) “우리당의 올바른 민족간부양성정책에 의하여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들이 수많이 자라났으며 그들이 오늘 우리나라의 민족간부대렬에서 기본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새로 육성된 젊은 인테리들은 대부분이 로동생활과 군대생활을 통하여 일정하게 단련된 사람들로서 혁명적열의도 높고 원칙성도 강합니다.” 김정일, “인테리정책관찰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을데 대하여(1969년 5월 29일),” 『김정일선집 1』, p. 466.

35) 김일성,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 경험(1986년 5월 31일),” 『김일성저

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

이밖에도 자본주의체제에 비해서 북한은 강력하게 각종 법에서 남녀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77조)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의 혁명화·노동계급화정책에 의해 북한여성은 전체노동력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농촌이나 일부 생산공장에서는 여성이 노동력의 대부분을 책임진다. 그러나 주요 간부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여성비율이 20%정도에 이르러 비교적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보다 중요한 정치기구의 고위직에는 여성의 참여가 극히 미진한 실정이다. 예컨대, 당중앙위원회 비서중 여자는 단 한명도 없고, 정치국, 중앙위원회, 내각 등에도 극소수의 여성만이 있다. 부처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당·정의 중하위직에도 여성의 비율은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북한에서 간부의 선발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요소는 계급적 토대, 즉 성분이다. 계급적으로 좋은 가정환경에서 옳은 정치적 영향을 받았고 사회정치적 시련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해 몸바쳐 싸울 세계관이 튼튼히 선 사람이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하기 때문이다.³⁶⁾ 즉 성분이 간부의 표징이 되는 이유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가장 중요한 간부의 표징인데, 성분이 좋은 사람이 성분이 나쁜 사람보다 수령에

작집 4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 34~35.

36) “우리 당은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한 사람, 다시 말하여 어떤 역경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혁명적 절개를 지키면서 일편단심 당의 부름을 받들고 꿋꿋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을 간부가 될 수 있는 표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표징을 계급적으로 좋은 가정환경에서 옳은 정치적 영향을 받았고 사회정치적 시련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해 몸바쳐 싸울 세계관이 튼튼히 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우리 당 간부정책을 옳게 관철할 데 대하여(1968년 5월 27일),” 『김일성저작집 2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303~304.

대한 충실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즉 간부표징에 맞는 대상은 한국전쟁시기와 그후 혁명투쟁을 하다가 희생된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지난날의 노동자, 고농, 빈농의 아들딸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노동과정에서 단련되었거나 착취를 받아본 사람들, 제대군인들과 영예군인들 가운데서 사상이 견실한 사람들이다.³⁷⁾

북한은 80년대 들어서 사회통합차원에서 계급적 토대를 인사기준으로 하는 데 유연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김일성은 사람들을 가정주위환경과 경력만 보고 평가하지 않고 현재의 사상상태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며 복잡한 균중도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적극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³⁸⁾ 북한은 1987년 「보증」이라는 영화를 제작하여 차별정책의 시정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변화는 북한내 적대계급이 더 이상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자신감과 신분차별적인 인사정책이 김정일의 후계체제완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을 줄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복잡한 균중도 포용하는 소위 “광폭정치”를 자신의 정책브랜드로 삼았다.

김정일은 북한에 있어서 필요한 정치지도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중을 사랑하는 덕성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사회주의정치지도자가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주의사회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인덕이 없으면 인민을 배반하여 사회주의를 망하게 하는 결과까지 가져올수 있다”고 말하였다.³⁹⁾ 특히,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본인의 정치적 구호로서 인덕정치를 강조하였다. 김정일은 “우리 당의 인덕정치는 각계각층의 인민들에게 차별없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는

37) 김일성, 위의 글, p. 305.

38) 김일성, “조선로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1986년 5월 31일),” p. 64.

39)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년 11월 1일),” 『김정일선집 13』, p. 482.

폭넓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다”고 말하면서, 인덕정치는 곧 광폭정치라고 말하였다.⁴⁰⁾ 북한은 김정일의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를 통해서 계급정착을 완화하고 주민포용 제스처를 씌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효성은 의문시 된다.

북한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에 신경을 쓴다고 하면서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하며, 여전히 계급정착을 체제유지의 근간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정일은 기본 군중이야말로 노동당이 의거하고 있는 가장 믿음직한 사회계급적 기반이며 혁명의 핵심역량이라고 말하면서, 군중과의 사업에서는 언제나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⁴¹⁾

광폭정치는 구호 이상으로 발전하여 정책으로 정착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복잡군중이 성분의 약점을 극복하고 간부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주위사람의 신원보증과 인사담당자의 결단이 필요하나, 이렇게 선발된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추천인 혹은 인사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성분이 나쁜 사람을 간부로 선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아무리 위에서 광폭정치를 선전하더라도 밑에 까지 정책이 실현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설령 광폭정치가 부분적으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 경제 분야 등에 국한된 것이며, 체제근간을 유지하는 기관인 군부, 경찰, 보안기관, 외교분야 등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

40) “우리당의 인덕정치는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사랑과 충성에 기초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가장 공고한 단결이며 이러한 일심단결에 뿌리박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년 11월 1일),” pp. 487~488.

41)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 내이자(1992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50.

5. 당일군의 자세

당이 인민대중과 괴리되는 것을 체제에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파악한 김정일은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듯이 보살피 주듯이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피주는 진정한 어머니의 당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간부들은 철저히 혁명화 되어야 하며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창조적 역할을 높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는 가장 과학적인 사회주의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다.⁴²⁾

북한에서는 간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간부들이 특권 의식과 세도를 부리는 것을 경계할 것을 강조하여 왔다. 김정일은 간부들이 세도를 부리며 특권행세를 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⁴³⁾ 김정일은 “지금 일부 당일군들은 자신을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당안에 제정된 질서와 행동규범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의 법질서를 어기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⁴⁴⁾

42) 사회주의에 대한 선행이론은 혁명투쟁에서 물질경제적 요인을 기본으로 보면서 사람의 본질을 사회관계의 총체로 규정함으로써 사람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밝히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은 객관적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주체를 어떻게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가 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위의 글.

43) 김정일, “당사업을 잘하여 사회주의혁명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 (1994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13』, p. 389.

44) 김정일,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위한 당조직들의 과업(1982

간부들이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고 특권행세를 하면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게 되고 나중에는 당이 망하고 사회주의를 지켜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한 것도 바로 간부들의 특권의식과 세도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지만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 따라 간부들이 인민에 대하여 헌신복무정신을 갖고 인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입장에서 언제나 인민의 총복으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간부의 특권의식과 세도에 대해 경계하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당이 신임을 받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수령에 대한 충성이 간부의 보다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틀을 차리는 것이 간부가 아니라 간부는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수령의 혁명전사이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는 인민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하였다.⁴⁵⁾ 또한 틀을 차리는 것은 낡은 계급사회의 반동적 통치배들이나 하는 짓이며 그것은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이기 때문에, 궁극에 가서는 간부라는 말 자체를 없애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일군의 자세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당일군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인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참다운 인민의 총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⁴⁶⁾ 또한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 있어서, 김정일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시나 하고 결정서, 사업요강과 같은 문건이나 내려 보내는 것으로 사업을 대치하지 말고,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으로 일할 것을 강조하였다.⁴⁷⁾ 군중속에 들어가 사업하는 방식은 90년대 후

년 9월 7일), 「김정일 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34.

45) 김정일, “온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년 2월 19일),” 「김정일선집 4」, p. 49.

46) 김정일,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인민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야 한다 (1965년 2월 15일),” 「김정일선집 1」, p. 73.

반 체제위기 속에서 더욱 강조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당일군들은 출석부에 학습회에 참가하였다는 금이나 굶고 아래단 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장악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자기 사업을 다한 것처럼 여기던 낡은 틀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고난의 행군》 시기의 요구에 맞게 군중 속에 들어 가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정치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모든 당일군들이 분발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뿐아니라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이신작착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지휘관들은 대원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일심동체가 되어 일제를 때려 부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하시였습니다...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구호를 부르며 대오의 앞장에 서서 나가면 그 어떤 장벽도 뚫고 산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⁴⁸⁾

군중노선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상급기관의 일군들이 하급기관에 내려가서 머무는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예컨대, 도당 책임비서들은 한달에 15일동안 내려가고 중앙당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들과 도당 조직부 책임지도원들은 한달에 20일동안 내려가며 군당 조직부 담당지도원들은 1주일에 5일동안 내려가도록 하였다. 또한 아래에 내려가는 경우에도 군중 속에는 들어가지 않고 당비서만 만나거나 회의주석단에나 앉았다 올라오며 그저 유랑식으로 자동차를 타고 빙빙

47) 김정일, “올해 당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과업에 대하여(1976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5』, p. 250.

48) 김정일,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1997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258~263.

돌아다니다가 올라와서는 안되고 군중 속에 들어가야지 아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였다.⁴⁹⁾ 이를 위해 당일군들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허물없이 일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며 식사도 같이 하면서 사업하여야 하며, 특히 복잡한 군중속에 대담하게 들어갈 것을 강조하였다.

6. 결 론

북한은 당내부사업과 경제사업을 당의 두 가지 중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 같이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⁵⁰⁾ 즉 당내부사업에만 몰두하면서 경제사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당일군들이 행정을 대행하는 경향 모두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⁵¹⁾

당내부사업에만 몰두하는 것을 비판하는 논리에 따르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더 잘하기 위함이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⁵²⁾ 즉 당조직들을 잘 꾸리고 그것들이 다 당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며, 모든 당원들이 다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당이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주장이다.

49) 김정일,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1976년 2월 6일),” 『김정일선집 5』, p. 268.

50) 김영상, “경제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근로자』, 471 (1981.7), p. 30.

51) 김일성,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1974년 7월 31일),” 『김일성저작집 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387.

52) 김일성, 위의 글, p. 387.

북한에서 다른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당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김일성·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과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당 운영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목표는 당조직, 당생활, 간부사업, 당일군의 자세 등 여러 분야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당내부사업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당조직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7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당내부사업이 강화된 것은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추진되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당사업지도서」를 만들어 간부의 직무를 규범화하고 상세한 업무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간부들의 월권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간부들의 「관료주의, 행정대행주의, 세도를 막고, 사람이 바뀌어도 부서의 기능이 일관되게 수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당생활지도 역시 김일성·김정일의 권력기반 공고화에 초점을 맞추고 실행되어 왔다. 북한에서 실질적인 최고의 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의 8조 5항에서 김정일은 “2일 및 주 조직생활총화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척도로 자기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 사상적 수준에서 검토 총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이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며 끊임없이 혁명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더욱이 당생활총화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당 조직부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즉 당조직부는 모든 당원들과 당조직들에 대한 생활지도와 검열, 인사, 처벌, 평정 등의 기능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김일성·김정일 권력의 공고화에 첨병 역할을 수행하였다.⁵³⁾

간부사업과 관련해서도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확보를 제일의

53) 현성일, “북한사회의 자유와 실태와 전망,” 『북한조사연구』 2권 2호 (1999), p. 7.

원칙으로 삼았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 성분이 이용되었다. 김정일은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의 9조 7항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척도로 하여 간부들을 평가하고 선발배치하여야 하며 친척, 친우, 동향, 동창, 사제관계와 같은 정실, 안면관계에 따라 간부문제를 처리하거나 개별적 간부들이 제멋대로 간부를 떼고 등용하는 행동에 대하여서는 묵과하지 말고 강하게 투쟁하며 간부사업에서 제정된 질서와 당적규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⁵⁴⁾

당일군의 자세와 관련해서는 간부들의 특권의식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데, 이는 인민의 신뢰감 상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당운영은 북한의 의도대로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체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예컨대, 당조직에 있어서 『당사업지도서』의 작성은 김일성과 자신의 지시를 제외하고는 간부들의 자의적 권한확대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였으나, 직능의 세부규정이 만들어짐으로써 상부가 직능 이외의 지시를 하면 하부에서 접수하지 않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⁵⁵⁾

또한, 모든 간부의 선발·임명 기준과 절차, 간부의 승진·이동·해임, 간부교육의 절차·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한 『간부사업지도서』는 간부사업의 제도화를 도모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김일성과 김정일 이외에는 다른 간부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재량권이 제한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54)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1974년 4월 14일),”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116.

55)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김정일』, p. 141.

개인의 능력이나 전문성 보다는 봉건적 신분제도에 의한 간부사업은 북한의 당·정간부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만들고 북한정권의 정치적 안정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즉 지연, 혈연, 학연 등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일투사 유자녀, 전쟁유자녀 등 혁명가계혈통을 중시하는 간부사업으로 북한의 엘리트들은 고도의 동질감과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분위주의 간부사업은 충성심 위주의 관료조직을 만들고, 당·정간부들을 체제에 대하여 무비판적인 집단으로 만들었다. 더욱이 당·정일군들의 사고를 경직시키게 되어, 궁극적으로 체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지도 모를 개혁·개방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혁·개방정책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능력은 있어도 성분이 나쁜 사람을 간부등용에서 배제함으로써 성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직장에 대하여 만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체제역량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VI. 김정일의 경제건설론

김영윤(선임연구위원)

1. 서론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수요를 자체의 힘으로 충족하고,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왔다. 이를 위해 북한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즉 중공업을 인민경제발전의 기초로 인식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 초기단계부터 중공업 우선의 경제건설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내적동원에 의한 경제개발이 한계에 부딪히고 산업부문간의 구조적 불균형 심화로 경공업은 물론, 농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낙후되는 결과를 가져오자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리추구를 지향하는 자세를 내보였다. 1990년대 초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와 외국인투자자유지대의 제정,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추진, 2002년 7월과 9월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지정 등은 경제건설을 위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구조적인 경제침체로 심대한 타격을 입은 전력, 석탄, 금속 등 이른바 “선행부문”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중공업 우선주의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하면, 대내외적 개선도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틀 속에서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 있어 사회주의 건설은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이미 오래 전

부터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잘하는 것이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줄 수 있음을 믿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경제건설과 관련된 김정일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미 발간된 김정일의 글(김정일 선집)을 통해 경제건설에 대한 과제 및 수단과 방법, 더 나아가 경제건설상의 문제점에 대한 김정일의 생각을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물론 경제건설의 생각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이 연구의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경제건설의 과제(제2장)를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경제건설에 있어 재정금융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 제4장에서는 경제건설의 방법, 제5장에서는 경제건설상의 문제점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2. 경제건설의 과제

김정일에게 있어 사회주의 경제건설은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김정일은 또한 경제건설을 통해서만이 반미·반파쇼 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릴 수 있으며, “생존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을 고무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가야”¹⁾ 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주의 경

1)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6년 1월 3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42. 이와 관련 김정일은 “지금 북과 남 사이에는 첨예한 군사·정치적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경제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위력에서 적들을 결정적으로 압도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식민지에 속경제에 비한 사회주의적 자립경제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하며 적들이 감히 경제적으로 우리와 겨루어보려는 엄

제건설을 잘하는 것이 북한의 국제적 지위와 권위를 더욱 높이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혁명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정일은 북한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그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토대와 생산 잠재력, 혁명과 건설의 오랜 실천 속에서 단련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백만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에서 찾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해 김정일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김정일은 기간공업과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최우선적인 힘을 불어넣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석탄, 전력, 금속 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과 철도운수의 발전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근본이라는 김정일의 인식 때문이다. 국가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계공업을 비롯한 가공공업부문이 전반적으로 급속히 확대·발전함으로써 전력과 석탄, 강재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와 수송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탄과 전력, 강재가 부족하거나 수송이 원만히 보장되지 못 할 경우에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양시킬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석탄, 전력, 강재 생산과 철도수송을 어떻게 빨리 추켜세우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석탄공업, 전력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 부문을 적극 지원하며, 이 부문에 설비와 자재, 노동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국가투자를 집중시켜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두도 내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과제는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경공업제일주의, 농사제일주의, 수산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건설의 과제는 중앙인민위원회 제7기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이 대외무역과 경공업제일주의, 농사제일주의, 수산제일주의 방침을 제시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김정일도 무역을 통해 원유와 ‘콕스탄’, 생고무와 같은 원자재를 들여오는 한편, 북한은 철강재와 자동차, ‘뜨락또르’를 생산하고 경공업공장들을 가동시켜 여러 가지 인민소비품을 만드는 동시에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적 자립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을 공고히 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 중요한 담보가 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 김정일은 ‘경제가 아무리 발전된 나라라도 무역을 하여 여러 나라들과 유무상통하지 않고서는 잘살 수 없다’²⁾고 하면서, 경제가 다방면적으로 발전하고 위력해질 수록 무역은 늘어나고 이를 통해 대외경제관계가 더욱 확대·발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과 같이 크지 않은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자체로 만들 수도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자원이 많은 것과 전혀 없는 조건을 고려하여 무역을 하고 유무상통함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기관, 기업소들에서 무역계획을 바로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워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물자를 제때에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에게 필요한 물자는 제때에 수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경공업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 데에도 노력을 경주해 여러 가지 인민소비품과 식료가공품의 생산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2) 김정일, 위의 글, p. 346.

하며, 농사제일주의와 수산제일주의 방침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는 한편, 생선도 많이 잡아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과제는 기술혁명을 이룩하는 것이다. 기술혁명을 힘차게 이루어 나가는 것은 북한이 당면한 중요과업의 하나다. 더구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높은 과학기술의 기초 위에서만 비로소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일은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경제적으로 뒤떨어지게 되고 현대적이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 수 없게 되는 바,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이용하고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해야만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비약을 통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일꾼들은 현대 과학과 기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와 같은 과학기술을 생산과 건설에 적극 적용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나라의 생산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특히, 기계공업과 전자, 자동차 공업을 신속하게 발전시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 자동화, 로봇화를 추진하며, 노후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을 끊임없이 갱신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과제를 똑바르게 부여하고 그와 같은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통제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정일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도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을 부언하고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사업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연구실과 실험실, 실험설비와 실험기구,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 주며 살림집과 여러

가지 문화휴식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³⁾ 이와 함께 김정일은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적극 벌려나가는 것도 기술혁명을 달성하는 중요한 방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면서 누구나 신기술의 창조자, 혁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4.15기술혁신돌격대’와 ‘2월17일과학자돌격대’,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 ‘대학생기술혁명소조’들의 ‘기술혁신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과제는 기업관리체제와 방법을 당의 정책적 요구와 사회주의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완성해 나가는 데 있다. 김정일은 기업관리의 체제와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해 나가야만 사회주의 경제체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 수 있으며 생산자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관리체제와 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완성하도록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기업소들의 독립채산제를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다. 독립채산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와 통제 밑에서 기업소가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해나가면서 생산에 지출된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합리적인 경제관리운영방법이다. 따라서 기업의 독립채산제를 제대로 실시하면 국가의 이익과 생산자 대중의 이익을 올바르게 결합시키고 이들의 혁명적 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생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은 경제지도일군들과 생산자 대중은 독립채산제 실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올바른 실시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김정일, 위의 글, p. 349.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연합기업소가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 연합기업소는 사회주의 사회의 특성과 북한 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기업소 조직 형태로서 계획 단위, 생산단위, 집행단위별로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운영할 경우, 생산을 정상화하고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빨리 추켜세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상의 거시적 과제 외 김정일은 다음과 같은 미시적 과제를 경제건설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절약제도를 강화하며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다.⁴⁾ 절약은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물질적 부와 노동의 낭비를 막고 그것을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다. 개개인이 생산하는 제품과 나라의 부를 적극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을 더 많이 하고 인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낭비가 많으면 소용없기 때문에 전군증적인 절약투쟁의 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인 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노력조직, 노력관리를 잘 해 1분 1초의 노동시간도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노력조직을 합리화하고 노동생산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선 도급제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연료와 동력,

4)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6년 1월 3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350 및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잘하며 행정규률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2년 11월 14일),”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94 참조.

각종 원료와 자재를 절약하고 기계설비를 아끼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특히 북한의 공장, 기업소들의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 단위당 석탄과 전력 및 원자재 소비 수준이 세계선진수준에 비해 뒤떨어져 있음을 언급하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소비기준을 보다 낮추기 위한 노력을 벌려, 한 그램의 석탄, 일 와트의 전력, 한 방울의 기름, 한 조각의 강판이라도 아껴 쓰고, 있는 자재와 설비, 있는 노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품을 질 좋고 쓸모 있게 잘 만드는 것이 인민경제의 질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으며, 외국과의 경제적 협조와 교류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이를 위한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 제고와 선진 기술 및 작업 방법의 적극적인 수용, 품질검사사업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둘째, 근로자들의 지도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근로자들의 지도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은 북한의 혁명적 군중로선을 구현하는 공산주의적 대중 지도사상이다. 여기에는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과 대중지도 원칙이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당일군들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며, 늘 아래에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올바른 해결방도를 모색하고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김정일은 그들이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허심탄위하게 배우면서 일을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경제건설과 재정금융

가. 경제건설에 있어 재정금융 관리 원칙

사회주의건설에 있어 재정이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은 중요한 것으로 부각된다. 김정일은 북한의 재정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을 자체로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와 같은 자체적인 재정토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 인민이 세금을 모르고 무료교육과 무상치료, 사회보장혜택을 받으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북한에서 재정은 국가 및 기관, 기업소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성하고 분배 이용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로 정의된다.⁵⁾ 달리 말해 근로인민대중이 자기가 창조한 물질적부를 자신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이용하는 관계를 화폐형태로 반영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 재정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재정은 자본주의 재정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정은 근로인민대중이 창조한 물질적부를 극소수의 착취계급이 독차지하고 자기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이용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재정은 창조된 물질적 부가 이의 창조자인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재정이 균비경쟁 같은 비생산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이라면 사회주의 재정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회적 생산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재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재정문제는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자각적 열성과

5) 김정일, “재정은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0년 9월 18일),” 『김정일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137.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며,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사회주의 재정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재정이 되기 위해선 국민소득의 분배와 관련,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하고 사회주의 경제의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에 의한 분배를 정확히 실현해야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준수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⁶⁾

첫째, 재정관리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말해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재정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 사회주의 재정관리의 핵심인바, 이는 당의 노선과 정책에는 재정관리의 재정사업 방향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참다운 인민의 재정으로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재정을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통제 밑에 관리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국가의 모든 자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며 국가의 법과 규정, 유일한 국가 계획과 기준에 따라 그것을 조성하고 분배하며 이용하는 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즉, 가정에서 돈을 한사람이 틀어쥐고 써야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갈 수 있는 것처럼 국가에서도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해야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재정의 유일관리원칙이 개별적 단위의 창발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재정의 유일적 관리가 오히려 개별적 단위에서 발양되는 창발성을 하나로 종합하고 그것이 훌륭히 실현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정예산수입의 증대와 지출되는 예산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

6) 김정일, 위의 글, pp. 138~140.

다.

셋째, 재정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같이 재정도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적인 재정관리원칙을 떠나서는 사회주의 재정을 바르게 관리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될 경우, 사회주의 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사회주의 재정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국가예산을 비롯한 모든 재정계획을 인민경제계획과 맞물려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규율을 확립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국가예산의 확립과 집행

북한에서 국가예산은 나라의 전반적 살림살이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재정계획이다. 국가예산에 의해 인민들이 벌어들인 자금이 중앙 집중적으로 동원되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국방건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에 계획적으로 이용된다. 국가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집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가 좌우되기 때문에 김정일은 국가예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도록 먼저 국가예산을 바로 세우고 정확히 집행해야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즉, 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고 균중노선과 과학성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예산을 확립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⁷⁾

첫째, 인민경제계획을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정확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세워야 한다는

7) 김정일, 위의 글, pp. 143~145.

것이다. 즉 국가예산을 모든 항목에 걸쳐 인민경제계획을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정확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예산을 정확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예산은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마음대로 고치거나 어길 수 없다. 국가예산자금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은 국가예산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징표로서 철저히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지출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 기업소들은 국가예산납부의무를 어김없이 수행하며 예산자금을 예산항목에 규정된 대로 효과있게 써야 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셋째, 국가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예산수입을 체계적으로 늘이는 것이다. 국가예산수입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봉사료수입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원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중에서도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이 주원천이다. 국가예산수입을 늘이는 것은 인민생활을 제고하는 기초 위에서 수입원천을 늘이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동시에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고 수익성을 높여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국가예산수입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경공업부문공장, 기업소들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여 더 많은 돈을 벌여 국가에 들여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봉사혁명도 힘있게 벌려 봉사료수입을 늘여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넷째,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인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선차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확대재생산을 위한 기본건설자금을 바로 지출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생산적 건설을 위주로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금속공업, 화공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과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운수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여 이 부문을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투자도 동시에 늘어가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 공장·기업소 재정관리사업의 개선

공장, 기업소 재정은 북한 사회주의 재정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재정은 국가예산과 공장, 기업소 및 인민경제부문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데, 바로 공장, 기업소 재정이 사회주의 재정체계의 기초적인 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장, 기업소의 재정관리사업을 잘해야 나라의 전반적 재정사업을 바로 해 나갈 수 있다. 공장, 기업소 재정관리사업을 잘한다는 것은 경제적 타산을 바로 하고 경제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며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부문 공장, 기업소들이 설비관리, 자재관리, 노력관리와 함께 재정관리에도 큰 힘을 넣어야만이 전반적인 기업관리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며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는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 기업소가 대안의 사업체계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즉 공장, 기업소들이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요구에 맞게 원가계획을 세우고 직장, 작업반들과 생산자들에게 원가계획과 절약과제를 정확히 부여하는 동시에 원가를 경영활동결과에 대한 평가와 통제 수단으로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다.

4. 경제건설의 실천적 방법

가. 3대혁명 추진

김정일은 생산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해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벌려나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북한의 기본 전략노선으로 간주된다. 이는 사회주의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강화하며, 자주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⁸⁾ 따라서 김정일은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전망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절실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채취공업과 수송을 다른 부문에 확고히 앞세우면서 금속공업과 기계제작공업, 전력공업, 화학공업, 경공업을 비롯한 모든 공업부문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농업의 공업화를 추진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을 제고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와 같은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선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⁹⁾

8) 김정일,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함경남도 및 검덕광산 지도일군들과한 담화 1975년 7월 1일),” 『김정일선집 5』, p. 169. 및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6년 11월 23일),” 『김정일선집 8』, p. 480.

9) 김정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6년 11월 23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79.

나. 지도사업 및 통제의 강화

경제건설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선 정무원 위원회, 부들이 지도사업을 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정일은 도내 공장, 기업소에 대한 지도사업을 도경제지도위원회가 책임적으로 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왜냐 하면 정무원 위원회, 부들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의 협동생산이나 자재보장대책 정도만을 세워줄 뿐, 완전한 생산지도 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과 건설은 도경제지도위원회와 공장, 기업소들이 기본이 되어 책임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¹⁰⁾

증산과 절약,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또한 계산과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경제기관, 기업소들이 원 단위 소비 기준을 엄격히 따져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정일은 감독통제기관들이 생산된 제품과 건설물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고, 건설에서 질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에는 무조건 시공을 다시 하게 해야 하며, 만약 제품의 질을 저하시키고 원료, 자재를 낭비하여 국가에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해야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다. 행정규율 강화

김정일은 기본적으로 행정규율을 강하게 세우지 않으면 경제발전사

10) 김정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절약 투쟁을 잘하며 행정규율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책임일군 회의에서 한 연설 1982년 11월 14일),”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97.

업을 잘해 나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¹¹⁾ 이는 행정규율을 철저히 세워야 행정적지시가 아래에 정확히 내려가 경제사업과 관련한 당의 방침이 제때에 철저히 관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행정규율이 약화되어 행정경제기관들이 힘을 잃게되면 행정경제기관 일군들의 업무까지 당 일군들이 맡아하는 수밖에 없다. 행정규율을 강하게 세우려면 당 일군들이 행정을 대행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보고 있다.¹²⁾ 즉 공장 당비서들의 사업을 검토하여 보고 그들이 행정을 대행하지 않도록 하되, 공장당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서 노동자들을 생산에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장악보고체계의 철저한 확립을 의미한다.¹³⁾

김정일은 군당위원회가 집행기관이자 지도기관이면서도 적지 않은 공장당비서들이 군당책임비서 같이 행세하면서 공장당 조직의 임무에 맞는 자기 사업을 잘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장당비서는 당 회의를 집행하는 의장으로서 공장 당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으며, 공장 당비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공장당위원회가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한데 따라 자기 앞에 맡겨진 일을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배인은 공장 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업관리를 책임지는 한편, 기사장은 생산을 지휘하며 당비서는 당정치사업을 해

11) 김정일, 위의 글, p. 298 및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6년 1월 3일),” 『김정일 선집 8』 전체 참조.

12) 김정일, “당사업방법을 더욱 개선하며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5년 1월 26일),” 『김정일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31 참조.

13)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6년 1월 3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28.

야 하지, 당비서가 공장을 책임진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배인과 기사장이 할 사업까지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임을 지시하고 있다.

5.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존 문제

가. 혁명과업으로서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경제건설을 국방건설과 병진시켜 추진하는 것은 북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김정일은 경제건설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하는 동시에 국방건설에도 큰 힘을 넣어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국가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¹⁴⁾ 이와 함께 김정일은 북한이 추진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은 여타 국가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면서도 그에 못지 않게 국방건설에도 큰 힘을 경주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정일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는 하다. 따라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해선 전체 인민이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갖추고 한결같이 떨쳐나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켜야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높은 목표를 수행하면서 국가수호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국방력

14) 김정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사상 선전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7월 3일),”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61.

을 강화하자면 생산과 건설을 평상시보다 두 배, 세 배의 높은 속도로 밀고 나가야만 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¹⁵⁾

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위한 대고조 창출

김정일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혁명적 대고조’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의 원인을 당 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적으로 옹계 무장시키지 못하고 그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지 못한데서 찾고 있다. 다시 말해 당사상 사업 부문에 있는 반당 수정주의 분자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거나 당정책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수정주의 사상과 부르주아 사상을 비롯한 ‘사상적 독소’를 퍼뜨렸으며 당정책 선전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김정일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하는 데 대한 노선의 혁명적 본질과 의의를 똑바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일부 일군들은 “국방건설은 되든 말든 경제건설이나 계속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하는가 하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죽여야지 둘 다 밀고 나가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현상을 경고하고 있다.¹⁶⁾

김정일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대고조를 일으키려면 당사상 사업부터 혁신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당사상 사업을 모든 사람들이 당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양하는 사업인 동시에,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혁명적 열의를 발휘하도록 고무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15) 김정일, 위의 글 p. 262.

16) 김정일, 위의 글, p. 263.

당사상 사업이 활력있게 진행되어야만 당과 사회 전체에 혁명적 기백이 넘치고 당의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 양양이 일어나게 된다고 보고 있다.

김정일에 의하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은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계속 추진하면서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자주적인 노선으로 평가된다.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망치를 들고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노선인 바,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지 않고서는 병진노선을 관철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다. 증산과 절약 및 기술혁명

김정일은 북한이 지난 기간 간고한 투쟁을 통해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생산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토대와 생산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한다면 인민경제의 발전은 물론, 인민생활을 높이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자체적인 힘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토대와 생산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이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일은 세세한 부문에까지 신경을 써, 예를 들어 기업소와 건설장의 설비들을 놀리거나 되는대로 관리하여 못쓰게 한다든지, 석탄, 시멘트 같은 것을 밖에 되는대로 쌓아두어 비바람에 유실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을 인식시키

면서¹⁷⁾ 김정일은 증산과 절약의 가장 큰 예비가 기술혁신에 있는 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새로운 기술을 생산과 건설에 널리 받아들여야 나라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적은 원료와 자재, 노력으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할 수 있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연관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기술혁명 수행에서는 노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며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고 그들의 창조적 지혜를 적극 발동해야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무엇보다도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정일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집단의 모든 성원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적극분자로 만드는 공산주의적 교양운동”으로 “사람들의 혁명적 열의와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가는 대중적 진군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⁸⁾ 김정일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투쟁을 통해 남김없이 발휘되고 증명되었다고 밝히면서 북한 인민은 천리

17) 이와 관련 김정일은 “우리 사회의 모든 재부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피땀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증산, 절약 운동을 강화하여 광비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한 개의 못, 한 그람의 세멘트, 한오리의 실이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를 적극 찾아내어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사상 선전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7월 3일),”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66.

18) 김정일, 위의 글, p. 266.

마작업반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임으로써 과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⁹⁾

6. 경제건설상의 문제

가. 자원의 무분별한 낭비

북한의 경제건설에 있어서는 생산의 양적 측면만 유난히 강조됨으로써 이로 인한 자원의 낭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원의 무분별한 낭비는 다음과 같은 김정일의 언급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일부 당조직들과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는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 도 쓸모 있고 알뜰하게 만들며 설비와 자재를 아껴 쓰도록 하는데 힘을 넣을 대신 공청능력이 따로 없다, 기준량이 따로 없다고 하면서 생산의 량적측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청능력과 기준량이 따로 없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반당 수정주의 분자들의 방해책동으로 천리마작업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김정일은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은 사람들 속에 수정주의 날라리풍을 퍼뜨리고 대중의 혁명적인 전진운동을 이모저모로 방해하였으며 심지어 ‘천리마’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 시비하고 반대하였습니다.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천리마운동에 끼친 해독적 후과를 청산하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빨리 추켜세워야 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사상 선전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7월 3일)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67. 따라서 김정일은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벌리는 동시에 사상사업에서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일본새를 결정적으로 없애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고 하는 것은 리치에 맞지 않습니다. 기술적 성능이 규정된 설비에 공칭능력이 없을 수 없으며 사람이 하는 작업에 기준량이 없을 수 없습니다. 탄광 광산들에서 공칭능력이 따로 없고 기준량이 따로 없다고 하면서 생산일면만 내밀다보니 설비가 녹아나 오히려 생산이 떨어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²⁰⁾

이와 함께 김정일은 생산목표의 과도한 달성이 허구인 점도 지적하고 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증산경쟁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500%요, 1,000%요 하고 목표를 너무 높이 내거는 것도 경계하여야 합니다. 결의목표를 내걸어도 정도가 있게 내걸어야지 500%, 1,000%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실 계획을 300%로 넘쳐 수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계획이 잘못 세워진 것으로 보고 계획을 다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바다에 나가 물고기 잡이를 한다면 계획을 몇 백프로로 넘쳐 수행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공장, 기업소들에서 한정된 설비와 자재, 전기를 가지고 계획을 몇 백프로씩 넘쳐 수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부문에 쓸 원료, 자재까지 마구 끌어다 쓰고 기계설비가 혹사되건 말건 가리지 않고 생산만 내밀면 계획을 몇 백프로로 넘쳐 수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서도 국가에 아무런 리익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전반적인 인민경제계획수행에 혼란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넘쳐 수행하자면 기술혁신을 하여 새로운 생산방법을 받아들이며 설비리용률을 높이고 원자재소비기준을 떨구어야

20) 김정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절약 투쟁을 잘하며 행정규률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82년 11월 14일),”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94.

합니다. 그래야 국가에 진짜 이익을 줄수 있습니다.²¹⁾

이와 같은 생산목표의 과대달성 노력이 생산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은 협동농장의 작업과 관련하여 “협동농장들에서도 모내기철에 500% 운동이요, 1,000% 운동이요 하면서 떠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500%운동이요, 1,000%운동이요 하면서 떠들기 때문에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이 모를 질적으로 낫지 않고 되는대로 낫아 빈포기가 생기게 하고 모살이에도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모내기는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²²⁾라고 언급하고 있다.

김정일은 또한 방직공장의 일을 예로 들면서 방직공장들의 다기대운동을 올바르게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적지 않은 방직공장들에서 다기대운동을 벌린다고 하면서 한사람에게 기대를 지내 많이 맡겨놓으니 공장적으로는 생산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며 로력도 별로 절약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다기대운동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²³⁾

이상과 같은 현상에 대해 김정일은 증산과 절약 투쟁을 실속있게 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투쟁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면서 기준량의 500%라든지 1,000% 운동과 같이 마구잡이로 일해 가지고서는 사회주의 경제를 바로 운영해 나갈 수 없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수익성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도 높일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비록 북한의 속도전이 최단기간 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 것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당, 전국, 전민이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며 제품

21) 김정일, 위의 글, p. 294~295.

22) 김정일, 위의 글, p. 295.

23) 김정일, 위의 글, p. 295.

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부문 일군들이 근로자들을 표창할 때에도 제품을 얼마나 생산하였는가 하는 것만 보지 말고 질을 얼마나 높였는가, 국가에 얼마나 이익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혁명적 기풍의 부족

경제관리와 경제정책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모든 일군들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경적 지침이자 행동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이와 같은 정책은 그 어떤 것이든 김일성이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합법칙성과 나라의 주·객관적 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세우는데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당의 정책을 떠나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으며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당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인민의 최대 의무이자 가장 영예로운 과업이다.

그러나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데 있어 김정일을 중심으로 북한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당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김정일은 적지 않은 일군들은 당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식으로 경제정책 추진에 적극적이지 못하며, 특히 일부 위원회, 부 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 결정서가 내려가도 이를 대수롭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애써

24) 김정일,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6년 8월 11일),” 『김정일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306.

노력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당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 사업이 행정경제사업과 밀착되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서 찾고 있다.²⁵⁾

당 사업을 행정경제사업과 밀착시켜 진행하는 것은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당 사업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당 정책 관철에 적극 발동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일부 당 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정치적 자각을 가지고 당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잘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 생활에 대한 지도를 경제정책관철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김정일은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경제일군들이 주인다운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당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경제일군들은 누구보다도 주인다운 입장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적극 나서야 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김일성의 구상이 구현되어 있는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바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행정경제일군들에 대한 교양사업이 정상적으로, 특히 정무원 위원장, 부장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당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무원 위원장, 부장들이 자기 사업을 원만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큰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위원장, 부장들이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온갖 정력을 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

25) 김정일, 위의 글, p. 308.

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²⁶⁾

두 번째로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당 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인 바,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당 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데 따라 일꾼들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당의 경제정책 관철에서 정치적 지도와 행정적 지도를 올바르게 결합시켜 나갈 수 있으며, 생산자 대중을 당의 경제정책 추진에 조직·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고 당의 경제정책을 편향이 없이 관철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 비서들의 독단과 전횡을 완전히 일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⁷⁾

다. 경제사업에서의 무성의와 의욕상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하려면 당조직들과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 요구성을 높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정일은 생산과 건설에서 질적인 제고를 요구하는 것은 관료주의가 아님을 강조 하면서 특히, 건설부문에서의 그와 같은 질적 수준의 제고에 대한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교시를 들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장을 건설

26) 김정일, 위의 글, p. 310.

27) 김정일은 일부 당비서들이 당위원회를 제쳐놓고 독단을 부리면서 행정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당비서는 어디까지나 당위원회 사업을 책임지고있는 사람이자 결코 당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할 때에는 도로와 울타리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건설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습니다”²⁸⁾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교시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벽돌 같은 것도 망탕 만들어 쓰고 시공도 되는대로 하여 건축물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²⁹⁾고 비판하면서 “평양시에서 무슨 돌격대요, 무슨 돌격대요 하면서 돌격대를 내어 가지고 건설을 하고있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전문건설사업소를 더 내오는 것이 낫습니다. 건설사업소들을 내오고 전문적으로 건설만 하게 하여야 건축물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³⁰⁾라고 경제사업에의 무성의를 경고하고 있다.

한편, 김정일은 북한 인민들의 3대혁명 추진에서의 의욕상실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지금 일부 3대혁명소조는 맥이 빠졌으며 낡은 사상을 가진 공장, 기업소 일군들에게 동화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부정적 현상들과 날카롭게 투쟁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3대혁명소조를 크게 믿으시고 파견하시었는데 3대혁명소조들이 혁명전위로서의 구실을 똑똑히 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3대혁명소조는 일군들이 기업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관주의, 관료주의를 부리며 형식주의, 요령주의적으로 일하는 온갖 그릇된 현상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림으로써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하겠습니다.³¹⁾

28) 김정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절약 투쟁을 잘하며 행정규율을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책임일군 회의에서 한 연설 1982년 11월 14일),”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95.

29) 김정일, 위의 글, p. 295.

30) 김정일, 위의 글, p. 295.

31) 김정일,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함경남도 및 검덕광산 지도일군들과한 담화 1975년 7월 1일),” 『김정일선

이런 점에서 볼 때 경제관리와 경제건설에 있어 경제일군들과 주민들의 무성의와 의욕상실이 큰 장애로 등장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라. 경제사업 추진 행정기관의 권위상실과 행정규율의 문란

김정일은 북한에는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행정경제기관들이 정연하게 조직되어있으며 우월한 행정경제사업체계가 서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행정경제기관들이 사업상 권위가 없고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원인이 행정규율이 약화된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³²⁾ 그 실례로 김정일은 정무원 위원회, 부를 비롯한 중앙기관들의 지시가 아래에 잘 내려먹지 않으며 도, 시, 군 행정기관들의 지시도 밑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들고 있다. 공장, 기업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비서가 지시하는 것은 집행되지만, 지배인이 지시하는 것은 잘 집행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지배인이 생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래 일군들에게 과업도 주고 총화도 하며 과업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궁도 해야 하나, 공장지배인들이 오히려 그와 같은 요구를 하지 못하고 질책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와 같이 행정경제일군들의 사업상 권위가 서지 않고 행정적지시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은 당일군들이 행정사업을 가로막아 좌지우지하는 것과 큰 연관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³³⁾ 일부 공장당

집 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173~174.

32) 김정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절약 투쟁을 잘하며 행정규율을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책임일군 회의에서 한 연설 1982년 11월 14일) 『김정일선집 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296.

33) 김정일, 위의 글, p. 297.

비서들은 사람과의 사업은 하지 않고 지배인이나 기사장이 할 일까지 맡아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 군당 일군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적지 않은 군당일군들이 영농사업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을 제쳐놓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사문제 같은 것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이 군당일군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영농사업에 관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이 지도해야 하며, 군당일군들은 오로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지시가 잘 집행되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은 당일군들은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해야지 절대로 행정을 대행해서는 안될 것임을 언급하면서 당일군들이 행정대행을 할 경우 행정경제기관 일군들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당 기관이 행정경제사업까지 다 맡아할 수 없기 때문이며, 당기관이 행정경제사업까지 다 맡아할 수 있다면 술한 행정경제기관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김정일의 언급은 경제관리와 경제건설에 있어 행정기관의 권위상실과 행정규율의 문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⁴⁾ 이와 같은 행정질서의 문란은 위계질서의 붕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은 특히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위계질서의 붕괴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즉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지체없이 상급기관에 보고되어야 하나, 그런 것들이 상급기관에 제때에 보고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행정경제기관 일군들을 대외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까지도 제때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김정일 스스로도 “이런 것을 보면 행정경제사업에서 장

34) 행정규율의 문란에 대한 김정일의 언급에 대해서는 위의 글 p. 297 이하 참조.

악보고체계가 잘 서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⁵⁾고 말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은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이 “경제사업이나 대외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깔아버리지 말고 제때에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적 지시를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행정적 지시는 모두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며, 당의 경제정책은 행정적 지시를 통해 전달되고 집행되는 바, 행정경제일군들이 행정적 지시를 제때에 집행하지 않고 태만하거나 어기는 것은 당의 노선과 정책 관철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똑바로 인식하고 행정적 지시를 철저히 집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행정규율을 세우기 위해선 행정경제일군들을 내세워주고 그들의 사업상 권위를 높여주어야 하며, 그들에게 사업을 대담하게 맡기고 그것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적으로 잘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³⁶⁾

마. 관료주의의 팽배

김정일은 당일군들 속에 존재하는 관료주의를 없애야 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정일은 관료주의를 낳은 사회의 관리들이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인민적 통치방법으로 평가하면서 당내에서는 관료주의가 허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당 일군들이 관료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근로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불러일으킬 수 없을

35)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상을 위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6년 1월 3일),” 『김정일 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52.

36) 김정일, 위의 글, p. 352.

뿐만 아니라,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따라서 자그마한 관료주의적 현상도 묵과하지 말고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김정일은 당일군들이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당일군들이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야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당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문건만 뒤적거리고 있다고 질책하고 있다.³⁷⁾

김정일은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경우에도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유람식으로 돌아다니거나 당비서의 방에 들어앉아 책임일군들의 말만 듣고있습니다. 당일군들이 이런 식으로 일하여서는 아무리 아래에 내려가도 군중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당일군들은 아래에 자주 내려가 군중의 의견을 귀담아들으며 제기되는 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합니다.”³⁸⁾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김정일은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 모든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워야 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깊이 분석해 보고 당과 혁명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정일은 사람과의 사업에서 편애하고 편협되지 않게 하되, 적대계급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7) 김정일, “당사업을 개선하며 경제사업을 밀고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도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9년 10월 7일),” 『김정일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332.

38) 김정일, 위의 글, p. 333.

7. 결론

이상의 논의에서 나타난 경제건설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특히 경제건설을 국방건설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그와 같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기간공업과 철도운수의 발전을 최우선해야 하며, 대외무역, 농업, 수산업, 더 나아가 기술발전을 비롯하여 기업관리체계와 방법을 당의 정책적 요구와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있어 재정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대단히 크며, 경제건설을 위해 사회주의 재정은 재정관리의 원칙, 유일적 관리의 원칙, 계획적 관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경제건설의 실천적 방법으로 김정일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도사업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규율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김정일은 경제건설상의 문제를 면밀히 제시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①경제건설이 생산의 양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원의 무분별한 낭비, ②당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려는 혁명적 기풍의 부족, ③경제사업에서의 무성의와 의욕상실, ④경제사업 추진 행정기관의 권위상실과 행정규율의 문란을 비롯하여 ⑤관료주의의 팽배가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VII. 김정일의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

임강택(연구위원)

1. 서 론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세계사적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단 극복과 평화적 공존 및 평화적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권 시장이 붕괴한 이후 더욱 심각해진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경제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기존의 체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도부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긴급한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 확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와의 외교관계 개선과 국내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체질개선 작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현 체제의 성격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되는데, 문제는 체제의 유지를 최우선적인 국가목표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지도부가 변화의 부작용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북한의 미래는 변화를 통한 발전에 대한 지도부의 신념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정책방향의 변화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어 김정일의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 및 그것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은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일의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김정일선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정일의 개혁·개방 관련 인식에 접근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혁·개방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언급된 발언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문제에 대한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체제전환작업을 추진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이며, 김일성의 관련 발언들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김정일의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이 김일성의 그것과 어느 정도나 차별화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개혁·개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가. 자본주의에 대한 초기(80년대 초반까지)의 인식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개혁이 가시화되기 이전에는 김정일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사상적으로 비판하는 도구로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세력들을 비판하면서 이들이 자본주의를 끌어들이 사회주의의 이념적 정통성과 정치적 순수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행위를 ‘수정주의’ 또는 ‘반혁명세력’이라고 비난한 것이다.¹⁾ 그러나 김정일의 발언에

1) 김정일은 특히 ‘수정주의’를 “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자본주의사상의 반영이며 가장 위험한 반혁명적사상조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정일,

서 지적된 소위 수정주의적 주장이나 ‘반당반혁명분자’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1950~60년대에 경제관리 및 운영체계에 시장요소의 도입 등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리윤, 상금, 가격과 같은 경제적공간들을 경제관리의 기본수단으로 삼아야 하며 기업소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고 리윤이 많이 나는 제품을 마음대로 생산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를 자본주의경제에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반사회주의적이며 수정주의적인 이론입니다. 만일 이러한 수정주의리론대로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한다면 사회주의경제와 자본주의경제의 차이가 점차 없어지고 사회주의경제가 자본주의적인것으로 변질되게 될것입니다.²⁾

이후 김정일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당이 수행하는 정치적 역할의 중요성과 주체사상에 대한 교양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반역사성’을 역설하고 있다. 노동자·농민을 불합리적으로 착취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필요한 첫 번째 단계이며, 이를 기초로 자본주의 사회와 ‘착취계급’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배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8년 12월 25일),” 『김정일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222 참조.

2) 김정일,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13일),”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21 참조.

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을 옳게 인식할 때에만 지주, 자본가 계급과 착취사회를 미워하게되며 계급적원수들을 때려부시고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먼저 착취사회에서 지주는 농민들을 어떻게 착취하며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고혈을 어떻게 짜내는가 하는것을 인식하는데로 부터 시작하여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는 인류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사회적진보를 억제하는 반동적인 사회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³⁾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논문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최후의 착취제도이며 계급적지배와 민족적압박을 결합시킨 횡포한 억압제도”라면서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결실이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됨으로써 “인민대중이 자기손에 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자주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면서 사회주의는 이들의 자주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인 사회라고 강조하였다.⁴⁾ 반면에 자본주의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노동자·농민들을 통제하며 황금제일주의사상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마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3) 김정일, “문학예술작품에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2월 19일),” 『김정일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p. 47~48 참조.

4)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돛기념전국 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61 참조.

결국, 1960~70년대 김정일은 자본주의를 정치·사상적으로 ‘거부하고 극복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사상교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상혁명을 계속 강화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 수 있고 밖으로부터 자본주의사상이 침습해들어올수 있다”고 역설한 것이다.⁵⁾

나.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원인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체제전환이 확대되던 1980년대 말, 김정일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체제전환 작업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자본주의가 부활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그 것의 주된 원인으로 ‘당의 사상적 변질’을 들었다. “당이 사상적으로 변질된 결과 당안에 소부르조야사상이 크게 자라나고 사람들속에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⁶⁾ 김정일은 또한 이러한 행동을 “혁명을 하지 않고 자본주의로 되돌아가겠다는것”이라며,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배신이며 제국주의에 대한 투항”이라고 비난하였다.⁷⁾ 이와 함께 김정일은 당 일군들의 세도와 관료주의가 인민대중의 신뢰를 앗아가 사회주의가 붕괴하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⁸⁾ 지도층의 관료주의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패망 원인이라는 주

5)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칼 맑스 탄생 165돛 및 서거 100돛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1983년 5월 3일),”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441 참조.

6) 김정일,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및 도당책임비서들과 한 담화 1989년 6월 9일, 12일),”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343 참조.

7) 김정일, 위의 글, p. 346 참조.

8) “일군들이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면 인민대중의 신뢰를 받을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실패를 면할수 없습니다. 소련과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

장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김일성의 발언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권 시장이 붕괴한 이후 김일성은 스웨덴공산주의자로동당 위원장과의 담화에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 멸망한 원인을 지도자들의 사대주의와 관료주의로 지적하였다.⁹⁾ 이와 함께 김일성은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이 망하게 된 것은 지도자들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 때문이지 사회주의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였다.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 망한 원인은 두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 나라 지도자들이 사대주의, 대국숭배주의를 한데 있습니다. ...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 소련을 숭배하면서 모든 것을 소련식으로 하다보니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련에서 《개편》을 하면 하였지 무엇때문에 자기들도 맹목적으로 《개편》 놀음을 벌리겠습니까. ... 결국 사대주의를 하면서 썩브에 든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은 다 망하였지만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썩브에 들지 않은 우리는 여전히 건전하게 살아있습니다.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 망한 원인은 둘째로, 그 나라지도자들이 관료주의를 흑심하게 부린데 있습니다. ... 지난날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 지도자들은 군중속에 잘 들어가지 않았고 사무실 천장이나 모스크바를 쳐다보면서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현실에 맞지 않는 자기의 주관적 의사를 사람들이 잘

들이 무너진것도 일군들이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58 참조.

9) 김일성, “스웨리에 공산주의자로동당 위원장과 한 담화(1992년 6월 29일),” 『김일성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380~381.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료주의적으로 내리먹이군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인민들과 리탈되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사회주의를 망쳐먹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김정일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원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1992년 1월 3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이라는 주제로 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나는 담화에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¹⁰⁾ 김정일은 먼저,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것은 력사발전의 기본흐름에서 볼 때에는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정일이 인식한 일부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후퇴한 이유는 첫째, 사회주의 건설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주체의 역할을 높여 나가는” 기본적인 문제를 충실하게 풀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이를 “사회주의의 본질을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리해하지 못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로 지적한 것은,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일관성있게 견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정일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투쟁에서 혁명적원칙을 버리는것은 곧 투항과 변절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난관에 직면하여 “로동계급의 당을 강화하는 사업을 소홀히 하고 당의 령도적역할과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지도기능을 약화시켰으며 자본주의

10)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3일), 『김정일선집 12』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7), pp. 275~310 참조.

적인 소유관계와 경제관리방법을 받아들이고 제국주의와 무원칙하게 타협”하는 등의 ‘수정주의정책’을 채택한 결과로 사회가 변질되어 갔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인은 “사회주의나라 당들사이의 관계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연대성을 강화하지 못한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간의 국제적 연대노력이 부족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주의나라들의 사상적통일과 동지적협조관계가 심히 약화”되어 ‘제국주의 세력’과 대적할 단합된 힘을 가지지 못한 것이 사회주의가 좌절된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김정일은 소련이 ‘개혁’을 한다고 주변 동구권국가들이 주체성이 없이 따라 하다가 이들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개혁’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다. 개혁·개방에 대한 일반적 인식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합영법을 제정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김정일은 최소한 ‘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들은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 상관없이 정치·경제·문화 각 분야에서 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며 우리 나라와의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것을 요구하는 나라에 대하여서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환영할것입니다. ... 우리는 앞으로 자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관계를 가지고있지 않는 서방자본주의나라들과도 여러 분야에서 교류

를 발전시켜나가려고 합니다.¹¹⁾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김정일은 ‘개혁’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수정주의, 개량주의가 대두하여 이른바 《현실주의》와 《새로운 사고방식》이라는 간판밑에 개혁, 개편 정책을 실시하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과 계급적원칙을 버리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자본주의를 끌어들이고있다”는 것이다.¹²⁾

수정주의, 개량주의자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차이를 부인하면서 경제분야에서는 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대신에 자본주의적인 상품경제를 받아들이고있으며 정치분야에서는 《정치적다원주의》를 제창하면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대신에 부르쥬아민주주의를 공공연히 끌어들이고있으며 사상분야에서는 로동계급의 집단주의대신에 부르쥬아적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조장시키고있습니다.

또한 김정일은 북한에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고칠 것도, 개편할 것도 없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가 갖는 우월성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동당이 적극적으로 사상교양사업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11) 김정일, “민주주의감보자 주석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5년 5월 2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232~233 참조.

12) 김정일,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및 도당책임비서들과 한 담화 1989년 6월 9일, 12일),”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343 참조.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실시하고있는 개혁, 개편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결부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옳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개혁, 개편이라는것은 말그대로 지금까지 해오던것을 뜯어고치고 뒤집어엎는다는것인데 이제 사회주의를 쫓아내고 자본주의를 끌어들이면 좋을것이하나도 없다, 우리 나라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무엇때문에 자본주의를 끌어들이겠는가, 우리 나라에서는 잘못된것이 하나도 없기때문에 바로잡을것도 없다는 식으로 알기 쉽게 해설하여주어야 합니다.¹³⁾

김일성의 개혁 및 개방에 대한 인식도 기본적으로 김정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대외개방에 대해서는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시장’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을 기본대상으로 하는 무역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역도 확대하고 경제합작과 합영사업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다만 경제분야에서 자본주의적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경계하였다.¹⁴⁾ 개혁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이다.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무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상한 북한으로서는 무역의 확대가 국가적 과제로 부각된 것이다. 그 결과 ‘무역제일주의’가 혁명적 경제전략으로 제시되기에 이른다. 대외개방의 확대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

13) 김정일, “당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월 11일),” 『김정일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33 참조.

14) 김일성,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1992년 12월 14일),”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5~16.

러나 무역확대정책이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접촉을 증대시키게 되고 무질서와 과열 경쟁이라는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김정일은 국가의 통일된 관리·감독하에서 무역을 실시하는 ‘사회주의원칙’의 고수를 거듭 강조하게 된다. 특히 김정일은 “여러 단위들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제가끔 자본가들과 거래하고 외화를 벌어들여 망탕 쓰게 하면 제국주의자들이 바라는데로 《개혁》, 《개방》이 되고 나라의 경제가 자유화, 자본주의화될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개혁·개방’을 제국주의자들의 사회주의 붕괴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¹⁵⁾

외화벌이에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라는것은 광범한 군중의 지혜와 힘을 적극 발양시켜 수출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라는것이지 결코 상품을 다른 나라에 팔고사는 일까지 제가끔 하라는것이 아닙니다. 외화벌이에 동원된 사람이 몇만명 된다 해도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사업은 한곳으로 하여야 합니다. 상품을 제가끔 수출하고 제가끔 수입하는것은 자본주의적무역방법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적무역방법을 허용하면 사회주의를 침식시키는 엄청난 후과를 가져 올수 있습니다.

김일성 사후 북한의 움직임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 『로동신문』을 통해서 전해진 김정일의 발언은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다.¹⁶⁾ 신문은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15) 김정일, “당의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2월 1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9 참조.

16)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 5천년래의 대국상을 당하고 조선이 장차 어느 길로 나갈 것인가고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던 때, 우리의 원수들이 이 땅에서 마치 그 무슨 《변화》가 있을듯이 온갖 억측과 랑설을 내돌리던 때에 세계를 향하여 피성처럼 울리신 우리 장군님

사회주의붕괴, 그것은 사회주의 리념의 붕괴가 아니라 가짜사회주의의 붕괴, 기회주의와 너절한 배신자들의 파산이었다”고 강변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거부감은 앞서 발표된 김정일의 문헌과 『로동신문』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서 사회주의국가들의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비판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환상을 경계하였는가 하면,¹⁷⁾ 자본주의 자유화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사상사업을 강조하는 문헌을 발표하였던 것이다.¹⁸⁾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과 함께 채택된 새헌법(1998.9)에서는 몇 가지 개혁 지향적인 조치들이 도입되어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었다.¹⁹⁾ 그러나 새헌법 발표 후 외부세계에서 북한

의 이 위대한 신념,” 로동신문 정론, ‘우리는 승리한다,’ (1996.6.3.) 참조.

- 17) “자본주의착취제도를 되살리는 사유화(1995.6.2),” “부르조아복귀주의자들의 자본주의시장경제도입책동(1995.6.13),” “알바니아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1997.4.10),” 『로동신문』.
- 18) “부르조아사상과 부르조아생활양식은 사람들을 정신적 불구자로 만드는 사상적 독소이다. ...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 내부에 부르조아자유화바람을 불어넣으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우리는 밖으로부터 부르조아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동적인 사상들과 부르조아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침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1995.6.19 발표), 『로동신문』에 전문 게재(1995.6.21).
- 19) 그 동안 국가가 독점해 왔던 대외무역을 국가 외에 ‘사회협동단체’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제36조), 외자유치를 위해서 설치한 특수경제지대에서 “여러 가지 기업 창설 운영을 장려한다(제37조)”는 조문을 추가하는 등 제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소유주체에 사회단체를 첨가하였으며(제20조), 개인소유의 주체와 범위를 확대하였고(제24조), 경제관리에서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계 이용하도록”하여(제33조) 시장경제적 요소의 활용을 강조하는 등의 개혁적인 조치들

의 개혁·개방 확대를 예상하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게 되자 이를 비롯
기나 하듯이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²⁰⁾을 통하여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나섰다. 개혁·개방은 “사탕발림 독약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
서 경제개혁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미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경
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우리식대로 끊임없이 개선”해 왔으며, 대외개방
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외경제관계도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서 열어
놓을 것은 다 열어놓았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더 개
혁할 것도 없고 개방할 것도 없다”고 개혁·개방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
히 하였던 것이다.

이어 김정일 체제의 공식화와 함께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정책의 새
로운 목표로 제시한 북한은 ‘자력갱생의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을 동원
하여 개혁·개방과 강성대국은 양립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부족한 것
이 많고 어려움이 지난하더라도 남에게 의존하려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개혁·개방을 허용하는 것은 제국주의자
들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고, 자본주의자들에게 투항하는 것이며, 사
회주의를 포기하는 망국의 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 강성대국건설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이 땅위에 우리의 힘, 우
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부강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입
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과정에는 부족함것도 많고 난관도 많
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남에게 의존하여 풀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개혁》, 《개
방》 바람에 끌려 들어 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개혁》, 《개

취하였다.

20)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을 끝까지
견지하자,” 1998.9.17.

방》은 망국의 길입니다. 우리는 《개혁》, 《개방》을 추호도 허용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강성대국은 자력갱생의 강성대국입니다.²¹⁾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거부감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내각 기관지를 통하여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해 나가는 작업은 많은 애로와 난관으로 가로 막혀 있으나, 경제건설에서 당의 경제정책에 따라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적원칙을 일관되게 구현“해 나감으로써 시련과 난관을 뚫고 일대 앙양을 일으키자고 역설하였던 것이다. 특히 개혁·개방의 방식으로 는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²²⁾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개혁》, 《개방》의 방법이 아니라 당의 경제정책이 가리키는대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식대로 풀어 나갈 때라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그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나라의 경제를 최단기간내에 추켜 세울수 있으며 경제강국의 휘황한 목표를 향해 더 높이, 더 빨리 전진해 나갈수 있게 된다.

21)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9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58 참조.

22) “우리 당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지도적지침,” 『민주조선』, 2002.5.25.

3. 개혁에 대한 주요 부문별 인식

가. 정책 결정의 분권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결정의 분권화는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내각내 경제부서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증대, 또는 공장과 기업소에서 경영책임자의 전문성 및 자율성 강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 김정일은 ‘자유화’나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사회주의국가들의 중앙집권제도를 비판하는 것은 “저들의 반동성을 가리우기 위한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기능이 약화되는 경우 일반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더욱 악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제도 자체를 위협에 빠트리게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국가의 기능은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통하여 실현됩니다. ...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사회주의국가의 사명과 임무로부터 제기되는 중앙집권적지도기능을 약화시킨다면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줄수 없을뿐아니라 사회주의사회에 무정부상태가 조성되어 사회주의가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인민의 원썌들이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사회주의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반대하는 목적은 바로 사회주의를 말살하자는데 있습니다.²³⁾

23)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56~57 참조.

관리·감독기능의 국가 집중으로 비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주장, 특히 국가의 획일적인 지도가 기업들의 혁신 및 도전정신을 위축시키며,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가 이를 효율적으로 계획·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은 복합적이다. 일부 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 해결책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기존의 관리의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경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부처에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통일적 지도·관리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파괴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당의 《행정화》에 반대하고 국가정권의 《독자성》과 《자립성》을 높인다는 구실밑에 정권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려는 경향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기업소들의 창발성을 대치시키거나 경제의 규모가 커진 조건에서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부정하는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문제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어떤 원칙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자체를 반대할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그 방법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개별적기업소들의 독자성과 당면한 경제적리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가의 지도와 통제를 거부하는데로 나아간다면 결국 사회주의경제제도를 파괴하고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되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²⁴⁾

24)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3일),” 『김정일선집 12』,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7), pp. 306~307 참조.

나아가 김정일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무기”인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중앙집권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렇지 못하면 당의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원만하게 실현할 수 없으며 국가의 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의 중앙집권적 지도기능을 양보할 경우 ‘인민대중이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 제도’가 훼손되기 때문에 당이 정책결정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⁵⁾

나. 소유제도의 다양화

현 단계에서 북한에서 사적소유의 영역이 확대되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농업부문에 책임생산제나 가족단위의 도급제가 도입되거나, 소규모 개인적인 생산 및 영리활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며, 협동적 생산 및 영리활동의 영역을 확대해 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김정일은 가족단위로 농토와 생산수단을 분배해 주고 도급제를 실시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면서 일단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가족단위의 도급제는 농촌에 인력이 북한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족단위의 책임생산제의 도입을 통하여 농촌지역에 사적소유의 영역을 확대해 주면 자본주의적 요소가 다른 분야에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으로 보인다.

25) 김정일, “당, 국가, 경제 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한 연설 1992년 11월 12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221 참조.

가족단위로 생산수단을 나누어주고 도급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것이 자본주의적요소를 낳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가족을 단위로 도급제를 실시하는것은 생산력발전수준이 낮고 농촌로력이 많이 남아돌아가는 조건에서는 유리할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것이 사회주의경리를 운영하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로력자체의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가 그 대부분이 녀성들과 늙은이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아직 농사철에 사회적로력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농촌경리에서 가족을 단위로 농사를짓게 하는것이 좋다고 하는것은 언어도단입니다.²⁶⁾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으로 필요한 물품의 수입이 격감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이 줄어들어 일반주민들을 위한 생필품의 생산에 돌릴 여력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생필품의 증산이 국가적 당면과제로 대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정일은 ‘8·3인민소비품’의 생산을 독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소의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히려 당과 국가기관이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의 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는 부탁까지 하기에 이른다. 소규모 사적 생산·영리활동을 공식적으로 독려함으로써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김정일의 지시가 사적 경제활동의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장기적인 목표하에서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필품의 부족과 주민들의 불만 증대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의 성격이 큰 것이다.

26)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63~465 참조.

가내편의봉사사업을 적극 장려하여 가내편의봉사원들이 인민생활에 필요한 소비품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조직운영하고 가내편의봉사사업을 벌린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되살아나지는 못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자본주의가 되살아날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이 없습니다. 가내작업반, 부업반 성원들과 가내편의봉사원들이 8월3일인 민소비품을 생산하여 실현시키는 과정에 수입을 좀 많이 얻을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로동의 대가로 얻은것이기때문에 크게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당 및 행정경제 기관과 사법검찰기관 일군들은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조직운영하고 가내편의봉사사업을 벌리는데 대하여 쓸데없이 시비하거나 간섭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²⁷⁾

그러나 김정일은 사적소유제도는 근로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반계급적이고 반혁명적인 것으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인민대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적소유제도에 대한 거부감과 사회적 소유에 대한 집착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사적소유제 하에서는 근로자들이 로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가들은 근로자들을 착취의 대상이자 잉여가치생산자로 여길 뿐이라는 점을 들어 사회적 소유제의 우월성을 역설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적소유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떠들면서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적소유를 포기하고 사적소유를

27) 김정일,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전국경공업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0년 6월 2일),” 『김정일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147 참조.

되살릴것을 강요하고있지만 사적소유제도의 반동성은 이미 력사에 의하여 확증되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부르짖는 사적 소유제도의 《우월성》이란 더 많은 재부를 긁어모으기 위한 무제한한 약육강식의 경쟁을 말하는것입니다. 사적소유에 기초한 약육 강식의 경쟁은 불피코 착취와 압박을 낳고 근로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²⁸⁾

나아가 김정일은 “국가적,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소유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적소유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사회경제적기초”라고 역설하면서, “사회주의적소유를 해체하여 사적소유로 전환시키면 사유화방법은 어떠한지 사유화된 생산수단이 조만간에 특권자, 투기업자를 비롯한 소수 착취자들의 수중에 집중되리라는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사례로, 사회주의가 무너진 나라들에서 사유화가 확산된 이후 짧은 기간 동안에 돈 많은 자본가가 생겨나는가 하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실업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적소유를 없애는것은 그것이 어떤 명목밑에서 감행되건 자본주의착취제도를 되살리는 길밖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다.²⁹⁾

28)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59 참조.

29)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발표한 담화 1993년 3월 1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64 참조.

다.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

베를린장벽이 붕괴하고 소련을 비롯한 주요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 작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김일성은 경제학자들과 한 담화를 통해 기업관리체계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한바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강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최근에 일부 나라들에서 기업관리에 자본주의적방법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자본주의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은 량립될 수 없습니다.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하고있는 국영기업소들에 자본주의적기업관리방법을 받아들이면 시장경쟁을 통해서 흥하는 기업소는 더 흥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기업소는 파산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기업관리방법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경제관리방법입니다. ... 적지 않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있는데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 사회주의건설을 말아먹게 됩니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³⁰⁾

비슷한 시기에 나온 김정일의 발언에서도 유사한 인식을 엿볼 수 있

30)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에 맞게 경제관리를 잘할데 대하여(1990년 4월 4일),” 『김일성저작집 4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283~284.

게 한다. 김정일의 기본인식도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데서 출발한다. 시장경제는 “사적소유와 개인주의에 기초한 경제”이며, “가치법칙의 무제한한 작용과 무제한한 경쟁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생산의 무정부성과 막대한 사회적로동의 낭비, 경제의 주기적인 침체와 파탄”을 피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근로자들을 빈궁에 몰아넣고 중소기업가들을 파산몰락시키는 반면에 대독점체들을 비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와 대립을 격화시켜 “자본주의 사회를 더욱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몰아넣고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와 함께 체제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들의 정치지도자들을 ‘현대사회민주주의자’로 칭하면서 이들이 “자본주의적시장경제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다그치고” 있으며, “사적소유에 기초한 시장경제를 끌어들이면서 그 무슨 경제적번영을 이룩할수 있을것처럼 떠들어대고있지만 그것은 허황한 망상”일 뿐이라고 강조한다.³¹⁾

김정일의 시장경제에 대한 발언은 시장경제체제하의 부작용을 지적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계획경제를 옹호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는 길은 오직 당의 령도밑에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정일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교양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는 경제난 외중에 확산된 장마당과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31) 김정일,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2월 27일),” 『김정일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501~503 참조.

에 대한 내부의 요구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태도로 평가된다.

4. 최근의 변화 움직임과 개혁·개방의 가능성

개혁·개방에 대해 지극히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던 북한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게 된 것은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경제구조와 관리방식 등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에 와서는 신년사를 통해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보고 풀어나가자”라고 주장한 이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준비시킨 것이다. 이어 년초부터 중국의 상해를 방문하여 개혁·개방의 현장을 시찰하면서 자신의 개혁 구상을 다듬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0월 김정일은 당과 내각의 핵심인사를 모아 놓고 경제관리체계의 개선문제를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³²⁾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어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힘든 상황이나 지금까지 나온 북한의 공식문건과 각종 방문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상당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외부에서는 북한의 경제조치를 시장경제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개혁적인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공식적으로 경제관리방법의 개선·완성을 표방하면서 개혁·개방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³³⁾ 나아가 경제문제의

32) “사회주의원칙에 맞는 경제관리체제로,” 「로동신문」, 2001.12.15.

33)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완성하는데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종자는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하는 것입니다”라는 김정일의 지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확고한 지침,” 「로동신문」, 2001. 10.22자 참조.

해결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풀어나갈 것을 역설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거부감을 다시 한번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의 해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사회주의 체제내에서의 제도 개선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북한의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체제불안정에 대한 부담감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하부단위에 대한 의사결정의 분권화, 개인과 소규모 생산단위간의 경쟁시스템 확대, 시장요소의 부분 허용, 임금과 주요 소비품가격의 현실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이 경험한 개혁과정의 초기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개혁·개방에 대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장기적인 큰 흐름안에서는 개혁·개방이 진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북한 당국으로서는 매번 자신들의 기득권(권력과 이익)을 고수하려는 보수적인 시도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이라는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은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혁·개방의 속도와 범위는 다양한 국내외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 중에서 남북관계와 북미·일관계의 개선 여부 등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VIII. 군사론

박영호(선임연구위원)

1. 서론

인류 문명의 역사를 기술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갈등의 역사로 기록할 수도 있다. 인간 사회의 갈등 문제는 크게 보면 전쟁과 평화의 문제이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의 역사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큰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다. 북한에게 한국전쟁은 두 개의 정치적 실체로 나뉘어진 한반도를 무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의 사회주의체제로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소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른다. 바로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가 말한 대로 “전쟁은 단순한 정책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정치적 수단, 즉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행위의 연속”¹⁾임을 보여준 사례이다. 전쟁은 고정된 내부 또는 외부의 압박에 의해 산출되는 독립적 게임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서, 그 정치적 선택이란 전쟁을 박멸 내지는 해방 또는 억압을 위한 개입으로 풀아가는 모든 유형의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다.²⁾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극단화 경향과 전쟁의 수단성을 강조하면서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

1)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 and trans.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 87.

2) Michael W. Doyle, *Ways of War and Peace: Realism, Liberalism, and Socialism*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7), p. 21.

3) 이춘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국방일보』, 2000.6.28.

전쟁의 전형적 수단은 폭력의 사용이다. 따라서 전쟁은 수많은 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인류 문명사에서 질병에 의하지 않은 최대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한국전쟁에서도 자료에 따라 다른 통계치가 거론되지만, 남북한을 합쳐 군인, 민간인들을 포함하여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등 인적 손실이 무려 5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며, 당시 인구당 6명에 1명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⁴⁾ 이와 같은 비극적 경험에 따라서 한국전쟁 이후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존재해온 것은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문제였다. 한국은 한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상대방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느끼면서, 그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정책에서의 최우선 순위에 있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1차 목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었고, 한국의 정부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국방비였다.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기념해온 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터 경제발전 전략과 더불어 군사력을 강화하여 4대 군사노선을 확립하기도 하였다.⁵⁾ 이후 남북간에는 군비경쟁의 상승 작용이 발생하였다.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규모가 꾸준히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군사안보문제는 여전히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김정일선집」의 문헌을 중심으로, 국방위원장의 직책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정일이 북한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김정일이 국제무대의 주요 관심 인물로 등장한 상황에서 김정일 시대의 북한 통치구조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4) 김학준, 「한국전쟁-원인·과정·휴전·영향」 (서울: 박영사, 1989), pp. 346~347.

5) 4대 군사노선은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자위적 군사노선”으로서 1962년 당중앙위원회 제 4기 5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구체화되었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북한군의 기본 성격

모든 국가의 군의 존립 근거이면서 동시에 군의 일차적인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보존하는데 있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 국가로서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외적으로부터 영토를 방위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이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군도 당연히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⁶⁾

그러나 북한의 군은 국가안위를 넘어서는 다른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은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을 정치의 수단이라고 말한 클라우제비츠의 본의는 그 동안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오용되거나 남용되었다. 북한은 전쟁과 군사를 같은 차원에 놓고 있다. 전쟁이란 수단을 정치적인 목적, 즉 전환반도의 공산화를 통한 방식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를 병영화시키고 정치를

6) 북한 사회주의헌법(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수정보충, 1998.9.5) 제4장 제59조.

군사화시켰다.⁷⁾

그리고 일당독재국가인 북한에서 군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⁸⁾으로 규정되어 ‘당의 군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의 직책으로 북한을 통치하며, ‘선군정치’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군의 위상이 보다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김정일의 통치는 독자적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의 아버지 김일성의 통치를 이어 받았다. 김정일 시대가 김일성 시대와는 다른 뚜렷한 특징의 하나는 군부의 역할이 더 커져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북한의 군은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⁹⁾의 군대로서 일반 국가에서 군대가 하는 통상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의 지배를 영속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혁명무장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령과 당의 군대로서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을 유지·강화하고,¹⁰⁾ 김정일 시대에 있어서는 특히 ‘선군정치’의 기치 하에 정권과 체제 보존의 보루이자 경제건설의 전위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¹¹⁾ 이와 같은 북한군의 성격을 김정일의 인식을 중심으로 차례로 살펴본다.

7) 이춘근, 앞의 글.

8) 「조선로동당 규약」 제7장 제46조.

9) 「북한 사회주의헌법」 전문.

10) 정영태, 「김정일의 군사권력기반」 (서울: 통일연구원, 1994), pp. 7~14.

11) 한호석, “‘선군혁명령도’와 ‘제2의 천리마 대진군’: 1990년대 말 북(조선) 정세인식의 초점,” (1999.6), www.onekorea.org

3.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

북한의 군은 “조국보위에서나 사회주의 건설에서나 혁명의 기둥, 주력군”¹²⁾으로서 북한 사회에서 끊임 없이 지속되는 ‘혁명’의 무장력으로 간주된다. 북한은 북한군의 연원을 일제 강점시기의 항일무장투쟁으로부터 찾고 있다.¹³⁾ 즉 북한군은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진 군대이며 항일 유격투쟁의 혁명전통과 고귀한 투쟁경험과 불굴의 애국정신을 계승한 영광스러운 군대”로서 당의 두리에서 북한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한다.¹⁴⁾ 한국전쟁은 이러한 사회주의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무력수단인 군이 전위에 나선 것이다. 김정일도 이러한 군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지 불과 5년 밖에 안되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은 진정한 인민정권을 세워주고 자기들을 나라의 어엿한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대중적 영웅주의와 혁명적 동지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전과정은 인민들과 군인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싸운다면 그 어떤 강적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었습니다.¹⁵⁾

12) “당보·군보 공동사설,” 『로동신문』, 1998.1.1.

13) 북한의 ‘항일무장투쟁사’ 연구는 1970년대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1979년 10권의 『항일무장투쟁사』로 정리되었으며, 『조선전사』도 16권에서 22권까지 ‘항일무장투쟁사’를 다루고 있다. 이교덕, 『‘조선전사’ 해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143~144.

14)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김일성저작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p. 189~190.

한국전쟁에서 전한반도의 공산화에 실패한 북한은 1950대 후반기의 전후복구를 위한 경제 건설의 시기를 거쳐 1960년대부터 군사력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시작하였다.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도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자위적 국방건설” 원칙을 세웠다.¹⁶⁾ 이어 1966년 10월 5일~12일까지 열린 제2차 당대표자회의에서 북한은 ‘경제·국방건설 병진’ 노선을 다시 채택하였다. 그 이듬해 7월 3일 당 중앙위원회 전선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사상 선전을 강화할 데 대하여”에서 김정일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더불어 국방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계속 증강하면서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고있으며 군사적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경제토대를 튼튼히 하는 동시에 국방건설에 큰 힘을 넣어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적들이 언제 덤벼들어도 그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¹⁷⁾

-
- 15) 김정일, “군인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조선인민군 2·8영화촬영소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64년 9월 15일)” 『김정일선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6.
- 16) 『조선중앙년감』(1963), pp. 157~163; 통일부, 『북한개요 2000』(1999), pp. 160~161 재인용.
- 17) 김정일, 논문제목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61.

이와 같은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은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다그치면서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자주적인 로선”으로서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기 위한 로선”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사와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로선과 인민군대를 간부화, 현대화하고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실현할 데 대한 방침이 얼마나 현명하고 정당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이 미제의 위협공갈 앞에서 끄떡하지 않고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수 있는 것은 지난 기간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간고 분투하여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여 놓았기 때문입니다.¹⁸⁾

북한의 강력한 국방력 건설 추진은 1967~71년까지의 기간동안 국방비 지출이 매년 국민총생산(GNP)의 30~32%에 달하도록 만들었다.¹⁹⁾ 이에 따라 북한은 남한에 비해 매우 우세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군사력에서의 우위는 1960년대 후반기에 활발한 대남 무장침투활동의 전개와 폭력혁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창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김일성은 1968년 9월 “폭력투쟁이 없이는 어떠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조선 인민들이 주권을 쥌 수 있다고 생각한

18) 김정일,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군사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8년 2월 2일)”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333.

19) 김병로, 『김일성저작 해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59.

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²⁰⁾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의 국제환경 변화는 남북한으로 하여금 대화를 시작하게 하였다. 1972년 남북간 비밀접촉을 통하여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김정일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으며,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무력을 대폭적으로 감축하자고 주장하였다.

북과 남이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데 대한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대를 남조선에서 철수시킨 기초우에서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축소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남 쌍방이 정세를 침체화시킬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천명하였고 더우기 이번에 북남공동성명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자고 약속한 것만큼 남조선당국자들은 마땅히 《남침위협》을 구실로 하여 선포한 《비상사태》를 철폐해야 하며....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같은 파썸악법들도 마땅히 없애버려야 합니다.²¹⁾

그러나 김정일이 생각한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실제에 있어서는 북한군의 강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김일성은) 군사력이 강해야 지금 진행하고있는 남조선과의 대화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조국통일의 위업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전

20)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1968년 9월 7일),” 『김일성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76.

21) 김정일,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4년 7월 14일),” 『김정일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p. 412~413.

의 요구에 맞는 전법을 완성할 데 대한 중요한 과업을 제시하시었습니다.”²²⁾ 따라서 북한군은 여전히 한국전쟁에서의 “혁명의 전취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지 못한 “민족의 해방”을 성취하기 위한 과업을 앞장서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은 조선혁명의 궁극적 승리를 앞당긴다는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과업에 직면하고 있다.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킨다는 것은 전동포의 일치된 염원일 뿐만 아니라 한시라도 지체될 수 없는 최우선의 또한 최대의 민족과제인 것이다.²³⁾

199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 진영이 몰락하는 국제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체제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 북한은 다시 한번 군대를 통하여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김정일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1990년대 후반기부터는 군대를 앞장세워 쇠락하는 혁명의 열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동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사회주의운동사는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지 못한 탓에 사회주의진지가 밀뿌리채 흔들리게 된 쓰라린 실패를 한두번만 기록하지 않았다. 혁명군대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앞장에서 있다. 군대가 흔들리면 로동계급이 흔들리고 각계각층의 인민들이 동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반드시 반사회주의요소가 성행하게 되고 혁명대오가 사분오열되는 법이다. 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울 때 사회주의계급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로동계급이 자기의력사적 사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다.²⁴⁾

22) 김정일,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능력있는 군사지휘관을 더 많이 키워내자(김일성군사대학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2월 8일),” 『김정일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16.

23) 『로동신문』, 1980.4.24.

4. 개인지배의 사회주의체제 수호자

전형적인 스탈린식 사회주의체제는 당-국가체제를 유지하였다. 당의 조직망이 각종의 국가기구에 횡적으로는 물론 종적으로 그물처럼 펼쳐져서 모든 주민의 삶을 지배하는 구조이다.²⁵⁾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군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실천과 최고지도자의 ‘비전’을 명령에 따라 집행하는 도구이다. 북한의 군은 이와 같은 도구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여타 사회주의국가보다 더 강제되어왔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 그리고 자발적으로 희생정신을 바치도록 요구받아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서 기능하는 수령의 군대로서, 북한에서 군은 당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어 왔다.²⁶⁾ 김일성 통치시대에 이미 북한 군은 “공산주의 학교,”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적 골간을 가진 무력,” “주체의 혁명위업의 담보” 등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당의 지도를 충실히 따르면서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무력으로 뒷받침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었다. 김정일에게도 북한군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당사업의 성실한 추종집단으로 간주되었다.

당의 령도는 혁명무력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혁명군대에 있어서 당의 령도는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믿음직한 보위자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
- 24) 김정일,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힘있게 다그치자”(로동신문·근로자 공동사설), 『로동신문』, 2001.12.21.
 25)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33~48.
 26) 정영태, 앞의 책, pp. 14~22.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는 향도적 역량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 정치조직들이 다 당의 령도밑에 활동하고있으며 바로 당의 령도에 의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와 성과가 확고히 담보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민군대라고 하여 례외로 될 수 없습니다. 인민군대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령도하시는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여야 할 사명을 지닌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입니다.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하며 그렇게 할 때에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²⁷⁾

또한 북한군은 당과 수령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할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에서 주민들을 북한체제에 순응하게 하는 정치사회화의 핵심 기제로서 역할을 한다. 북한에서 모든 장정들은 군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며 군대생활은 새로운 세대들을 그들의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사회주의 인간형’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의 위업을 옹호 보위하는 혁명적 무장력입니다.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여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 발전시켜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위업을 무력으로 확고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세계관이 형성 되는 시기에 거의 다 인민군대에 나가 군대생활을 하고 다시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군인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키우면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혁명무력으로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²⁸⁾

27) 김정일, “인민군대 당 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1월 19일),” 『김정일선집 1』, pp. 415~416.

이와 같은 군의 정치사회화 역할을 통하여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 위대가 된 군대의 성원들은 마치 하나의 인간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강요받는다. 북한에서는 적어도 1980년대 말까지 전체주의적 통제구조가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²⁹⁾ 이러한 왕조주의적 전체주의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은 북한의 최고지도자 수령과 그의 ‘유일 지배’ 세습통치, 그리고 개인의 정권 유지를 위한 충성스러운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민군대안의 모든 간부들과 군인들은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합니다. 전군이 당중앙의 유일적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여야 하며 당중앙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당중앙이 앞으로 갓 하면 전군이 하나와 같이 앞으로 나가고 당중앙이 담벽을 밀고 나가라면 담벽을 밀고나가야 합니다.³⁰⁾

인민군대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들의 전투대오입니다. 인민군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충실성에서 자그마한 티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는 구호 밑에 인민군군인들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진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모든 군인들 속에서 이 구호가 확고한 신념으로, 의지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군군인들은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받들며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28) 김정일,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1~2.

29) 박형중, 「북한의 변화 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48.

30) 김정일, 앞의 글,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 pp. 7~8.

모른다는 철석같은 의지를 가지고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군사로선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쳐 관철해나가는 혁명정신을 지니도록 하여야 합니다.³¹⁾

1990년대에 들어서 사회주의진영이 붕괴되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안팎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회주의체제 수호자로서의 북한군의 역할 수행이 더욱 강조되었다. 김정일은 미국이 “반사회주의책동의 예봉을 우리 나라에 돌리고” 있으며,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연습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군의 체제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수호자입니다. 인민군대를 강화하여야 인민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을 하자면 군대를 틀어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튼튼히 틀어쥐고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금 안팎의 정세가 매우 복잡한데 그럴수록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인민군대만 강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당과 함께 인민군대를 가지고 사회주의를 끝까지

31) 김정일, “인민군대안의 선전선동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조선인민군 군단(군중, 병중), 사(려)단 정치부 선전선동부장 회의 및 강습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79년 2월 14일),” 『김정일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239~240.

지 지키려고 합니다.³²⁾

이와 같이 북한의 군은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는 데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당의 위업수행에서 언제나 선봉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귀감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혁명적 동지애의 숭고한 모범”이자 “사회주의 문화의 창조자”라는 것이다.³³⁾ 따라서 북한은 군대를 사회주의체제 수호자로서의 명분 하에 당과 수령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절대적 복종, 자발적 희생정신, 계급 투쟁 의식 등을 고무시켜왔으며, 특히 김정일이 북한군 최고사령관이 된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군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위신과 지위를 부여해오고 있다.³⁴⁾

5.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위대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체제의 성격에 상관 없이 군은 경제 건설의 지도적 세력으로서 활용되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군도 사회주의 혁명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미 1960년대에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전략으로서 경제발전과 군사력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제도적으로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가 “당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

32) 김정일, “당, 국가, 경제 사업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2년 11월 12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222.

33) 한호석, “‘선군혁명령도’와 ‘제2의 천리마 대진군’: 1990년대 말 북(조선) 정세인식의 초점” (1999.6).

34) 정영태, 『북한의 국방위원장 통치체제의 특성과 정책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18~28.

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⁵⁾

북한의 군이 혁명의 주력군이자 경제건설의 전위대 역할을 수행해온 전통은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발전전략과 연관된다.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 시기를 거친 이후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발전전략은 군사력의 강화를 위한 경제력의 발전에 있었다. 김정일은 ‘경제·국방건설 병진’ 발전전략 선택의 논리로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더불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⁶⁾

북한군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전위대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북한 군대가 북한주민들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활력 있는 성원들로 선발된 가장 잘 준비된 혁명의 핵심대오, 정예대오”이며, “사상적 높이와 계급적 자각에 있어서, 단결력과 전투력, 투쟁기풍과 도덕품모에 있어서 군대의 수준을 따를 대오는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³⁷⁾ 이러한 ‘혁명 전위’로서의 북한의 군은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는 고비 때마다 동원의 대오에 앞장서서 경제건설에 투입되고 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전후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끊임없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몫 단단히 하였으며 오늘은 조국을 보위하며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회주의 대건설전투에 참가하여 영웅적 위훈을 떨치고있습니다.³⁸⁾

35) 「조선로동당 규약」 제27조.

36) 김정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혁명적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사상 선전을 강화할 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1』, pp. 261~273.

37) 한호석, “‘선군혁명령도’와 ‘제2의 천리마 대진군’: 1990년대 말 북(조선) 정세인식의 초점” (1999.6).

38) 김정일,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울 데

특히 1990년대 초반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가 종식된 상황에서 위기를 느낀 북한은 군대가 “온 사회에 혁명적 군인정신을 끊임없이 뿜어주는 저수지”이자 “혁명적 군인정신을 창조한 가장 힘있는 전투부대”이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가 창조한 정신과 도덕, 투쟁 기풍을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는 이른바 ‘선군혁명령도’의 가치를 내세우기 시작하였다.³⁹⁾ 즉 “선군혁명령도는 인민군대가 창조한 정신과 도덕, 문화를 전체 인민이 따라 배워 군대와 인민이 단결된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게 하는 불패의 원천”이라는 것이다.⁴⁰⁾

1990년대 상반기 ‘농업, 경공업, 무역 3대 제일주의’의 경제개발전략이 실패로 끝나고, 1990년대 중반 연이은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경제가 계속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의 군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김정일은 “혁명적 군인정신”을 내세워 전사회가 불굴의 군인정신으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군을 사회적 동원의 추동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적 군인정신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다 따라 배워야 할 투쟁정신이며 오늘의 난관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기 위한 사상정신적 량식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면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도 무서울 것이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울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⁴¹⁾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2월 4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1~2.

39) 한호석, 앞의 글.

40) 한호석, 앞의 글.

41) 김정일,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

김정일에 따르면, 북한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아들딸로 조직된 군대”이며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 있고, “혁명의 주력군이 며 나라의 기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군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안변청년발전소 건설장과 같은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하는 군인들의 투쟁모습을 통하여서도 따라 배우고 군인들의 예술공연을 통하여서도 따라 배우도록 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총포성이 없는 전쟁”인 ‘고난의 행군’을 강한 의지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⁴²⁾

그는 북한의 주민들이 현재의 “엄혹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추종해야 하는 이유로서 북한군의 창건의 역사가 다른 사회주의체제와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우리 혁명의 력사적 로정을 돌이켜 보아도 언제나 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대체로 당을 먼저 창건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창건하였습니다. 이전 소련에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혁명무력부터 먼저 창건하시고 그 무력으로 일제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조국을 광복한 다음에 당을 창건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그렇게 하시였기때문에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었으며 당도 빠른 시일 안에 튼튼한 조직사상적 기초와 대중적 기반을 가진 당으로 창건하고 혁명의 정치적 및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⁴³⁾

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17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292.

42) 김정일, 위의 글, p. 293.

43) 김정일, 위의 글, p. 293.

‘혁명적 군인정신’을 북한주민들에 주입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동력으로 사용하려는 김정일의 의지는 “선군혁명령도원칙”으로 이어진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선군정치’는 ‘혁명적 군인정신’에서 나오며,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것은 바로 ‘혁명적 군인정신’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방식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령도방식”으로 규정하면서 김정일의 통치방식이라고 공식화하였다.⁴⁴⁾ 이러한 ‘선군정치’는 ‘강성대국’ 건설의 논리와 연결된다.

나는 오래 전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뜻을 받들어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구상을 해왔으며 그 준비를 갖추어 왔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가 처한 특수한 환경으로부터 선군혁명령도원칙을 내놓고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 필승의 강군으로 만들었으며 전체 인민이 혁명적인 군인정신을 따라 배워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당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에 이어 사회주의강행군을 벌리는 과정에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것으로 되었습니다.⁴⁵⁾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나가는 원동력이다. 오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44)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로동신문·근로자 공동론설), 『로동신문』, 1999.6.16.

45)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9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53.

경제를 추켜 세우고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를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려 세우는 것이다. 이 거창한 과업은 선군정치를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 한때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국방에 힘을 넣으면 경제가 주저앉고 사회발전이 떠진다고 하면서 나라의 국방력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다. 이것은 군대를 단순히 물질적 부의 소비자로서만 보는 그릇된 관점에 기초한 것이다. 군대가 강해야 경제건설의 평화적 조건이 보장되게 된다. 혁명군대는 혁명의 주력군, 돌격대로서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 과제도 해체끼고 인민들을 영웅적 위훈으로 불러 일으킨다. 선군정치에서 잃을 것은 침체와 담보뿐이고 얻을 것은 비약과 고조, 민족의 부흥이다.⁴⁶⁾

6. 결론: 김정일의 군사 인식의 기저

1998년 9월 자신의 시대를 공식 출범한 김정일은 그의 북한 경영 슬로건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면서, 이의 달성을 위한 통치 방식으로 ‘선군정치’를 제시하였다. 북한은 ‘선군정치’가 사회주의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북한 사회주의정치의 전반을 규정해 왔으며, “제국주의와의 격렬한 대결” 속에서 독자적인 사회주의의 길을 개척하는 동력이었다고 합리화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 5년 동안의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 온갖 시련들을 김정일의 ‘선군정치’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⁴⁷⁾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정치와 군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정치와 군사는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두 개의 기본 기둥이다. 정치는

46)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로동신문·근로자 공동론설), 『로동신문』, 1999.6.16.

47) 위의 글.

곧 힘이며 그 힘은 다름 아닌 군사력이다. 군사적 담보가 없는 사회주의정치는 무력하다. 사회주의정치의 성공의 비결은 강력한 군력에 있다. 군사와 정치의 분리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실패의 출발점이다.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는 정군 분리의 필연적 귀결이다”⁴⁸⁾라는 것이다. 정치의 군사화가 이루어지고 역으로 군사의 정치화가 이루어진 북한체제의 성격을 설명해준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의 직책을 가지고 ‘선군정치’라는 군중시의 방식으로 통치하며 자신의 힘의 원천을 군력에서 찾는 것은, 현재의 권력의 구조적 조건을 고려하면서도 그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권력을 장악하는 오랜 기간 동안 김일성의 그늘 아래서 지도자로서 수업을 받은 것처럼 김정일의 군사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틀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김정일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인상 깊은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11살 때에 수령님으로부터 시계를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권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을 하자면 총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권총을 주시었습니다. 친구들 가운데는 변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총은 변함이 없습니다. 총은 예나 지금이나 적을 향해 쏘면 적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총이다, 이것은 혁명투쟁의 역사적 총화입니다.⁴⁹⁾

이처럼 김정일에게 있어서 총은 곧 혁명이며, 군사력은 가장 중요한 혁명역량으로 인식된다.⁵⁰⁾ 김정일의 군사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 첫

48)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다”(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로동신문」, 2002.4.22.

49) 「로동신문」, 2000.3.21.

번째의 공식 문헌은 1964년 10월 18일 조선인민군 제855군부대 일군들과 한 담화 “비행사들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자”⁵¹⁾이다. 같은 해 봄 대학을 막 졸업하고 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서 당 사업에 발을 들여놓은 때였다. 그런 만큼 그의 군사에 대한 인식은 교육과정에서 배운 아버지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에 대한 학습과 북한의 국가건설과정에 대한 학습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정일의 군사에 대한 인식은 “미제국주의”와의 전쟁이었던 한국전쟁에 대한 경험과 연관이 있다. “조국해방전쟁때 적 비행기들은 흐린 날과 밤에도 폭격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흐린 날과 밤에 비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비행사들이 흐린 날과 밤에도 공중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절대로 자만하여서는 안됩니다. 비행사들은 야간공중전은 물론, 낮이나 밤에도 지상목표에 대한 타격도 잘할수 있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북한군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 힘으로 원수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저희들도 피해를 입을가봐 떨면서 제국주의자들과 한쪽이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를 믿고 자기 힘으로 혁명할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라고 북한이 독자적인 군사 능력을 가질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후 김정일의 군사에 관한 언급에서 일관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은 “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이며, 그들로부터의 북한의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입각한 인식이다. 김정일의 이분법적 사고

50) 한호석,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강성대국 건설의 총진군’을 이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0.9.16), www.onekorea.org.

51) 김정일, “비행사들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자(조선인민군 제 855군부대 일군들과 한 담화 1964년 10월 18일),” 『김정일선집 1』, pp. 38~44.

에 의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이었던 푸에블로호 사건과 관련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강조한 그의 담화에도 나타난다.⁵²⁾ 그는 “다른 나라를 불의에 침공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쓰는 상투적인 전쟁수법입니다. 이것은 세계전쟁력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이 그러하였고 쏘련에 대한 파쑈독일의 침공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리승만역도를 사촉하여 조선전쟁을 일으킬 때에도 공화국북반부를 단숨에 삼켜보려고 불의에 침공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전투준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강성대국’ 건설을 슬로건으로 하는 그의 통치시대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즉 그는 “군사를 중시하고 국방공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군사는 국사중의 제일국사이며 국방공업은 부강조국건설의 생명선입니다. 군사와 국방공업을 떠나서는 경제강국도 건설할 수 없으며 나라와 인민의 안녕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군사가 첫째이고 국방공업이 선차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국방력을 강화해 왔으니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운지 오랬을 것입니다.”⁵³⁾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제국주의”와의 투쟁은 김정일의 군사에 관한 인식의 구조 틀을 구성하고 있다. 1995년 1월 1일 신년을 맞아 당 일군들과의 대화에서 말했다는 ‘조선인’과 ‘미국인’의 관계를 빚댄 이야기에

52) 김정일,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군사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8년 2월 2일),” 『김정일선집 1』, p. 328.

53)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9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57.

그의 인식 틀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1920년대에 우리 나라에 와 있던 미국선교사가 조선소년이 떨어진 사과를 한 알 주어 먹었다고 하여 그의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는 글자를 새기는 만행을 감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인민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⁵⁴⁾ 김정일의 군사 인식의 변화는 아마도 미국과의 관계 변화 속에서 찾아질 수 있을지 모른다.

54) 김정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14』, p. 2.

IX. 근로단체·청년·여성

임순희(연구위원)

1. 서론

북한의 근로단체와 청년, 여성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 및 사고는 김일성과 다르지 않다. 김정일은 근로단체와 청년, 여성과 관련한 김일성의 업적을 찬양하며 김일성의 사상을 거의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특기할 만하다. 그는 청년운동과 관련한 김일성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신이 청년에 대해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들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김정일은 1996년 1월에 사로청창립 50돌을 맞으며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이 구호는 당이 김일성의 뜻을 받들어 청년들에게 힘과 신심을 주고 청년들을 혁명의 주체로 더 훌륭히 키우기 위하여 새로 내놓은 구호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1991년에는 8월28일을 ‘청년절’로 제정하고 이는 김일성이 이룩한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여 청년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조국과 민족 앞에 쌓아올린 청년들의 업적과 위훈을 길이 빛내이며 새 세대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일의 청년에 대한 관심 및 기대는 김정일선집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김정일선집에 근로단체와 여성에 대한 김정일의 서한 및 담화는 수 편에 불과하나 청년과 관련한 서한 및 담화는 십 여 편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북한도 김정일이 수많은 역사적 문헌들을 발표하여 김일성 수령의 주체적인 청년운동사상을 철저히 옹호 고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심화 발전시켰다고 한다. 김정일이 발표한 서한 및 담화를 통해 보면 근로단체와 여성에 대한 김정일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여성에 대해 더욱 그러하다.

이 글에서는 관련 서한 및 담화에서 김정일이 피력한 근로단체·청년·여성의 의의 및 중요성, 주요 임무 및 과업 등을 통해 근로단체와 청년, 여성에 대한 김정일의 구체적 인식 및 사고에 관해 살펴본다.

2. 근로단체

가. 근로단체의 의의와 중요성

북한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7세부터 입단하게 되는 소년단 생활을 시작으로 하여 거의 일생에 걸쳐 의무화된 정치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김정일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정치조직생활은 오직 북한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의와 중요성을 갖는다고 한다.¹⁾

첫째, 정치조직생활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구현한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인민들의 정치생활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바,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에서 정치생활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상적인 생활적 요구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정치조직생활을 통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직생활을 통해 혁명가적 품성의 하나인 조직성을 함양할 수 있다.

1) 김정일,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10월12일),”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300~304.

사람은 조직을 통해서만 사회정치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귀중한 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있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보람찬 투쟁 속에서 값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바, 따라서 높은 조직성은 혁명가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며, 사람들이 청소년시절부터 조직에 망라되어 조직생활을 잘하여야 조직생활에 습성화되고 높은 조직성을 지닌 혁명가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본성에 있어서 고도의 의식적이며 조직적인 운동인 공산주의운동은 혁명대오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뭉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 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요구하며,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은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하여 지니게 된다고 한다.”²⁾

셋째, 조직생활은 주체의 혁명관을 확립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김정일은 이른바 주체의 혁명관 확립을 위한 근본방도로서 학습과 조직생활, 혁명적 실천을 강조한다. 혁명관을 옳게 세우는 것은 공산주의혁명가를 육성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이며, 혁명관은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중요한 사상 정신적 품모인 바,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려면 혁명사상과 이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강한 조직생활과 혁명적 실천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근로단체는 “근로자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며 당을 옹호보위하고 방조하는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로서 사회주의 하에서 근로단체들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균중을 교양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 세우며 그들을 당 정책 관철에로 조직 동원하는 임무를 수행”³⁾한다. 또한 근로단체조직의

2) 박종선, “학습과 조직생활, 혁명적실천은 주체의 혁명관 확립을 위한 근본방도,” 『근로자』 (1983. 6), p. 36.

3)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3』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p. 427.

필요성에 대해 북한은 사회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최고형태의 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당에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 가운데서 선발된 정수분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당이 당밖에 있는 광범한 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 세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조직 동원하자면 근로단체와 같은 대중조직을 가져야 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일 역시 근로단체를 당에 의하여 조직되고 당의 영도 밑에 자기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동맹원들과의 사업을 하는 정치조직이라고 한다. 또한 김정일은 근로단체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근로단체조직들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로서 균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당은 근로단체를 통하여 대중과의 연계를 실현하고 균중속에서 핵심을 키워 자기 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해나간다”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근로단체의 주요 임무와 과업

북한의 근로단체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4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임무와 과업을 수행한다.

(1) 사상교양사업

김정일에 의하면 근로단체의 기본임무는 광범한 균중을 교양 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우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조직 동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근로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가장

4) 김정일,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전국당근로단체사업부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200~201.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일이다.

근로단체가 사상교양사업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서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논거에서이다. 즉 북한에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일정한 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정치생활을 하고 있는 바, 이런 조건에서 근로단체조직들이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모두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단체조직들은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반드시 당 사상사업 방침에 따라 조직 진행해야 하며, 사상교양사업은 주체사상교양과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노동애호정신교양, 집단주의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 공산주의도덕교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김정일은 노동계급과 동맹원들 속에서 전쟁관점을 바로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바, 노동계급과 동맹원들의 전쟁공포증과 염전사상을 배격하며 평화적기분을 없애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교양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⁵⁾

(2) 동맹 대열의 정치사상적 정비 강화

동맹 대열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 것은 근로단체 건설의 기본원칙이며, 근로단체들의 중요과업으로 되어 있다. 동맹대열의 정비 강화를 위해 강조되는 것은 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는 것을 비롯하여 후비간부양성사업 강화, 핵심, 열성 동맹원들과의 사업 강화 등이며, 김정일은 특히 가정 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 경위가 복잡한 동맹원들과의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한다. 김정일에

5) 김정일, “직업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전국직업동맹일군강습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년 5월3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65.

의하면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양 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워야” 하는 바, “동맹조직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 경위가 복잡한 동맹원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다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는 것이며, 그들과의 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본인의 현재의 사상동향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한다.⁶⁾

(3) 동맹조직생활 강화

김정일에 의하면 동맹조직생활 강화는 동맹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동맹조직생활에 대한 지도 강화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강조된다. 첫째, 동맹원들 속에서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조직생활기풍을 세우도록 하는 것, 둘째, 동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여 그들이 언제나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동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며, 동맹조직생활을 정규화하고 동맹생활총화를 혁명과업 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김정일은 동맹조직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단체의 기층조직으로서 동맹원들의 조직생활의 거점인 초급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할 것을 강조한다.

6) 김정일, “직업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pp. 73~74; 김정일,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p. 204.

(4) 노동계급과 동맹원들을 사회주의경제 건설에 적극 조직동원

북한의 근로단체들이 노동계급과 동맹원들을 사회주의경제 건설에 적극 조직 동원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 건설의 자체적 특성과 관련되어 강조된다. 사회주의경제 건설은 자연을 개조하여 나라의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매우 보람차고 거창한 사업인 바, 따라서 사회주의경제 건설사업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를 옹기 조직동원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근로단체들이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노동계급과 동맹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방도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한다.⁷⁾ 당의 경제정책 선전 강화, 경제선동 강화, 대중운동 강화 등이 그것이다. 김정일에 따르면 이 가운데 특히 대중운동은 광범한 군중을 대중적 영웅주의와 집단적 혁신으로 조직 동원하는 힘있는 군중동원방법이며 사회주의경제 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위력한 수단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모든 동맹조직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중운동을 적극 벌이며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대중운동으로 는 사회주의경쟁운동,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모범기대창조운동, 3.16 모범가정창조운동, 8.3모범가내작업반창조운동, 좋은일하기운동 등이 있다. 김정일은 특히 좋은일하기운동은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고 생활환경을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벌리는 공산주의적 운동이며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적운동”⁸⁾으로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집단주의정신과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

7) 김정일, “직업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pp. 68~71 참조.

8) 김정일,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첫 청년절을 맞는 전국의 청년들과 사로청일군들에게 보낸 서한), 『김정일선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11.

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는”⁹⁾운동이라고 강조한다.

김정일에 의하면, 근로단체들이 위와 같은 임무 및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당적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김정일은 근로단체조직들에 대한 당적지도 강화의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¹⁰⁾

첫째,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당을 강화하고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고 한다. 근로단체는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인 바,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당의 대중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당 대열을 끊임없이 늘여나갈 수 있으며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 세워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는 과업은 광범한 군중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때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바,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정일은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강조한다.¹¹⁾

첫째, 근로단체가 본신임무를 옹기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김정일에 의하면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기본은 근로단체조직들이 본신임무를 옹기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근로단체의 본

9) 김정일, “소년단사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자(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6년 6월 6일),”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47.

10) 김정일,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pp. 200~201 참조.

11) 김정일,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pp. 201~209 참조.

신임무는 균중을 교양 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며 그들을 혁명 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조직 동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근로단체조직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근로단체조직들에 대한 지도사업은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해야 한다.

근로단체조직들은 각기 임무와 사업대상이 다르고, 동맹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환경과 혁명과업도 다르기 때문에 당적지도는 각 근로단체의 특성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근로단체들이 당의 지도 밑에 자립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곧 근로단체의 자립성을 높인다는 것이며, 근로단체의 자립성을 높인다는 것은 근로단체조직들이 당 사업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직 진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김정일에 의하면 근로단체조직들은 당의 영도 밑에 자기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동맹원들과 사업을 하는 정치조직이며, 사업에서 자립성이 없으면 아무런 창발성도 나올 수 없는 바,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가 옹계 보장되는 조건에서 근로단체조직들에 권한을 주어 동맹원들을 교양개조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사업을 해당 단위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직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¹²⁾

넷째, 근로단체를 당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 전투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김정일에 의하면 근로단체는 당에 의하여 조직되고 당의 영도 밑에

12) 김정일,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근로단체사업부장 허정숙과 한 담화 (1981년 11월 18일),”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25.

움직이는 대중적 정치조직이므로 당의 영도는 근로단체 건설과 활동의 근본요구이며 당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는 것은 근로단체의 첫째가는 의무라고 한다. 또한 그는 근로단체가 당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어야 당의 인전대, 외곽단체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다고 한다. 근로단체를 당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 전투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주요 방도로는 동맹대열을 잘 정비하는 것과 당의 영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을 세우는 것 등이 강조된다.

3. 청년

가. 청년의 의의와 중요성

김정일은 “우리의 남녀청년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가장 긍지 높고 훌륭한 새 세대들”¹³⁾이며, “우리 당은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굳게 믿고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있다”¹⁴⁾라고 한다. 또한 그는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이며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미래의 주인공”이고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며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따라 민족의 흥망과 인류의 미래가 좌우된다”라고 한다.¹⁵⁾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위업이 곡절을 겪고 좌절되게 된 것은 지난 시기 청년들

13) 김정일,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모범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9년 9월29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74.

14) 김정일,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p. 301.

15) 김정일, 위의 글, p. 293.

을 혁명적으로 교양육성하는 사업을 차요시하고 여기에 낮을 돌리지 않은 결과, 세대가 바뀌면서 1세대, 2세대의 뒤를 이을 혁명의 후비대가 튼튼히 준비되지 못한것과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다”¹⁶⁾라는 것이다. 제1장에서 언급했듯이 청년들에 대한 김정일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높다. 김정일은 자신의 담화 및 서한들에서 특히 청년의 의의와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청년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 김정일이 십 수 편의 청년 관련 담화 및 서한들에서 밝힌 청년의 의의와 중요성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청년들은 당의 청년전위들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청년들은 당의 두리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쳐 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며, 당에서 의도하고 바라는 것이라면 물과 불 속에라도 뛰어 들어 기어이 해 내고아마는 당의 청년전위들이며, 그 어떤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당만을 믿고 따르며 당을 앞장에서 목숨으로 옹위 하고 당의 사상지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것이 청년들이라고 한다.¹⁷⁾ 여기에서 청년전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당과 수령의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감에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선봉대, 돌격대가 된다는 것”¹⁸⁾을 말한다.

16) 김정일,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청년절 5돐에 즈음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청년전위》에 준 담화 1996년 8월 24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215~216.

17) 김정일,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청년절 5돐에 즈음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청년전위》에 준 담화 1996년 8월 24일),” p. 217.

둘째, 청년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담당자이며 미래사회의 주인공이다.

김정일은 청년들을 일컬어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의 위업을 떠메고 나갈 당의 믿음직한 전투부대이며, 강성대국건설의 후비대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정일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며 우리 조국을 가장 위력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는 더없이 보람차고 거창한 투쟁”이며 “시대의 선구자가 되어 강성대국건설의 앞장에 서야 할 세대는 다름아닌 우리 청년들”¹⁹⁾이라고 밝힌 바 있다.

셋째, 청년들은 자연과 사회개조의 선구자이며 가장 적극적인 담당자들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청년들은 생기발랄하고 용감하며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서는 물불을 가리지않고 희생적으로 투쟁”하는 바, “청년들은 이런 훌륭한 특질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²⁰⁾

넷째, 청년들은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이며 교대자들이다.

혁명의 명맥은 새 세대들에 의하여 이어지며 조국의 앞날은 그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청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것은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한다.

다섯째, 청년들은 조국보위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기본역량이다.

18) 김정일,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p. 5.

19) 김정일,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p. 467.

20) 김정일, “재일조선청년들을 애국위업이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0년 4월5일),” 『김정일선집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75.

김정일에 의하면 “청년들은 조국보위의 직접적담당자이며 기본역량”인 바, “총대를 사랑하고 군사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유한 품모로 되어야 하며” 청년들은 “혁명의 총대위에 조국의 안전과 민족의 번영이 있고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가장 영예롭고 성스러운 임무로 여기어야 한다”는 것이다.²¹⁾

나. 청년의 임무와 주요 과업

김정일이 발표한 청년 관련 담화 및 서한들을 통해 본 청년의 임무와 주요 과업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주체혁명위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 청년들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내지 과업은 김일성 수령이 개척하고 이끌어 온 주체혁명위업을 당의 영도 밑에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정일은 주체혁명위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자본주의사회에 비한 사회주의사회의 근본적 우월성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인민들의 정치생활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고 한다.

둘째, 청년운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는 청년운동 전통의 계승 발전이라고 한다. 김정일에 따르면 청년운동은 청년들이 당의 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운동이며 청년운동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 것은 당과 혁명,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그는 사회주의청년운동의 근본원칙은

21) 김정일,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p. 470.

“청년운동을 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충성의 청년운동으로, 광범한 청년들을 당의 두리에 하나로 묶어세우는 대중적인 청년운동으로, 당이 맡겨주는 혁명임무를 무조건 끝까지 수행하는 전투적인 청년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²²⁾이라고 한다.

셋째, 반제자주화위업에 헌신해야 한다.

청년들이 반제자주화위업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은 청년들이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공정한 정치, 경제적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김정일에 의하면 “청년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퇴폐적인 사상과 문화를 배격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지향에 맞는 건전한 사상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며 반제자주화위업에 헌신하는 것은 역사와 인류 앞에 지닌 영예로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²³⁾

넷째, 당의 근위대, 결사대가 되어야 한다.

청년들은 당과 수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혁명전사로서의 의리와 본분을 다하여야 하는 바, 청년들은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할 굳은 각오를 가지고 당을 옹호 보위하여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당의 근위대, 결사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주의경제 건설의 선봉대·돌격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김정일은 청년들을 일컬어 혁명과 건설에서 가장 활력 있는 부대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라고 한다. 또한 사회주의경제 건설에서 돌격대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청년들의 영예이고 자랑이며, 청년들은

22) 김정일,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청년사업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3년 1월 5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291~295.

23) 김정일,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pp. 295~296.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서 돌격대, 선봉대의 영예를 높이 떨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적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는 것은 우선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제기된다. “사회주의건설 사업은 산도 통채로 떠움기고 광란하는 날바다도 가로막으면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 도시와 농촌, 공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 나라의 면모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변혁하는 거창한 창조사업”이며, “이러한 건설사업은 사람들의 혁명가적인 투쟁력과 무궁무진한 창조력, 튼튼한 육체적 준비를 요구”하는 바, “위력한 혁명력량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력부대인 청년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과 자질로 하여 사회주의건설 사업을 힘있게 떠맡어나갈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²⁴⁾

북한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대·돌격대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서 선봉적 역할, 당 경제정책의 적극적인 옹호자, 철저한 관리자 역할, 청년돌격대운동²⁵⁾을 비롯한 다양한 대중운동 전개 등이 그것이다. 이들 가운데 특히 청년돌격대운동은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는 청년운동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청년돌격대운동은 당의 사회주의경제 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며 실천을 통하

24) 손기학,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 『근로자』 (1986. 10), p. 39.

25) 청년돌격대운동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청년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에서 그들을 단련하고 혁명화하는 대중적 운동, 경제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긴요한 대상들을 맡아 그 돌파구를 열어어나가는 청년들의 대중적 혁신운동,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 속에서 청년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우는 사상개조운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리형섭,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선봉대적 역할과 청년돌격대운동,” 『근로자』 (1987. 10), p. 45.

여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기 위한 충성의 운동이다. 또한 그는 “청년돌격대운동에서 기본은 속도전 청년돌격대활동을 강화하는것”인 바,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사회주의경제건설 구상을 맨 앞장에 서서 실현해 나가는 정규화된 전투적인 로력부대이며 청년들을 당의 청년전위로 키우는 혁명학교”라고 한다.²⁶⁾

속도전청년돌격대는 1975년 5월 김정일이 청년돌격대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 발전시켜 조직한 새로운 형태의 청년돌격대로서 군대와 같이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정규화된 조직이며, 북한의 국제친선전람관, 인민대학습당, 평양제1백화점, 창광거리등을 건설하고 철도전기화, 철길건설 등을 완공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⁷⁾

여섯째,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 통일과업을 달성해야 한다.

김정일은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조국을 튼튼히 지키는 것은 청년들의 가장 영예롭고 신성한 의무이며, 조국보위사업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사업인 동시에 수령의 혁명업적과 당의 위업을 옹호 보위하는 성스러운 사업이고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는 투쟁이라고 한다. 동구 사회주의권이 와해되고 소련이 해체되는 등 대외정세의 급속한 변화를 겪기 시작한 1980년대 말이래 북한은 청년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위업 고수 및 조국보위의 의무를 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93년의 한 담화에서 김정일은,

현시기 조선청년운동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청년들을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청년전위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입니다. …<

26) 김정일,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p. 10.

27) 리형섭,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선봉대적 역할과 청년돌격대운동,” 『근로자』 제10호 (546), p. 49.

청년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당의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 바로 이것이 현시기 우리 당이 청년들앞에 내세우는 혁명적구호입니다.²⁸⁾

라고 밝히고,

청년들이 목숨은 버릴지언정 사회주의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 사회주의를 버리는 것은 죽음이나 같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²⁹⁾

라고 역설한 바 있다.

사회주의위업 고수와 함께 북한 청년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업은 조국통일 달성이다. 청년들은 조국통일의 기수이며 통일된 조국의 주인공들인 바, 민족대단결의 기치 밑에 굳게 뭉쳐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청년들이 위에서와 같은 임무와 주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 방도로는 청년동맹 조직생활 강화, 사상교양사업 강화,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 강화 등이 강조된다. 특히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강화는 김정일에게 있어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

28) 김정일, “청년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296.

29) 김정일, “청년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p. 343.

어진다. 이와 관련해 김정일은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하여 아들이 저절로 혁명가로 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주의제도에서 나서 자란 새 세대들이라고 하여 저절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끊임없는 혁명적교양을 받아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³⁰⁾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정일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있어 특히 대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강화를 촉구한다. 그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앞으로의 민족간부인 바, 따라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혁명의 장래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¹⁾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주체사상원리교양, 혁명전통교양, 당정책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공산주의도덕교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강연회, 출판물, 영화를 비롯한 예술작품,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이 효과적인 교양방법으로 강조된다. 김정일에 의하면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교양방법이며, 새 것을 받아들이고 좋은 것을 따라 배우며 남보다 무엇을 더 잘 하여 이름을 날려 보겠다는 청년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는 우월한 교양방법이라고 한다.³²⁾

30) 김정일,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도, 시, 군 당위원회 청년사업부 일군강습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1년 7월 13일),” 『김정일선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103~104.

31) 김정일,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1월 17일),” 『김정일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56.

32) 김정일,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자,” p. 55;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은 여타 사회주의 사회와 마

4. 여성

가. 여성의 의의와 중요성

김정일은 북한 여성들을 일컬어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힘 있는 역량이라고 한다. 또한 그는 여성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사회활동에 널리 인입 하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요구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사회가 제대로 움직여나가자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여야 합니다. 수레가 한쪽바퀴만 돌아가서는 제대로 굴러갈수 없듯이 남자들의 역할만으로는 사회가 발전할수 없습니다. 여성들을 사회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야 우리 사회의 발전을 다그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길수 있습니다.³³⁾

북한 가족법 제2조에는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다. 국가는

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군중 교양의 기본 방법이며 당적 방침으로 되어 있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없어진 사회주의하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지배적이고 그것이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공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은 군중 교양의 위력한 방도로 되며, 이는 특히 전통적으로 도덕관념이 강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 특성에 완전히 맞는 가장 효과적인 교양 방법이라고 한다.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19.

33) 김정일, “여성간부들을 더 많이 키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5년 4월30일),” 『김정일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83~84.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곧 북한이 이른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가정의 혁명화를 중시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일은,

우리 제도하에서 가정은 사회의 한 세포이며 가정생활은 곧 사회생활의 연장입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하고 김일성주의화하려면 가정부터 혁명화하고 김일성주의화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녀성들의 책임이 큼니다. 우리는 녀성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며 가정과 사회를 혁명화하는데서 지닌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³⁴⁾

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정일은 특히 가두여성(가정주부)들의 혁명화를 강조한다. 북한에는 여성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두여성들이 적지 않은 바, 가두여성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다 혁명화 한다면 가정 혁명화도 잘 될 뿐 아니라 여성 혁명화를 빨리 다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정일은 여성들을 혁명화 하기 위한 주요 방도로서 사상혁명을 통해 여성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 여성들을 혁명조직에 망라시켜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해 정치 사상적으로 단련시키는 것 등을 강조하며, 여성들을 사회에 적극 진출시켜 여성들이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을 통해 자신을 정치 사상적으로 단련하며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김정일은 특히 가두여성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강화를 촉구하며, 여성들이 가정에 파묻혀 있으려는 것은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이므로 “가두당세포들에서는 집체교양과 개별교양을 옹계 결합하여 가정부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

34) 김정일, 위의 글, p. 97.

는 낡은 사상과 관습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끈기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³⁵⁾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가정부인들을 사회에 적극 진출시키는 것은 그들을 혁명화 하기 위한 좋은 방도라고 하며, 특히 여성간부 육성 및 당기관을 비롯한 근로단체기관, 행정경제기관 등에서의 여성간부 등용을 강조한다. 김정일에 의하면, 여성간부 육성을 강화하고 여성간부를 적극 등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³⁶⁾

첫째, 여성간부를 많이 키워내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여성들에게 남자들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평등권이 더욱 완전히 보장될 수 있다. 둘째, 여성간부들을 늘이는 것은 당의 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셋째, 여성간부들을 많이 키우는 것은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 바, “남북의 문이 열리면 남반부에 나가 활동할 수 있는 여성일군들을 많이 키워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여성의 지위와 역할

1975년에 행한 한 연설에서 김정일은 여성간부 육성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성들에 대한 그릇된 관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³⁷⁾ 그에 의하면 당과 국가에서는 많은 힘을 들여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훌륭히 갖추어 주고 있으나 일군들 사이에 여성들을 홀시하고 차별하는 그릇된 사상관점이 적지 않게

35) 김정일, “동, 인민반 사업을 개선강화하자(평양시 서성구역 하신동 일군들과 한 담화 1972년 7월11일),” 『김정일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404.

36) 김정일, “녀성간부들을 더 많이 키울데 대하여,” pp. 84~85.

37) 김정일의 여성간부 육성 대책에 관해서는 김정일, “녀성간부들을 더 많이 키울데 대하여,” pp. 87~99 참조.

남아 있어 여성간부들이 빨리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1995년에 발표한 한 담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담화에서 김정일은 “이번에 출판보도물들에서 국제부녀절과 관련하여 여성문제를 별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신문과 텔레비존방송에서 여성문제를 별로 취급하지 않은것을 보면 우리 일꾼들이 편협하며 감정이 없는 목적과 같습니다”³⁸⁾라고 비판하며 일꾼들 사이에 여전히 여성차별의 사상관점이 남아있음을 지적하였다.

북한은 남존여비사상에 대해 “남자를 존대하고 여자를 천대하는 착취사회의 반동적 료리도덕관”이며 근절되어야 할 봉건유교사상의 잔재라고 한다.³⁹⁾ 또한 북한은 정권 창립 이전, 이른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전통적 가족제도의 말살과 여성해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에 착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946년에 제정된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은 북한이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주장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법적 근거이다. 북한은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의 실시로 여성들이 남성과 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적극적·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남녀평등의 실체는 다르다. 김정일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차별 당하고 있으며, 여전히 가부장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생활에서도 여성의 지위는 종속적이다. 이와 같은 남녀평등의 실체는 김정일의 담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세

38) 김정일, “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역량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95년 3월8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25.

39)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5』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pp. 159~160.

우는것이 중요합니다. ...노래 《사랑하시라》는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존중할데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⁴⁰⁾

여성관련 법·제도 및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현저하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으며, 특히 가정생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북한정권의 초기와는 달리 북한에서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가부장적 위계질서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제5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표방하고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 및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부터이다. 김일성 우상화논리를 핵으로 하는 주체사상과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은 궁극적으로 김일성을 아버지로 하는 북한의 가족공동체화를 지향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김일성·김정일 세습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가정 단위에서부터 가부장제적 서열구조를 공고히 해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성들에 대해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혁명가적인 역할과 가정주부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¹⁾ 북한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사전담이라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못박고,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남녀평등을 내세워 여성 노력 동원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 여성인식의 실제

40) 김정일,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 pp. 25~27.

41) 북한여성들에게 모범적 여성상으로 제시되는 인물들인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과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의 귀감적 역할이 혁명가로서의 역할과 전통적인 주부로서의 역할이다. 북한 여성들은 강반석과 김정숙의 “혁명가의 아내, 혁명가의 어머니, 혁명가, 전통적인 주부”로서의 모범적인 역할에 대해 의무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김정일은 “여성들이 가정에 파묻혀있으려는것은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이며, “일부 남자들은 자기 안해에게 아이들이나 기르고 자기 뒤 바라지나 하라고 요구한다는데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매우 그릇된 사고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⁴²⁾ 그러나 실제에 있어 김정일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보수적이며 이른바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예로 김정일은 여자가 바지를 입으면 여성다운 품모가 없어지게 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바지착용을 금지시켰는가 하면,⁴³⁾ “여편네란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 잘하면 되는 것”⁴⁴⁾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여성의 좋은 성품으로 수동성, 유연성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여성들에게는 좋은 성품이 많습니다. 녀성들, 특히 우리 당의 주체교육을 받은 젊은 녀성들에게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하는 성실한 품성도 있고 맡은 일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높은 책임성도 있습니다. 또한 녀성들은 대체로 성격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들을 간부로 많이 등용하면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없애고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도 좋습니다”⁴⁵⁾라고 밝힌 바 있다.

김일성에게 있어 바람직한 여성상은 “남편공대도 잘하고, 부모공대도 잘하고, 어린것도 잘 기르고, 살림을 잘하며, 계속 일을 해내는”⁴⁶⁾ 여성이며, 그는 여성의 역할에 있어 특히 자녀양육 및 교양을 중시하였다. 김정일 역시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가정주부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중시하며, 특히 어머니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

42) 김정일, “녀성간부들을 더 많이 키울데 대하여,” pp. 97~99.

43) 남인숙, 『남북한여성,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서울신문사, 1992), p. 212.

44) 월간조선 편집부 편,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서울: 조선일보사, 1991), p. 290.

45) 김정일, “녀성간부들을 더 많이 키울데 대하여,” p. 84.

46)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대한 수령의 품 속에서(4)』 (동경: 조선청년사, 1972), p. 154.

정일은,

어머니는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마음을 쓰며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예로부터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고 훌륭한 제자의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고 하였습니다.⁴⁷⁾

라고 말한다.

위에서와 같은 김정일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1991년에 창작된 가요 《녀성은 꽃이라네》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이 가요에서 북한여성들은 생활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으로 비유되어 있다.⁴⁸⁾

녀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한가정 알뜰살뜰 돌보는 꽃이라네...

녀성은 꽃이라네 행복의 꽃이라네 아들딸 영웅으로 키우는 꽃이라네...

녀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걸어온 위훈의 길에 수놓을 꽃이라네...

X. 김정일의 교육과

47) 김정일,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교육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7월12일),” 『김정일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411.

48) 북한은 이 가요에 대해 “우리 나라 여성들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을 감동적으로 형상한 작품이며, 노래 가사는 여성들을 아름다움의 상징인 꽃에 비유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자식을 키우며 사회를 떠밀어어나가는데서 안해로서 누이로서 그들이 맡고있는 몫이 얼마나 큰가하는 것을 생활적으로 생동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5』, pp. 227~228.

인테리혁명화에 대한 인식

김수암(책임연구원)

1. 서론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교육은 그 체제의 지배적 이념과 가치에 기초한다. 북한의 교육도 북한체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교육방향이 설정되고 교육행위가 이루어진다. 특히 유일지배라는 체제의 특성상 김일성과 김정일 명의의 문헌과 연설이 교육의 절대적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 이와 연관된 인테리 문제는 1977년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집대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참다운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공산주의적교육강령이며 우리 시대 교육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준 역사적문헌입니다.¹⁾

북한에서의 교육은 의무교육형태의 중등교육, 수재교육, 고등교육체계 및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로 대별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교육과 연관된 인테리 문제는 인테리계층 자체에 대한 인식과 정책, 그리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와 연관된 ‘온 사회의 인테리화’라는 2가지 차원에서 인식되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인테리 정책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은 11년제 의무교육의 확립기(1972-1985

1)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년 7월 22일),” 『김정일선집 8』, p. 101.

년), ‘온 사회의 인테리화’라는 고등교육의 대중화시기(1985-현재)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김정일선집에 나타난 김정일의 교육과 인테리문제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²⁾

2. 교육관

가. 교육의 목표 및 기본추진방향

(1) 교육의 목표: 주체형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

교육의 목표는 주체형 공산주의적 인간의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³⁾

우리 교육의 사명과 임무는 조선혁명을 잘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재를 길러내는것임

-
- 2) 교육과 인테리문제에 관한 김정일 명의의 다양한 문헌들은 단행본으로 편집되어 발간되었으므로 김정일의 교육관, 인테리관을 일목요연하게 살피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김정일, 『과학교육 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그리고 김정일의 교육과 인테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북한의 문헌은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사회주의와 지식인문제』,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9.6)에서는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제43조)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법』(1999)에서는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이다”(제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니다.⁴⁾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 하에 당이 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며 교육·교양과 혁명실천을 결부하는 것을 사회주의 교육의 주요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⁵⁾

김정일은 사회주의 교육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당의 영도 하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 나가는 혁명의 계승자, 교대자로 준비시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문화수준을 높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

(2) 교육과 주체의 혁명관

주체형 공산주의 혁명가 양성이라는 교육의 기본목표에 따라 주체의 혁명관의 확립이라는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학생들을 조선혁명에 이바지할수 있는 참다운 혁명가로 키울수 있으며 우리의 교육이 로동계급의 혁명 위업수행에 복무하는 참다운 교육으로 될수 있습니다.⁷⁾

4) 김정일,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유능한 민족간부를 키워내자(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원들과 한 담화 1966년 6월 17일),” 「김정일선집 1」, p. 155.

5)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3일),” 「김정일선집 12」, pp. 296~297.

6)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pp. 102~106.

김정일은 맑스-레닌주의를 맹종하는 교조주의적, 사대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교육에서의 주체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과학적 인식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적인 방법론에 의거해야만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올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체의 교육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학생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게 양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⁸⁾ 그리고 학생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닌 간부로 키우기 위해 혁명적 수령관에 대하여 깊이 있는 원리교양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⁹⁾

주체의 교육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수와 교양이 통일된 과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수와 교양은 통일적 과정이므로 교육자인 동시에 교양자인 교원들은 교육과 교양을 밀접히 결합하여 학생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하되, 당적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것을 교양사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¹⁰⁾ 특히 교원은 새 세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키우는 교육의 직접담당자이므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기 전에 먼저 새 세대들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참

7) 김정일,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유능한 민족간부를 키워내자,” p. 155.

8) 김정일, “영화예술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평양연극영화대학 교직원들앞에서 한 연설 1971년 7월 8일),” 『김정일선집 2』, pp. 282~283;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능력있는 군사지휘관을 더 많이 키워내자(김일성군사대학을 돌아보면서 일군들과한 담화 1973년 2월 8일),” 『김정일선집 3』, pp. 16~17.

9) 김정일, “유능한 군사지휘간부들을키워낼데 대하여(김일성군사종합대학 정치부장과의 담화 1983년 3월 9일),” 『김정일선집 7』, p. 424.

10) 김정일,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유능한 민족간부를 키워내자,” p. 160.

다운 혁명가로 키우는 교양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¹⁾

(3) 사회주의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강조

북한교육 특징 중의 하나는 교육이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의 양성에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교육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교육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¹²⁾

먼저 당의 교육정책이 철저히 관철되는지의 여부는 교육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당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의 사업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과학교육부 일군들 자신이 끊임없이 혁명화하고 정치이론수준을 높이며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³⁾

교직원, 학생들로 하여금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하게 세우며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데 가장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당적 지도와 관련한 당조직의 역할에 대해 당조직들은 학

11) 김정일,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교원들과 책임성과역할을 높이자(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교육부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3년 7월 12일) 『김정일선집 3』, pp. 407~408;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pp. 120~121.

12)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p. 125.

13) 김정일, “인텔리정책관철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는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5월 29일),” 『김정일선집 1』, p. 467.

교에서 교수교양사업이 실속 있게 되도록 교육강령이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높은 과학이론적 자질을 소유한 사람들로 ‘교원대열’을 강력하게 구축해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은 당의 교육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맡아하는 집행기관인 바,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정치사업과 교육행정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킨다는 일관된 지도원칙 하에 교육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⁴⁾

또한 교육사업 개선의 일환으로 교육행정사업을 강화하되 학부는 교수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조직지도하는 교육행정의 중요한 단위로서 교수교양사업과 자질향상사업, 과학연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할 임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특히 종합대학에서는 학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¹⁵⁾

(4) 교육방법: 교육학적 과정 이수와 혁명적 기풍

김정일은 교육내용과 함께 필요한 교육학적 과정을 정확하게 이수하는 것이 교육에서 긴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사람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인간발전의 법칙에 따르는 교육학적 과정을 정확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교에서 교수사업을 강의 일면에만 치우치는 편향을 없애고 교수준비로부터 교수과정, 교수내용의 소화과정과 그에 대한 검열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교육학적 과정을 사회주의교육학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고 교수사업이 그것을 정확히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⁶⁾

14)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pp. 124~130.

15) 김정일,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유능한 민족간부를 키워내자,” p. 164.

16)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pp. 110~111.

그리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수(육)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도 김정일은 강조하고 있다.

교육방법은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의 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육내용이 좋게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교육의 본성에 맞는 좋은 교육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학생들에게 바로 인식시킬수 없습니다.¹⁷⁾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방법의 개선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수에서 ‘펼기전달식 강의’, ‘들이먹이는 방법’, ‘배껴주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의성이 마비되므로 교수내용의 특성과 학생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 가지 교수수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수내용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복잡한 과학적 이치를 쉽고 빠르게 인식시키며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커다란 작용을 하는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교수방법으로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방법의 개선과 관련하여 시험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시험은 교수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정도를 검열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외우는 방식으로 시험을 친다면 학생들의 수용정도와 실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배운 내용에 대한 원리인식과 응용능력을 위주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시험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⁸⁾

그리고 혁명적 학습기풍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책을 읽기를 싫어

17)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p. 111.

18)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pp. 111~112.

하는 등 공부를 싫어하면서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학생이 있는데, 혁명적 학습기풍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⁹⁾ 그리고 혁명적 기풍과 관련하여 체육을 강조하고 있다. 체육을 통하여 학생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고 집단주의정신과 강인한 의지를 키워줌으로써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를 키우는 교육의 기본과업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북한의 사회주의교육 방법 중 또다른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의 결합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 생산노동, 리론과 실천을 결합하는것은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교육방침입니다.²¹⁾

실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산 지식을 체득시키는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므로 이론과 결부된 실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²²⁾

(5) 교원의 자질 향상

19) 김정일,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본보기 학교로 잘 꾸릴데 대하여(교육부 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4년 4월 28일),” 『김정일선집 8』, p. 58.

20) 김정일,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체육부 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5월 19일),” 『김정일선집 8』; “영화예술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p. 287.

21) 김정일,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유능한 민족간부를 키워내자,” p. 159.

22) 김정일,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유능한 민족간부를 키워내자,” p. 159.;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능력있는 군사지휘관을 더 많이 키워내자,” p. 18.

중등, 고등교육체계를 막론하고 김정일이 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언급할 때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교원의 자질이다. 김정일은 교원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교원이 후대들을 키우는 교육자, 교양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질과 고상한 공산주의적 품모를 소유하여야 한다.²³⁾

교원은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교육자, 교양자이므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교원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교원은 어머니다운 품성을 소유하여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마음을 쓰며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학생들을 보살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교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어머니다운 품성의 소유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하여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우고 개인이기주의, 자유주의, 소심성, 보신주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상적 병집을 찾아내고 극복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기 위해 교원들을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교양하고 단련시켜야 한다.

교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나가보아야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느끼고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할 수 있는 바, 사회주의건설에서 위훈을 떨치고 있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혁명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교원들로 하여금 현

23) 김정일,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교원들과 책임성과역할을 높이자,” p. 409.

실체험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들이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인접과목 등 깊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훌륭한 교수방법을 소유하며 수령의 교육사상과 당의 교육정책을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상에서 언급한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원들에 대한 통신교육과 재교육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⁴⁾ 특히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은 고등중학교와 인민학교 교원들을 키워내는 ‘원종장’이며 교원의 자질과 품모는 사범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교육교양자적 자질이 높고 고상한 공산주의적 품모를 가진 훌륭한 교원을 많이 키워내려면 사범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이 높고 과학이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교원들을 선발하여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의 교원들을 구성해야 한다.

교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교원들이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원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²⁵⁾

김정일은 특히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고등중학교에서 기초기술교육을 잘 실시하고 대학에서 기술교육의 수준을 높이며 단과대학들과 기능학교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기술교원양성체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교원양성사업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²⁶⁾

24) 김정일,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교원들과 책임성과역할을 높이자,” p. 417.

25) 김정일, 위의 글, pp. 417~420;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p. 122.

26)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p. 123.

나. 중등교육에 대한 인식

(1) 11년 의무교육의 중요성

김정일은 11년 의무교육이 교육체계 전반에서 갖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며 사회의 전반적 사상문화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11년 의무교육이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새 세대들이 11년제의무교육을 잘 받으면 대학교육기간에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완성된 전문기초지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민군대에 나가 복무하거나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경우에도 조 직생활을 통하여 단련하면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여 모든 새 세대들이 완성된 중등일반교육을 받게 해야 대학에서 쓸모 있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낼 수 있으며 사회의 전반적인 사상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게 된 또 하나의 실질적 이유는 노동력 문제의 해결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경제 각 분야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교육을 통하여 양성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²⁷⁾

(2) 교육내용의 구성방향

27) 김정일,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교원들과 책임성과역할을 높이자,” pp. 405~406;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p. 107.

김정일은 11년 의무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을 옹게 구성하고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근본적으로 중등일반교육의 내용은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여 새 세대들을 주체사상,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워야 한다.

셋째, 중등일반교육의 내용은 기초과학교육과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을 풍부한 문화예술적 소양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쓸모 있는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해 중등일반교육에서는 예능교육과 체육교육을 강화하는 데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다섯째, 중등일반교육에서 기초기술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²⁸⁾

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수재교육의 필요성 강조

기존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김정일이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수재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북한의 교육수준이 세계적 발전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여 현실발전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⁹⁾

28)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pp. 107~109.

이러한 인식에 따라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설립하여 수재교육을 시행하였는데, 김정일은 전국적인 확대시행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수재양성의 터전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수재양성기지로 잘 꾸리는것은 정치적으로 보아도 중요합니다.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전국적인 수재양성기지로 잘 꾸리고 근로자들의 자녀들가운데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넣어 공부시키면 우리 인민들이 당의 인민적교육시책에 대하여 더욱 깊이 느끼게 될것이며 당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 할것입니다.³⁰⁾

특히 이러한 정치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양제1고등중학교가 수재교육의 모범이 되기 위해 필요한 특별조치와 특별대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 이과대학에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양제1고등중학교에 대해서는 수재교육을 위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학생선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대학졸업과 동시에 학위논문을 쓸 수 있도록 머리가 비상한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평양제1고등중학교 학생모집사업은 철저히 실력본위로 해야 한다.³¹⁾

라. 고등교육: 민족간부의 양성과 과학연구사업 강화

29) 김정일,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본보기 학교로 잘 꾸릴데 대하여,” p. 50.

30) 김정일, 위의 글, p. 52.

31) 김정일, 위의 글, pp. 51~54, 56.

대학교육의 기본목표는 민족간부의 양성과 과학연구사업의 강화이다.

대학은 민족간부양성의 기지이며 과학의 전당입니다.³²⁾

대학생들은 혁명과 조국의 앞날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민족간부들이므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학과실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가는 동시에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믿음직한 민족간부로 튼튼히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³³⁾ 특히 혁명과 건설을 위한 민족간부의 양성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³⁴⁾

김정일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로 규정하고 기술교육과 과학이론수준의 향상을 크게 강조하면서 고등교육에서의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의 개선을 역설하고 있다.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하여야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높은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습니다.³⁵⁾

기술기초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현대 과학과 기술의 기초원리를 깊이 있게 습득시켜야 최신 과학과 기술을 더 잘 소유할 수 있고

32)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p. 117.

33) 김정일,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계승자로 튼튼히 준비하자,” pp. 52~53.

34) 김정일,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유능한 민족간부를 키워내자,” p. 154

35)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p. 113.

대학기간에 전문지식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기초 교육의 바탕 위에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분야가 끊임없이 개척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고등교육부문에서는 자기 전공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과학기술발전의 최신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여 전문기술교육의 수준을 신속하게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술교육에서의 주체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기술대학에는 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이용하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을 가르칠 것, 공과대학에서는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해결하며 철 생산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유색금속 생산과 가공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가르칠 것, 농업대학에서는 주체농법을 비롯하여 나라에서 독창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주체적인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힘을 경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부문에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현장 기술 일군들을 많이 키워내기 위한 대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대학의 교육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기술일군들을 키워내는 단과대학들을 신설하고 이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 또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기능공들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 체계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현장기술일군 양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³⁶⁾

3. 인테리정책 및 온 사회의 인테리화

36) 김정일, 위의 글, pp. 113~117.

가. 인테리정책

(1) 혁명주체의 구성부분으로서의 인테리

김정일은 계급적 견지에서 인테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김정일은 김일성의 교시를 재차 강조하는 형태로 인테리가 혁명주체의 구성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테리는 혁명의 주체의 한 구성부분입니다.³⁷⁾

인테리가 혁명주체의 구성부분이라는 것은 여러 계급의 출신으로 이루어진 사회계층으로서 하나의 독자적인 계급을 이루지 못하고 전문지식과 기술로 이러저러한 계급에게 복무한다는 인테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의 오류에서 벗어나 당과 혁명을 위하여,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적 근로인테리이며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나아가는 혁명동지로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³⁸⁾

김정일은 인테리가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핵심 판단기준으로 ‘자주성’을 들고 있다. 즉, 혁명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의 운동이며 혁명의 주체는 자주성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계급과 계층만이 될 수 있는데, 인테리도 착취계급의 계급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기 운명

37)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90년 9월 20일),” 『김정일선집 10』, p. 173.

38) 김정일, “인테리정책관철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음에 대하여,” p. 460.

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 것을 요망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성을 지향하는 계층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신노동을 하는 ‘노동계급’이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 농민과 달리 인테리는 일정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언론출판을 비롯한 전문분야의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노동계급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이라는 것이다.³⁹⁾

그리고 인테리가 혁명주체의 구성부분이라는 것은 먼저 사회발전이라는 ‘혁명과 건설’에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인테리는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의 추동력입니다.⁴⁰⁾

인테리는 정신노동을 통하여 사회적 부를 창조하는 근로자로서 인테리의 창조적 활동을 떠나서는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없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인테리의 역할은 사회의 그 어느 계급과 계층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혁명투쟁에서 인테리는 노동자, 농민을 계몽각성시켜 혁명운동에 참가시키는 선도자적 역할을 한다. 특히 인테리들은 민족해방투쟁과 민주주의혁명에서 자신이 노동자, 농민과 함께 혁명의 동력으로 적극 참가할 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의 혁명능력을 키워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⁴¹⁾

인테리가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동행자, 방조자, 조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9)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pp. 173~174.

40) 김정일, 위의 글, p. 175.

41) 김정일, 위의 글, pp. 176~177.

모든 인테리들은 당이 바라는대로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⁴²⁾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된다는 것은 당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된다는 것을 말한다.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 된다는 것은 당의 의도와 구상, 노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당의 위업을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협력군으로 된다는 것을 말한다. 당의 훌륭한 조언자로 된다는 것은 당의 위업의 정당성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를 풀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과 방도를 제기하는 정열적인 사색가, 적극적인 활동가로 된다는 것을 말한다.⁴³⁾

인테리들이 동행자, 방조자, 조언자로서 혁명주체의 구성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인테리들의 출신성분 등 이력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가정환경과 성분에 관계 없이 기준은 당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변함없이 신뢰를 갖고 교양개조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⁴⁾

(2) 인테리에 대한 교양개조: 혁명화, 노동계급화

42) 김정일,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무원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1년 1월 5일),” 『김정일선집 11』, p. 10.

43) 김정일,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pp. 10~12.

44) 김정일, “인테리정책관철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을데 대하여,” pp. 457~461.

인테리가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의 구성부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당의 올바른 영도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테리가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저절로 그렇게 되는것이 아닙니다. 인테리는 오직 노동계급의 당의 올바른 령도밑에서만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습니다.⁴⁵⁾

인테리는 독자적인 계급을 이루지 못하여 노동계급이나 자본가계급과 같이 자기의 계급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을 갖지 못하므로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를 받아야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의 구성부분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⁶⁾

노동자와 대비되는 인테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으로 인해 교양개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인테리들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 인테리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투쟁하는 참된 혁명가로 만든다는 것을 말합니다.⁴⁷⁾

인테리들은 사업상 특성으로 인하여 혁명적으로 단련될 기회가 적고

45)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p. 178.

46) 김정일, 위의 글, pp. 178~179.

47) 김정일, 위의 글, p. 190.

소부르조이사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낡은 사상 잔재를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인테리들은 많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노동계급에 비하여 조직성과 규율성, 집단주의정신이 부족하며 난관을 이겨내는 의지가 약하다. 따라서 인테리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노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 규율성으로 무장시켜야 하는데 혁명적 조직생활의 강화라는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⁴⁸⁾

또한 인테리는 비교적 조용하고 온화한 조건에서 정신노동을 하고 대규모 건설이나 생산실천투쟁 속에서 단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난관과 시련을 뚫고 나가는 혁명적의지가 강하지 못하다. 따라서 인테리들은 ‘혁명적 실천’이라는 방도를 통하여 늘 생산현장과 생산자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혁명성과 조직성, 강의한 의지와 전투적 기백을 따라 배우며 사회적 노동에도 적극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개인을 희생할 줄 아는 집단주의정신을 소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테리들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치적 집단을 개인의 생명의 모체로 보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을 튼튼히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테리들이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며 조국의 융성발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열렬한 애국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중심은 수령이며 사회주의조국의 품은 곧 수령의 품이므로 인테리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은 궁극적으

48) 김정일, “인테리정책관찰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을데 대하여,” pp. 462~464.

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으로 귀착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인테리는 높은 과학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혁명과 건설에서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대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 입장을 버리고 주체적 입장을 확고히 하며 조선 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간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⁹⁾

이와 같이 인테리의 혁명화, 노동계급화가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는 것은 사회주의권의 붕괴과정에서 인테리의 태도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사실 동구라파나라들에서는 인테리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반혁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⁵⁰⁾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자본주의화하기 위해 낡은 사상잔재가 누구보다도 많고 부르주아사상문화에 물들기 쉬운 인테리들을 이용하였다. 특히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처럼 인테리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지 않으면 인테리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사회주의제도를 헐뜯고 자본주의를 끌어들이는데 앞장서게 되며 자기를 키워준 노동계급의 당을 배신하는 것도 서슴지 않게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테리들이 사회주의건설과정에 일시적인 난관이 생겨도 동요하면서 사업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부리는 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므로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⁵¹⁾

49)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pp. 194~200.

50) 김정일,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p. 9.

(3) 새로운 인테리 양성의 문제

새로운 인테리의 육성은 사회주의발전단계가 심화될수록 커지게 되는 인테리의 역할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테리가 늘어나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새 인테리가 민족간부의 기본부대로 되고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잘 키우는 것은 민족의 장래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⁵²⁾

인테리의 역할은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될수록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오랜 인테리의 중요성과 이중성 문제가 해결되어 그들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테리로 될 뿐 아니라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따라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가 인테리의 기본구성을 이루게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의 발전단계에 부합되게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인테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인테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할에 대하여 새 세대 인테리는 전세대가 과학기술과 문화분야에서 다하지 못한 문제를 풀어야 할 교대자, 과학기술과 문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할 새 과학기술과 문화의 개척자,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새 인테리는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높은 창조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거론하고 있다.

51)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pp. 192~194.

52) 김정일, 위의 글, p. 204.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자질을 갖춘 새로운 인테리를 육성하는 방식을 교육과의 연관 속에서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 추천사업과 선발사업을 바로 하는 것은 새 인테리 육성사업을 잘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고등중학교졸업생들 가운데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 사상적 각오가 되어 있고 노동생활과 군대생활에서 단련된 청년들을 선발하여 대학에 보내야 한다.

혁명적 수령관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상교양을 잘하는 기초 위에서 과학기술교육을 실속 있게 하여야 한다.⁵³⁾

그런데 김정일은 새로 육성된 젊은 인테리들은 대부분이 노동생활과 군대생활을 통하여 일정하게 단련된 사람들로서 혁명적 열의도 높고 원칙성도 강하지만 이들에게도 낡은 사상이 있으며 나쁜 사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혁명화, 노동계급화는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⁵⁴⁾

나. 온 사회의 인테리화

(1)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의미

사회주의 발전단계에 따른 지식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의 기본방침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어 계급적대립관계가 없어진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동시에 인테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⁵⁵⁾

53) 김정일, 위의 글, pp. 204~207.

54) 김정일, “인테리정책관철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을데 대하여,” pp. 464~467.

인테리문제는 혁명발전의 각 단계에서 사회계급관계, 사회발전과 사상의식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제기된다. 노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였을 때에는 혁명역량편성에서 인테리를 노동계급의 편으로 만드는 문제가 전면에 나서지만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낡은 사회에 복무한 오랜 인테리를 교양개조하여 그들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새사회 건설에 적극 수용하는 한편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를 육성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인테리 문제는 인테리의 낡은 사상을 완전히 없애고 그들을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문화기술지식수준을 인테리의 수준에 끌어올려 인테리라는 사회계층을 없애는 문제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인테리문제는 결국 인테리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그들을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문화기술지식수준이 인테리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결국 당은 인테리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⁵⁶⁾

즉,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사업을 통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노동계급화된 인테리로, 인테리화된 노동계급으로 만드는 사업이라는 것이다.⁵⁷⁾

이러한 인간개조를 통한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3대혁명 중 문화혁

55)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p. 296.

56)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pp. 189~191.

57)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pp. 296~297.

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전략적목표는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입니다. 인간개조의 견지에서 볼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인 동시에 인테리화하는 과정입니다.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는 사업이라면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높은 지식수준과 문화적소양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어 문화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는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⁵⁸⁾

(2)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일하면서 공부하는 체계’라는 교육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건설방침이다. 우리는 지금 있는 민족간부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고등교육기관을 늘이며 교육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⁵⁹⁾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 것은 교육부문의 중요한 과업인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자면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발전시키

58)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p. 296.

59) 김정일,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높이 들고 나아가자(칼 맑스 탄생 165돛 및 서거 100돛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1983년 5월 3일),” 『김정일선집 7』, p. 444.

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인테리화를 통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효과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체계라고 선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들을 잘 운영하며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더 늘려 대학을 나오지 못한 근로자들을 공부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텔레비전 방송대학을 실속 있게 운영하며 앞으로 녹화교육도 널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을 강화하여 온 나라에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가지도록 하자면 고등교육기관을 늘리고 사회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온 사회에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워 누구나 다 꾸준히 학습하고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⁶⁰⁾

이러한 온 사회의 인테리화에서 직업동맹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직업동맹조직들은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 나가면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가까운 시일내에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일반지식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는데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⁶¹⁾

60)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pp. 118~119.

61) 김정일, “직업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전국직업동맹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년 5월 3일),” 『김정일선집 8』, p. 68.

4. 결론

김정일 선집을 통하여 본 북한의 교육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육성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기본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의 실시, 고등교육과 민족간부의 양성,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을 전반적으로 대학졸업 정도에 이르게 하고 궁극적으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의 후계자 등장 이후 북한체제가 주체사상에 기반한 유일지배체제로 고착화되면서 일반적 공산주의적 인간형에서 주체형 공산주의 혁명가 양성으로 교육목표가 질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주체형 공산주의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주체의 혁명관 정립, 혁명적 조직생활과 혁명적 실천 등의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할 현실적 필요에 부응하여 수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테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이중성, 동요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인테리에 대해 혁명주체의 구성부분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붕괴 과정에서 인테리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인테리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 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통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테리라는 계층 자체의 소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주의발전단계를 기준으로 교육과 인테리가 결합된 방식으로 교육과 인테리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과 정책구상을 도식화하

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정권 쟁취기→ 인테리를 노동계급의 편으로, 사회주의 정권 수립기: 인테리의 교양개조, 사회주의제도 심화기 → 인테리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및 새로운 인테리의 양성, 궁극적 목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통한 인테리라는 사회계층의 소멸이라는 등식을 도출해낼 수 있다.

XI. 김정일의 일상생활관

조한범(연구위원)

1. 사회주의체제의 일상생활과 인성

사회주의 체제의 주민들은 모든 삶이 통제 대상이 되는 체제에 종속되어 있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이름하에 모든 분야에서 우선적인 힘은 국민이 아닌 국가에 놓여 있었다. 소유와 자원은 국가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고, 개인들의 권리는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모든 경제적인 결정은 동시에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계획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은 행정-명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국가기구가 주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경제영역에서 노동에 대한 자발적인 자극을 배제하는 것이었고, 관료주의적 중앙집권주의체제가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모든 분야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소련경제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모든 영역을 통제하는 것은 전체적인 수준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사회주의의 마지막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으며, 자신들이 이룩한 성과들을 소진해버렸다. 산업의 많은 부분에서 생산설비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원의 무절제한 이용과 함께 토양의 비옥도는 저하되었다. 가장 우선적인 생필품조차 공급받지 못할 정도의 생활수준과 노동에 대한 자극의 결핍은 사회주의 사회 전반에 걸친 물리적, 사회적인 하향화를 초래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자본주의와 특성은 다르지만 공업화와 발전이 이루어 졌다. 결과적으로 전근대적인 질병들이 사라졌으며, 삶의 수준

은 일정정도 향상되었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문맹이 사라졌고, 대학교육을 포함해서 교육체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급속한 공업화가 이루어졌고 GNP는 상승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들이 인간의 발전이라는 점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사람들은 계획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졌으며, ‘계획’은 개인들에게 법률이었고 위로부터 강제되었다. 정치적인 권위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계획’으로 형상화된 국가의 요구는 언제나 모든 것에 우선했으며, 따라서 개인들은 배제되었다. 개인들의 발전은 이데올로기차원에서 구호일 뿐이었다. 실제로는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발전이 보다 중요했다. 계획상의 모든 수치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인간존재로서의 발전은 그것이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추동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성이 있는 것이었다. ‘폴뿌리’들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었으며, 시민사회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발전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으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발전’했다.¹⁾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주의 일상생활의 경험은 사회주의 사회에 고유한 특성들을 결과시켰으며, 이는 자본주의경로를 거친 사회의 특성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사회에 형성된 고유한 특성을 문명 비적응력(civilizational incompetence)이라 규정하고, 이를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인 문명 적응력(civilizational competence)과 다른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²⁾ 이에 따르면 발달된 민주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는 문화적인 요소인 문명적인 적응

1) *The concept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post-socialist transition*, <http://sun.nilb.ee/undp/nhdr/CH1.html>. pp. 2~3.

2) Piotr Sztompka, *Civilizational competence: A prerequisite of post-communist transition*, <http://april.ibpm.serpukhov.su/friends/education/audem95/Sztompka.html>, p 5.

력이 일상생활의 영역에 존재한다. 첫째는 시장경제의 참여에 필수요소인 기업가문화이다. 두 번째는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위한 시민문화이다. 세 번째는 자유로운 지적교류를 위한 담화문화이며, 이는 인내, 개방, 다양성과 분화의 용인, 회의론과 비판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진보된 도시적이고 기술지향적인 소비자사회의 일상적인 문화이며 간결성, 청결, 질서, 기능성, 건강지향, 기계장치들의 운용능력 등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경험은 이와 같은 요소들의 형성을 제약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특성인 문명적인 비적용력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왈더는 다른 측면에서 이와 같은 특성을 신 전통주의(communist neo-traditionalism)이라고 부른다.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전통사회의 특성(종속, 복종, 특수주의)들을 근대성(자율성, 계약, 보편주의)으로 대체해 나가지만 사회주의체제는 과거의 전통사회의 특성과 유사한 측면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전통주의적 특성들은 전통사회의 연장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속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신 전통주의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왈더에 따르면 시장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사회주의에 특수한 고용관계와 기업,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조직들의 특성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고유한 구조적 속성들이 신 전통주의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며,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근대성'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³⁾

사회주의에 고유한 특성들의 형성에는 세 가지 주요한 기제가 작용했다. 첫째는 주입을 통한 이데올로기의 내면화(direct indoctrination)이다. 이에 따라 원시적인 평등주의와 국가로부터의 복지와 사회보장을 위해서 노동계급에 의한 '지배적인 정치적 역할'이 요구되었고 정당

3) A.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pp. 1~27.

화되었다. 두 번째는 강압적인 국가기구들을 통한 전체주의적 통제이다. 전체주의적인 통제는 결과적으로 기회주의와 맹목적인 동조, 결정의 회피, 개인적인 책임의 회피 등을 야기하며, 이와 같은 결과들은 국가의 가부장적 특성과 결부되어 사회주의 주민들에게 ‘연장된 발육부전(prolonged infantilism)’증후군을 야기했다. 세 번째는 주입식 교육과 전체주의적인 통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발전시킨 방어유형들이다. 이러한 방어유형들은 법률에 대한 무시, 규칙에 대한 제도적인 회피, 권위에 대한 불신, 전통에 대한 강조, 서구에 대한 막연한 동경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어유형들이 곧바로 자본주의의 ‘문명적응력’의 배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⁴⁾

사회주의경제의 특성도 주민들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는 완전고용제도이다. 완전고용상태하에서 피고용 대상자들은 어렵지 않게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은 쉽사리 충족되기가 어렵게 된다.⁵⁾ 이와 같은 사회주의체제의 완전고용과 만성적인 노동력부족현상은 노동자들에게 상당부분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고유한 특성은 특유한 인성형태를 잉태했다. 소련내부의 학자들에 의한 노보시비르스크시의 조사(1983)는 소련경제체제가 형성한 노동자들의 가장 현저한 결점은 양심, 근면성, 성실, 책임, 신뢰성, 노동에 적합한 기술,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 그리고 위험(risk)의 계산 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련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의존

4) Piotr Sztompka, *Civilizational competence: A prerequisite of post-communist transition*, <http://april.ibpm.serpukhov.su/friends//education/audem95/Sztompka.html>. pp. 5~6.

5) J. Kornai, *The Socialist Syste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p. 211~216.

형'(state-dependent)이라는 점이며 두 가지 근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 국가의존형이라는 특성은 기술연마와 생산성보다는 노동기피를 하는 노동윤리와 노동행태, 국가주도형 경제에서 노동에 대한 경멸, 자주성과 위험(risk)에 대한 무능력과 회피와 연관되어 있다.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은 항상 성취보다는 자신의 안전에 보다 관심을 두며, 안전은 개인이 지니는 필요의 충족에 대한 전망보다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해서 규정된다. 다른 한편 국가주도형 경제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보상은 국가주도형 노동자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의존형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이익을 가져다주는 존재이자 보호자로 인식된다.⁶⁾

이와 같은 점들은 객관적인 행위들의 이해에 있어서 그것을 배태하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과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북한의 일상생활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은 국가소유제와 계획경제, 그리고 북한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통제라는 세 가지 공식적 구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북한에서 개인의 소유는 개인적 목적과 소비적 목적이 외에는 보장되지 않으며,⁷⁾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만이 인정된다.⁸⁾ 북한주민은 국가와 협동단체의 소유구조속에서 노동을 수행하

6) Victor Zaslavsky,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pp. 45~46.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채택), 제 2장 경제, 제 24조.

8) 『사회주의 헌법』, 제 2장 경제, 제 20조, 21조, 22조.

고,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는 사회주의적 분배방식을 통해 주민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교육⁹⁾과 타아¹⁰⁾, 보건의료¹¹⁾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많은 혜택들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사회주의체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은 그 자체로서 자율적인 생활문화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당과 국가에 의한 치밀한 통제망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당과 국가, 그리고 북한의 지도부는 체제의 안정을 보장하고 공식체제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통제장치와 감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체제순응을 유도해 왔다. 일상생활에 상호 조응하는 문화의 영역 역시 북한체제의 요구라는 구조적 속성에 의해 타율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당과 국가, 지배집단에 의한 사회적 통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의 헌법은 주민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고, 국가는 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¹²⁾ 또한 북한의 헌법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권리¹³⁾와 일상의 자유¹⁴⁾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강조하고 국가가 모든 성원에 대한 사상혁명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통

9) 「사회주의 헌법」, 제 3장 문화, 제 47조.

10) 「사회주의 헌법」, 제 3장 문화, 제 49조.

11) 「사회주의 헌법」, 제 3장 문화, 제 56조.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사회주의 헌법」, 제 1장 정치, 제 8조.

13)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사회주의 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 67조.

14) 「사회주의 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 75조.

해 북한주민들에 대한 국가통제를 헌법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¹⁵⁾ 동시에 북한의 헌법은 북한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배타적인 통제를 보장하고 있다.¹⁶⁾ 북한주민들에 대한 노동당과 국가의 통제는 헌법차원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은 당과 국가의 통제, 그리고 북한정권의 통제망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외적인 통제의 수준이 주민들의 내면적 동조수준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공식적 통제체제는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압박하는 가장 중요한 힘으로 작용한다. 외적인 통제에 대한 반응인 내면적 동조나 거부, 냉소 등은 비공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북한체제내에 비공식적 일상생활의 영역을 구성한다. 북한에 있어 문화영역 역시 체제유지와 체제순응적 요소의 확산을 위한 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며, ‘문화혁명’을 구현하는 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타율적으로 형성된 문화가 주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이식되어 왔다.¹⁷⁾

따라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내적인 변화의 동력으로서 자유로운 일상생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며, 북한의 경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자율적인 영역은 극도로 제한되어있다. 북한의 모든 조직은 공적인 것이며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사회주의 헌법』, 제 1장 정치, 제 10조.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주의 헌법』, 제 1장 정치, 제 10조.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사회주의 헌법』, 제 3장 문화, 제 40조.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사적인 활동은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창회나 친목회와 같은 남한사회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이동은 엄격한 통제체제아래 놓여있다. 당조직은 사회통제의 핵심으로서 모든 사회조직은 노동당을 중심으로 계통적인 구조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북한에서 당조직은 중앙당조직, 도당조직, 시·군당조직, 당의 기층조직 그리고 최하조직은 당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당조직을 중심으로 ‘직업총동맹’, ‘문학예술동맹’, ‘기자동맹’,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등의 외곽단체를 육성하여 당조직을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자생적 조직의 형성은 개인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문벌주의 종파주의로 규정되어 금지시된다. 또한 인민반은 거주지역에서 개인들을 조직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5-20세대로 구성되는 인민반은 행정제도로서 구성원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각 인민반은 반장, 세대주반장, 위생반장, 선동원, 그리고 감시원과 감독원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의 이러한 모든 상황은 계급이해를 실현시킬 조직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사회운동의 기반이 될 사소한 조직의 형성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사회가 변화를 필요로 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체제저항적, 조직적 성격을 지니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김정일의 일상생활관

가. 주민생활관

김정일은 자신의 저작을 통해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일의 문헌을 통한 분류를 보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문화, 통일의 5개 범주로 나눌 경우 사회문화분야의 문헌이 39.9%로 수위를 차지하며, 정치분야문헌이 38.9%, 경제분야의 문헌이 12.8%, 군사외교가 5.6%, 통일분야문헌이 2.8%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분야 중 문화가 28.3%, 사회분야가 11.5%로 김정일의 문화분야에 대한 관심이 사회분야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¹⁸⁾ 북한의 문화예술분야에 있어 김정일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은 문화에 대한 김정일의 높은 관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권력승계이전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근무하면서 김정일은 주체문예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문예창작에 적용시켜나갔다. 물론 이 과정은 영도예술이라는 북한체제를 위한 정치적 목적의 달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김정일은 연극과 영화, 문학, 무용, 음악, 그리고 미술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의 전 분야에 걸쳐 주체문예이론을 적용시켜나갔다.

김정일이 1984년에 발표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는 김정일의 주민생활관의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¹⁹⁾ 이 논문은 김정일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 김정일은 주민생활과 경제문제를 밀접하게 관련시켜 논의하고 있으며, 김정일이 경제생활 향상을 통한 주민생활문제해결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의 출판이후 북한의 모든 경제정책은 김정일의 이 논문을 인용하였으며, 따라서 경제정책의 성공 역시 김정일의 공으로 돌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8.3 소비품 증산운동’, 주택단지조성사업인 광복거리, 통일거리 건설 등의 성과는 모두 김정일의 논문에서 제시된 교시에 의거한 것이

18) 김병로, 『김정일 선집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22~24.

19)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4년 2월 16일),” 『김정일 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며, 따라서 김정일의 공적으로 간주되었다.

김정일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문제는 정치사상적 차원의 사업과 아울러 이를 지탱하는 물질적 기초로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체제의 안정은 정치사상적 사업과 아울러 이를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으로서 적정한 생활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사상적 차원의 효과적인 사회통제와 이를 뒷받침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주민생활의 유지라는 명제를 통해 김정일의 사회생활관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김정일의 주민생활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 잘 나타나 있다.

일단 유사시에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떨쳐나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우게 하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한 계단 더 높여야 합니다.²⁰⁾

김정일에 있어서 북한주민의 생활은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체제안정과 우월성, 그리고 혁명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속에서 북한주민 생활의 안정은 북한체제의 안정과 직결되는 일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을 당의 최고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

20) 김정일, 위의 글, p. 4.

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우리 당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강령을 내놓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목적도 결국 인민들이 더 잘살게 하지는데 있습니다. 투쟁하는 우리 당에 있어서 경제건설을 잘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것보다 더 중요한 과업은 없습니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²¹⁾

주민생활의 향상은 김정일에 있어서 주민들을 체제에 통합시키는 물질적 기초인 동시에, 정치사상적 동원화를 위한 기초로 인식되고 있다.

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인민생활을 높여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근인들이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와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바쳐 수호할수 있도록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것입니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그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깊이 인식하고 이 고마운 제도를 목숨바쳐 지키겠다는 정치사상적 각오를 가질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역사적경험이 잘 보여주고있습니다.²²⁾

김정일은 일찍부터 문헌을 통해 주민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일의 주민생활에 대한 인식은 주민생활을 위한 상품공급사업과 도시경영, 그리고 일반적인 주민편의문제 등 생활수준향

21) 김정일, 위의 글, p. 1.

22) 김정일, 위의 글, pp. 1~2.

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사업하는데서 인민생활에 일상적으로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평양시와 지방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는데 인민생활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품공급사업에도 결함이 많고 도시경영사업과 편의봉사사업에도 결함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²³⁾

따라서 김정일에게 있어서 주민생활의 문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켜줄 공급의 문제가 적시 적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와 같은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은 북한주민의 생활을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경제문제와 직접적 연관을 맺으며 다루어지고 있다.

김정일은 주민생활 향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관료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즉 북한주민생활의 문제들이 북한체제의 관료주의적 속성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관료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의 요구를 알뿐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풀어주어야 합니다. 군중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제때에 풀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일군들이 머리를 쓰고 일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²⁴⁾

23) 김정일,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인민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평양시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2월 15일),” 『김정일 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70.

김정일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문제해결은 관료주의적 속성의 타파와 아울러 동시에 군중노선에 입각한 대중운동의 필요성을 지적함으로써 제기되는 대중적 불만을 완화하고, 대중적 동원화의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군중적운동을 널리 벌려 대중의 힘과 지혜를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의 생활상 수요는 매우 다종다양하며 우리 사회에서 인민생활과 관련되지 않는 부문은 없습니다. 경공업부문과 봉사부문 일군들의 힘만으로는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서 나서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인민생활을 높이는 사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인 동시에 근로자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여야 할 일입니다. 광범한 대중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떨쳐나서야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국가적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풀수 있습니다.²⁵⁾

나. 사회문화생활관

김정일은 사회문화생활을 통해 풍부한 감성과 문화적 정서, 그리고 도덕적 생활관이 형성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정일은 노동자 계급의 계급투쟁과 혁명투쟁이 “생활도 정서도 없고 오직 투쟁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산주의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체현하고있는 다정다감

24) 김정일, 위의 글, p. 77.

25)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인민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평양시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2월 15일),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78.

한 인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정일은 “높은 문화적소양, 풍부한 정서, 고상한 도덕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과 함께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품모”²⁶⁾라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사회문화생활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된다는 점을 주문하고 있다.

사회문화생활은 사람들이 문화적소양을 높이고 정신도덕적 품모를 갖추며 문화정서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사회생활의 한 분야입니다. 사람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것만으로는 만족할수 없습니다. 사람은 정신문화적재부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향유하며 앞날의 행복한 생활을 그려보면서 보다 문명하게 정서적으로 살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의 이러한 요구는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더욱더 커지고 다양하여집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려면 사회문화생활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합니다.²⁷⁾

사회문화생활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은 타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화장과 옷차림새, 애완동물 등에 대해서 타 분야에 비해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부정하는 인식을 봉건주의적 잔재로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다음의 발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사회문화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옷차림을 비롯하여 몸단장을 문화위생적으로 잘하도록 하는것입니다....

-
- 26) 김정일, “온 사회에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9년 1월 5일),”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309.
- 27) 김정일, “사회문화생활을 개선할데 대하여(당 및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0년 9월 2일),” 『김정일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437.

지금 일부 일꾼들은 여성들이 소매없는 달린옷을 입거나 꽃양산을 쓰고 다니는것을 보고 부르조아냄새가 난다느니 수정주의냄새가 난다느니 하면서 시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성들이 화장을 하고 향수를 치고다니는것까지 시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사람들에게 옷차림과 몸단장을 어떻게 하라고 일률적으로 내리먹이는 현상도 없애야 합니다.....금봉어나 비둘기를 기르는것은 사람들의 개인 정서생활에 속하는 문제이기때문에 다른 사람이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강가에서 낚시질을 하는것도 하나의 풍치입니다.....노는 날에도 주패를 놀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일부 일꾼들이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쓸데없이 간섭하는것은 그들의 머리속에 봉건사상이 남아있는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어있습니다....명절날이나 쉬는 날에 민속놀이를 많이 하도록 장려하여야 합니다.....학교들에서 학생들을 붙들어두고 공부만 시키려 하지 말고 문화정서생활을 잘 조직해주어야 합니다.....청소년학생들에게 수영도 많이 시켜야 합니다.....청소년학생들이 겨울에 스케트도 많이 타도록 하여야 합니다.....청소년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여야 합니다.²⁸⁾

다. 사회운동관

주지하다시피 북한에서는 자발적인 사회운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당의 유일독재체제와 치밀한 사회적 통제망 속에서 자발적 사회운동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있다. 따라서 대중들의 사회운동은 공식기구나 관변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체제정당화 및 대중동원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에 있어서 사회운동

28) 김정일, “사회문화생활을 개선할데 대하여(당 및 근로단체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80년 9월 2일),” 『김정일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은 ‘혁명적 조직관’의 관점에서 이해되며, 사실상 사회운동관은 주민의 효율적 체제통합과 동원을 위한 ‘주민동원관’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조직관을 세우자면 조직의 귀중성을원리적으로 인식시킬뿐아니라 조직생활을 통하여 깊이있게 체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직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언제나 조직에 의거하고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 사임하고 생활하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합니다.²⁹⁾

김정일은 사회운동의 기초를 집단주의로 규정하며, 대중들이 사회운동의 주체를 형성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운동을 담당할 수 없으며, 특히 혁명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개인은 집단적 노력을 통해 사회운동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혁명을 달성할 수 있는 혁명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김정일의 사회운동관이라 할 수 있다.

집단주의는 사람이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보람있게 살기 위한 요구일뿐아니라 사회적집단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조건입니다. 사회적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힘은 집단주의를 어떻게 발양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인민대중은 단합되지 않고서는 혁명의 주체로서의 위력을 발휘할수 없습니다. 개인은 집단의 한 성원으로는 될수 있어도 사회적운동을 담당하고 떠밀고나가는 혁명의 주체로서는 될수 없습니다.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집단적인 힘으로써만 자

29)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10월 10일),”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468.

연과 사회를 성과적으로 개조할수 있고 자주성을 원만히 실현해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운동의 힘있는 주체는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단합된 인민대중입니다.³⁰⁾

그러나 이와 같은 김정일의 집단주의에 대한 강조는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를 지도하는 외적인 힘인 당과 국가라는 타율적 원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의 기본요소를 도외시키고 있다. 김정일에 있어서 사회운동은 사회의 요구와 성원들의 자발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당과 국가의 지도에 의해 수행되고,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사회운동에 있어서 ‘수령의 령도’와 혁명적 교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어떻게 발전하며 청년운동이 어떤 길을 걷는가 하는것은 청년들이 어떤 지도를 받으며 어떻게 교양육성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은 올바른 지도를 받고 혁명적으로 교양육성될 때 혁명적인 세대로 준비될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사회발전을 저애하는 반동의 길, 부패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시대 청년운동이 혁명적인 운동으로 되자면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령도와 혁명적교양을 떠나서 청년들이 의식화, 조직화될수 없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위력한 혁명력량으로 될수 없으며 혁명적인 세대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청년사업을 틀어 쥐고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육성할데 대한 사상은 청년문제해결에서 근본핵으로 됩니다.³¹⁾

30) 김정일,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90년 5월 30일),” 『김정일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81.

31) 김정일,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청년

김정일에 있어서 사회운동은 북한체제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중운동과 대중적 동원화의 한 방식으로 이해된다. 즉 김정일은 사회운동을 북한체제의 정당화와 문제점들은 해결하기 위한 ‘대중적기술개조운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의 인식에 있어서 사회운동의 기본적인 요소인 변혁의지와 자발성은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는 문제로 대체되어 나타나고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전인민적대중운동입니다. 다시말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대중적사상개조운동이며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기 위한 대중적기술개조운동이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그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대중적문화개조운동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그 어떤 대중운동보다 높은 투쟁목표를 제기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입니다.³²⁾

라. 도시경영관

김정일은 도시경영을 정치사상 사업과 주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하드웨어로 인식하고 있다. 즉 주거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주민생

질 5돛에 즈음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청년전위》에 준 담화 1996년 8월 24일,”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480.

32) 김정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6년 11월 23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79.

활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사상사업을 통한 주민설득 및 동원화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물과 시설물은 도시형성의 기본요소이며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및 물질적 생활 조건과 환경을 이룹니다.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을 원만히 보장하자면 건물과 시설물 관리를 잘하여야 합니다.³³⁾

따라서 김정일의 도시경영에 대한 인식은 사회주의 공급체제의 원활한 작동과 주거생활의 개선으로 이해되고 있다. 김정일은 “현대적인 건축물과 시설물을 원만히 갖추고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보장”³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에게 있어서 도시경영은 근대적인 생활환경과 현대적인 거주공간의 건설을 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정일의 문헌에 나타난 도시경영에 대한 인식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도시경영과 관련하여 주택의 건설과 보수, 승강기, 청결한 상수도과 하수처리 문제, 난방, 도로, 가로 등, 도시미화, 녹화사업, 공원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분야까지 언급한다는 점에서 도시경영과 관련하여 실용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경영부문에서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잘 관리하여 인민들이 지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훌륭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도시경영부문에서는 고층살림집과 공공건물에 설치한 승강기를 제때에 보수정비하여 그것이 정상적으로

33) 김정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시경영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 (전국도시경영부문 일군 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1992년 9월 4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155.

34) 김정일, 위의 글, p. 152.

운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살림집배정도 잘하여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상하수도관리를 잘하는것은 주민들의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난방설비에 대한 점검보수와 기술관리를 잘하여야 합니다....도로를 잘 정비하고 알뜰히 관리하여야 합니다.....도시안의 교통시설은 궤도화, 무궤도화 방향으로 나가야합니다.....강하천관리사업은 도시와 마을, 농경지를 큰물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도시와 마을의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도시미화사업은 거리와 마을, 살림집과 일터를 알뜰히 꾸려 도시와 농촌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도시경영부문의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살림집구획에는 어린이놀이시설과 간단한 체육오락설비 같은것도 만들어놓아야 합니다.....현대적미감에 맞지 않는 건물과 공동시설을 개조하여야 합니다....도시경영부문에서는 평양시를 비롯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록음이 우거진 공원속의 도시와 마을로 더 잘 꾸려야 합니다.35)

따라서 김정일은 도시의 기능과 관련, 문화적인 수요의 충족보다는 필수적인 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 평양시 도시경영시설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당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최근년간 평양시에 큰 규모의 거리와 현대적인 살림집과 공공건물이 많이 건설되어 평양시가 세계적으로 이름난 훌륭한 도시로 되었지만 도시경영시설은 거기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평양시내 난방시설이 낙후합니다....도시경영사업을 잘하지 못하다보니 난방시설과 상수도시설 능력이 모자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있습니다. 동평양화력발전소에 보이랴를 한기 놓고 통일거리에 난방을 보장하고있는데 전망계획대로 동평양화력발전소에

35) 김정일, 위의 글, pp. 156~164.

보이러를 더 놓아 평양시 난방시설능력을 늘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하고있는 3만세대살림집건설을 끝낸 다음에는 평양시 도시경영 시설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보충완비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³⁶⁾

그러나 김정일에게 있어서 도시의 주요형성요소인 건물과 시설물에 있어서 사상정신적 요소는 물질적 생활 조건에 못지 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건물과 시설물은 도시형성의 기본요소이며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및 물질적 생활 조건과 환경을 이룹니다. 사상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을 원만히 보장하자면 건물과 시설물 관리를 잘하여야 합니다.³⁷⁾

따라서 김정일은 도시경영을 대중 선동·선전이라는 사회통제 및 정치사상적 사업과 긴밀한 연관을 맺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경영이라는 실용적 요구만으로 도시경영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건설과 운영이 북한지배체제의 정당화와 지배체제의 신성화라는 외적인 목적의 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김정일에게 있어서 도시경영은 북한지배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계획하에 주민생활향상이라는 실용적 요구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정일은 도시의 건설과 시설물의 관리에 있어서 김일성과 북한의 혁명역사사적물관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의미를 지니

36) 김정일, “당, 국가, 경제 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한 연설 1992년 11월 12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227.

37) 김정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시경영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전국도시경영부문 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9월 4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155.

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도시중심부의 가장 좋은 자리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할 대기념비를 세우고 수많은 혁명사적건물을 정중히 꾸려놓았습니다....대기념비와 혁명사적건물을 관리하는것은 그것을 대를 이어 보존하면서 수령의 위대한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숭고한 사업입니다....대기념비와 혁명사적건물 관리는 원상태를 보존하고 영구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대기념비와 혁명사적건물은 언제나 첫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게 하여야 합니다.³⁸⁾

김정일은 도시경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중노선에 입각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군중적인 도시경영체계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도시경영사업을 거주지역단위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관, 기업소 단위로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도시경영사업을 군중적으로 하기 위한 분담과 동원사업을 잘하고 동, 인민반의 역할을 높이며 행정적통제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군중속에서 도시경영사업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모범도시경영군청호쟁취운동은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여 도시경영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운동입니다.³⁹⁾

군중노선과 아울러 김정일은 도시경영과 관련하여 올바른 관련 행정부서의 노력과 관료주의적 속성의 타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38) 김정일, 위의 글, p. 156.

39) 김정일, 위의 글, p. 166.

지도일군들은 추운 겨울날씨에 술한 사람들이 배스를 기다리느라고 줄을 서서 떨고있는것을 보면서도 크게 가책을 느끼지 않고 강건너 불보듯하고있습니다⁴⁰⁾.....도시경영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과 자기 사업에 대한 영예와 긍지를 깊이 간직할 때에만 높이 발휘될수 있습니다.⁴¹⁾

북한도시의 주요 요소인 건축의 특징은 상징적 거대 조형물이 많은 점과, 일반 건물에 있어서도 정치적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 건축의 특징은 일반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 등 실용적 차원의 기능성보다는 김일성 동상과 주민동원 및 수용을 위한 거대 건축물 등에 나타난 상징성에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는 북한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는 거대 조형물들이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건축물의 실용적 기능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인 점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김정일은 건축예술과 관련하여 1991년 ‘건축예술론’⁴²⁾을 발표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91년 김정일의 ‘건축예술론’ 발표를 계기로 북한 건축예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주체건축을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축예술론 발표이후 북한의 건축은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과

40) 김정일, 위의 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인민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평양시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2월 15일),”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74.

41) 김정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시경영 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 (전국도시경영부문 일군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92년 9월 4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169.

42) 김정일, “건축예술론(1991년 5월 21일),”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시를 건축의 효용성에 앞세워 대형 상징 건축물의 건립에서 실용성이 가미된 건축물의 건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의 건축예술론이후 북한 건축의 경향성은 실용성과 현대적 건축미의 부각,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건축양식으로 변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³⁾ 이는 도시경영에 있어서 김정일이 부분적으로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마. 보건·의료관

김정일의 문헌에 보건·의료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서 양적으로 많지 않다. 이는 보건·의료분야가 전문적이고 실용적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김정일의 언급은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의 강조속에 담당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치사업을 통한 대중의 자발적 노력을 촉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나라처럼 국가가 어린이로부터 애기 어머니,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며 돈 한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⁴⁴⁾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일에 있어서

43) 『연합뉴스』, 2002. 7. 23.

44) 김정일,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보건 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7월 22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113.

보건의료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제도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는 제도를 운영하는 책임담당부서의 문제로 돌려지고 있다. 즉 김정일은 북한체제의 우월한 보건의료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제도의 문제를 회피하고 담당자들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인 병원, 진료소들이 꾸려져있으며 세계에서 으뜸가는 인민적인 보건제도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병원들에서 관리운영사업을 잘하지 않아 그 생활력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있으며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더 잘할수 있는것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가슴아픈 일입니다.보건부문에서는 나타난 결함을 하루빨리 고치고 병원관리운영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겠습니까.⁴⁵⁾

이와 관련 김정일은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북한체제에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관본위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병원을 전개하는데서 본위주의를 부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공장, 기업소와 군대, 사회안전기관, 철도부문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에서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제가꿈 병원을 전개하고있는데 그래서 안됩니다. 관리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타산도 없이 병원을 계속 내오면 치료체계나 복잡해졌지 좋을것이 없습니다. 인민보건사업을 발전시키자면 의약품과 의료기구, 위생재료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생산

45) 김정일, “병원관리운영사업을 개선강화 할데 대하여(보건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5월 1일),” 『김정일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299.

하여 병원들에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보건부에서 파악이 있고 질이 좋은 의약품을 많이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 일부 내다팔고 거기에서 번 돈으로 필요한 약품이나 설비를 들여다 쓸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의료기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⁴⁶⁾

김정일은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도 공급부족과 기관본위주의의 지적과 아울러 군중노선과 정치사상적 해결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즉 보건의료사업도 정치사업을 통해 대중의 자발적 동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보건의료제도에서 기인하는 한계의 극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위생선전사업은 대중을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옳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정치사업입니다....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려면 이 사업에 광범한 사회적력량을 망라시켜야 합니다. 위생선전사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사회적인 사업인것만큼 보건일군들의 힘만으로는 잘할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생선전자가 되어 적극 활동하여야 위생선전사업이 전사회적규모에서 활발히 진행될수 있습니다. 보건부문에서는 위생선전사업에 자체의 위생선전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는것과 함께 사회적인 위생선전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여야 하겠습니까.⁴⁷⁾

46) 김정일,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보건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7월 22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118.

47) 김정일,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전국보건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5년 4월 21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180.

김정일의 보건의료관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공해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해는 무서운 질병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근원입니다. 공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은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인 사업입니다. 보건부문에서는 공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까.....공해를 미리막자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해로운 물질을 망탕 내보내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합니다.⁴⁸⁾

김정일은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공해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공해방지를 위한 산업시설의 문제점과 공해물의 배출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해문제 또한 김정일에 있어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김정일의 사회생활관은 북한사회주의체제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전체에 대한 내면화과정을 통해 관철되어 왔다. 이는 남북한간의 주민생활의 이질화를 심화시켜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공으로 인민대중을 강조하고 북한사회의 자주성을 부각시키는 주체사상의 표면적 논리는 주민통제와 동원화라는 북한체제의 근본적 특성과 김정일의 일상생활관에 의해서 그 의미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48) 김정일, 위의 글, p. 179.

통제된 상황속에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와 같이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시민’은 존재하기 어려우며, 집단적 가치와 당의 사상통제, 그리고 유일 지배체제에 순응하는 ‘신민적 특성’들이 강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유사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가진 사회주의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체제전환과정에서 새로운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북한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통제와 동원화는 주요한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의 지도부가 위기의 탈출구를 근본적 개혁에서 찾지 않고,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정상화’라는 논리에 집착할수록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점에서 김정일의 일상생활관 역시 상당기간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XII. 김정일의 영화·연극·가극

이우영(선임연구위원)

1. 머리말

정상회담 이후 받은 자주 받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김정일이 왜 이렇게 변하였는가 이었다. 이 질문은 TV에 비추어진 김정일의 소탈하고 호탕한 모습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그동안 남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김정일의 이미지는 폭력적이고, 방탕하고, 파괴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6월의 정상회담 이전까지 김정일은 문자 그대로 ‘은둔의 지도자’였다는 것이다. 북쪽 바깥 사람 가운데 김정일은 오랜 시간 만나 본 사람은 거의 없었고, 공개적인 활동을 꺼려하는 통치 스타일로 북쪽 내에서도 김정일을 접촉한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따라서 그 동안 김정일에 대한 이미지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냉전적 대결구도 아래에서 적의 지도자는 문자 그대로 ‘괴수’일 수밖에 없었고, 괴수는 당연히 모든 나쁜 성향을 갖고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은 북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고, 김정일 개인을 깔보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지는 모르나 북한체제 그리고 강력하게 권력이 집중되어 북한체제의 변화에 가장 영향력이 큰 김정일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기여한 것이 그가 영화광이라는 사실이었다. 소위 ‘딴따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남에서는 문학예술인 특히 대중예술인을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영화분야는 영화‘관’이라고 하면서 무언가 비합리적이고, 질이 떨어지는 분야로 생각하여왔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김정일은 무언가 핵심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영화라는 변두리 분야에서 놀고 있는(?) 독재자의 자식쯤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남쪽 정확히 말해서 자본주의 시각에서 북을 바라보는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가의 대상인 영화는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선전 선동 수단이고,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모두 영화평을 쓸 정도로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본다면) 영화광이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학예술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이 문학예술을 담당해왔다는 것은 그의 개인적 취향 때문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김정일이 주도한 북한의 문학예술정책은 단순히 문화체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사회체제 전체와 상관있는 것이 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정일 문예관 가운데 영화와 연극 그리고 가극에 대한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김정일 문예관의 일단을 이해하는 동시에 북한 문예의 특징을 가늠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2. 김정일 문예정책의 특성과 변화

가. 북한 문학예술의 특성

북한의 문학예술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산물로 인식하

고 있다. 따라서 문학예술의 독자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특성은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보다는 당이 문학·예술을 장악하고 있으며, 문학·예술의 주제나 소재 그리고 유통까지도 국가에서 간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고지도자의 관심도 높다. 또한 사회주의리얼리즘론에¹⁾ 입각하여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이념성이 문학·예술 작품 평가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북한의 문학·예술도 사회주의 국가 문학·예술의 일반적인 성격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북한에서 문학·예술을 관장하는 것은 정무원 산하의 문화성과 당의 선전선동부이나 당우선의 체제 특성상 당의 역할이 더욱 크다. 뿐만 아니라 최고지도자도 문학·예술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²⁾

북한에서는 지도자의 실질적인 교체가 없었기 때문에 권력구조 변화에 따른 문학·예술의 성격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초기 파벌투쟁과정에서는 문학·예술의 특성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직후 북한 문예계를 대표했던 일제시대 카프세력의 득세와 몰락은 남로당의 숙청 및 종파투쟁과 관련이 있으며, 1960년대 이후 항일혁명문학의 대두는 김일성 중심의 권력공고화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³⁾

1)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엥겔스는 디테일의 충실함 이외에도 전형적인 상황에서의 전형적인 성격들의 충실한 재현이라고 개념 규정하고 있다 K. Marx and F. Engels, *On literature and Art: A Selection of Writings*. Lee Baxandall & StefanMarawski, trans.& ed. (St.Louis: Telos Press, 1973).

2) “근로대중을 애국주의사상과 민주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문학·예술작품이 노는 역할은 매우 큼니다. 사상성과 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투쟁심을 가지게 합니다” 김일성.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1946년 5월 24일),”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9) 김일성이 문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항일유격대 시절부터라고 한다.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일성 뿐만 아니라 김정일도 자신이 문학·예술분야에서 경력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⁴⁾

북한의 문예관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충실한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가 지향하는 특정한 경향성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본적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문학·예술작품이 당보다는 김일성 중심의 북한의 권력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 이후 항일혁명문학이 강조된 이래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장르에 상관없이 모든 문학·예술작품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치체제 특히 집권자에 문학·예술이 종속된 결과 북한의 문학·예술은 획일성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정일이 '종자론(종자론)'을 제기한 이후에는 사상적 핵을 강조하여 이념적 획일성의 정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문학·예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문학·예술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문학·예술은 여타 사회주의 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배이념을 확산하는 중요한 정치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김일성 및 김정일이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이 각별히 높으므로 북한의 문학·예술의 정치적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의 문학·예술이 전파하고자하는 이념적 내용은 당성과 로동계급성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의 중심은 유일지도체제의 정당성과

3)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문학과 지성, 1992), pp. 246~251.

4) 김정일은 1970년대 이후 김일성이 항일운동시절에 창작하였다고 하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성황당』 등의 작품을 혁명가극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북한의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현재에도 1990년대의 대표적인 다부작영화인 『민족과 운명』의 작업현장에서 현지지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김일성·김정일의 위대성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문학·예술은 현 권력구조를 정당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인민성을 강조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문학·예술은 일반 인민들의 현실 및 정서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문학·예술의 대중성을 중시하는 문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에서는 대항문화(counter culture)의 존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학·예술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수용 정도는 더욱 높으리라고 볼 수 있다.

나. 김정일 문예정책의 변화 과정

김정일이 북한의 문학예술분야를 담당한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의 문예관이나 문예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소 변화를 보여왔다. 문학예술 분야를 담당하기 시작한 김정일은 초기에는 건국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기존 문예이론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카프의 전통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1967년의 제4차 15기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기존의 문예이론을 비판하고 수령형상문학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이후 1980년까지 항일혁명문학을 중심으로 수령형상문학을 강조하였던 김정일은 1980년의 제6차 당대회와 조선작가동맹 제3차 대회를 계기로 현실적인 문체를 중시하는 숨은 영웅 형상문학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1986년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제6차대회를 통해서 김정일은 다시 혁명전통과 수령형상문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문예정책을 선회한다. 1990년대에 들어 김정일은 기존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사조까지 포괄하는 주체문예이론을 확립하고 민족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문예정책의 변화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회

주의 국가의 전통적인 문예이론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수용과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북한의 건국과정에서도 기본 문예이론으로 채택되었고, 김정일의 초기 문예관이나 문예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1967년의 반종파투쟁의 대상이 카프계열의 문학예술인이었고, 이들이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예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대체하기 위해서 김정일이 제기한 문예이론은 수령형상문학과 항일혁명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령형상문학이나 항일혁명문학은 계급성과 혁명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본 원칙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령형상문학은 보편적인 노동계급의 전형성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지도자에게 전형성을 찾고, 항일혁명문학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활동이라는 특수한 정치사회적 조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이 주장하는 수령형상문학이나 항일혁명문학은 김일성에 대한 추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예술의 이념적이고 정치적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의 특수한 경험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 지향성이 강한 문예관이라고 할 수 있다.

혁명성과 민족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1960년대 후반 이후 김정일 문예정책의 기본적인 특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혁명성과 민족성이 구현되는 형태는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67년의 종파투쟁 이후 민족성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구체화되었고, 그 결과가 주체사실주의라고 할 수 있다. 주체사실주의에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문학의 중요한 역할을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고양하는 것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김정일 문예정책에서 민족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점차 심화 발전된 것과는 달리 문학예술에서 혁명성을 강조하는 정도는 시기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령형상문학을 제기한 1960년대부터 항일혁명문학 작품들이 양산되었던 1970년대까지는 혁명성을 강조하는 것이 두드러졌다. 이 시기 북한의 문학예술은 유일지배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선전도구로서 간주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숨은 영웅 형상문학이 대두되면서 혁명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숨은 영웅 형상문학에서 김일성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인민성이 강조되면서 문학예술이 갖는 오락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민성이 당성, 로동계급성과 함께 북한 문학예술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인민성을 강조하는 것이 문학예술의 근본적인 성격변화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전 시기에 비교하여 본다면 문학예술의 정치적 선전도구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수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기능도 중시된 것으로써 문학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198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혁명성을 강조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혁명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혁명성을 중시하는 것은 숨은 영웅 형상문학이 지나치게 인민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문학예술이 고유한 선전 선동 도구로서의 기능이 저하된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 문예정책에서 혁명성과 인민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혁명성과 인민성의 관계에서 혁명성이 우선적인 지위를 점하는 위계구조가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혁명성과 인민성의 관계는 현재까지도 기본적인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김정일의 영화관

사회주의의 문학예술은 자본주의 문학예술과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문학예술이 정치에 예속된 정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문학예술이라고 해서 정치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당(공산당)이 직접 문학예술의 창작, 보급을 관할한다. 따라서 문학예술작품은 당의 정치이념을 전파하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을 얼마나 올바르게 작품 속에 구현하였는가가 평가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다른 어떠한 예술 갈래보다 영화의 정치적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영화는 동일한 내용을 대량 복사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선전의 유용한 매체가 된다. 둘째, 영화는 많은 기자재와 인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작을 통제하기가 용이하다. 다른 문학예술작품에 비해서 영화의 '지하작품'이 적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셋째, 어두운 공간에서 관람자 배후에서 빛을 투사하여 영상을 만드는 영화는 상대적으로 관객의 해석여지를 축소시킨다. 넷째, 사회주의가 처음 성립된 소련에서 문맹률이 높은 국민들의 정치교육수단으로 영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험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파급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사회주의국가에서 영화는 예술분야로 취급되기보다는 이념분야로 간주되고 있으며, 최고지도자들도 영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 영화의 기본적인 역할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조선로동당의 이념, 김일성·김정일체제의 정당화 기능이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주민들의 여가선용의 대상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 보다 북한 영화의 정치사회적 역할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고집권자인 김정일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영화예술분야에서 주요 경력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영화광이라고 할 정도로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⁵⁾ 김정일은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영화제작에 직접관여하고 있으며, 그가 쓴 『영화예술론』(1973)은 북한의 영화제작의 지침서이다. 이와 아울러 북한에는 뚜렷한 오락거리가 없다는 점도 영화가 중시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여가시설이 풍족하지 않고, TV에서도 영화방영 비율이 남한에 비해서 훨씬 높다(방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영화의 편성비율은 4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영화는 집권자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문화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도 이러한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영화만큼 영향력이 큰 예술은 없습니다. 영화는 짧은 시간안에 많은 균중을 대상하여 언제 어디에

5) 신상옥은 “김정일의 개인 필름 라이브러리나 마찬가지로인 ‘북한 영화문헌고’에는 1만 5천여편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영화가 수집되어 있다. 습도와 온도 조절 장치(항온항습장치)에 완벽을 기한 지상 3층에 지하 보관소까지 갖춘 이곳에는 사회주의 국가의 영화는 물론 헐리우드 영화, 일본 영화 등을 국가별로 보관하고 있다. 한국의 영화도 300편 이상이 따로 보관되어 있고, 제작연도, 출연배우, 감독, 제작진의 이름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목록이 따로 비치되어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미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나의 작품<빨간 마후라>의 일부, <다정불심> <내시> <열녀문> 등 10여편의 원판까지 이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심지어는 과거 우리 영화인들이 한국영화진흥공사를 통해 동남아로 수출했다는 필름들이 고스란히 헐값으로 이 문헌고에 들어와 있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영화의 보관에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한국 정부의 영화 정책 부재와 영화계의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웠다. 북한의 영화 문헌고는 확실히 부러운 시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신상옥·최은희 증언』 참조.

서나 돌릴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예술이며 기동적인 예술입니다. 영화는 생활을 생동한 화면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보여주기때문에 누구나 내용을 쉽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영화는 문학, 음악, 미술을 비롯하여 다른 예술의 특성을 자체내에 포함하고있는 종합예술이기때문에 영화를 앞세워 발전시키는것은 문학예술전반을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합니다.⁶⁾

위의 글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김정일은 북한영화의 일차적 역할을 선전선동에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김정일의 영화관은 다른 사회주의 영화관과 차별적이다.

첫째, 영화에 대한 그의 전문적인 식견이다. 출판이후 현재까지 여전히 북한영화의 기본지침서이자 이론서인 영화예술론의 목차를 보면 세부 기술적인 차원까지 김정일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영화예술론 내용

영화와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출가는 창작단의 사령관이다 - 창작에서는 크게 노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 - 연출에서는 감정조직을 잘하여야 한다 - 배우연기는 연출가에게 달려있다 - 촬영과 미술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 음악과 음향을 살려써야 한다 - 연출의 비결은 편집에 있다 - 부연출가는 창작가이다
--------	--

6) 김정일, “혁명적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앞에서 한 연설 1966년 2월 26일),”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생활과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은 인간학이다. - 종자는 작품의 핵이다 - 주제는 정치적의의가 있게 풀어야 한다 -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 투쟁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속에 투쟁이 있다 - 규모가 대작이나 내용이 대작이나 - 구성의 대를 바로 세워야 한다 - 갈등은 계급투쟁의 법칙에 맞게 풀어야 한다 - 매 장면에는 극이 있어야 한다 - 작게 시작하여 크게 끝내야 한다 - 뜻이 깊고 알기 쉬운 대사가 명대사 이다 - 양상을 잘 살려야 한다 - 독창성은 창작의 본성이다.
성격과 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는 영화의 얼굴이다 - 연기에서는 새것을 들고나와야 한다 - 생활을 알고 연기를 하여야 한다 - 말과 행동에는 가식이 없어야 한다 - 연기의 성과는 필연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 - 세계관이나 잠재의식이나
영상과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은 실감이 나게 되어야 한다. - 광폭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 - 화면형상은 높은 촬영기술을 요구한다
화면과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 분장은 고상한 예술이다 - 의상과 소도구는 시대와 성격에 맞아야 한다 - 장치물은 시대감이 나야 한다
장면과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이 없는 영화는 영화가 아니다 -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 것이 명곡이다 - 선율은 특색이 있어야 한다 - 가사가 좋아야 곡이 잘된다 - 음악은 장면에 맞아야 한다 - 편곡은 창작이다
예술과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과정은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으로 되어야 한다 - 사람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 당의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 속도전은 혁명적문학예술창작의 기본원칙이다

영화예술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기에 대한 세부적 지도뿐만 아니라 부연출자(조감독)의 역할 그리고 영화음악의 발성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이다.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물을 리해하지 못하는 연기자는 자기의 개성만 아니라 인물의 개성도 뚜렷이 살려낼수 없으며 자기의 연기를 조절할줄 모르는 배우는 인물의 개성만 아니라 자기의 개성도 나타낼 수 없다... 개성이란 한두가지의 개별적인 특징을 말하는것이 아니므로 연기자는 어느 한두 대목에서 독특한 숨씨나 잔재간을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된다. 한두 대목에서만 독특한 연기를 들고나오는데 그 친다면 그것은 참다운 개성적인 연기가 못된다. (영화예술론 p. 224)

영화창작에서는 연출가와 함께 부연출가의 위치와 임무를 정확히 밝히고 그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부연출가문제는 단순히 행정직제상 문제가 아니라 영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옳바른 해결이 없이는 창작단을 제대로 움직여낼수 없다. (영화 예술론 p. 208)

영화음악에서도 너기수들이 노래를 많이 부르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발성법에서도 우리 인민들의 감정에 맞는 아름답고 우아한 소리를 내는 발성법을 택하여야 합니다. 그전에 창을 하는 배우들을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썩소리를 내지도 않을뿐아니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⁷⁾

둘째, 기본적으로 영화의 정치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김정일은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영화의 예술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7) 김정일, “음악창작방향에 대하여(창작가들과 한 담화 1968년 10월 25일),”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405.

것이다.

물론 영화음악에서 정서적인것은 다 집어던지고 전투적인것만 내 세워도 안된다. 음악에서 서정적인것은 어디까지나 높은 혁명적열정과 고상한 정서를 지닌 우리 인민의 내면세계에서 우러나오는것이여야 하며 전투적인것 역시 메마르고 공허한 웨침이 아니라 고상한 사상감정과 아름다운 정서로 안받침된것이여야 한다. (『영화예술론』, p. 310).

사상성과 더불어 예술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화의 기본은 사상성이고 그 원천은 항일무장투쟁으로 보고 있다.

항일투사들은 혁명임무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말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있었기때문에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혁명적작품을 수많이 창작공연할수 있었습니다.⁸⁾

셋째, 김정일의 영화관에서 특징적인 점은 현실에 부합하는 작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작품에 약동하는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있을 뿐아니라 작품창작에서 자연주의, 복고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이색적인 경향도 극복하지 못하고있습니다..작품창작에서 자연주의, 복고주의, 수정주의적 경향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면 문학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없습니다.⁹⁾

8) 김정일,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사상예술적 특성에 대하여(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에 참가하는 예술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0년 2월 14일),” 『김정일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40.

현실을 부합하는 작품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 문학예술에서 창작원칙의 하나인 인민성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지만 김정일의 경우는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인간의 본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직선적으로 딱딱하게 표현하지 말고 시대와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살며 투쟁하는 새로운 인간들의 생활을 파고들어 자연스럽게 형상하여야 합니다.¹⁰⁾

넷째,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것도 김정일 영화관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인민은 민족문화를 찬란하게 발전시켜왔으며 이 과정에 다양하고 아름다운 민족예술형식을 창조하여왔다. 우리 인민이 창조한 아름다운 민족예술가운데서 조선화를 비롯한 우수한 민족미술형식들도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조선화는 우리 인민의 정서에 맞는 훌륭한 미술형식이다... 조선화가 가지고있는 이와 같은 예술적특징은 회화에서만 아니라 영화미술을 포함한 미술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영화예술론, p. 255)

특히 민족문화에 대한 강조는 8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
- 9) 김정일,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문학예술 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5월 17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68.
- 10) 김정일,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92년 5월 23일),” 『김정일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87.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에 「주체문학론」에서 주체사실주의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보다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다.¹¹⁾

우리의 문학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도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문학은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실감있게 형상하여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조선사람으로 태어난 긍지와 자부심, 자기 민족의 훌륭한 창조물과 자기 민족의 힘과 지혜에 대한 긍지와 믿음, 민족의 장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문학론」, p. 17.

다섯째, 대작 선호의 경향이다.

우리 당이 문학예술에서 대작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내놓은지는 오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에는 훌륭한 대작으로 되는 본보기작품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이 대작을 창작해내지 못하고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창작가들의 능력이 부족한데 있다기보다 대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한데 있다고 봅니다. “대작창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예술영화 「형제들」의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68년 4월 6일 p. 340

그가 주도하였다고 하는 「조선의 별」의 경우 10부가 넘게 제작되었고, 「이름 없는 영웅들」은 20부, 그리고 「민족과 운명」은 50부가 넘게 제작되었고 현재도 제작되고 있다(<표 2> 참조).

11)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1997) 참조.

<표 2> 다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의 내용

제 목	부	비 고
최현덕편	1~4부	최덕신(월북자)
윤상민편	5부, 14~16부	윤이상
차홍기편	6~8부	최홍희(월북자)
홍영자편	9~10부	남한이 파견한 공작원
리정모편	11~13부	이인모(비전향장기수)
허정순편	17~18부	일제시 공산주의 운동
일본인 여성편	19~24부	위안부와 딸
로동계급편	25~33부, 43,44부	첫물철학
카프작가편	34~42부	이찬, 이기영, 한설야
최현편	45부~53부	빨치산

4. 김정일의 연극관

북한에서의 모든 공연 활동은 당국의 관리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연 단체의 조직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인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와 같은 상업적 공연 활동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북한 사회 전체의 운영 체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북한의 모든 공연이 개인이나 개별 극단의 의지와 무관하게 당국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북한 극단의 공연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의 하나로 ‘당국의 관리 기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경우 당국에 의한 관리 체제가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미친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것 같다. 당국의 관리와 함께 연극에 대한 당국의 지원 체계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 또한 북한이기 때문이다. 중앙(평양)의 대표적 공연 단체들이 하나같

이 설비를 잘 갖춘 전용극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에는 이른바 ‘항일혁명예술’의 전통을 이어 새롭게 혁신한 ‘혁명가극’, ‘혁명연극’이라는 독자적 장르가 존재한다. 이른바 ‘<피바다>식 가극’이니 ‘<성황당>식 연극’이니 하는 것들은 단지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북한의 가극·연극을 대표하는 표준 모델(이른바 ‘본보기 작품’)이 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모든 연극은 ‘<성황당>식 연극’을 기준 삼아 제작되고 있다. 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통일된 질감이 북한 연극의 한 특질로 나타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이 작품들은 밖으로는 북한연극을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안으로는 연극 창조 작업의 지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 연극의 전형을 주도한 것은 김정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주도로 1960년대 말부터 1992년까지 북한식 문예혁명을 진행하게 된다.¹²⁾ 이 과정에서 영화와 가극 분야에 이어 추진된 ‘연극혁명’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1978년 국립연극단의 「성황당」 제작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에 의해 구체화된다.¹³⁾ 이미 영화와 가극 분야에서 이룩된 실천적 성과들을 연극분야에 적용·원용¹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연극혁명에서는 본보기 작품으로서의 <

12) 김정일의 문예혁명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이우영의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참조.

13) 김정일의 연극에 대한 직접 지도는 1969년 5월 국립연극단의 <승리의 기치따라> 창작 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엄길선 외 좌담,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는 이 땅에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조선예술』(2001.1), p.22.

14) “우리는 영화혁명과 가극혁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연극 예술부문에서도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1970년대 초에 연극혁명을 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연극혁명을 본격적으로 벌였습니다.” 김정일, “연극예술에 대하여(문화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김정일선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158.

성황당>의 제작과 그 후속 작업으로서의 '5대혁명연극'의 창조, 그리고 그 이론적 집대성으로서의 <연극예술에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의 담화>(1988년 4월 20일)의 저술로 구체화된다. 이후 1990년대의 북한연극은 모두 이른바 '<성황당>식' 연극을 표준 모델로 삼아 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황당>은 원래 1928년 김일성에 의해 창작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항일혁명연극'의 하나인데, 북한연극의 시원을 열어주었다는 작품을 '현대화'함으로써 연극사적 정통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면 <성황당> 작품의 '종자'는 이미 1928년 김일성에 의해 마련되어 있던 것이고,¹⁵⁾ 이를 1978년 '연극혁명'을 거쳐 '새형의 연극'으로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항일혁명연극'을 재현하면 연극의 낡은 틀은 자연히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김정일의 지적에 의거하여 '연극혁명'의 첫걸음을 항일혁명연극의 재현에서 시작한 것이다.

'<성황당>식 연극'을 중심으로 연극혁명에 대한 지도 경험을 재정리한 것이 김정일의 『연극예술에 대하여—문화예술부문 일군들과 담화』(1988)이다. 이 글은 '5대혁명연극'이 완성된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5대혁명연극'을 일괄하여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연극론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연극혁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기간에 연극예술인들은 당의 연극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15)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창작하였다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성황당><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혈분만국회><3인1당> 등의 '항일혁명연극'이 '주체사실주의'에 입각한 진실성의 구현에 있어서 '고전적 본보기'로 평가되고 있다(최순영, 『불후의 고전적명작 항일혁명연극은 진실성구현의 고전적본보기』, 『조선예술』 (2000.10), pp. 28~29). 즉, 작품의 내용에 있어서는 항일혁명연극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인 혁명연극 「성황당」,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1당」, 「경축대회」를 「성황당」 식연극으로 훌륭히 형상하여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5대혁명연극은 당의 연극혁명방침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며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연극예술인들의 헌신적노력이 가져온 자랑찬 열매입니다.¹⁶⁾

연극혁명의 과정은 항일혁명연극의 본보기를 현대화하여 재창조하는 과정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작품의 형식적 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항일혁명연극’이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북한연극의 본보기가 되는 것은 틀림없으나, 1930년대 항일혁명 당시의 무대조건이나 인민대중의 정서와 1970년대 ‘연극혁명’ 당시의 조건이 많이 다른 관계로 무대 형상화와 관련된 형식면에서 많은 변화가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극혁명과 혁명연극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김정일의 연극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부문과 마찬가지로 김정일은 연출뿐만 아니라 연기에 대해서 조언할 정도로 연극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침을 갖고 있다.

연극배우들이 연기하는것을 보면 아직 과장이 심하고 틀이 있습니다. 연극배우들의 화술만 놓고보아도 억지로 목소리를 만들어 큰소리로 웨치기만 하거나 가식적인 억양과 기형적인 말투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려는 신파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 연극배우들이 연기하는것을 보면 아직 과장이 심하고 틀이 있습니다.¹⁷⁾

16) 김정일, “연극예술에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4월 20일),”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153.

17) 김정일, “혁명연극 「성황당」을 재현하는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문화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과 한 담화 1977년 11월 4일),” 『김정일선집

지금 연극배우들의 연기에는 도식과 신파기가 많습니다...영화에 출연한 연극배우들의 세부연기를 따져보면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한 신파기가 있습니다. 토막연기에서 신파기가 나타나니 지속연기를 하면 신파기가 더 심하게 나올것입니다.¹⁸⁾

둘째, 연극혁명을 거치면서 성황당으로 대표되는 혁명연극을 중시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내용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밝혀내며 사람들에게 대한 혁명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게 하려면 인간과 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전형화를 깊이있게 실현하여야 합니다... 작품에서 전형적인 인간성격을 그리려는것은 생활반영의 진실성과 높은 사상에술성을 보장하며 그 인식교양적의의를 담보하는 기본요인으로 됩니다.¹⁹⁾

그러나 성황당식 연극으로 대변되는 혁명연극이 강조된 이후에는 ‘항일혁명문학’이 연극의 바탕이 된다. 그리고 수령형상화가 중요한 주제가 된다.

우리가 연극혁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기간에 연극예술인들은 당의 연극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470.

18) 김정일,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할데 대하여(국립연극단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한 결론 1972년 11월 7일),” 『김정일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480.

19) 김정일, “인간 성격과 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전형화를 깊이있게 실현할데 대하여(작가들과 한 담화 1967년 2월 10일),”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87.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인 혁명연극 「성황당」,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1당」, 「경축대회」를 「성황당」 식연극으로 훌륭히 형상하여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5대혁명연극은 당의 연극혁명방침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며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연극예술인들의 헌신적노력이 가져온 자랑찬 열매입니다.²⁰⁾

《성황당》식연극의 탄생은 항일혁명문학예술전통의 빛나는 계승이었으며 문학예술혁명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영광스러운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문학예술은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받은 참말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개화발전되어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²¹⁾

셋째, 연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화와 비교한다면 연극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당에서는 지금 연극에 대하여 별로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속에서 신파잔재가 나오는것을 보면 대체로 연극배우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지금의 연극은 18~19세기의 예술로서 이제는 낡았습니다.²²⁾

20) 김정일, “연극예술에 대하여(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4월 20일),”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153.

21) 김정일, “주체문학론,” 『김정일선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370.

22) 김정일, “영화예술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평양연극영화대학 교직원들앞에서 한 연설 1971년 7월 8일),” 『김정일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272.

5. 김정일의 가극관

북한에서는 가극을 “노래와 음악을 기본수단으로 하는 예술이며, 바로 그것을 통하여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무대예술의 한 형태”²³⁾로 정의하고 있다. 즉,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극을 표현하는 예술분야가 연극이라면, 가극은 노래를 중심으로 극을 표현하는 예술의 형태로, 등장인물들이 무대에서 보통말로 하는 대사가 아니라 노래로써 극을 엮어 가는 예술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가극의 개념은 우리의 그것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다 확대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가극의 개념이 모든 형태의 노래극을 총괄하는 개념이라면, 혁명가극은 북한만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특수한 가극의 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영화와 더불어 북한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공연 예술분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혁명가극은 서양 오페라와는 약간 다르다. 우선 가극은 아리아와 함께 ‘절가’라는 형식의 노래를 특징적으로 사용하는데, 절가란 여러개의 절로 나누어진 정형시를 하나의 곡에 맞춰 반복하여 부른 노래로서, 반복에 따른 강조의 효과가 크다. 이 절가는 북한 혁명가극의 기본적인 표현수단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혁명가극은 서양 오페라의 대화창과 대화, 레시타티브 등을 모두 절가로 바꾸었다. 또한 혁명가극에는 방창이라 하여 배경합창단이 주인공의 입장, 상대장의 입장, 군중 및 관객의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해석하면서 극의 전개를 이끌어 가는 합창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창과 절가가 혁명가극의 표현상의 큰 특징이다. 또한 혁명가극에는 무용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있는데, 오페라에서는 극의 효과를 위해서 혹은 줄거리 전개상 어느 정도 무용이 사용될 뿐이지만, 혁명가극에서는 무용도 합창과 마찬가지로의

23) 『조선대백과사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비중으로 사용되어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어 있다.

북한의 혁명가극은 항일혁명기의 연극 「혈해」를 김정일의 지시로 개작한 혁명가극 「피바다」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북한은 이 「피바다」의 제작을 기준으로 하여 웅장한 규모의 혁명가극을 속속 공연하였는데, 이로부터 ‘피바다식 혁명가극’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혁명가극의 대표작으로는 「피바다」, 「꽃피는 처녀」,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이 북한의 ‘5대 혁명가극’이다.

김정일에게 성황당이 연극의 전형인 것과 마찬가지로 혁명가극의 전형은 피바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혁명연극의 다른 이름이 성황당식 연극인 것과 같이 혁명가극의 다른 이름은 피바다식 가극이라고 할 수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혁명가극으로 무대에 옮긴것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확고히 옹호고수하고 우리 나라 문학 예술발전에서뿐만아니라 세계 혁명적문학예술발전에서 커다란 사변으로 됩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혁명가극으로 옮김으로써 가극혁명의 포성을 온 세상에 울렸으며 가극예술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극예술이 혁명가극 《피바다》를 고전적 본보기로 하여 새로운 양양의 길에 오를수 있게 되었으며 음악, 무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무대예술발전에서 커다란 전환이 이룩될수 있게 되었습니다.²⁴⁾

항일혁명문학이 빨치산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수령형상화와 밀접하

24) 김정일, “혁명가극 《피바다》는 우리 식의 새로운 가극(혁명가극 《피바다》 창조성원들앞에서 한 연설 1971년 7월 17일),” 「김정일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p. 291~292.

게 관련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징은 장르에 상관없이 항일혁명 문학이 대두된 1960년대 후반부터 모든 문예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혁명가극은 다른 장르의 작품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가극이라는 장르는 기존의 것이라고 하지만 혁명가극을 주장하면서 기존 가극들과의 형식적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혁명가극은 대화를 절가화한 것이고, 방창을 활용하여 장면 및 주인공의 심정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가극의 노래들을 절가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가극의 노래들을 절가화하는 것은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혁명가극창조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며 가극음악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혁명가극 《피바다》의 노래를 절가화함으로써 가극음악을 인민대중이 알기 쉽고 즐겨부를수 있는 진정으로 인민적인 음악으로 되게 하였습니다.²⁵⁾

종래의 가극형식을 가지고서는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사상정신세계와 심리적움직임을 원만히 전달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혁명가극 《피바다》를 창조하면서 방창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이 문제를 풀기로 하였습니다. 가극에 방창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것은 가극력사에서 새로운 발견으로 됩니다.²⁶⁾

형식적 차이는 영화나 연극 등 다른 혁명예술 장르에서는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연기 등의 디테일의 차이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혁명예술의 핵심은 아무래도 구성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혁명가극의 형식적 차이는 보다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25) 김정일, 위의 글, p. 294.

26) 김정일, 위의 글, p. 295.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절가 및 방창의 사용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단순화시키고 설명을 덧붙임으로서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절가의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방창의 해설을 통하여 관객들의 독자적인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식적 독창성이라는 점에서 혁명가극은 주체적 문예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선동성과 확일성이라는 차원에서 유일지배체제와 가장 어울리는 장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바다식 혁명가극을 바탕으로 김정일의 가극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이 생각하는 혁명가극의 기본적인 목표는 수령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보여주는 장면을 더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하는데 힘을 넣어야 하겠 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있고 격조높게 형상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첫째기는 원칙적 요구입니다.²⁷⁾

둘째,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김정일의 혁명가극에 대한 논평과 지도는 대단히 전문적이다. 다음의 글을 「밝은 태양아래에서」와 관련된 글인데 중요 혁명연극에 대한 세부적인 평이 동반되어 있어 연극에 대한 김정일의 전문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만경대장면에서는 지배인이 딸을 찾는것을 포기하는것으로 하면서

27) 김정일, “혁명가극창조에서 사상에술성을 높이기 위하여(문화예술부문 책임일군 및 혁명가극 「밝은 태양아래에서」 창조성원들과 한 담화 1975년 10월 22일),” 「김정일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210.

도 어떤 장면에서는 은순이가 혹시 자기 딸이 아닌가 하는 감정을 가지도록 약간씩 력점을 찍어주어야 합니다. 은순이가 책상에 앉아 기계부속품을 쥐고 모대기는 실패장면은 아버지와 딸의 상봉이 이루어 질수 있는 씨를 심어주기 좋은 장면입니다. 은순이가 련속타입기창안의 실패로 하여 모대기는 이 장면에서 박영진지배인이 은순이가 혹시 자기 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하여야 하며 아버지가 딸을 그리워 하는 감정세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²⁸⁾

가극에서 관현악도 품위있게 잘해야 하겠습니다. 노래는 관현악반주를 어떻게 하는가에 많이 따라잡니다. 관현악이 좋아야 노래가 살고 가극이 빛을 내게 됩니다... 관현악기로 고음만 내면서 저음으로 고음을 싸주지 않기때문에 관현악이 대조가 없고 무게가 없으며 어떤 대목에서는 경음악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 관현악이 잘 안겨오지 않습니다. 오보에나 콜라리네트와 같은 개별적인 악기들을 가지고 무엇을 말해주자고 하니 관현악에서 선율이 동강납니다.²⁹⁾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영화나 연극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기에 대한 세세한 지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악기의 역할까지 지도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김정일은 과거의 가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데 서양의 전통적인 가극뿐만 아니라 민족 가극에 대해서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혁명가극의 독창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며 민족적 요소들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는다. 북한문화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원칙이 가극에 대해서도 관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8) 김정일, 위의 글, p. 213.

29) 김정일, 위의 글, p. 223.

《춘향전》을 가극무대에 옮긴다면 지난날 판소리로 하였다고 하여 오늘도 판소리로 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판소리는 옛날 량반들이 술이나 마시면서 흥얼거리던 썩소리입니다. 판소리는 남녀성부가 갈라져있지 않고 썩소리를 내기때문에 우리 시대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비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민족고전가극들은 아름답고도 유순하고 민족적정서가 풍기는 맑은 목소리로 형상하여야 합니다.

민족고전작품을 현시대의 요구와 미감에 맞게 재현한다고 하여 그 작품이 창작된 사회력사적환경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현대화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방직후에 창작가들은 연극 《심청전》을 만들면서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 공양미300섬에 팔려 림당수의 깊은 바다에 빠졌으나 죽지 않고 룡궁에 들어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고 다시 세상에 나오는 장면을 비과학적인 허황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빼버렸으며 심청과 아버지가 상봉하는 장면에서 심봉사가 눈을 뜨는 것도 미신적이라고 하여 다르게 처리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이 연극을 보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민족고전작품을 원작과 다르게 만들어놓는 현상을 없앨데 대하여 가르치시었습니다.³⁰⁾

그러나 민족가극에 대한 태도는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 글을 보면 1970년대만 하더라도 민족가극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서는 민족가극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족가극단에서 만든 가극 《해빛을 안고》를 본 일이 있는데 그 가극의 내용은 혁명적이었지만 형식은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30) 김정일,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 처리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3월 4일),” 『김정일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58.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가극의 낡은 형식을 마스고 작품의 혁명적인 내용과 우리 시대 인민들의 미감에 맞게 가극을 새롭게 혁신시켜야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³¹⁾

민족고전작품을 《피바다》 식가극으로 만드는데서 력사주의적원칙과 함께 현대성의 원칙을 옹계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 민족가극 《춘향전》을 처음 창조할 때 월매의 성격을 오늘의 시점에서 옹계 규정하지 못하고 옛날에 하던 식으로 궤변한 인물로 형상하면서 그가 부르는 노래도 고티가 나는 판소리식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천대받고 버림받는 한 어머니로서의 월매의 소박한 성격을 옹계 그리지 못하였으며 춘향과 몽룡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유순한 가극음악의 양상적통일을 파괴하였다... 민족가극 《춘향전》은 월매와 향단, 방자의 성격 형상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부족점들을 오늘의 시점에서 바로 잡은 결과 《피바다》 식가극창작원칙에 기초한 새형의 민족가극으로 훌륭히 창조될수 있었다.³²⁾

물론 피바다에서 이룩한 혁명가극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족가극의 재창조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1990년대 이후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분위기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31) 김정일, “혁명가극 《피바다》 공연의 높은 수준을 견지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무대 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9년 2월 22일),” 『김정일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256.

32) 김정일, “음악예술론,”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502.

6. 맺음말

김정일의 영화관, 연극관, 가극관은 기본적으로 북한 문화정책의 변화와 김정일 문예관의 변화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장르별 차이는 다소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항일혁명문학이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영화가 가장 핵심적인 장르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를 강조하는 문건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영화가 다른 장르에 비해 중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하고 있다. 또한 장르에 상관없이 영화예술론이 중요한 문건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다른 장르에 대한 지침에서도 영화를 비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둘째, 가극의 경우 형식적 독자성이라는 차원에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형식적 독자성은 주체의 이론과 어울린다는 점에서 가극이 중시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장르적으로 영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항일혁명문학의 뿌리라는 역사성에서도 가극은 중요하다고 김정일은 보고 있다.

셋째, 연극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연극이라는 장르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분야이고 사회주의 건설이전의 흐름과의 단절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와 연극 그리고 가극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음악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은 공연예술 전반에서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혁명적 문학예술이 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음악이 특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의 영화, 연극, 가극에 대한 문건들을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김정일이 문예의 각

중 분야에 일정한 식견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고 지도자가 일정한 지식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경우 북한 문예의 정치적 위상이 제고되고,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치게 세밀한 관심은 문학예술의 자율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유일지배체 제라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김정일의 관심과 식견은 다양한 문화예술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XIII. 음악·무용·미술·건축

전영선(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1. 서론

북한의 음악·무용·미술·건축은 여타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형성된 주체의 문예이론 방침에 따른 주체의 음악, 주체의 무용, 주체의 미술, 주체의 건축을 이상으로 한다. 주체 문예이론은 항일무장혁명투쟁 시절 김일성 주석(이하 직책생략)이 제시한 창작이론과 원칙을 기본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하 직책생략)에 의해 혁명적 발전을 이루어 주체사실주의로 확립되었다. 주체 문화예술의 핵심은 인민대중의 투쟁방침을 제시하고 실천한 수령을 중심에 세우는 수령 중심의 예술관으로 수령 이외의 혁명전통은 부정된다.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떠나 우리 당의 혁명투쟁력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떠나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을 깊이있게 형상하는 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가장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과업입니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의 폭을 넓힌다고 하여 과거 독립운동이나 민족주의운동 같은것을 혁명전통의 내용에 끌어들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전통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¹⁾

1) 김정일,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 창작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문학예술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4년 12월 10일),” 『김정일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54.

김정일이 주체문예 이론과 형식을 완성하였으면서도 김일성을 앞에 세우는 것은 혁명적 전통의 계승이라는 정치적 측면 때문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혁명적 후계자로서 혁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문학예술에서도 김일성의 항일혁명 무장투쟁에서 제시된 문예이론과 작품을 주체예술의 기원으로 하면서 혁명문예의 계승적 발전을 강조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김정일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종합 대학을 졸업한 이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 정무원 제1부수상 김 일의 참사실에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1990년대 권력 승계자로 공식화되기 직전까지 대부분을 생활을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근무하였다. 이 기간동안 김정일은 주체문예 이론에 근거한 주체문예이론을 정립하고 문예창작에 적용시켜나갔다.

김정일의 예술관은 「영화예술론」, 「연극예술에 대하여」, 「무용예술론」, 「음악예술론」, 「미술론」, 「건축예술론」, 「주체문학론」 등의 이론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각각의 이론서들은 예술과 생활, 장르별 주체문예 이론, 창작원칙, 예술가들의 역할, 당의 지도방침 등 해당분야의 이론과 적용에 이르는 전 분야에 걸쳐 망라되어 있다. 이들 문예이론서 가운데 핵심은 총론격인 「주체문학론」이다. 「주체문학론」은 시기상으로는 영화, 연극 등 각 장르별 이론서들이 발표된 이후에 가장 발표되었다. 출판시기가 가장 늦었던 것은 문화예술 각 장르별 현지도와 이론서를 통해 문화예술 이론과 적용의 문제가 검증된 이후 최종적으로 주체문예이론을 마무리하였기 때문이다. 이론서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된 1990년 이후는 김정일이 국가지도자로서 위상을 갖추고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예술 분야의 실무지도는 어려워 졌다. 즉 더 이상 예술분야의 지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체의 문예 이론을 정리하고 마무리하였던 것이다.

주체문예론은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인 형식으로 담아내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 대한 이론이다. 주체예술은 민족을 단위로 발전해온 민족적 예술 전통을 바탕으로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요구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시작한 혁명 전통을 계승하면서 현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예술을 창작해야 한다. 따라서 음악·무용·미술·건축에 반영된 김정일의 예술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이론서를 중심으로 ‘혁명’과 ‘민족’의 두 측면을 살펴야 할 것이다.

2. 음악

가. 주체음악의 내용과 형식

북한에서의 모든 음악활동은 김정일과 당에서 제시한 범위 즉,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와 음악의 혁명화, 주체사상화의 요구라는 범위 안에서 인민들에게 공산주의에로의 투쟁을 고무시키는 계급 교양 및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온 사회를 혁명화·노동계급화를 위하여 창작되고 활용된다.

주체음악 창작의 기본 방침은 김일성이 처음 언급하고 김정일에 의해 확대되고 구체화되었다. 김일성은 1946년 8월 8일 “음악예술인들은 새 민주조선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를 통해서 “음악은 민족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혁명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음악은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맞고 새 조국 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들의 환희와 기쁨, 긍지와 자부심, 혁명적 열정을 반영한 참말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음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음악의 방향을 규정하였다.

김일성이 제시한 기본 방침을 수용한 김정일은 창작원칙과 세부 지침을 구체화하면서 주체음악 이론을 정립하였다. 음악분야의 지도 역시 교시 대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 음악 예술발전을 위한 강령적 지침’,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치심을 주신 노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진행하신 주요 음악예술 창작사업 지도일지’ 등으로 김정일의 지원과 배려, 보살핌을 강조하는 용어로 바뀌었다.

김정일의 지도는 「음악예술론」으로 집약되었다. 「음악예술론」 “인류 역사발전의 장구한 시대를 거쳐 논의되어 온 음악의 참된 사명과 역할, 그 성격에 관한 근본문제를…완전히 해결할 수 있”²⁾는 주체사상을 철학적 배경으로 하는 “주체시대에 상응한 음악, 주체시대의 요구와 사명에 이바지하는 음악”으로 주체음악만이 “우리 시대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체현하고 주체시대의 위업에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³⁾는 것이다.

주체의 음악만이 음악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현재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추진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창조적인 생활을 철저히 실현해 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역사적인 새 시대, 주체시대이다. 이러한 주체시대에 음악은 예술의 사회적 본성에 맞게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함으로써 주체시대의 요구와 사명에 이바지해야 하는 데, 이 음악이 바로 주체음악이라는 것이다.⁴⁾

2) 김정일, 「음악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

3) 김정일, 위의 글, pp. 1~2.

4) 김정일, 위의 글, p. 15, “오직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음악만이 인민의 지향에 역행하는 온갖 반동적인

주체음악은 ‘내용이 혁명적’이며, ‘형식이 인민적’이다. 내용이 혁명적이라는 것은 역사발전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내용을 다양한 감정과 정서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에서 내용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예술지상주의, 형식주의의 표현으로서…음악의 건전하고 혁명적인 사상과 내용을 거세하기 위한 반동적 주장”⁵⁾이다.

음악에서 내용을 이루는 것은 가사이다. 내용을 이루는 가사는 음악 예술의 ‘사상예술적’ 기초로서 인간의 사상 감정과 생활,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을 시적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가사가 시와 구별되는 것은 음악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음악적 형상으로 재창조될 때만이 가치를 완전히 나타낸다는 것이다. 가사의 생명은 ‘의의있는 사상적 내용’을 세련된 시 형상으로 밝혀내는데 있다.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예술적 형식으로 구현되어야 좋은 가사가 된다는 것이다.

가사는 무엇보다 자주적인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사람들의 삶과 투쟁을 고무하고 그들의 사상정서생활을 풍부히 하는 좋은 내용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이 높은 예술성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내용이 아무리 뜻이 깊고 훌륭한것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예술적형식으로 구현되지 못하면 예술로서의 가치가 없다. 또한 내용이 없이 형식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⁶⁾

가사를 예술적 형식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가사를 시화하는 것이다.

것을 쓸어버릴뿐아니라 인민의 이해와 감정에 맞지 않는 모든 비인민적인 것을 철저히 극복하여나감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투쟁의 새 시대인 주체시대의 참다운 음악으로 될 수 있다.”

5) 김정일, 위의 글, p. 5.

6)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학예술업적 4: 주체문학의 새경지」, (평양: 문예출판사, 1999), p. 208.

생활의 본질과 인간의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깊이 있게 반영하면서 사상이 깊고 정서가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인상을 남겨줄 수 있도록 가사를 고도로 ‘시화’하는 것이 바로 가사의 ‘형상성, 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담보이다.

형식이 인민적이라는 것은 “인민대중의 감정정세에 맞고 그들이 알아듣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이다. 지난 날의 음악은 지배계급에 복무하는 음악이 주류를 이루었다. 어느 정도 진보적인 역할을 한 음악도 상류사회의 테두리에 머물렀으며, 인민음악의 요소를 받아들여 특권계급과 전문가의 취미에 맞게 이용한 데 불과하며,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인민대중을 타락시키고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 ‘대중음악’을 퍼뜨림으로써 대중을 억압착취하고 노예화하는 도구로 활용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지난날 인민 자신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인민에게 복무하지 못한 음악, 인민대중이 알아듣고 즐길 수 없는 음악은 철저히 극복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대중의 이해를 고려하여야만 혁명과 건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주체음악이 바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한 참다운 음악이라는 것이다.

음악의 형식은 선율이므로 형식의 문제는 선율과 관계된다. 아무리 훌륭한 가사가 있어도 선율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좋은 음악이 되지 못한다. 가사가 음악으로 형상화될 때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선율이다. 『음악예술론』의 제2장 ‘작곡’은 선율과 편곡, 다양한 종류와 형식에 대한 이론으로 이는 모두 선율과 관련된 것이다. “음악은 선율의 예술”로 음악이 사람에게 친근감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음악에 사람이 즐겨 듣고 부를 수 있는 선율이 있기 때문”⁷⁾이며 “선율은 사상감정의 충동에 따라 흘러나오는 정서의 표현이며 따라서 선율을 떠나서는 그 어떤 사상감정의 표현도, 음악적형상의 창조도 생각할 수 없”⁸⁾기

7) 김정일, 위의 글, p. 50.

때문이다.

선율의 핵심은 인민이 가장 쉽게 들을 수 있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선율에서 김정일은 아름답고 유순하며 특색 있는 작품 창작을 강조한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미적 감동이 아니라 사회주의에 입각한 아름다움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아름다움, 인민과 조직에 대한 희생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좋은 선율은 굴곡이 별로 없으며 순차적인 진행에 따르는 것인데, 유순한 선율이 우리 민족의 민족적 특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인민의 성격과 성품은 고유한 민족적 특성으로 풍격화되어 사치하거나 변덕스러우며 까다롭거나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우아하고 유순하며 선명하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것을 좋아하는 정적감정, 예술적기호로 특징지어졌다⁹⁾

김정일이 『음악예술론』에서 강조하는 편곡 역시 이미 잘 알려진 노래를 쉽게 만들어 인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차원에서 강조되는 것이다. 편곡은 원곡의 사상적 내용과 정서적 색채를 돋우어 음악을 풍부하고 새롭게 하는 창작 작업이며, 단순성을 극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8) 안희열, 『주체적 문예리론연구(22)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p. 270.

9) 안희열, 『주체적 문예리론연구(22)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p. 21.

나. 주체음악의 민족적 전통

김정일의 예술관은 민족적 전통을 강조한다. 주체음악에서도 민족적 특성은 음악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한다. 민족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범세계적인 음악’과 대립한다.

지난 시기 어떤 사람은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면서 음악은 민족과 국가의 관계를 초월한 《범세계적인 음악》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세계주의를 고창하는 현대부르주아리론가들의 반동적인 견해로부터 출발한 하나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고 나라마다 사람의 감정과 정서가 서로 다른것만큼 음악에 국경이 없을수 없다. 물론 음악의 언어는 민족들 사이에 공통되는 점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음악에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아무런 계선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¹⁰⁾

음악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생활과 기호가 반영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자연 경계도 생기게 되고 따라서 어느 민족에도 속하지 않는 ‘범세계적인 음악’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각 인민은 자기의 고유한 전통적인 민족음악을 가지고 있으며 이 민족음악은 민족생활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전통적인 음악인데, 이 민족음악이야말로 자기 민족의 심리적 특성에 맞고 민족적 감정과 구미에 가장 잘 들어맞는 음악이라는 것이다.

김정일의 음악관은 민족적 정서를 기반으로 한 ‘민족음악’의 발전적 계승으로서 주체음악의 정통성을 강조한 것이다. 음악에서 내용과 형식이 인민의 정서에 맞을 때 주체음악이 될 수 있으며, 자기의 색깔이

10) 김정일, 위의 글, p. 19.

분명한 주체음악으로서 혁명과 인민을 위하여 이바지 할 수 있다.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것만큼 음악 역시 “민족음악을 위주로 발전시켜야 음악에서 주체를 세울 수 있고 음악이 인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진보적인 모든 음악은 민족적”¹¹⁾이라는 것이다.

김정일의 민족음악의 강조가 곧 전통 음악에 대한 모방이나 답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¹²⁾ 예술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발전하는 것이지 역사의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세월이 흘렀으면 새로운 요구와 조건에 맞는 예술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음악 유산 중에서 낡고 반동적인 것을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을 살려 ‘현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의 민족적 선율을 바탕으로 하면서 새로운 선율적 요소를 찾아내어 발전시켜 현 시대의 민요로 불릴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족음악을 강조한다고 해서 서양음악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우리 음악을 살리면서 서양음악을 도입하여 주체음악으로 만들어야 한다.

김정일의 음악관은 국악기 개량, 민요의 현대화, 민족적 특색을 살린 전자음악단의 창설로 구체화되었다.

악기개량은 민족음악 발전의 중심사업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다. 국악기 개량은 표현능력의 확대에 중심을 두고 전통악기를 기본 자료 정도로 보존하고 개량 국악기를 통해 ‘맑고 밝고 부드럽고 고운 음색’의 새로운 ‘민족음악’을 연주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전통의 5음계 국악기를 서양음계에 맞추어 개량하면서 서양 악기와의 배합 편성이 가능하게 되었고 음역도 넓어져 기존의 악기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표현이 가능해졌으며, 개량국악기만으로 현대

11) 김정일, 위의 글, p. 21.

12) “민족음악을 장려한다고 하여 복고주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김정일, 위의 글, p. 19.

음악 연주가 가능한 민족관현악을 구성 할 수 있게 되었고, 가극, 영화, 합창, 중창, 독창, 무용 등의 음악형상과 반주에서도 음악적 효과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민요의 현대화 역시 민족음악의 현대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시되는 사업이다. 김정일은 민요를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 정서와 생활감정에 맞는 참다운 인민의 노래”¹³⁾로 규정하고 민요에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생활감정이 간결하고 세련된 음악형식에 풍부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민요발굴과 연구 사업을 잘하여 민요를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의 민요 현대화는 ‘서도민요’를 기본으로 두고 있다. 우리 민족의 노래는 맑고 밝으며 유순한 음색인데, 남도민요는 대부분 탁성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서도민요를 정통민요로 인정한 것이다.

민요의 현대화 사업으로 ‘아리랑’, ‘도라지’, ‘양산도’, ‘옹헤야’ 등 여러 지방의 다양한 민요가 발굴되었고, 이 곡을 편곡한 곡들이 보급되었으며, 또한 민요를 발전시킨 새로운 민요풍의 노래가 다수 창작되었고, 전자악기를 비롯한 기악곡으로 만들어졌다.

3. 무용

가. 주체무용의 내용과 형식

북한에서 무용은 ‘사람들의 율동적인 움직임을 기본 수단으로 하여 사회 현실과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의 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삶의 희열과 생활의 보람을 안겨주는 아름답고 고상한 예술’이다. 김정일

13) 김정일, 위의 글, p. 24.

은 혁명적인 무용예술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생활의 참된 보람을 안겨 주고 그들을 새 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¹⁴⁾는 점에서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혁명적 무용예술이 중요한 이유는 무용의 형상 대상이 인간과 생활이기 때문이다. 무용이 인간을 형상한다는 것은 인간의 성격을 그리는 것인데, 인간의 성격은 사상과 감정을 기본으로 하기에 결국 무용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형상함으로써 인간의 성격을 그리는 예술로 규정된다. 무용에서 형상대상이 되는 자연현상은 인간과 무관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감정을 폭넓고 깊이 있게 보여주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무용배우가 춤을 추는 과정은 춤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무용배우가 춤동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춤형상의 성과가 좌우된다. 무용배우가 춤동작을 정확하게 잘하면 작품에 반영된 내용을 명백하게 표현할 수 있다.

무용배우가 춤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인물의 사상감정을 비롯하여 작품에 반영된 내용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¹⁵⁾

사람의 사상감정은 구체적인 생활에서 이루어지며, 인간 자신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주성과 창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자주적인 요구와 창조적 능력이 높아질수록 인간의 생활은 더욱 다양해지는데, 무용은 다양한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사상정서적으로 교양하고 새생활 창조를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주체의 무용예술은

14) 김정일, 『무용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

15) 김정일, 위의 글, p. 117.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옹기 그리는 주체 예술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시대 인민들의 생활을 훌륭하게 형상하는 무용이라는 것이다.

무용은 원시시대부터 자연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하면서 율동을 느끼게 되었고, 율동을 타고 손발과 호흡을 맞추면서 일을 보다 흥겹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자연과 싸우는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사상감정과 정서를 율동에 담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였다. 초기의 무용은 대부분 생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다가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면서 생활을 즐기게 되었고, 즐기는 수단으로 춤을 추게 되었다. 이처럼 무용은 생활과정에서 나오고 생활을 즐기는 수단으로 이용하였기에 다른 어느 예술보다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생활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지역 특성이 반영되었고,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그 지역 인민들의 노동생활과 생활풍습이 반영된 민속무용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용은 계급사회 이전에는 계급적 성격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계급사회 이후 계급적 성격을 갖게 되었고, 착취계급이 통치와 향락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무용예술이 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무용이 독자적 예술분야로 발전한 것은 매우 오랜 전부터였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자기의 창조적인 생활을 아름답고 우아한 율동에 담아 민족무용을 훌륭하게 창조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착취계급사회에 들어와서 지배계급이 무용예술을 저들의 통치와 향락을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였기 때문에 무용예술의 발전이 심히 억제되었다.¹⁶⁾

16) 김정일, 위의 글, pp. 11~12.

착취계급사회에서 무용은 소수의 착취계급이 향락의 도구로 이용하게 되면서 인민들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예술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봉건사회에서 지배계급은 종교교리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하여 종교의식에서 무용을 배합하도록 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서는 부르조아 사상감정과 생활을 반영한 자본주의 무용이 생겨났다. 자본주의 무용은 “인민의 건전한 사상의식과 생활을 좀먹고 사람을 부패타락한 생활에로 부추”기는 무용으로 부르조아의 나태하고 퇴폐적인 생활을 기형적인 율동에 담은 반인민적인 무용이다. 특히 술놀이장이나 유흥장에서 범람하고 있는 유흥무용은 “인민의 고상한 사상감정을 마비시키고 자주성을 억제하는 가장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무용”¹⁷⁾이라는 것이다.

반면 혁명적 무용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반영한 무용이다. 혁명적 무용에는 특히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여야 할 역사적 사명을 지닌 가장 혁명적 계급이며,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지향과 요구가 가장 높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노동계급의 사상감정과 생활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노동계급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수령의 령도 밑에서 이루어졌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혁명적인 예술의 창조 역시 항일혁명투쟁 과정 속에서 창조되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북한 무용은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이룩된 무용예술의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17) 김정일, 위의 글, p. 15.

나. 주체무용의 민족적 전통

민족적 춤형식을 살리는 것은 사회주의 무용예술의 발전에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예술에 반영된 내용은 그에 맞는 형식을 요구하는데, 예술에서 내용을 잘 나타내고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이 곧 민족적 형식인 것이다.

민족적인 사상감과 정서가 풍부한 예술은 인민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오랜 세월동안 전승될 수 있다. 특히 무용에서 민족적 형식이 중요한 것은 무용이 민족적인 생활정서와 풍습을 가장 집중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용에서 민족적 형식은 무용음악, 무대미술, 춤으로 나타난다. 무용음악에서는 민족적 특성을 민족적인 장단과 선율로 나타내며, 무대미술에서는 의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족적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춤가락이다.

북한 무용의 기본은 민속이다. 민속무용은 “인민들속에서 다양한 생활과 아름다운 풍속을 반영하여 만들어지고 추어지면서 전해오는 무용이다.”¹⁸⁾ 김정일은 지배계급의 무용이나 종교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민속무용의 춤가락을 찾아내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무용 자료를 찾고 궁중무용과 종교무용을 참고할 것을 강조한다.

궁중무용과 종교무용은 다 봉건통치배들의 사상감과 생활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궁중무용과 종교무용의 형식에는 민족적인 특성이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런것만큼 궁중무용과 종교무용에서도 민족적특성이 있는 춤가락을 찾아내어 살려써야 한다.¹⁹⁾

18) 김정일, 위의 글, p. 37.

19) 김정일, 위의 글, p. 38.

이렇게 발굴한 춤가락을 살려 무용형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대적 미감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 다만 오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가 지난 시기 인민의 사상감정과 같지 않기에 현대적 미감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현대화하는 것은 민족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게 되므로 본래의 성격을 살리면서 우리 시대 미감에 맞게 잘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담은 새로운 춤가락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춤가락은 변화된 생활을 반영하여야 한다. 인간의 생활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무용도 변화하는 생활을 반영할 수 있어야 참다운 주체의 무용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날을 따라 새롭게 발전하는 우리 인민의 다양한 생활은 거기에 맞는 새로운 춤가락을 요구한다. 새로운 생활은 새로운 춤가락을 가지고 형상하여야지 지난날의 생활을 반영하였던 춤가락을 가지고 형상하여서는 제대로 형상할 수 없다. 모내기를 하는 농민의 생활을 형상하는 경우에 손으로 모를 내는 생활을 표현하였던 춤가락을 가지고서는 기계로 모를 내는 생활을 형상하기가 곤란하다. 기계로 모를 내는 생활을 형상하자면 마땅히 그에 맞는 새로운 춤가락을 만들어내야 한다.²⁰⁾

기계로 모를 내는 생활을 새로운 춤가락으로 형상하여야 기계로 모를 내고 농사짓는 농민의 사상감정과 정서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무용예술을 주체적 입장에서 풍만하게 발전시키고 인민의 문화정서 생활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0) 김정일, 위의 글, p. 39.

4. 미술

가. 주체미술의 내용과 형식

김정일의 미술관은 주체사상을 구현하는데 복무하는 주체미술을 참다운 미술로 규정한다. 북한에서 미술은 ‘현실에 대한 조형적형상을 통하여 인간과 그의 생활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직관예술’로 규정된다. ‘참다운 미술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옳게 반영하여 사람들에게 생활의 본질과 아름다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데 이바지’²¹⁾하는 것인데, 주체미술이 바로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며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미술이라는 것이다.

주체미술이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는 것은 미술이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생활수단과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미술의 표현대상으로서 아름다움은 사물자체의 아름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사물현상이 아름다운 것은 사물이 인간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 맞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연 대상 자체를 유미(唯美)주의적으로 그려내는 것은 ‘자연주의적’ 풍경화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예컨대 혁명사적지나 묘향산, 백두산, 금강산 등의 명산이나 노동의 모습을 담은 구상적 회화는 ‘사실주의적’인 회화가 된다.

주체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주성에 기초한 요구와 지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하며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 간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이익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으며, 인간을 위하여 복무하는 한도 안에서 가치를 갖는다. 사물이 인간을 위하여 복무한다

21) 김정일, 『미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

는 것은 인간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사물현상 가운데 자신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기쁨과 만족,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지만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과 증오, 불쾌감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갖는다.

인간의 감정 가운데 미적 감정은 인간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는 대상을 파악하며 창조할 때 느끼는 것이므로, 인간이 자신의 자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며 개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벌일 때 미적 감정을 통하여 아름다움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없이 사람이 미적 감정을 통하여 감수하는 아름다운 사물현상이 존재할수 없다.²²⁾

이러한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한 문제는 오직 주체의 미학관에 의해서 완성되었기에 주체의 미학에 근거한 주체미술이야말로 미의 본질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밝힌 참다운 미술이라는 것이다. 관념론의 미학에서는 미의 본질을 절대이념이나 신의 발현이나 인간의 주관적 의식의 산물로 보고 인간의 의식이나 초자연적인 실체에서 찾으려 하였으며, 유물론적 미학은 객관적 사물현상에서 미의 본질을 찾으려 하였으나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사물현상의 개별적인 속성인 균형, 대칭, 조화, 전체와 부분의 통일, 전일성 등 자연의 외면적 속성을 미의 본질로 왜곡하였다는 것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여러 기준과 불완전성은 오직 주체의 미학관에 의해서 완전하게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체의 미학관이 인간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철학적 해명과 사람중

22) 김정일, 위의 글, p. 6.

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간의 자주성, 자주적 요구와 관계에서 아름다운 것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체의 미학관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미의 기준으로 새롭게 제기하²³⁾였기 때문이다. 주체의 미학관에 따르면 자연현상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따라서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이 분명하게 갈라진다.

그런데 사람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사물현상이 아름다운 것은 미의 일반적인 법칙이지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계급적 성격을 통하여 구체화되면서 상대성과 가변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계급적 상황에 따라서 아름다운 것으로 느낄 수도 있으며, 추한 것으로 느끼기도 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과 반동계급, 착취계급은 같은 대상을 놓고도 서로 상반되는 미적감정을 체험하게 된다. 인민대중이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상에는 착취계급에게서 미적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있을수 있고 반동계급이 찬미하는 대상에는 인민대중이 추한 것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²⁴⁾

이처럼 아름다움의 기준은 계급적 집단의 심리와 개성적인 특성 때문에 다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미를 평가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일정한 미의 기준을 만들어 평가의 척도로 활용하여 왔다. 미의 기준은 미의 객관적 법칙과 일치할 때 과학적인 기준이 되는데, 지금까지 인류사상사에서 제기된 미의 기준은 사회역사적·계급적 제한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반면 주체의 미학에서는 미의 기준이 아름다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와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이해관계를 반영함으로써 가장 정당하고 과

23) 김정일, 위의 글, p. 9.

24) 김정일, 위의 글, p. 10.

학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주체의 미학관이 과학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인민대중은 사회적 운동의 주체로서 인간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는 중심이기에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 맞으면 바로 사람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미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의 미학을 반영한 주체 미술의 사명은 인민대중의 숭고한 미적 이상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묶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항일무장혁명투쟁 시절 미술은 김일성이 제시한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 방침을 구현하면서, 영웅적인 항일혁명 투쟁의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한 전투적인 화폭으로 일관되어 있었기에 청소년들과 인민들, 항일 유격대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반일혁명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교양시키는 데 그 고유한 ‘직관적인 인식 교양적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 미술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인민대중을 교양하는데 있어서 다른 예술이 대신 할 수 없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며, 수령의 “절대적인 군위와 위신을 옹호하기 위한 가장 위력한 수단의 하나이다.”²⁵⁾

주체의 미학이 수령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은 바로 수령에 대한 충성과 변화되는 조국, 사회주의제도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참된 모습이며 그들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거창하

25) 김정일, 위의 글, p. 23.

게 변모되어가는 조국의 자연이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이다.²⁶⁾

예술에서 아름다운 것은 현실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형상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름다운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인민들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참모습과 변화되는 조국의 자연, 사회주의 제도를 예술적 형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가들이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식견과 예술적 기량을 갖추고 모든 사물현상을 혁명적 관점에서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나. 주체미술의 민족적 전통

미술 창작의 기본 원칙은 김일성에 의해 제시되고 김정일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북한 미술의 기본 방향은 여타의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미술분야에서도 주체를 철저히 세워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미술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발전시”²⁷⁾키는 것으로 훌륭한 민족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선화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다른 미술종류도 조선화를 토대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미술을 발전시켜야 민족적특성이 뚜렷한 우리 식의 미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미술창작에서 인민의 생활감정과 미적지향을 잘 반영할수 있다.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여

26) 김정일, 위의 글, p. 12.

27) 김일성,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키자(제9차국가미술전람회를 보고 미술가들과 한 담화 1966년 10월 16일),” 『김일성저작집 20』, pp. 473~474.

미술을 발전시켜야 미술에서 사회주의적내용을 민족적형식에 다올수 있고 다른 미술형식도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다. 조선회가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를 가장 뚜렷하게 체현하고있으며 인민들이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면 미술발전에서 중심고리를 놓치게 될뿐아니라 주체도 세울수 없다. 조선회를 기본으로하여 미술을 발전시켜 조선회를 다른 미술형식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우리당의 시종일관한 방침이다.²⁸⁾

조선회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조선회의 선명하고 간결한 전통적 화법을 연구하여 유화나 판화 같은 다른 미술형식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미술의 기본이 되는 조선회의 특징은 간결하고 선명한 화법에 있다. 조선회의 간결성과 선명한 화법을 위해 강조하는 것이 사물현상의 가장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대상의 본질을 진실하게 그려내는 집약화(강조와 생략)의 원칙이다. 조선회의 이러한 특징은 화면구도, 형태를 표현하는 조형방법 그리고 선, 색채, 명암의 활용, 구도, 형태를 표현하는 조형방법 등에 일관하게 작용하면서 작품의 선명성과 간결성을 추구한다.

선, 색채, 명암의 활용에 있어 조선회는 사물현상을 복잡하게 다 그리지 않고 크게 간단히 요약하면서도 대상의 본질적 특징과 생동감을 진실하게 나타내는데, 이는 대상의 본질적인 색감과 특징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작용을 한다. 구도에 있어서는 중심이 뚜렷하고 대조가 선명하고 여운이 깊은 것이 특징으로 본질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배경이나 부차적인 부분을 약화시키거나 생략하여 여백을 조성하는 방법, 형태적인 대조와 연계를 뚜렷이 하는 방법 등으로 표현된다. 조형

28) 김정일, 위의 글, pp. 98~99.

방법에서는 형태적 윤곽이 뚜렷하며 결구들의 특징이 섬세하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데 이는 묘사대상의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간소화하면서 처음부터 본질적인 형태의 윤곽을 명백하게 그리고 동시에 묘사대상의 생김새와 결구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세부들을 섬세하게 그리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주제를 확대하고 장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에서 주제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장르를 발전시키는 문제는 형상대상인 인물과 자연현상을 어떻게 그리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주제가 확대되고 장르가 다양해진다고 해도 관념론을 부정하는 북한 미술의 표현대상은 인물과 자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물을 그리는 것은 인간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그려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그려야 한다.

인물형상은 본질에 있어서 성격형상이며 성격형상에서 기본은 그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이다. 내면세계는 인간의 사상과 의지, 감정이 하나로 어울린 정적풍모의 통일체이다.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려야 성격을 개성화하여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으며 행동의 내적요인을 밝혀낼수 있다.²⁹⁾

인물의 내면세계를 그리는 문제의 핵심은 인물의 사상을 밝히는 것이다. 인간이 무엇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인물의 내면묘사를 깊이 그려낼 수 잇는 감정묘사가 결합될 때 인간의 진실한 형상이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9) 김정일, 위의 글, p. 49.

주체의 미학에 따르면 미술에 그려진 자연은 인간생활의 정서가 반영된 자연이다. 자연을 그릴 때는 뜻이 깊고 정서가 넘치게 그려야 한다. 자연을 뜻이 깊게 그려야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며, 민족의 역사가 배어있기 때문이다.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조국의 모습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데없이 아름답다. 조국땅 이르는곳마다 당과 수령의 위대한 령도가 활짝 꽃피고 고매한 덕성이 자욱자욱 수놓아져있는 것으로 하여 산천은 참으로 아름답다. 이땅우에 일떠선 크고작은 모든 창조물과 한포기의 풀, 한그루의 나무에도 주체의 해발아래 걸어온 우리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력사가 깃들어있다.³⁰⁾

자연을 뜻이 깊게 그리기 위해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심장으로 느껴야 하는데, 자연에 대한 느낌은 미술가들이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만큼 형상하는 것도 같지 않다. 미술에서 뜻이 깊게 자연을 묘사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입장에서 혁명에 이롭게 작품의 사상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대상을 인민의 염원과 지향 그리고 생활감정을 반영하면서 혁명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렸을 때 뜻이 깊은 그림이 되는 것이다.

30) 김정일, 위의 글, p. 67.

5. 건축

가. 주체건축의 내용과 형식

북한 건축의 기본은 주체의 건축이론이다. 주체의 건축이론은 “주체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철저히 구현할 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축을 창조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건축 학설이며 위대한 건축강령”³¹⁾으로 김일성의 건축구상을 틀로 한다.

우리의 건축가, 건설자들은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건축구상을 높이 받들고 당의 건축창작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높은 충성심과 창작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새롭고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우리 식의 주체건축을 훌륭히 창조하였으며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주체조선의 위용을 온 누리에 과시하였다.³²⁾

건축은 인간의 창조적 노동생활을 통하여 이룩된 창조물 가운데 인간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건축이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조건이 보장될 수 없으며, 생활이 유지될 수도 없으며, 인간의 생활은 건축이 있기에 더욱 풍만할 수 있기에 건축은 인간생활을 위한 기본 요소의 하나로 규정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건축은 사회의 발생과 함께 발생하여 사회발전과 함께 발전한 사회역사의 산물로서 해당 시기의 사람들의 물질적 요구와 생활습성, 감정, 정서, 미적 취미를 비롯한 인간생활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31) 김정일, “건축예술론(1991년 5월 21일),”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119~120.

32) 김정일, 위의 글, p. 119.

자본주의 사회의 건축은 반인민적이고 퇴폐적인 건축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인 노동을 통하여 물질적인 토대와 과학기술이 발전하였으나 사회의 지배사상과 정치도덕적인 이념이 반동화 되면서 인민대중은 그 반동사상과 문화의 구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건축창조의 모든 물질적수단이 극소수의 재벌들에게 장악되어있고 건축이 그들의 향락과 리운추구에 전적으로 복무하고있으며 건축가와 건설자는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 돈의 노예가 되어 마치못해 일하기 때문에 인민대중을 위한 건축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다”³³⁾ 는 것이다.

주체건축이 위대한 것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주체건축이론은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주체사상을 이론의 기초로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기에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건축이라는 것이다.

주체적건축 사상과 이론은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을 근본조석으로 하고 있는 사람중심의 건축사상이며 건축에 대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건축학술이다.³⁴⁾

건축은 어느 계급의 이익을 반영하고 어느 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는가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계급성을 갖게 되는데, 착취사회나 자본주의 사회의 건축물은 인민의 창조적 노동과 지혜, 기술에 의해 창조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착취사회가 철두철미하게 반인민적인 사회인만큼 이를 반영한 건축도 반인민적인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33) 김정일, 위의 글, p. 123.

34) 김정일, 위의 글, p. 135.

건축이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건축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한다.…노예소유자사회로부터 자본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착취사회는 그에 상응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건축을 낳았다면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건축을 창조할수 있게한다.³⁵⁾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축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건축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건축 창조를 목표로 하기에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사회에서 건축창조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가 곧 수령의 영도이므로, 혁명적인 건축사상은 오직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을 창시한 수령만이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짧은 기간동안에 훌륭한 도시와 마을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수령의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건축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모든 건축물을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생활풍습, 생활감정에 맞고 편리하며 아담하고 아름다우며 견고하게 설계하고 건설하도록 건축가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모든 구조구성요소와 세부요소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관심하시고 그것을 우리 인민의 생활풍습과 생활감정, 현대적미감에 맞게 해결하도록 세심하게 지도하여주시었다.³⁶⁾

35) 김정일, 위의 글, p. 126.

해당시기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내용과 형식의 완벽한 통일을 특징으로 하는 주체건축은 사회주의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을 구현하는 건축이다.

건축에서 사회주의적인 내용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것으로 건축의 질적 속성인 ‘편리한 것’, ‘아담한 것’, ‘아름다운 것’, ‘견고한 것’이다. 건축에서 아름다움이란 외적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 있다. 평양을 돌아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수령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양시의 웅장화려한 모습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우러러 모시며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충성심과 사상정신세계를 느끼게 되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며 승리적으로 전진해 온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적기상을 감수하게된다. 우리는 인민의 기쁨 넘치는 공원과 유원지, 극장과 살림집을 볼 때마다 한평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³⁷⁾

주체건축이 목표로 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혁명적인 건축창조는 혁명적 수령관으로 일관할 때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건축창작에서 기본이 되는 수령의 구상과 의도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축을 창조하려는 구상이며 의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 것, 곧 수령의 영도를 실현하는 문제는 수령을 잘 모시고 높이 칭송하는 문제와 함께 수령관으로 일관되어야 해결할 수 있

36) 김정일, 위의 글, p. 136.

37) 김정일, 위의 글, p. 147.

다. 따라서 건축가들에게는 수령의 구상을 한 치의 오차없이 실현하며 건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명적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나. 주체건축의 민족적 전통

앞서 언급했듯이 주체건축의 내용은 사회주의적이며 형식은 민족적이다. 건축에서 민족적 형식이란 자기 민족이 좋아하고 자기 민족의 구미에 맞는 건축형식을 의미한다.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건축이 민족적인 것은 민족이 형성된 이후 민족성을 떠난 건축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민은 지역적이며 기후적인 특성과 민족적인 생활감정에 맞는 건축을 창조하고 발전하였기에 건축은 민족적 특징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³⁸⁾

또한 건축은 사회역사적 산물로서 필연적으로 사회적, 계급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이루려는 투쟁이 민족을 단위로 이루어져 왔기에 건축은 필연적으로 민족적인 문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건축에서 민족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족건축 고유의 의미 있는 특성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즉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잘 결합하여야 민족의 구미에도 맞고 인민대중의 현대적 미감에도 맞는 건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민족적 건축전통의 계승은 주체적 입장에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복고주의를 극복하면서 민족적 건축유산 가운데서 우수하고 진

38) “민족적 건축형식은 오랜 역사적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것으로 거기에는 해당 민족의 고유한 심리정서적특징과 생활풍습, 생활가정, 기술과 재능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김정일, 위의 글, p. 198.

보적인 것을 찾아내서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 시켜 나갈 때 가능하다.

민족적 건축유산을 계승할 때 대상이 되는 건축유산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이룩된 유산이 아니다. “오늘까지 보존되어온 건축유산가운데서 사회주의건축창조를 위하여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것”³⁹⁾이다. 건축유산 가운데서 의의 있고 가치 있는 건축유산을 선택하고 수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체성의 원칙, 계급성의 원칙과 역사주의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건축유산을 계승할 때는 남의 것을 무조건 좋다고 하는 민족허무주의나 지난 날의 것을 무조건 따르는 복고주의를 철저히 경계하는 것이다. 이를 허용하게 되면 허용하게 되면 사대주의나 교조주의가 생겨나 건축창조에서 주체성을 잃게 된다. 외국의 건축형식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정에 맞는가를 따져보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민족적 건축유산 가운데 의의있는 것을 선택하여 민족적 특징을 살리면서 현대성을 옹계 구현해야 하는데, 민족건축유산에서 어느 것이 진보적인 것이고 퇴폐적인 것인가를 가르는 것은 사람의 사상의식이며 세계관이기 때문에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하게 세워야 하며, 건축에서 현대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추어 끊임없이 새로운 형성수법을 창조해야 한다.

건축에서 현대성을 구현하는 과정이란 인민의 생활풍습과 생활감정, 미적요구를 변화발전하는 현실속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맞는 새롭고 특색있는 건축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주체시대 인민대중의 생활적 요구를 만족시키려면 새로운 형성수법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⁴⁰⁾

39) 김정일, 위의 글, p. 195.

40) 김정일, 위의 글, p. 202.

결론적으로 건축창조사업 없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기대할 수도 없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없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건축창조사업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건축가들은 수령의 현명한 영도 밑에 이룩된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당의 건축창작 이론을 지침으로 삼아 주체건축을 끝까지 옹호고수 해야한다.

6. 결론

음악·무용·미술·건축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은 주체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주체사실주의로 귀결된다. 주체사실주의가 이상적인 예술창작이론이 되는 것은 주체사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주체문예이론은 ① 민족을 기본 단위로 발전한 민족예술의 전통을 계승하며, ② 문화예술은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예술이라는 것이다.

예술은 인민대중에 의해 창조, 발전되어 오면서 지역적 특성과 생활 풍습에 의해 민족적 특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에 관념론에서 주장하는 세계의 예술의 보편성이나 세계성은 기본적으로 허구라는 것이다. 또한 예술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계급적 속성을 지니게 되는데, 착취사회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술을 착취계급이나 일부 자본가들에 의해 종속되면서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요구를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계급사회의 예술에서도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요구가 반영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민대중을 위한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욕구를 반영하는 예술은 오직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주체시대가 바로 인민대중이 중심

인 시대이기에 주체시대의 예술이 바로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체사실주의는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와 역사를 보고 그리는 창작방법이다.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력사발전을 그린다 는것은 인민대중을 사회력사발전의 주체로, 사회력사적운동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으로 보고 그린다것을 말한다. 물론 선행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에서도 인민대중을 형상의 중심에 내세우고 그리지 않았거나 력사발전에서 그들이 노는 역할을 그리지 않은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민대중을 력사발전의 주체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그리지는 못하였다.⁴¹⁾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정서를 예술창작에 반영하는 주체시대의 예술가들은 민족적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예술적 유산 가운데서 주체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의 있는 것을 골라 현대적 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다. 그런데 주체예술 발전에 의의가 있는지 없는 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선택하는 사람의 사상의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철저히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예술 창작에서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은 곧 수령을 중심에 세우고 이를 형상하는 수령형상 문제로 연결된다. 주체문예에서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요구를 형상하는 것은 역사발전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게 하는 수령의 영도를 따르고 이를 형상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체사실주의를 문예이론에 적용시키는 것은 바로 주체사상에서 제기된 수령의

41)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02.

위대성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의 문제, 다시 말해 문화예술에서 수령의 위대성과 고매한 품격을 빛낼 수 있는 수령 형상화의 문제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문화예술은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요구를 반영한다고 하면서도 수령을 중심에 세움으로써 오히려 수령 없이는 아무 것도 없는 인민대중을 중심에서 배제하는 문화예술이 되었다는 점이다.

XIV. 재일총련과 동포

진희관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1. 서언

『김정일선집』(이하 『선집』)에 수록된 재일총련(이하 총련)과 직접 관련된 문헌은 1960년대 1편, 1970년대 1편 그리고 1990년대 3편 등 총 5편(1.5%)이며, 모두 63쪽(0.9%)이다. 서한이 1편, 그리고 4편은 담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적으로 볼 때 매우 적다. 그리고 『김일성저작집』에서 80편의 총련 관련 문헌(일본 언론사 및 정치인들과의 담화 및 대답 등 34편 포함)이 실려있는 점과 비교할 때도 아직은 김정일의 저작활동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2000년도에 총련에 대한 언급을 집약한 새로운 단행본 『재일본조선인운동과 총련의 임무』¹⁾(이하 『총련의 임무』)를 발간하여 재일총련에 대한 북한의 관심과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총련의 임무』에는 선집에 수록된 5편의 문헌을 포함하여 1963년부터 1997년까지의 35년간 발표된 25편의 문헌을 수록하고 있다. 담화 16편, 축전 4편, 지시 2편, 연설·위문전문·서한이 각 1편씩 수록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연설’은 1989년 발표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이다. 그리고 축전과 서한, 지시는 김일성 사망 이후인 1995년부터 발표된 문헌으로 권력승계자인 김정일의 고유 역할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위문전문

1) 김정일, 『재일본조선인운동과 총련의 임무』(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은 1995년 1월 발생한 고베(神戸) 대지진에 의한 재일동포들의 피해를 위문하는 내용의 전문이다.

이 문헌에서는 선집의 5편의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분석과 아울러 보조적으로 「총련의 임무」의 내용을 추가 분석하고 그 특징을 미리 짚어봄으로써 북한이 바라보는 총련의 위상과 오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문헌의 수에 있어서는 「선집」의 총련 관련 내용이 전체의 1/5에 불과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헌을 수록하고 있는 「선집」의 성격을 고려할 때, 「선집」에 수록된 5편의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총련의 임무」와 「김일성저작집」의 문헌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적으로 볼 때 김일성 저작에 나타난 총련 정책과 수평비교는 어렵지만, 특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인용을 통해 차이점 또는 유사점들을 지적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북일수교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오늘 재일총련의 문제는 북일간에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본 연구는 북일관계 개선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쟁점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2. 김정일의 총련관과 총련의 위상

「선집」에서 총련을 직접 언급한 문헌은 5편으로, 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1966. 1. 26), 1권, ② “총련사업을 잘 도와줄데 대하여”(1975. 3. 25), 5권, ③ “재일조선청년들을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울데 대하여”(1990. 4. 5), 10권, ④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95. 3. 2), 14권 ⑤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1995. 5. 24), 14권 등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문헌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각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문헌이 193편인 반면 1980년대에는 단 한편도 없으며, 오히려 1966년과 1975년에 문헌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년차, 15년차의 간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²⁾

우선 1966년도의 문헌은 한일수교(1965년) 직후 재일 총련의 대 동단결과 조국으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김정일의 언급이 필요했다는 판단이 섰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사후적인 정리인지 아니면 이미 당시에 발표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1975년도의 문헌은 시기적으로는 총련 결성 20주년과 일치하며 한국의 재일동포 모국방문단 사업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이 1974년(5기 8차 전원회의)³⁾ 내부적인 후계자로 자리 매김 한 직후라는 점에서 김정일의 문헌이 발표되었을 개연성은 존재한다.

1995년도의 문헌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에 의한 총련의 조직강화를 위한 문헌과 재일총련 결성 40주년 기념 문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이러한 차이는 「총련의 임무」에서도 볼 수 있다. 66년 이후 9년간의 차이를 두고 75년의 문헌이 정리되고 있고, 다음은 85년도서 각각 9년차와 10년 차이의 간격을 두고 있다.

3) 이때부터 북한의 언론은 김정일에게 ‘당중앙’이란 호칭을 사용하였다.

가. 1966년 문헌4)

선집 1권에 수록된 1966년 문헌의 경우 한일수교회담 직후라는 점에서 볼 때 북한으로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벗어나면서 소위 북한식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이 중대하게 제기되던 시기와 일치한다.⁵⁾

그러나 『총련의 임무』에서는 김정일의 대학 4년 시절인 1963년 문헌부터 수록되어 있다. 1963년 5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한 담회⁶⁾에서는 총련의 성격규정과 아울러 재일조선인운동의 역사적 평가를 담고 있다.

여기서 김정일은 총련의 성격과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⁶⁾ 첫째, 조국을 옹호하는 재일조선인들의 통일전선조직이다. 둘째, 동포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사상사업을 통해 애국사업에 조직동원하는 것을 중심활동으로 한다. 셋째, 일본의 법을 존중하는 평화애호단체이자 애국운동을 전개하는 교포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논지는 해방 직후 결성된 조련(재일조선인연맹) 해체(1949년)⁷⁾ 이후 결

4) 김정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1966년 1월 26일),” 『김정일선집 1』.

5) 총련은 67년에 최성욱의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을 번각발행하였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사업을 확산해나갔다. 진희관, “조총련연구 -역사와 성격을 중심으로-,” 동국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이종석, 『새로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참조.

6) 김정일, “총련의 결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해외교포운동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다,” 『재일본조선인운동과 총련의 임무』(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7) 해방직후인 45년 10월 결성된 조련을 49년 9월 8일 일본 법무부는 기습

성된(1951년 1월) 민전(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이 노선의 오류(親日共黨)를 인정하는 해산대회를 거쳐 총련이 결성된(1955년 5월) 배경을 설명하면서 총련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민전 당시 일본공산당에 의한 지도에 대해 비판하면서 당시 민전 내의 일본공산당 소속 조선인과 일본공산당에 대해 “내외의 반동들과 사대주의자, 민족허무주의자”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4쪽) 그 이유는 민전 내의 일본공산당 소속 조선인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의 방향이 조국수호에 있지 않고 일본의 반동적 국가정권 타도에 국한하려했다는 데 있다. 그리고 민전 강령에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호방위’ 조항을 없앤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⁸⁾(3쪽)

민전의 오류에 대해서는 1964년 12월 문헌⁹⁾에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민전시기의 용납할 수 없는 로선상 오류는 투쟁강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호할데 대한 조항을 없애고 자기 본연의 민족적임무인 조선혁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민전의 지도적지위에 있던자들은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공명주의에 물젖은자들이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들은 주체를 잃고 민족배신의 진탕속에 굴러떨어졌던 것입니다.....이렇게 놓고보면 민전의 지도적지위에 있던자들이 재일동포

적인 단체등규제령(團體等規制令)에 의해 해산명령을 내렸다. 그 이유는 조련을 비롯한 재일동포단체들이 “미군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한 사실, 폭력주의적 경향(시위)을 조장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 결과 재일동포의 대표적인 4개 단체(재일본조선인연맹, 재일본조선민주청년동맹,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조선건국축전청년동맹)의 재산이 접수되고 간부 36명(조련 19명, 조청 9명, 민단 5명, 건청 3명)은 공직추방되었다.

8) 민전 2차대회(51. 12) 이후 일본공산당의 지적에 의해 ‘공화국을 사수한다’는 조항이 유보되었다가 52년 5월 민전 제6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다시 포함시키게 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민전 당시 내부의 일공세력과 타세력간의 그리고 북조선로동당과 일본공산당간의 간극이 존재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9) 김정일,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께 충실하여야 한다,” 위의 글, pp. 12~17.

들을 일본에서 살고있는 <<소수민족>>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조선혁명을 포기하고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를 거부한 것은 사실상 우리 민족과 우리 혁명 앞에 저지른 범죄적인 반역행위였습니다.”(15쪽)

이와 같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역사에 대한 평가 또는 일본공산당에 대한 언급은 김일성저작집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김일성저작은 1946년의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라는 문헌 이후에 1956년 일본 언론사와의 대화 내용이 실려있다. 그리고 총련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1959년 귀국사업(복송사업)이 시행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위의 문헌을 통해 재일조선인운동의 노선전환과 총련의 결성은 김일성 수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총련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전통 학습, 사회주의애국주의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수령님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도록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수령님께 변함없이 충성다할 사람들로 지도핵심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17쪽)라고 하여 총련의 임무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집』의 1966년 문헌은 한일회담 이후의 ‘일본의 탄압책동’과 ‘재일조선동포들의 권리 옹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영주권신청과 한국국적 취득으로 발생하는 조선적 총련동포들의 숫적 감소에 대한 우려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 “..... 《한일조약》을 체결한 일본반동들은 요즘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의 《발효》를 떠들면서 《영주권신청》놀음을 벌여놓고 위협공갈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재일조선동포들이 《한국국적》을 가질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1권-102쪽)라고 하여 당시 한일수교회담으로 인한 재일조선인 정책의 중대한 과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일이 제시한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국적법을 제정하여 동포들의 북한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준’ 수령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의 강조이다. 당시 북한은 1951년 10월 예비회담으로 시작된 한일회담이 1960년대 이르러 수교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자 반대운동과 아울러 국적법을 제정·공포(1963년 10월)하고 재일동포들의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행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르게되었다. 즉 한국국적으로 이동을 막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을 강화해나갔다고 할 수 있다.¹⁰⁾

《한일회담》에 대한 언급은 「총련의 임무」의 1965년 1월 문헌¹¹⁾에서도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지난해에 총련은 《민단》과 손을 잡고 일본반동들과 남조선 괴뢰도당이 1964년안으로 타결하려던 《한일회담》을 저지파탄시켰는데 이것은 총련이 애국활동에서 이룩한 특별히 빛나는 성과입니다. 총련동포들과 함께 《민단》 산하 동포들이 잘 싸웠습니다.”라고 하여 한일회담 저지를 위해 모든 재일동포가 나서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민단이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한일회담》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굴욕외교의 극치이며 《한일협정》은 사실상 《을사조약》의 현대판입니다.”(19-20쪽) “1965년은 《한일회담》저지파탄시키기 위

10) 일본 법무성 통계에 의하면 재일동포 중 조선적(소위 북한국적) 동포의 수는 한일회담 이후 4년만인 69년에 역전되어 한국국적자 30만 9천여명 보다 적은 29만 7천여명을 기록하게 된다. 이는 북한의 ‘귀국사업’(북송사업)의 결과(59-61년 3년동안 7만 4천여명이 북송됨)이기도 하지만 4년 동안 한국국적자가 6만5천여명(년평균 1만 6천여명)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국적으로의 이동이 적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민관식, 『재일본한국인』 (서울: 아세아정책연구원, 1990), p. 315, 345.

11) 김정일, “재일조선인운동의 조국래왕을 실현하며 《한일회담》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1965년 1월 3일),” 위의 글, pp. 18~21.

한 전민족적투쟁의 해로 되어야 합니다.”(21쪽)라고 하여 한일회담이 굴욕외교라고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행위로 폄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북일관계 진전을 보면서 의미있게 지켜볼 부분일 것이다.

둘째는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사업’의 확대발전이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민족을 도로 찾는 숭고한 애국사업입니다”(1권-106쪽)하여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일본의 ‘외국인학교법’의 부당성을 민족말살-동화교육으로 폭로하고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족교육에 대한 강조는 1957년부터 북한이 총련에 지원한 ‘교육원조금 및 장학금’과 관련이 깊다. 첫 두 해 동안 4억엔을 지원하였고 이로 인해 1956년 설립되었던 조선대학교는 1959년 6월 도쿄 고다이라시(小平市)에 신 校舎를 준공하였고 장학생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재일동포 사회에는 북한의 교육지원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으며¹²⁾, 따라서 김정일로서는 한일회담 이후의 외교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켜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래왕과 귀국 실현’(1권-109쪽) ‘동포상공인들의 기업권 보호’(1권-110쪽)가 당시의 재일총련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1959년부터 시작된 북송(귀국)문제에서 북한은 직업이 없는 재일동포들¹³⁾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홍보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12) 59년 12월 재일동포 학생대표 2명(와세다대 법학부대학원 김영두, 정치과 이봉원)은 한국을 방문하여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75%의 학생들이 “공산주의에 몰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일보』, 1959.12.20.(석간).

13) 북송이 일시 중단되었던 67년까지의 북송 재일동포중 성인남성의

또한 ‘교육원조금과 장학금’이 지속적으로 답지하게 되자 ‘중립계’ 재일 동포 단체인 조선인상공인연합회(이후 재일본조선인상공인연합회)와 민족조합(이후 재일본조선인신용조합협회, 2002년 3월 해산)이 각각 1959년과 1961년 총련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 두 조직의 가입은 총련의 경제활동인구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총련조직의 확대·강화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일동포 기업인들의 기업권 보호는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로 설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1966년 문헌과 1965년의 문헌은 《한일회담》으로 불어닥친 북일간의 외교적 위기와 재일동포들의 동요를 염려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일회담 직후인 1966-67년의 경우 조선적 동포의 수치가 그다지 감소하지 않았지만, 1968년 이후부터 조선적 이탈자는 이전 대비 2배 가량(연 1만5천여명)으로 증가하였다.

나. 1975년 문헌¹⁴⁾

1975년 문헌은 총련결성 20주년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 발표된 것으로서 김정일의 총련에 대한 기본인식과 북한의 총련정책의 틀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문헌이라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측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해외교포운동을 정의하면서 총련을 사상교양단체로 규정하고 김일성주의의 요구에 걸맞는 조직으로서의 행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 시기는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라는 명칭으로 불려지면서 확산되어가는 시점이다.¹⁵⁾ 따라서 총련에 대해서도 김일성주의로의 사상교양과 대

62.1%가 무직에 해당된다. 진희관, 앞의 글, p. 136.

14) 김정일, “총련사업을 잘 도와줄데 대하여(1975년 3월 25일),” 『김정일선집 5』.

중조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언급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총련과 그 산하단체가 사상교양단체라는 점을 강조하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우선 해외교포운동의 목적에 대해서는 “해외교포들의 리익을 옹호보장하며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입니다.”(5권-73쪽)라고 하여 재일조선인운동 역시 그 방향은 자신의 이익과 조국을 위해 복무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총련의 위상에 대해서는 “총련은 단체, 사업체 조직들에 대한 지도도 잘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인상공련합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과 같은 단일단체조직들은 총련에 망라된 계층별 대중조직이며 동포군중을 교양하는 사상교양단체입니다.”(5권-76쪽) “총련은 행정조직이 아니라 사상교양단체인것만큼 사상교양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5권-77쪽)라고 하여 총련이 행정조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대중중심의 사업을 전개해 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총련 10차 전체대회(74. 2)에서 김일성주의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주요하게 평가하고 있다.(5권-71, 72쪽) 이는 총련이 김일성주의가 강조되면서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가 나타나고 있는 북한과 동일한 행보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중의 하나라고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문헌은 총련의 사업을 애국사업, 간부사업, 상공인사업, 그리고 새 세대사업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다.

15) 주체사상은 1974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주체과학 토론 전국 집회에서 최초로 대외적으로 공개되었으며 이러한 김일성주의의 공식천명과 함께 총련을 통해서 일본으로의 전파를 시도했다. 이로 인해서 조선로동당과 일본공산당이 갈등관계로 돌아서게 되었으며 마침내 일본공산당은 조선로동당을 패권주의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종석, 앞의 글, pp. 167~169.

우선 애국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일군들이 총련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총련일군들의 애국사업을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물론 총련 애국사업의 성과여부는 총련일군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조국에서 일하는 우리 일군들이 총련사업에 무관심하여서는 안됩니다.”(5-73)라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중반은 총련의 애국사업이 통일사업에서 총련의 대북지원사업으로 비중을 높여나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문헌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¹⁶⁾ 그러나 특이한 점은 김일성의 저작과 비교할 때 10여년 앞서서 이러한 내용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당시 발표된 것은 아니다) 김일성은 1986년에 총련의 제14차 전체대회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조국통일을 비롯한 모든 애국사업에서 큰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까.....조국통일 위업과 사회주의 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 하는 것은 총련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입니다.”라고 하여 총련에 대해 애국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¹⁷⁾ 이것은 아마도 김정일이 비공개되었던 내용을 추후에 발표하였거나, 또는 사후에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만일 비공개되었지만 1975년에 실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이러한 대화를 했다면 총련문제 만큼은 일찍부터 김정일이 담당했다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재일 상공인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애국사업과도 무관치 않다. “총련에서 재일조선상공인들과의 사업을 잘하도록 하

16) 60년대에는 주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서 ‘나라 살림을 알뜰히 꾸리는 것’과 조국통일 및 사회주의조국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애국과 관련된 담화 및 사업들은 67년부터 총련에서 역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대한 교양사업으로 나타나게되었다. 그러나 72년 김일성주석의 회갑을 기점으로 총련에 의한 5억엔 송금이 이루어진 이후 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총련의 애국사업은 통일문제보다는 사회주의 조국건설과 대북지원으로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평가된다.

17)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177.

여야 합니다.....재일조선상공인들은 총련의 기본군중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입니다.”(5권-77쪽)라고 하여 상공인들은 총련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84년 합영법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된 목적은 외자 및 투자유치에 있었다. 그러나 당시 총련 상공인들 외의 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총련 상공인들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총련의 임무』는 1980년대의 문헌 중 총련과 직접관련된 한 편의 문헌¹⁸⁾을 담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총련 상공인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 상공인은 기본군중이며 총련사업의 주력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시기 동포대중을 전취하여 묶어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재일동포상공인들은 총련의 기본군중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입니다. 이제는 총련이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을 떠나서 동포대중과의 사업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을 전진시킬수 없습니다.”(53-54쪽)

둘째, 상공인을 반프롤레타리아트로 규정하고 있다.

“동포상공인들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업활동을 하는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상공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동포상공인들을 민족적혁명성을 가지고 있는 반프롤레타리아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54쪽)

셋째, 상공인과의 사업을 위해서는 사상교양과 경제자극을 결합해야

18) 김정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련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86년 9월 15일).”

한다는 것이다.

“그들과의 사업을 상공회조직들에만 맡기지 말고 총련조직에서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체계를 세워야 하며 상공인들과의 사업에서 총련 부서들사이의 배합작전, 협동작전을 잘하여야 합니다.....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에서 정치사상교양과 경제적자극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54-55쪽)

이 문헌은 재일동포의 세대교체에 대해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총련사업의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위해서는 변화된 현실에 발을 붙이고 새롭게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배경에는 “.....망국노의 운명을 직접 체험한 1세대동포들은 얼마 없고 그대신 일본에서 나서자란 2세, 3세 동포들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그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하고있습니다.”(53쪽)라고 하여 세대교체로 인한 총련사업의 전환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김일성의 저작에서는 새세대에 대한 혁명의 후비대로서의 교양사업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내용은 발견할 수 있지만¹⁹⁾, 2-3세로의 세대교체에 따른 총련사업 변화의 필요성이라든가, 변화된 세대의 실정에 맞게 교양사업, 총련사업이 변화해야 한다는 직접적 언급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총련의 임무」의 1986년 문헌은 애국사업과 합영사업에 대한

19) 김일성은 총련이 후대교육사업을 통해 새 세대들은 “충직한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로”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시기 총련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93년 9월 10일),”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229~232;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애국인재로 양성할 것을 강조, “총련교육일군대표단과 한담화(1992년 10월 17일),” 「김일성저작집 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448;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1986년 4월 10일),” 「김일성저작집 3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391.

총련의 관심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현단계 총련 사상사업의 기본임무는 “간부들속에서 주체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그들을 끊임없이 혁명화하며 동포대중을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의 애국화과정을 적극 다그치는것입니다.”(58쪽) 그리고 “총련은 앞으로도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조국의 사회주의건설을 돕기 위한 전동포적인 애국운동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대로 동포상공인들이 조국과의 합영사업을 잘하도록 떠밀어주어야 합니다.”(65쪽)

이 밖에도 1986년 문헌은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주체사상화의 문제, 총련의 통일사업, 동포 권리옹호운동을 전개할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또한 「총련의 임무」에는 1985년 8월에 발표된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자” 라는 문헌이 실려있다. 여기에서는 애국심에 대한 정의와 실천적 애국을 강조하고 있다.

애국심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받들어 모시고 당의 령도 따라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뜨거운 충성의 마음”(46-47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진정으로 애국을 하려면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애국적인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우리에게는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합니다.”(47쪽)라고 하여 실천적인 애국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1984년 시행된 합영법 이후 합영·합작사업에 총련 상공인들이 참여하도록 추동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선집」의 1975년 문헌에서 총련 상공인들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시점이 상당히 이르다고 지적할 수 있다. 김일성 저작

의 경우에도 총련 상공인들의 역할에 대해 지적한 것은 1987년에 이르러서이다. 즉 총련 제16차 분회위원 선전대회(1987. 10. 17)에 보낸 축전에서 비로소 ‘애국영예기쟁취운동’에 역점을 둘 것을 강조하면서 상공인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²⁰⁾ 그리고 공개된 자료로서는 김정일이 1995년 5월 총련결성 40주년에 처음으로 상공인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상공인을 ‘총련 애국사업의 주력군’으로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북한사회의 경제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총련 상공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975년의 문헌에서 상공인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상당히 빠른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요컨대, 언급한 바와 같이 1975년의 문헌은 사후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총련동포들에 대한 사업은 일찍부터 김정일이 담당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다소 무리일 것이다. 물론 김정일이 1974년 2월 당내에서 후계자로 결정되었다고는 비밀에 부쳐져 있었으며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행동한 시점은 1980년 6차당대회 이후라고 할 때 1975년의 문헌은 사후 정리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하겠다.

다. 1990년 문헌²¹⁾

총련 결성 35주년인 이 시기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변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는 출발점에 놓여있었고, 총련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사상교양이 필요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90년 문헌에서

20)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4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364.

21) 김정일, “재일조선청년들을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울데 대하여(1990년 4월 5일),” 『김정일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는 애국사업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1990년 4월의 문헌 “재일조선청년들을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울데 대하여”에서는 우선 재일조선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김정일은 일본이라는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교양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재일청년들을 주체형 세계관이 수립된 ‘참다운 애국자’로 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방식과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재일조선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에서는 무원칙하게 부르조아적방법을 모방하는것도 옳지 않지만 조국에서 하는 교양방법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여도 안됩니다.”(10권-81쪽)라고 하여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계층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조선대학교를 총련의 ‘위력한 민족간부양성기지’로 양성하여 ‘청년핵심’²²⁾을 길러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조청(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지부와 반 조직의 역할 강화, 셋째 일본학교의 동포학생 및 한국계 학생들과의 ‘친선유대’ 강화를 주요한 사업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총련조직들은 조청에서 할 일을 도맡아하거나 조청조직에 부차적인 일이나 맡기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조청조직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사업을 대담하게 맡기고 그것을 정확히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10권-87쪽)라고 하여 총련 중앙이 조청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총련을 대를 이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조선혁

22) 청년핵심이란 “사회주의 조국과 운명을 같이할 각오와 결심을 가진 청년”을 일컫는다.

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해외공민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야”하며 재일 조선청년은 애국사업의 계승자이며 교대자로서 위치지우고 있다.

같은해 9월에 발표된 문헌²³⁾에서도 애국사업의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늘 재일조선인운동은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있습니다. 총련이 결성된지 35년이 지나다보니 동포들속에서 세대가 교체되고 상공인이 총련의 기본군중으로 되었으며 동포들의 사상 의식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있습니다. 우리는 재일조선인운동의 변화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게 조직건설과 애국사업을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111쪽)라고 하여 전환기 총련이 상공인을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애국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로, 중, 청 세대의 조화와 ‘지휘성원’(간부)들의 일심단결이 필요하며,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고 동포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문헌에서는 실정에 맞게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조국이 하는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115쪽)라고 하여 조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이 옳은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²⁴⁾

23) 김정일, “총련조직을 더욱 강화하며 애국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1990년 9월 16일),” 『재일본 조선인운동과 총련의 임무』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11~118.

24) 이러한 지시는 95년 10월 20일 발표된 “총련조직건설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도 언급된바 있는 바 “조국에서 어떤 정치행사를 하였다고 하여 총련에서도 그런 행사를 꼭 하며 《로동신문》에 중요한 성명을 냈다고 하여 《조선신보》에 그 성명을 꼭 실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즉 조국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김정일의 지시는 99년에 이르러서야 본격 실천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로동신문』과 유사한 편제(우리말전용)를 보여

또한 이 문헌에서는 당시 총련 부의장 전연식이 김정일 위원장에 말 두필을 선물한 사실이 언급되고 있어, 김정일 위원장의 ‘승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시켜주고 있다.(118쪽)

총련 상공인의 중요성과 실정에 맞는 사업 전개의 필요성은 1992년도의 김정일 문헌²⁵⁾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1992년 2월 북한을 방문한 총련 축하단과의 담화에서 김정일은 총련상공인들의 기업이 잘되면 총련사업이 잘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129쪽) 그리고 동포사업은 곧 상공인들과의 사업이며 “나는 재일조선상공인들의 애국충정에 대하여 언제나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들을 일시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우리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보고 있습니다.”(128-129쪽)라고 하여 상공인을 ‘혁명의 영원한 동반자’로 평가하고 있다.

총련 상공인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애국사업(총련의 대북지원 및 투자)과 밀접하다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총련 동포의 상당수가 상공인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현재 재일상공인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체 재일동포 18만명 중 62.1%에 이르고 있다. 즉 과반수의 동포가 상공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재일동포의 대다수에 해당되는 상공인에 대한 역할 강화의 필요성 제기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왔던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일본어와 함께 역시 대폭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 바 있다.

25) 김정일, “총련은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 나가야 한다(1992년 2월 26일)”; “총련사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92년 2월 28일)”; “총련의 예술은 자기 특성을 살려야 한다(1992년 4월 28일),” 위의 글, pp. 119~138, 139~148, 149~155.

<표 1> 일본 정부의 『재류외국인통계』(1996년판)에 기초한
 재일동포의 직업분포

(1995년도 12월말 현재)

기타 직업	인수	유직자비율 (%)	상공인 직업	인수	유직자비율 (%)
의료·보험기술자	4,114	2.29	관리직업종사자	18,136	10.07
기술자	1,916	1.06	무역종사자	391	0.22
교원	2,260	1.26	판매종사자	35,520	19.73
예술·예능가	1,182	0.66	농림업종사자	967	0.54
문예·저술가	184	0.10	어업종사자	133	0.07
기자	189	0.10	채광·채석종사자	137	0.08
과학연구자	287	0.16	운수·통신종사자	10,231	5.68
종교가	801	0.44	기능공· 생산공정종사자	34,489	19.16
기타 전문·기술가	1,724	0.96	서비스업종사자	11,763	6.53
사무종사자	52,206	29.00			
일반노동자 (단순노동자)	3,413	1.90			
			유직자	180,043	100.00
			상공인	111,767	62.08
			무직	485,569	
			不詳	764	
			총수	666,376	

* 출처: 김철수, “통계를 통하여 보는 재일조선상공인의 수에 대한 연구(하) -일본의 관청통계에서 본 재일조선상공인의 수-,” 『정경론집』 장간호,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2002. 4. 15, 82쪽.

이 담화에서 김정일은 중국 조선족 문화에 대한 총련의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즉 중국조선족 동포사회에 한국의 노래방기기(화면노래반주곡카세트)와 선전물이 많아 이를 보지 않도록 하려면 ‘록화기카세트와 노래카세트’를 비롯한 선전물을 많이 만들어 보내도록 해야 이를 조국에서도 하겠지만 총련도 많은 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시하고 있다.(136쪽)

이와 같이 문화예술 선전에 대한 관심은 총련의 예술사업부문에 대해서도 몇 차례 언급되고 있다. 92년 2월 축하예술단의 공연에 대해서는 “총련예술단의 공연을 보는 감이 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어느 도예술단의 공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총련의 예술에서 조국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아야 합니다.....그렇게 하는것은 하나의 도식이며 교조주의입니다.”(145)라고 하여 거침없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면서 김정일은 4월의 김주석의 생일에는 총련의 특성을 살린 공연이 이루어지기를 지시하였다.

이어 4월 공연후 총련예술단 성원들과 한 담화에서는 “제일동포들은 자본주의 사회인 일본에서 살고있으며 그들은 조선인민들과는 달리 그들대로의 정서가 있습니다. 총련의 예술활동에서 동포들의 생활환경과 조건, 감정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들이 총련예술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수 있습니다. 총련예술은 동포들의 생활환경과 조건에도 맞고 2세대, 3세대 동포들의 감정과 정서에도 맞는 형식을 들고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총련 문화국장이 청춘가요련곡을 가지고오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고 하는데 그런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총련예술에서 사상성만 좋으면 형식은 어떻게 하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겠습니다.”(151) 라고 하여 총련동포의 정서가 조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계적으로 조국을 모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라. 1995년 문헌²⁶⁾

- (1)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95. 3. 2)

이 문헌은 3-4세로의 세대교체로 인한 총련사업의 방향과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

즉 “현시기 사상사업에서는 혁명의 3세대, 4세대에 대한 교양에 기본을 두고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14권-17쪽) “총련에서는 상공인들과의 사업도 3세대, 4세대의 젊은 상공인들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14권-18쪽)라고 하여 총련의 사상사업은 3-4세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과 특히 3-4세 상공인들과의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3-4세 젊은 재일동포들에게 조국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총련은 3세대, 4세대 동포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도록 그들을 잘 교양하여야 합니다.....(중략).....덮어놓고 조국의 사회주의가 좋다,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식으로 일면적이고 평면적인 교양을 하여서는 3세대, 4세대의 젊은 동포들에게 옳게 리해시킬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는 난관도 있고, 부족한것도 있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극복할수 있다는 것,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려면 주체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한다는 것을 잘 인식시키는 방향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교

26) 김정일,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95년 3월 2일)”;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1995년 5월 24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양사업을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옳게 인식시키려면 반증자료를 가지고 대비 교양을 잘하여야 합니다.....자본주의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자료적으로 잘 분석하여가지고 교양사업에 리용하면.....”(14권 19-20쪽)라고 하여 덮어놓고 조국을 칭찬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조국의 사회주의체제가 장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주의의 폐해를 언급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높을 것이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사상사업의 내용은 철저히 조국과 사회주의를 따라야 하지만 그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하면서도 주위환경과 총련의 실정에 맞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4권-22쪽)

(2)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1995. 5. 24)

총련 결성 40주년을 기념해 보낸 서한인 이 문헌에서는 지난 시기 김일성 주석의 재일동포 정책을 옹호하면서 총련의 위상에 대해 재차 정리해 주고 있다. 즉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무어주시고 이끌어오신 우리 공화국의 존엄있는 해외공민단체이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재일조선인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입니다.”(14권-29쪽) 그리고 총련의 중심과업을 제시하고 있는 바 총련의 높은단계로의 발전을 위해 “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것은 총련의 애국활동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과업의 하나입니다.”(14권-36쪽)라고 하여 동포 권리 옹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포들의 공화국 공민권을 지키고 인권, 생활권, 기

업운영권 등을 수호 해야 하며 △민족교육사업을 현지실정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새 세대들을 교육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동포들 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을 높여 민족성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 △수령의 조국통일원칙과 방안을 지지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동포대중을 조직 동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절대다수인 동포 상공인들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특히 젊은 상공인들과의 사업을 잘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14권, 39-44쪽)

다음으로 총련 사상사업의 기본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총련사상사업의 기본임무는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이 주체의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으로 무장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조선신보》를 비롯한 출판보도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대중적인 문화예술활동과 체육활동을 널리 벌려야 합니다.”(14권-46쪽)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총련 관련 문헌에서 《조선신보》 등의 출판 보도물을 통한 문화활동에 대해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조선신보》에 대한 개선 지시는 『총련의 임무』에 게재된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총련조직건설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95. 10. 20)에서 재차 언급되고 있다. 즉 “조국에서 어떤 정치행사를 하였다고 하여 총련에서도 그런 행사를 꼭 하며 《로동신문》에 중요한 성명을 냈다고 하여 《조선신보》에 그 성명을 꼭 실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210쪽)라고 함으로써 《조선신보》가 총련의 특성을 가지는 신문으로 변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시는 1999년 10월에 이르러 《조선신보》의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신보》는 글자체 변경(고딕체로), 영문제호(THE CHOSON SINBO) 삽입, 국한문 혼용(기존 순한글 전용)으로 바뀌었다.²⁷⁾ 즉 기존의 로동신문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를 전면 개정하여

27) 동포사회의 한글인식 정도는 민족교육의 참여율에서 알 수 있듯이 총

시대에 걸맞는 신문의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수식어도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당시 조선신보 1999년 10월 11일자에서는 일본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한국 프로야구 이승엽선수의 기사를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고, 10월 6일자에는 ‘주니치 드래곤스’의 선동열 선수 등의 선전으로 ‘99시즌’ 우승을 이루게 됐다는 축하 기사가 실려있다.²⁸⁾ 조선신보의 김원택 사장은 1999년 10월 4일자 개편 첫호에서 “재일동포들의 요구에 보답하기 위하여 ... 새 세대를 비롯한 광범한 동포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동포대중신문으로 새출발하게 됐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민단의 배철은 선전국장장은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민단과 총련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은 동년 12월에 이르면서 과거로 회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2002년 6월 월드컵세계축구대회에 대해서도 한국팀의 폴란드전 첫승을 보도하면서²⁹⁾ 16강의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변화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 문헌은 조국통일원칙과 방안에 대한 지지와 조직단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강화를 위해 상공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재일동포상공인들은 총련의 기본군중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입니다.....동포상공인들은 재일동포들속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재일조선인운동을 추동하는 기본력량으로 되고 있습

런계 동포의 15%가량이 조선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한글 인식정도는 20%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글 신문이 동포사회에 미치는 파급은 얼마나 될 지 미지수이다. 이에 조선신보가 생활정보 그리고 민족교육 관련 기사 등을 5면(전 8면중)에 걸쳐 일본어로 게재하고 있는 것은 동포 3-4세로 이어지면서 우리 글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8) 「중앙일보」, 1999.10.12.

29) 「조선신보」, 2002.6.10.

니다. 총련은 동포상공인들과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상공인들과의 사업, 특히 젊은 상공인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14권, 43-44쪽) 라고 하여 상공인과의 사업, 특히 젊은 상공인들과의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3. 맺는말

『선집』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일총련은 애국사업을 중심 활동으로 전개하는 동포 교양단체이자 통일전선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애국사업과 총련사업의 주력군은 재일동포 상공인이며 특히 김정일은 젊은 3-4세 상공인들을 '총련사업의 주력군', '영원한 혁명 동반자'로 표현하고 있다. 1975년 문헌에서부터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경제 침체시기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966년과 1975년 문헌의 경우 당시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김일성 저작보다 앞서서 발표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사후 정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은 이 시기 총련에 대한 자신의 언급이 필요했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은 문헌을 게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김정일은 3-4세 동포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단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후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는 있지만, 3-4세의 세계관의 차이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그리고 총련 사업에서 획기적인 변화의 필요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총련의 사업이 일본의 실정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김정일의 문헌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계적으로 조국을 따라해서는 안된다는 언급을 비롯

하여, 총련이 총련의 실정에 맞는 사업방향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은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김정일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적민족권리 옹호는 총련의 가장 기본적인 동포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북일회담의 진행과정에서 총련 문제가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서술 방식

- 「김정일 선집」은 인용문 뒤에 (○권-○쪽)으로 표기
- 「재일본조선인운동과 총련의 임무」는 인용문 뒤에(○쪽)으로 표기
- 인용문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원문 그대로임

XV. 「김정일선집」문헌의 변화 연구 -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주철 (KBS 연구원)

1. 「김정일선집」의 문헌 구성

가. 「김정일선집」의 문헌 종류

김정일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서 김일성의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한 김정일의 저작은 1982년에 처음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발표된 논문들은 현재 「김정일선집」7권에 수록된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크>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1982년 10월 17일),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1982년 12월 15일)이다.

이어서 김정일의 저작은 단행본, 해설서 등의 형식으로 출판되었고, 1985년에 이르러서는 1960년이후 김정일이 발표했다는 문헌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2년에 들어서자 김정일의 50회 생일을 기념하여 「김정일선집」1권이 출판되어 김정일저작의 체계적 발간이 시작되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은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노선을 제시하여 북

한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을 지도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김일성 사후에 발표된 김정일의 저작이나 김일성 사후에 편집 간행된 김정일의 저작은 급변한 북한 정세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저작보다 현재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발간된 14권까지에 포함된 문헌 편수는 총 339건이고, 담화 186편, 연설 81편, 결론 9편, 대답 3편, 서한 37편, 축하문 4편, 감시문 1편, 논문 17편, 명령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가장 많은 형식은 55%를 차지하는 담화와 24%를 차지하는 연설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담화, 연설, 결론과 같은 문건은 주로 당중앙위원회의 간부나 각 부문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지면 분량으로 본다면 논문 17편도 적지 않은 양이며, 서한도 상당히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서한은 각 부문의 중요 행사 등에 보낸 지시나 격려의 성격을 띤 문건들이고, 논문 형식의 문건은 북한 체제의 중요한 사상적, 정책적 원칙을 천명한 것이나 예술부문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져 있다.

수록된 논문은 1964년부터 1981년까지는 1973년에 썼다는 ‘영화예술론’ 한편이 있다. 1968년부터 1971년까지 김정일의 관심이 영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는 점에서 ‘영화예술론’은 김정일의 논문 중에서 김정일의 직접적인 관여가 가장 높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의 논문은 1982년과 1983년에 만들어진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드>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글들은 모두 김정일 주변 서기들의 ‘충성’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1990년대에 들어 ‘무용예술론’, ‘건축예술론’, ‘음악예술론’, ‘미술론’, ‘주체문학론’으로 이어져 ‘최고권력자가 문학예술장르에 대한 지도의 완결성을 확보’하였다. 여러 가지 증언과 정황으로 볼 때, 김정일의 사유행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글은 논문에서는 ‘영화예술론’, 기타의 문건은 담화와 연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김정일선집』의 문헌 종류와 구성비율

권	저작 발표시기	출판 연도	문 건 수	문헌 종류						
				담화	연설	결론	서한	논문	대답	축하문
1	1964-1969	1992	46	42	4					
2	1970-1972	1993	29	19	6	3			1	
3	1973	1994	11	5	4	1		1		
4	1974		18	10	5	3				
5	1975-1977	1995	33	14	19					
6	1978-1980		38	15	18	1	4			
7	1981-1983	1996	23	7	5	1	5	4		1
8	1984-1986	1998	28	10	8		8		1	1
9	1987-1989	1997	18	13	3		1		1	
10	1990		15	5	6		2	2		
11	1991.1-7		8	1	1		4	2		
12	1991.8-1992.1		7	2			3	2		
13	1992.2-1994.12	1998	27	17	2		4	2		
14	1995-1999	2000	38	26			6	4		2
계			339	186 (54.9%)	81 (23.9%)	9 (2.7%)	37 (10.9%)	17 (5%)	3	4

* 13권(1992.2-1994.12)에는 감사문과 명령이 각 1건씩 수록되어 있음

나. 연도별 담화·연설 문건 분포

정리하면 논문과 서한 같은 문건은 김정일 본인의 저작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다는 점과 담화와 연설이 김정일의 논리 구조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정일선집』 중에서 김정일의 담화와 연설 문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표 2> 연도별 문건수와 담화, 연설 문건 수

연도	문건수(A)	담화 문건 수	연설 문건 수	담화와 연설 문건 수(B)	B/A(%)
64	7	6	1	7	100
65	4	4		4	100
66	7	6	1	7	100
67	13	11	2	13	100
68	7	7		7	100
69	8	8		8	100
70	8	6	1	7	88
71	14	8	5	13	93
72	7	5		5	71
73	11	5	4	9	82
74	18	10	5	15	83
75	15	9	5	14	93
76	8	3	5	8	100
77	11	2	9	11	100
78	17	7	9	16	94
79	11	3	5	8	73
80	10	5	4	9	90
81	6	1	1	2	33
82	12	4	2	6	50
83	5	2	2	4	80
84	9	1	4	5	56
85	10	3	3	6	60
86	9	6	1	7	78
87	5	4	1	5	100

연도	문건수(A)	담화 문건 수	연설 문건 수	담화와 연설 문건 수(B)	B/A(%)
88	7	6	1	7	100
89	6	3	1	4	67
90	15	5	6	11	73
91	12	1	1	2	17
92	17	9	2	11	65
93	5	5		5	100
94	7	5		5	71
95	9	5		5	56
96	12	11		11	92
97	11	6		6	55
98	4	3		3	75
99	2	1		1	50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81	267	잘못된 계산식

『김정일선집』에 실린 문건의 수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린 문건의 수는 매년 평균 9.4편인데 특별히 많은 해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록된 문건 수가 매년 평균보다 크게 많은 해는 67년, 71년, 74년, 78년, 90년, 92년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수록 문건 수가 많은 해는 한 눈으로 보아도 김정일의 정치적 위상과 큰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수록된 담화·연설 문건의 수가 평균(7.4편)보다 크게 높은 해를 찾아보면, 67년, 71년, 74년, 75년, 77년, 78년, 90년, 92년, 96년을 찾을 수 있다.

이상의 평균 이상의 문건이 수록된 해들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1967년은 5월에 있었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박금철, 이효순 등의 갑산파가 제거된 해이다. 박금철, 이효순 등은 이 회의에서 유일사상을 위배하는 정책을 전개했다고 비판받고 숙청 당하였는데 김정일이 이 과정을 실무차원에서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조선로동당내의 유일체계가 강화되었으며, 김정

일은 문학예술부문과 출판보도부문에 대해 직접적인 지도력을 행사하였다. 1967년은 『김정일선집』에 실린 문건 제목에서 처음으로 ‘유일사상’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유일사상’을 강조하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1971년은 1970년 9월에 김정일이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임명되어 당내 활동의 폭이 크게 확대된 해였다. 『김정일선집』의 1971년 담화·연설 문건은 7편이 영화와 가극에 대한 것으로 이 시기 김정일의 활동 중심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1974년은 1973년 9월에 김정일이 당 중앙위 조직 및 선전담당 비서가 된 후 1974년 2월에 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공식 결정된 해이다. 또 김정일은 이 때 당 정치위원회 위원이 되기도 했다. 『김정일선집』의 1974년 담화·연설 문건의 특징은 당사업과 당 사상사업 강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건의 제목에서 특징적인 것은 “김일성주의”라는 표현이다. 1974년의 문건은 후계자로 공인된 김정일의 관심과 정책 제시가 무엇에 집중되었는가를 보여준다.

『김정일선집』의 1975년 담화·연설문건은 당 사상사업에 대한 문건이 감소하고 경제건설에 대한 문건이 증가한다. 그리고 군사, 조총련, 각 근로단체, 각 예술 부문에 대한 문건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1975년의 문건 선정은 김정일이 1974년에 후계자가 된 후 1975년부터는 모든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에 나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1977년과 1978년이 되면 『김정일선집』의 담화·연설 문건은 다시 당 사업에 전적으로 집중된다. 특히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가 계속되는데, 1977~78년 쯤에는 모든 당원이 정규화된 당생활에 참가하게 돼 전혀 빈틈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증언¹⁾을 실감하게 한다.

1990년의 국제정세는 북한에게는 6.25전쟁 이후 최악이라고 할 수 있었다. 1989년과 90년에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세 하에 있었던 1990~1992년 사이에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인민군최고사령관, 공화국 원수가 되었다. 1990년과 1992년의 『김정일선집』 담화·연설 문건은 체제 유지를 위해 주체사상, 당사업, 당 사상사업 등에 맞추어졌다.

1993년에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이 되고,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였다. 93·94·95년 3년간은 『김정일선집』의 문건 수가 감소하고 담화·연설 문건 수가 매년 5건에 불과하였다. 김일성 사망후 경제 위기가 계속되던 1996년의 『김정일선집』의 문건은 12편으로 증가하고 담화·연설 문건도 11편으로 증가하였다. 1996년의 『김정일선집』 담화·연설 문건은 체제 유지를 위한 당사업과 당 사상강화, 경제건설 등으로 나뉘어졌으며, 군사, 외교, 통일에 관한 문건은 없다.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김정일선집』의 문건 수는 67년, 71년, 74년, 75년, 77년, 78년, 90년, 92년, 96년이 다른 해에 비하여 많다. 그런데 이상의 시기들은 모두 김정일 개인에게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있었거나, 체제가 어려움에 처한 해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건의 배치는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한 김정일의 대응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1) 정창현, 『겉에서본 김정일』 (김영사, 2000), p. 150.

2. 『김정일선집』의 담화·연설 대상 분석

가. 김정일의 담화·연설 대상

김정일의 담화와 연설 대상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연도별 담화 대상과 연설 대상(당중앙위=★)

연도	담화대상	연설대상
64	민청중앙위/중앙통신사/황남당, 농촌경리/인민군2.8영화촬영소/★선전부/인민군 부대	문화예술부문
65	★조직부, 평양시/★(2)/대외사업부문	
66	★/작가동맹위원장/청년동맹중앙위/김대교원/★선전부	영화예술부문/문학예술부문
67	작가/사업부문/★과학교육부/★선전부(3)/★선전부영화과/당사상사업, 문학예술부문/방송위원회/청년동맹중앙위/만경대학원졸업생	문학예술부문(2)
68	★선전부, 군사부/인민군 부대 정치부/예술영화창작가/량강도, 항일투사/김대졸업생/창작가/영화예술부문	
69	★조직부, 인민군정치국/영화예술부문(4)/★선전부영화과/★과학교육부/★선전부	
70	문학예술부문/★선전부/★선전부, 사회안전성 정치국/작가연출가/영화예술부문/★조직부, 선전부	영화문학작가

연도	담화대상	연설대상
71	영화부문/★선전부(2)/방송위위원장/★청년사업부, 청년동맹중앙위/★경제부서/문학예술부문/★조직부, 선전부	영화문학작가, 연출가/평양연극영화대학교직원/혁명가극창조성원/영화예술부문/수령문예사상연구모임
72	체육선수단/평양서성구역하신동/★선전부, TV방송부문/인민군부대정치위원	
73	★/김일성군사대학/★교육부/★선전부/평양교예단요해검해사업	★선전부/★조직부/예술인학습경연대회/★선전부지방지도과
74	★선전부(4)/당이론선전일군/보건부문/★비서/문학예술부문창작가/인민군 부대/당선전일군	★선전부/★조직부, 선전부/정무원위원회, 부/★조직부부부장, 도당조직비서, 정무원위원회, 부당비서/★, 정무원, 도당책임비서
75	인민군총정치국/★(3)/당평양시위원회, 건설부문/청년동맹위원장/광산지도일군/문학예술부문(2)	★/★조직부, 선전부/★비서, 부장, 부부장/★선전부, 문화예술부문/도당책임비서, ★조직부부부장
76	보건부문/당이론선전일군/★	도당책임비서, ★조직부선전부부부장/★조직부, 선전부 부부장/도당책임비서, ★조직부 부부장/
77	문학예술부문/★조직부선전부	★조직부, 선전부(5)/도당책임비서회의/도시군당조직비서, 조직부장/도당책임비서, ★조직부, 선전부 부부장회의/★조직부, 선전부 부부장협의회
78	영화예술부문/문학예술부문(2)/로동신문사/국립연극단/★/★선전부, 무용표기법연구부문	★조직부, 선전부(6)/★조직부/도당책임비서협의회/★선전부
79	★선전부, 무대예술부문/로동신문사/★	★조직부선전부(2)/★조직부(2)/도당책임비서협의회
80	★/대외사업부문/★선전부/각도예술선전대/당맞근로단체	★조직부, 선전부(2)/도당책임비서회의/★조직부, 선전부, 평양시당위원회

<표 3-1>을 보면 1964년부터 1971년까지 수록된 문건에서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의 하나는 김정일의 1971년까지의 연설 대상이 영화와 문학 등 예술 부문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이 시기에는 김정일이 주로 문화예술부문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지도를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일선집』 1권에 수록된 1965년과 1966년 문건의 담화 대상에는 당중앙위 선전부, 당중앙위 조직부뿐만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의 담화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건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1960년대 후반 시기부터 김정일의 지도력을 높여 평가하려는 의도에서 문건을 확대 작성하여 수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973년이 되면 김정일의 당내 활동이 크게 강화됨을 『김정일선집』의 문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1973년부터는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 대한 연설 문건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로부터 1980년까지 김정일의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 대한 연설문건은 다른 문건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한다.(표 3-1)

특히 김정일의 연설이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에 머물지 않고 정무원 위원회와 부, 도당 책임비서, 도·시·군당 조직비서와 조직 부장에까지 미치고 있다.(표 3-1) 1974년부터 1980년까지 계속된 김정일의 전체 당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를 『김정일선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당사업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시기 김정일의 관심이 타부문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김정일의 주요 활동 목표가 당조직 장악과 후계 구축에 있었음을 읽을 수 있다.

<표 3-2> 연도별 담화 대상과 연설 대상(당중앙위=★)

연도	담화대상	연설대상
81	당비서 허정숙	도당책임비서협의회
82	★(2)/★, 정무원/로동신문사	★조직부,선전부(2)
83	★/김일성군사종합대정치부장	★조직부,선전부/★경제부서
84	상업부문	★(2)/인민군창건경축연회/교육 부문
85	★(3)	인민군지휘간부/★/★선전부
86	★(4)/문학예술부문/체육부문	★
87	집단체조창작가/★(2)/★선전부,문 학예술부문	★선전부(2)
88	★(4)/문학예술부문/★조직부,선전 부	★조직부
89	★(2)/★, 도당책임비서	★
90	★, 정무원/음악예술부문(2)/★(3)	★(5)
91	★	★,정무원
92	★(7)/경 제부문/문학예술부문/보 건부문	★
93	청년사업부문/★(3)/<근로자>담 화	
94	★(5)	
95	★(3)/조총련중앙상임위/<로동신 문>담화	
96	★(6)/청년동맹중앙위/룡문대굴/ ★선전부,문학예술부문/<근로자> 담화/<청년전위>담화	
97	★(4)/종합농장/구월산유원지	
98	자강도/량강도대홍단군/신천박물 관	
99	★	

1980년대에 들어서면 김정일의 주요 연설, 담화 대상이 바뀌게 된다. 당 6차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김정일은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 대한 연설과 담화를 크게 줄였다. 그 대신 당 중앙위원회에 대한 담화가 증가하고, 1990년대가 되면 당 중앙위원회에 대한 담화가 담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표 3-2) 이상과 같은 『김정일선집』의 담화와 연설 문건의 배치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김정일의 당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장악이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김정일의 지도활동은 김일성과 동격으로 표현된다. 김정일의 지도는 1987년까지 ‘실무지도’라 표현되었고, 1988년과 1989에는 ‘현지실무지도’라는 표현을 거쳐, 1990년부터는 김일성과 같은 표현인 ‘현지지도’로 표현된 것이다.²⁾ 1990년대의 『김정일선집』에서의 김정일의 담화와 연설은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문건 배치를 통해 김정일의 조선로동당 중앙 조직의 운영과 통치 행태에 대한 각종 증언 등을 검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김정일의 주요 담화·연설 대상의 변화

김정일의 문건 중에서 김정일의 일상적 논리 구조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담화와 연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문건 중에서 당중앙위원회나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일꾼들을 대상으로 한 문건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들 조직의 일꾼들은 북한 정권의 최고위 권력자들로서 북한 사회를 통치하는 김정일의 지시를 관철시킬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선집』에 실린 담화·연설 문건은 267편인데 이들 중에서 200

2) 이주철, 『김정일의 생각읽기』 (지식공작소, 2000), p. 37~38.

편(74.9%)이 당 중앙위원회(30%), 당중앙위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26.6%), 예술부문 일꾼(18.4%)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표 4> 연도별 대상별 담화·연설 건수

연도	당중앙위원회	당중앙위 선전선동부, 조직지도부	예술부문
64		1 ●	2 ●●
65	1 ●	2 ●●	
66	1 ●	1 ●	3 ●●●
67		3 ●●●	5 ●●●●●
68		1 ●	3 ●●●
69		2 ●●	5 ●●●●●
70		3 ●●●	4 ●●●●
71		3 ●●●	7 ●●●●●●●
72	1 ●	1 ●	1 ●
73	1 ●	4 ●●●●	2 ●●
74	2 ●●	7 ●●●●●●●	1 ●
75	4 ●●●●	4 ●●●●	2 ●●
76	1 ●	3 ●●●	
77		8 ●●●●●●●●	1 ●
78	1 ●	9 ●●●●●●●●●	5 ●●●●●
79	1 ●	5 ●●●●●	
80	1 ●	4 ●●●●	1 ●
81			
82	3 ●●●	2 ●●	
83	1 ●	1 ●	
84	2 ●●		
85	4 ●●●●	1 ●	
86	5 ●●●●●		2 ●●
87	2 ●●	3 ●●●	1 ●

88	4 ●●●●	2 ●●	1 ●
89	4 ●●●●		
90	9 ●●●●●●●●●		2 ●●
91	2 ●●		
92	8 ●●●●●●●●		1 ●●
93	3 ●●●		
94	5 ●●●●●		
95	3 ●●●		
96	6 ●●●●●●	1 ●	
97	4 ●●●●		
98			
99	1 ●		
	80(40%)	71(35.5%)	49(24.5%)

* 당중앙위 과학교육부, 청년사업부, 경제부서 일꾼과의 담화는 생략

먼저 김정일의 담화·연설 문건의 특징을 위 <표 4>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 위 <표 4>에는 김정일의 주요 담화 대상이 어떻게 변했는가가 잘 나타나 있다. 1971년까지 김정일은 주로 예술부문 일꾼들을 주 대상으로 담화와 연설을 했으며, 1973년부터 1980년까지는 당중앙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일꾼들을 주 대상으로 담화와 연설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82년 이후에는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을 주 대상으로 담화와 연설을 했음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김정일의 연설이 1993년부터는 수록되지 않았는데, 이 때부터는 김정일이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담화의 형식으로만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대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김정일선집』으로 보면 1981년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해였다. 1981년에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나 당중앙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 아무런 담화나 연설을 한 것이 수록되지 않았다. 그전의 10년간

을 보면 김정일은 최소 5회의 담화나 연설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유독 1981년에는 아무런 연설이나 담화가 나타나 있지 않고, 1982년부터는 당중앙위 조직부, 선전부에 대한 담화나 연설보다 당중앙위원회에 대한 담화가 뚜렷이 증가하였다.(표 4)

그러나 1981년에는 김정일이 이들 당 중앙조직에 아무런 담화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점의 문건들에 1980년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의 특별한 활동 내지 지시들이 진행되었고 문건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1982년을 계기로 김정일의 활동 중심이 당중앙위원회로 옮겨졌고, 김정일은 당중앙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 대해서는 지도의 방식을 변경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위 <표 4>에 나타난 결과는 김정일의 정치적 위상의 변화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김정일선집』의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김정일선집』의 담화와 연설의 차이

여기에서는 1982년 이후 당 중앙위원회에 대한 김정일의 담화와 연설을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이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1980년까지는 당 중앙위에 대한 담화와 연설 문건이 몇 편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김정일이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어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현재의 권력구조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표 5> 연도별 담화와 연설의 분량

연도	당중앙위원회*		당중앙위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문건 수	문건별 쪽수	문건 수	문건별 쪽수
82	3	14/ 8/ 8	2	15(연설)/ 8(연설)
83	1	9	1	51(연설)
84	2	24(연설)/ 22(연설)		
85	4	5/ 4/ 22(연설)/ 5	1	28(연설)
86	5	40(연설)/ 8/ 5/ 3/ 40		
87	2	26/ 24	2	26/ 19(연설)
88	4	5/ 14/ 9/ 16	2	31(연설)/ 7
89	4	24/ 9/ 51/ 26(연설)		
90	9	27/ 17(연설)/ 18(연설)/ 14/ 28(연설)/ 39(연설)/ 36(연설)/ 9/ 40(연설)		
91	2	39(연설)/ 41		
92	8	34/ 36/ 9/ 7/ 34/ 10(연설)/ 24(연설)/ 7		
93	3	27/ 10/ 11		
94	5	18/ 18/ 22/ 11/ 9		
95	3	7/ 4/ 4		
96	6	4/ 4/ 5/ 13/ 6/ 4	1	16
97	4	21/ 5/ 9/ 7		
98				
99	1	13		
		61	9	

* 당 중앙위원회는 당 중앙위원회와 정무원 일꾼들이 함께 했던 담화도 포함함

* 1981년은 당중앙위 관련 담화나 연설이 선집에 수록되지 않았음

* (연설) 표시가 없는 것은 담화의 쪽 수임

위 <표 5>를 정리하면 선집에 수록된 1982년에서 1999년까지의 당 중앙위와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에 대한 김정일의 담화는 55회이며, 「김정일선집」쪽 수로 786쪽이다. 그리고 연설은 20회에 쪽 수가 537쪽이다. 따라서 담화는 매회 평균 14.3쪽의 분량이며, 연설은 매회 평균 26.9쪽이었다. 또 1982년 이후 선집에 수록된 당 중앙위에서의 김정일의 담화와 연설의 분량으로 나누어 보면 담화는 47회에 평균 15.7쪽, 연설은 14회에 27.5쪽 이었다. 이상의 수치는 대체로 담화보다 연설이 2배가까이 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김정일의 연설은 주변의 서기들에 의해서 작성되는 반면, 김정일의 담화는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담화와 연설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담화후 서기들에 의해 작성된 문건이 연설에 비해 소략하다는 것은 김정일의 논리가 풍부한 독자적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담화와 연설 문건을 당 중앙위와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로 나누면 전자의 매 문건은 평균 18.4쪽, 후자의 매 문건은 평균 22.3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자료로 보면 당 중앙위위원회 일꾼들과의 담화와 연설이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일꾼을 대했을 때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김정일이 더 자신있게 많은 지도를 하는 분야가 당조직과 선전선동부문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하며, 당 중앙위의 실질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3. 『김정일선집』의 부문별 주제 분포와 변화

가. 주제분포로 본 『김정일선집』의 성격

지금까지 『김정일선집』의 기본적인 구성과 담화대상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김정일선집』이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서술하도록 한다. 『김정일선집』은 김정일의 실제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심사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몇 주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김정일선집』이 실질적인 김정일의 관심을 다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문화와 예술부문에 대해서는 6-70년대의 많은 문건이 남아 있고, 당사업부문에 대해서도 70년대 문건이 『김정일선집』에 다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군 최고사령관이 된 90년대 이후의 군 관련 문건과 김정일이 외교와 통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지었던 김일성 사망이후의 문건은 각각 2편에 불과하다. 이러한 『김정일선집』의 문건 배치는 적어도 8-90년대의 군, 외교, 통일 관련 문건이 편집에 배제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김정일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당 중앙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치는 정책 결정과정을 취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문건이 소수인 이유는 편집과정에서의 배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 부분은 『김일성전집』의 경우 『김일성저작집』에서 빠졌던 군사관련 문건이 편집되었다는 선례를 통해서 이해가 가능하다.

남북관계나 군사문제와 같은 부분에 대한 『김정일선집』의 문건은 김정일정권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는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김정

일의 논리를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선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선집」 문건의 주제는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군사외교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정치부문이 가장 많은 것은 김정일의 김일성에 대한 충성, 유일사상체제 구축과 사상교육, 당사업, 당 사상사업에 대한 문건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부문이 많은 것은 김정일이 특별히 관심을 쏟았던 영화부문과 각 문화예술 부문 일꾼에 대한 접촉이 많았기 때문이다.

<표 6> 「김정일선집」 문건의 시기별 주제 분포

	1964-1973	1974-1980	1981-1990	1991-1999	전체	문헌수
정치	23.3	48.3	44.0	45.0	40.1	136
경제	5.8	12.4	14.3	18.8	12.7	43
군사외교	8.1	6.7	4.8	2.5	5.6	19
(군사)	(7.0)	(5.6)	(3.6)	(2.5)	(4.7)	(16)
(외교)	(1.2)	(1.1)	(1.2)	(0)	(0.9)	(3)
사회문화	60.5	31.5	34.5	28.8	38.9	132
(사회)	(5.8)	(9.0)	(15.5)	(16.3)	(11.5)	(39)
(문화)	(54.7)	(22.5)	(19.0)	(12.5)	(27.4)	(93)
통일	2.3	1.1	2.4	5.0	2.7	9
계	100	100	100	100	100	339

* 위 표는 이교덕의 「김정일선집 분석」에서 누락된 1974년을 추가하여 보완작성한 것임.

위 <표 6>을 보면 1964-1973년을 제외하면, 김정일의 관심은 전 시기에 걸쳐 주로 정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집에 수록된 문건의 비율은 정치>문화>경제>사회>군사>통일>외교의 순서이다.

정치에 대한 문건 비율이 시기적으로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74-1980년간이다. 1974년의 문건을 제외하면 45.1%로 이후 시

기와 특별한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1974년의 문건을 포함하면 그 비율이 48.3%로 높아져서 1974년이 갖는 의미가 뚜렷해진다.

1974년은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고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선출된 시점이다. 이 때를 분기점으로 김정일의 정치에 대한 문건의 비율은 23.3%에서 48.3%로 증가한 것이다. 이상의 분야별 문건의 비율을 통해서 김정일의 역할과 관심사가 변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김정일선집』이 김정일의 실제 활동을 반영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정일의 정치적 위상이 변화하면서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분야는 문화분야를 들 수 있다. 문화분야는 1974년 이후에는 54.7%에서 22.5%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1년 이후에는 12.5%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경제와 사회에 대한 부분은 각기 1973년까지 5.8%에서 1991년 이후에는 18.8%와 12.5%로 증가하였다.(표 6)

주목되는 점은 군사에 대한 문건이 1973년까지의 7%에서 점차 감소하여 1991년 이후에는 2.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1980년대 말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1990년대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분야인 군사 관련 문건이 적다는 점은 『김정일선집』의 편집이 갖는 성격의 일단을 보여준다.

나. 「김정일선집」의 주제별 문헌 분포 정리

여기에서는 「김정일선집」의 주제가 각년도마다 어떻게 분포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자 한다.³⁾

문건의 주제는 크게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 문화로 나누었다.

다시 정치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과 당사업 관련, 사회주의건설 관련 문건으로 분류하였다. 경제는 경제건설, 생활향상, 농림수산업, 광공업, 과학기술로 나누었고, 군사외교는 군사, 외교, 통일, 조총련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사회는 근로단체, 청년, 여성, 교육, 인텔리, 언론으로 정리하였고, 문화는 문학예술, 영화연극가극,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체육, 민족문화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① 정치

정치 관련 문건은 크게 김일성에 대한 충성, 당사업 관련, 사회주의건설 관련 문건으로 나눌 수 있다.

김일성에 대한 충성 관련 문건은 충성·우상화, 주체사상, 유일사상, 당의 통일단결 문건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강조했던 1967년이 부각된다.(표 7-1)

3) 주제는 이교덕의 「김정일선집 분석」(통일연구원, 2001)의 부록에 수록된 주제별 문건 분류를 필자의 판단에 따라 비슷한 주제를 묶어 정리하였다. 그리고 1974년의 문건을 추가로 분류하여 포함하였다.

<표 7-1> 정치-김일성에 대한 충성 관련 문건 수

	충성			
	충성·우상화	주체사상	유일사상	당의 통일단결
65	●			
67	●		●●●	
71	●			
74	●	●		
75				
76		●		●
79				●
80	●●			
82	●●	●		●
83		●		
85	★★			●
86	★	★★		
90		★●		
92	★			
94	★●			
95	●			
96	★	●		

* ★ 표시는 1981년 이후 당중앙위원회 일꾼들과의 담화 문건임.

문건의 분포로 본다면 김정일의 주된 관심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과 우상화에 가장 큰 비중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964년 이후부터의 경우와 1981년 이후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에 대한 담화에서도 김정일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과 우상화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표 7-1)

주체사상이나 유일사상, 당의 통일단결을 강조하는 주체의 문건들도 기본적으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이들 문건의 주제 구별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7-2> 정치-당사업 관련 문건 수

	당				
	사업 일반	정책 관철	사업 방법	사상사업	당생활/간부양성
65			●		
67				●●	
68				●	
69			●	●	
70				●	●
71	●		●		●
72					
73				●●●●	●
74	●●●●			●●●●●	
75	●●		●●		
76	●●		●	●	
77	●●●●	●	●●●●	●	
78	●●●●●	●●	●	●●	
79	●	●●	●●		●
80	●●				●
81	●			●	●
83	●				●
84	●				
85				●	
86	●			●	●
87				●	
88	●			★	★●
89	★●				
90	★●●		●	●	
91	●●		★	●●	●
92	★●●			●	●
93	★				
94	★★				★
95	●			●	
96				★	★
97	★			★	●
98				●	

* ★ 표시는 1981년 이후 당중앙위원회 일꾼들과의 담화 문건임

<표 7-2>에 보여주듯이 수치가 뚜렷하게 의미를 보여주는 것은 김정일의 당사업 관련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의 문건을 주제 별로 분류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사업 관련 문건이다. 이처럼 김정일의 문건이 집중된 다른 주제는 1968년부터 71년까지 나타나는 영화와 관련된 주제이다.

따라서 1973년부터 79년까지 김정일의 모든 관심은 당사업과 당 사상사업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일의 당사업과 당 사상사업에 대한 관심은 동구와 소련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한 90년, 91년, 92년 간에 다시 나타나지만, 문건의 집중도는 70년대 중반에 비해 작다.

<표 7-3> 정치-사회주의건설 관련 문건 수

연도	문건 수
82	3 ★●●
83	1 ●
84	1 ●
87	2 ★★
89	1 ●
90	5 ★★●●●
91	2 ★●
92	10 ★★★★★●●●●●
93	3 ★●
94	3 ★★●
95	3 ★●●
96	1 ★
97	1 ●
99	1 ★

* 이교덕의 분류에서 반제투쟁, '우리식사회주의'고수, 체제 우월성, 사법치안 관련 문건 포함.

* ★ 표시는 1981년 이후 당중앙위원회 일꾼들과의 담화 문건임.

<표 7-3>을 보면 『김정일선집』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하는 문건은 90년과 92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김정일선집』에서는 반제투

쟁, ‘우리식 사회주의’고수, 체제 우월성, 사법치안 관련 문건이 이 주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문건 분포는 1990년 전후의 동구와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전체 문건을 볼 때 김정일이 그동안 보여준 관심은 기본적으로 당조직을 통한 권력장악, 체제유지를 통한 권력유지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일의 관심이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강조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1981년 이후 김정일의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에 대한 담화는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것이 양적으로 가장 많고(17편), 당사업 관련(14편), 김일성에 대한 충성 관련(9편), 경제 관련(9편), 군사·외교·통일 관련(3편), 사회 관련(3편), 문화 관련(3편)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김정일의 체제와 권력 유지를 위한 관심의 집중은 약 30년 간에 걸쳐 나타난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추후에도 이런 모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② 군사·외교·통일

<표 8>에서 보듯이 군사, 외교, 통일 등에 대한 김정일의 문건은 많지 않다. 이 분야는 김일성이 말년에도 주로 관여했던 부문인 것에도 이유가 있으며, 군사 관련 핵심 문건은 『김정일선집』 편집 과정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표 8> 군사, 외교, 통일 관련 문건 수

	군사	외교	통일	조총련
64	●			
65		●		
66				●
68	●●			
69	●			
72	●		●	
73	●			
74	●			
75	●			●
79	●●●			
80		●		
82			★	
83	●	●		
84	●			
85	●	●	●	
89			●	
90				★
92	★●	●		
93	●			
95				●●
97			●	
98			●	

* 이교덕의 분류에서 군공업 1편을 군사에 포함

* ★ 표시는 1981년 이후 당중앙위원회 일꾼들과의 담화 문건임.

③ 경제

<표 9>에 나타난 수치로 본다면 김정일의 경제에 대한 관심은 정치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래 북한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고,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도 근본적으로는 경제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김정일은 경제문제를 본질로 이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9> 경제관련 문건 수

	경제건설	인민생활향상	농림수산업	광공업	과학기술
64			●		
65		●			
67		●	●		
71	●				
73					●
74	●●	●			
75	●●●●		●		
76	●●	●	●		
77					
78	●●●●●			●	
80			●		
82	●●		★		
83		★			
84	●	●●			
85	●	●			●
86	●●				
88		★			
89	●				
90	●			●	
91	●			●	●
92	●	●●	●	●	
94		★			
95	★				
96	★●				
97	★●●		★●		
98	●	●	●		
99	★				

* 이교덕의 분류에서 노동, 국토관리, 재정, 무역관련 7건의 문건은 경제건설에 포함.
 * 의료보건, 상업, 봉사 관련 6편의 문건은 인민생활향상에 포함.
 * ★ 표시는 1981년 이후 당중앙위원회 일꾼들과의 담화 문건임.

<표 9>에서 경제에 관한 문건으로 분류하지 않은 문건도 김정일이 경제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는 다수 있다. 하지만 중심 주제에 따른 문

건 분포로 본다면 위 <표 9>의 분류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표 9>를 보면 1992년과 1997년에 김정일은 경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가 특정 부문에 대해 관심을 집중할 때 보여주던 것과 같은 집중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사회

<표 10>에서 보듯이 김정일의 사회관련 부문에 대한 관심은 청년, 교육, 언론의 순서로 주어졌다. 청년과 교육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가장 큰 관심이 청년과 교육에 주어져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1981년 이후 당중앙위원회 일꾼들과의 담화에서도 청년에 대한 주제가 두 차례 이어진 것은 체제유지를 위해 김정일이 청년 집단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⑤ 문화

<표 11>을 보면 김정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영화연극에 집중되어 있음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68년부터 71년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 김정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줄어들고, 1990-92년 간에 증가한다. 이 부분은 동구와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따른 선전선동에 대한 관심의 제고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3년 이후에는 다시 관련 문건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체제위기의 심화에 따라 타 부문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김일성의 사망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사회 관련 문건 수

	근로단체	청년	여성	교육	인텔리	언론
64		●				●
65						
66		●		●		●
67		●				●
69					●	
71		●		●		●
72			●●			●
73				●		
74						●
75	●	●	●	●		
76	●					
77						●
78						●
79						●
81	●	●		●		
82		●				●
84	●			●●		
85	●●					
86	●			●		
88		★				
90		●			●	
91				●●		
92		●			●	
93		★●				
95		●	★			
96		●●		●		
97		●		●●		
99		●				

* ★ 표시는 1981년 이후 당중앙위원회 일꾼들과의 담화 문건임.

<표 11> 문화 관련 문건 수

	문학예술	영화연극가극	음악	무용	미술	건축/ 도시	체육	민족문화
64	●	●						●
66	●	●●						
67	●●●	●	●					
68		●●●	●					
69		●●●●						
70	●●	●●●●						●
71	●●●	●●●●●●●●						
72	●	●	●		●		●	
73		●●					●	
74	●	●						
75	●	●●	●●	●●		●		●
76								
77		●						
78		●●	●●	●●●				
79		●						
80	●	●						
81	●							
82	●							
86	●					★	●	
87	●						●	
88		●						
89							★	
90			●●	●				
91			●		●	●		
92	●●	●				●		
93			★					
96	●							

* 연극, 가극 관련 문건은 10편임/ 민족교예, 집단체조 관련 2편의 문건은 체육에 포함.

* ★ 표시는 1981년 이후 당중앙위원회 일꾼들과의 담화 문건임.

다. 「김정일선집」당중앙위원회 일꾼과의 담화 분석 - 사회주의건설 관련 문건을 중심으로

「김정일선집」 중에서 김정일이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을 대상으로 사회주의건설과 관련된 담화를 한 문건은 다른 어느 문건보다도 김정일의 논리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의 담화를 보면 김정일이 생각하는 사회주의건설은 ‘김일성체제’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 사실 후계자가 된 김정일에게 ‘사회주의건설’은 곧 ‘김일성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할 수 있다.

위 <표 12>에 나타난 문건에서 볼 수 있는 김정일의 ‘수령(김일성)’ 거명은 김정일의 김일성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의존도’를 보여주는 수치로 이해할 수 있다.

위 <표 12>에 의하면 김정일이 가장 많이 ‘수령(김일성)’을 거명한 것은 김일성의 80회 생일이 있던 1992년 4월과 김일성 사후 100일이 되는 94년 10월 16일의 문건이다. 이 두 개의 문건은 김일성과 관련된 특별한 날의 문건이므로 김일성에 대한 김정일의 회고나 찬양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며 의존도 자체를 보여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두 개의 문건을 제외하고 보면, 1992년 이후 추세적으로는 약간 김일성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아직 뚜렷하지 못하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북한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상당한 관계가 있지만,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현재의 문건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며, 좀 더 많은 문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한다면 또 다른 의미를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2> 사회주의건설 관련 담화 문건에서의
‘김일성·수령’ 거명 회수

날짜	문건 제목	‘수령’·‘김일성’ 거명 회수		문건 쪽수
		계	쪽당 평균	
82.9.9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57	7.1	8
87.9.25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9	0.35	26
87.10.10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62	2.5	25
90.1.1	당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 1990년대를 빛내이자	18	0.7	27
90.10.25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	0	0	9
91.5.5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47	1.1	41
92.1.1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105	3.1	34
92.2.4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13	1.9	7
92.4.1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 나가자	237	7	34
92.11.14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다	13	1.9	7
93.2.17	당사업과 경제사업에 힘을 넣어 사회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33	1.2	27
94.10.16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176	8	22
94.12.31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	14	1.6	9
95.1.1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20	2.9	7
96.1.14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7	1.8	4
99.1.1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8	0.6	13

4. 맺음말

본고는 「김정일선집」에 수록된 문헌들을 분석하여 「김정일선집」의 문헌 구성, '김정일의 주요 담화·연설 대상의 변화', 「김정일선집」의 부문별 주제 분포와 변화'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상의 분석과 정리는 김정일의 논리가 가지는 '패턴'을 찾아내고자 하는 작업의 선행작업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 작업은 필자의 노력 부족으로 본래 목적인 바에 접근하지 못하고 양적 분석에서 그치고 말았다.

최근 김정일정권이 보여주는 경제면에서의 정책적 변화는 그동안 김정일이 주장해 왔던 것과 부분적으로는 달라진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김정일 정권은 '북체외용(北體外用)'이나 '북도서기(北道西器)'의 논리 선상에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에서 김정일정권은 과감하고 전면적인 개혁 자체를 시도할 의지와 구조, '성공에 대한 확신' 모두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화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며, 「김정일선집」에 깔려 있는 논리들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동안 북한사회의 지침으로 기능할 것이다.

「김정일선집」의 효용성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김정일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은 보다 진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의 '논리 변화', '논리 전개방식', '논리의 근거와 사실성', '전문성과 책임성', '지시의 적절성과 대안 제시 능력', '김정일의 심리적 성향' 등도 함께 정리될 필요가 있다.

■ 필자소개(집필자순)

● 서재진(徐載鎭)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미국 하와이대 사회학 박사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역임
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식량난에서 IT산업으로: 변화하는 북한」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 김창근(金彰瑾)

단국대학교 정치학박사
현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 이해의 길잡이」(공저)
「김정일연구: 리더십과 사상(Ⅰ)」(공저)
“북한의 위기와 김정일정권의 변화수용 방식 연구”
“북한 당·정·군 권위관계의 변화”

● 박형중(朴炯重)

독일 마부룩 대학 정치학박사
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북한의 변화 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
「북한의 정치와 권력」

● 최진욱(崔鎭旭)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신시내티대 정치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대북한행정론」
「통일논의의 변천과정」(공저)
「통일한국의 권력구조」

● 김영윤(金瑩允)

독일 브레멘대학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 경제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후 북한 토지소유제도 개편방안」

「남북한 금융분야 협력방안」

「북한의 산업입지와 남북협력: 첨단기술산업 분야 중심」

● 임강택(林崗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올바니) 경제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대북 경제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

● 박영호(朴英鎬)

미국 신시내티대 정치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현 미국 허드슨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남북한 평화공존과 대북정책」

「미국의 국내정치와 대북정책: 지속성과 변화」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 임순희(林順姬)

숙명여대 정치학과 졸업

동 대학원 정치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북 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북한의 대중문화: 실태와 변화 전망」

「북한문학의 김정일 ‘형상화’ 연구」

● 김수암(金壽岩)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연구기획부장)

「북한인권백서」(공저)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대응 연구”

“국제사회의 인권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조한범(趙漢凡)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사회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연구」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상 연구」

● 이우영(李宇榮)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동 대학원 사회학 박사
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탈분단시대를 열며」(공저)

● 전영선(全永善)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동 대학원 문학 박사
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조교수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
「김정일 문예관 연구」(공저)
「북한의 대집단체조예술공연 ‘아리랑’의 정치사회적·문학예술적 의미」

● 진희관(秦熙官)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 졸업
日 立命館大學 특별연구원 역임(Post-Doctor)
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북한학입문』(공저)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공저)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Peace Studies (ed.),
Kim Dae-Jung Government: The Sunshine Policy, Seoul:
Millenium Books, 1999(공저)

● 이주철(李周哲)

고려대 졸업

고려대 대학원 석사, 박사(북한정치사 전공)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

현 KBS 연구원,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고려대 강사

『김정일의 생각읽기』

『북한 TV 드라마 연구』

“북조선로동당의 당원과 그 하부조직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